

한영
대역

적벽가
바디벌 전집 2

유성준 바디 · 김연수 바디

Yu Seong-jun Version Jeokbyeokga
(Sung by Im Bang-ul)
Kim Yeon-su Version Jeokbyeokga
(Sung by O Jeong-suk)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병가 바디벌 전집2

2011년 11월 25일 인쇄

2011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전산 : 오석형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929-8 04810

978-89-5925-927-4 (전3권)



전병가

바디별 전집 2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관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 2010년에는 〈수궁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적벽가〉 다섯 바탕과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 그리고 단가를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적벽가 바디별 전집》(1-3), 《심청가 바디별 전집》(5), 《관소리 단가》의 다섯 권으로 책을 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사업은 끝을 맺는다.

올해 제작한 적벽가 다섯 바탕은 박동진 바디, 송만갑 바디, 정웅민 바디, 김연수 바디, 유성준 바디이다. 이 중에서 유성준 바디는 현재 거의 부르지 않고 있지만, 임방울이라는 대명창의 〈적벽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올해 특별히 단가를 포함시킨 것은 관소리 속에는 당연히 단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를 보충한 것은 정웅민 바디는 정권진,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이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뺨 경우 자막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다섯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5년간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책으로 치면 스물한 권이다. 해마다 시간에 쫓기어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렇다고 머뭇거리기만 할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말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결과물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과감하게 도전에 나선 용기만은 가상하다고 보아주신다면 고맙겠다.

판소리는 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판소리는 흥행예술이다. 그런데도 판소리가 흥행예술로서는 이미 생존을 마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연대회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옛 명창들은 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재 빈 자리가 많이 생겼는데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했던 판소리 바디들이 자꾸만 줄

어둔다. 이렇듯 상황은 분명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안타깝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그 희망의 작은 불씨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한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 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 다시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늘 쓸쓸하지만, 올 가을만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깊은 가을날에
지은이 씀

차 례

■ 책머리에•4

* 유성준 바디 적벽가(임방울 창)

1. 공명의 지략	14
2. 조조 호기	20
3. 군사 설움 1	22
4. 군사 설움 2	26
5. 군사 설움 3	30
6. 군사 호기	32
7. 오작남비	36
8. 조조 제장 분발	38
9. 주유 탄식	40
10. 공명 동남풍 기원	42
11. 조자룡 탄궁	46
12.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54
13. 관운장 출전	58
14. 화공	62
15. 새타령	70
16. 조자룡 피해 도망	76
17. 조조 장비 피해 도망	78
18. 장승타령	82

19. 조조 험담	86
20. 군사 점고	92
21. 관운장 출현	102
22. 조조 애걸	108
23. 조조 살아 돌아감	116

*** 김연수 바디 적벽가(오정숙 창)**

1. 서서 하직	176
2. 삼고초려 1	180
3. 삼고초려 2	182
4. 장비의 급한 성질	186
5. 공명의 유비 영접	188
6. 유비 간청	190
7. 박망파 전투	192
8. 노숙 공명을 만남	198
9. 공명이 오나라로 건너감	202
10. 공명, 주유 조롱	204
11. 공명의 계책	208
12. 조조로부터 화살을 얻음	212
13. 조조 호기	214
14. 군사들 노는 모양	218
15. 군사 설움 타령 1	218
16. 군사 설움 타령 2	220
17. 군사 설움 타령 3	224

18. 군사 설움 타령 4	228
19. 군사 호기	232
20. 오작남비	234
21. 조조 장수 분발	234
22. 주유 탄식	238
23. 공명 동남풍 기원	240
24. 공명 하산	244
25. 조자룡 탄궁	246
26.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254
27. 관운장 항의	258
28. 전투 준비 완료	258
29. 화공	264
30. 오림 패주	270
31. 조조 조자룡에게 패퇴	272
32. 조조 신세 한탄	274
33. 조조 밥 재촉	276
34. 조조 장비에게 패퇴	278
35. 조조 장승 보고 놀람	282
36. 장승 문초	284
37. 장승타령	286
38. 조조 험담	290
39. 군사 점고	294
40. 허무적이	298
41. 골내종이, 등덩바리	300
42. 마병 딜렁쇠	304

43. 복통쇠	306
44. 옹돌쇠	308
45. 옹돌쇠의 거짓말	310
46. 새타령	314
47. 정옥 탄식	318
48. 조조 웃음	320
49. 관운장 출현	322
50. 조조 목숨 애걸	324
51. 관운장 호령	326
52. 조조 애걸	330
53. 주창의 재촉	332
54. 조조를 살려주고 죄를 청함	334
55. 관운장 용서	336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임방울 창

Sung by Im Bang-ul

1. (공명의 지략) 유비를 따라 세상에 나온 공명은 오나라로 건너가 조조를 물리칠 여러 가지 계략을 준비한다.

[아니리] 대한시절¹⁾에 황위²⁾ 유약³⁾하고 군도⁴⁾ 병발하니,⁵⁾
간흉⁶⁾허다 조맹덕⁷⁾은 천자⁸⁾를 가칭⁹⁾하여 천하¹⁰⁾를 엿보았고,
범람타¹¹⁾ 손중모¹²⁾는 강하¹³⁾의 협고¹⁴⁾ 믿고 천하¹⁵⁾를 탐심하며,¹⁶⁾
창의하다¹⁷⁾ 유현덕¹⁸⁾은 종사¹⁹⁾를 돌아보아 혈성²⁰⁾으로 구치하니,²¹⁾
충간²²⁾이 공립²³⁾허고, 정족²⁴⁾이 삼분할 제,²⁵⁾
모사²⁶⁾는 구름 뒤편 허고,²⁷⁾ 명장²⁸⁾은 봉기²⁹⁾로다.
북위³⁰⁾ 모사 정욱³¹⁾ · 순욱³²⁾ · 순문약³³⁾이며,
제일 명장 조인,³⁴⁾ 장요,³⁵⁾ 하후돈³⁶⁾과 허저,³⁷⁾ 장합³⁸⁾이며,
동오³⁹⁾ 모사 노숙⁴⁰⁾ · 장소⁴¹⁾ · 제갈근⁴²⁾과
제일 강장⁴³⁾ 주유⁴⁴⁾였고, 태사자,⁴⁵⁾ 황개,⁴⁶⁾ 여몽,⁴⁷⁾ 감녕이며,
서한⁴⁸⁾ 모사 제갈공명⁴⁹⁾ 경천위지⁵⁰⁾ 무궁조화⁵¹⁾ 강자의 계략⁵²⁾이
며, 장자방⁵³⁾의 운주⁵⁴⁾요,
제일 명장 늑름⁵⁵⁾ 관운장⁵⁶⁾과, 표표한⁵⁷⁾ 장익덕⁵⁸⁾과, 당당한⁵⁹⁾ 조
자룡⁶⁰⁾은 선후⁶¹⁾에 노련⁶²⁾이요, 장부⁶³⁾의 자격이라.
승패 변복⁶⁴⁾하니 이 아니 천운⁶⁵⁾이라?

1. (Kong Ming's(孔明) Strategy) Kong Ming(孔明) follows Liu Bei(劉備) out of seclusion, goes to Wu(吳) Country, and prepares several strategies to defeat Cao Cao(曹操).

[Aniri] At the end of the Han(漢) Dynasty, the emperor was weak and rebellious forces arose.

Wicked, Cao Cao(曹操) claims to be the emperor and tries to obtain the world.

Getting above himself, Sun Quan(孫權) relies on the treacherous territory of Jiangxia(江夏) and is determined to become an emperor.

Raising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Liu Bei(劉備) visits many places conscientiously.

Loyal and wicked subjects coexist, and China is divided into three countries.

Strategists gather like clouds, and great warriors rise up.

Cheng Yu(程昱), Sun You(荀攸), and Sun Yu(荀彧) are the strategists of Wei(魏) Country.

High generals are Cao Ren(曹仁), Zhang Liao(張遼), Xia Jiao Dun(夏侯惇), Xu Chu(許褚), and Zhang He(張郃).

Lu Su(魯肅), Zhang Zhao(張昭), and Zhu Ge Jin(諸葛瑾) are the strategists of Wu(吳) Country.

High generals are Zhu Yu(朱瑜), Tai Shi Ci(太史慈), Huang Gai(黃蓋), Lu Meng(呂蒙), and Gan Ning(甘寧).

Kong Ming(孔明), a strategist of the Han(漢) Country in the west, has a grand plan to rule the world like Zhang Zi Fang(張子房).

High generals are stately Guan Yu(關羽), fierce Zhang Fei(張飛), confident Zhao Zi Long(趙子龍). They are veteran warriors and true men.

They are fated to win and lose war.

[중모리] 박망⁶⁶⁾에 소둔⁶⁷⁾하고, 백하⁶⁸⁾에 엄몰⁶⁹⁾하니, 장담하던 하후
 둔⁷⁰⁾과 승기내던⁷¹⁾ 조인⁷²⁾ 등은 기창도주⁷³⁾ 패한 분심,⁷⁴⁾
 조조⁷⁵⁾의 어린⁷⁶⁾ 마음 백만대병⁷⁷⁾ 조발하여⁷⁸⁾ 수륙으로 병행하니,
 원성이 창천이요,⁷⁹⁾ 인심이 소요로다.⁸⁰⁾ 남도⁸¹⁾ 접전⁸²⁾하야 강약이
 부동⁸³⁾하니,
 현덕⁸⁴⁾ 공명 영결⁸⁵⁾들도 강하⁸⁶⁾에 영병⁸⁷⁾ 모으니,
 사상둔류⁸⁸⁾ 손권⁸⁹⁾ 주유⁹⁰⁾ 그 일 즐겨 아니하랴?
 이때에 공명의 높은 이름 손권 주유가 높이 들고,
 노숙이 빨리 나와 공명을 뵈온 후에 좋은 말로서 유인커늘,
 공명 깊은 지혜 거짓 속는 체하고 가기로 허락 후 현주전⁹¹⁾ 하직하니,
 현주 대경탄왈⁹²⁾ “분분한 천하득실⁹³⁾ 선생만 민삽는데⁹⁴⁾ 출타국⁹⁵⁾
 이 웬일이시오? 심량처분⁹⁶⁾하옵소서.”
 공명 다시 꿇어 여짜오되, “이때를 헤아리니 오왕손권⁹⁷⁾하고 위견조
 조⁹⁸⁾허니 한실⁹⁹⁾이 미약이라.
 신이 이때를 타 오나라 들어가서 손권과 주유를 격동하여¹⁰⁰⁾ 주유와
 한 번 싸움을 붙이고,
 신은 도주이환¹⁰¹⁾하야 중도이기¹⁰²⁾하오면,
 오·위 양국¹⁰³⁾ 형세¹⁰⁴⁾를 일안에¹⁰⁵⁾ 도취하여¹⁰⁶⁾ 좌이득공¹⁰⁷⁾할 때
 오니, 현주는 염려치 마옵시고

[Jungmori] Confident Xia Jiao Dun(夏侯惇) and triumphant Cao Ren(曹仁) are defeated in Bowang(博望) by fire and in the Baihe(白河) River by water. They throw away their spears and run away, angry.

Stupid, Cao Cao(曹操) raises a million troops, establishing both army and navy against Liu Bei(劉備).

The people are resentful and unstable. Different forces confront each other in the south.

Liu Bei(劉備), Kong Ming(孔明), and other heroes mobilize a military in Jiangxia(江夏).

Wouldn't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in Chaisang(柴桑) enjoy watching them?

Meanwhile,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hear about Kong Ming's(孔明) high reputation.

Lu Su(魯肅) meets with Kong Ming(孔明) quickly and lures him to join Wu(吳) Country.

Wise, Kong Ming(孔明) pretends to be persuaded, decides to go to Wu(吳) Country, and says goodbye to Liu Bei(劉備).

Surprised, Liu Bei(劉備) says, "I am relying on you at this important moment. How can you visit a foreign country? Please reconsider."

Kneeling down, Kong Ming(孔明) says, "This is the current situation. Sun Quan(孫權) is the king of Wu(吳) Country. Cao Cao(曹操) is the king of Wei(魏) Country. The Han(漢) Country is weak.

What I will do at this moment is to go to Wu(吳) Country, instigating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to fight against Cao Cao(曹操).

I will flee from them, come back, and mobilize the military in the middle.

I will achieve something easily by getting the two countries fight each other. Your Majesty, don't worry.

일엽선¹⁰⁸) 자룡에게 군사 주어 금¹⁰⁹) 동짓달 이십일 남병산하¹¹⁰) 오
강¹¹¹) 어구¹¹²)로 보내되, 삼가¹¹³) 잊지 마옵소서.”

하직코 물러나와 공명의 거동을 보아라.

머리 위에는 팔각 윤건¹¹⁴)이요, 몸에는 학창의¹¹⁵)요,

백우선¹¹⁶) 높이 들고 오나라 들어갈 제 일엽편주¹¹⁷) 급하도다.

노숙이 인도하여 관역¹¹⁸)에 안혈할새,¹¹⁹)

공명이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아관박대¹²⁰) 장소¹²¹) 등 십여
인¹²²)이 앉았구나.

예필¹²³) 후에 공명더러 묻는 말이, “선생이 관중악의지재¹²⁴)를 흥
중¹²⁵)에 품었다 하되,

유예주¹²⁶)는 선생 얻기 전과 더함이 없사오니, 그리하고 어찌 장자
방¹²⁷)의 재주에 비견¹²⁸)하리?”

공명이 대답하되, “붕비만리 군조가 기지하지리오?”¹²⁹)

십여 인 장수 등이 대답지 못하거늘, 만고¹³⁰)에 높은 말은 어이 아니
기이하리?

손중모¹³¹)의 회의¹³²)함을 (이용하여) 주유를 격동하여¹³³) 공명이 말
을 할 제 대지략¹³⁴)이 무궁하니,

주유 부질없이 시기를 하여 저 죽을 줄을 모르고 욕살공명¹³⁵) 가소롭다.

삼일위한¹³⁶) 십만전¹³⁷)을 일야무중소득허니¹³⁸)

공명의 높은 재주는 귀신들도 난측¹³⁹)이라.

Please give a small boat to Zhao Zi Long(趙子龍) and send him to the mouth of the Wu(吳) River at the bottom of Nanping(南屏) Mountain on November 20th. Please don't forget."

Kong Ming(孔明) says goodbye and departs. Behold him.

On his head is an eight-sided divine hood, and on his body is a large coat with wide sleeves.

He holds up high a fan made of white feathers. His small boat moves swiftly and arrives at Wu(吳) Country.

Kong Ming(孔明) is led by Lu Su(魯肅) to a government office, where he takes a rest.

He raises his head and takes a look around. Several officials, including Zhang Zhao(張昭), are sitting around.

After the greetings, they ask Kong Ming(孔明), "Sir, we've heard you are as wise as Guan Zhong(管仲) and Le Yi(樂毅).

But Liu Bei's(劉備) situation hasn't gotten better after he obtained you. How can you be as smart as Zhang Zi Fang(張子房)?"

Kong Ming(孔明) replies, "How could a little bird understand the thoughts of a big bird?"

A dozen of generals can't respond to him. His unmatched words are extraordinary.

Sun Quan(孫權) believes that he can't beat Cao Cao(曹操). Making use of the belief, Kong Ming(孔明) incites Zhu Yu(朱瑜) with numerous strategies.

Jealous of Kong Ming(孔明), Zhu Yu(朱瑜) dares to plot to kill Kong Ming(孔明) in vain without knowing he might be killed himself, which is ridiculous.

Kong Ming(孔明) gets 100,000 arrows on a foggy night under the promise to get them in three days.

Even a god cannot fathom Kong Ming's(孔明) ability.

2. (조조 호기) 조조가 전투를 앞두고 병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호기를 부린다.

[아니리] 방통¹⁴⁰)의 연환계¹⁴¹)와 황개¹⁴²)의 교육계¹⁴³)인들
공명 기품 아닐진대 그 뉘라 성공하리? 이때에 조조는,
[진양조] 천여 척 전선¹⁴⁴)으로 강상육지¹⁴⁵) 삼아 놓고,
말 달려 창 쓰기와 십팔기¹⁴⁶) 사습하기,¹⁴⁷) 활 쏘아 마상출전¹⁴⁸) 만
군중¹⁴⁹)이 요란할 제,
조조 보고 대희¹⁵⁰)하여 군중¹⁵¹)에 영¹⁵²)을 하되, 우양¹⁵³)을 많이 잡
아서 만진장졸¹⁵⁴)을 호군¹⁵⁵)할 제,
이때는 어느 뎨고? 동¹⁵⁶) 십일월 십오야¹⁵⁷)라. 천기¹⁵⁸) 청명¹⁵⁹)하고,
풍랑¹⁶⁰) 안정¹⁶¹)하니
동산월색¹⁶²)은 여동백일¹⁶³)이요, 장강 일대¹⁶⁴)는 여황소런¹⁶⁵)이라.
좌우에 모인 수백 인은 금수전포¹⁶⁶)에 검극¹⁶⁷)이 서리 같고,¹⁶⁸)
남병산색¹⁶⁹)은 채색이 영롱하여 그림병¹⁷⁰)을 들렀난디,
“동을 가리켜¹⁷¹) 시상¹⁷²)이요, 서를 보니 하구성¹⁷³)이요,
남을 보니 번성¹⁷⁴)이요, 북을 보니 오림¹⁷⁵)이라.
사면이 광활¹⁷⁶)하니 이 아니 즐거우냐?
내 기병¹⁷⁷) 이래로 맹세하기를, 온 사해¹⁷⁸)를 보니 평정하되 미득지
강남¹⁷⁹)이로구나.”

2. (Cao Cao(曹操) Bears Himself Haughtily.) Before the combat, Cao Cao(曹操) bears himself haughtily, throwing a party for his soldiers.

[Aniri] Pang Tong(龐統) made the plot to burn the enemy's ships after telling them to tie the ships with chains. Huang Gai(黃蓋) made the plot to sacrifice himself to deceive the enemy. Those plots could not succeed without Kong Ming's(孔明) plan. Meanwhile, Cao Cao(曹操) prepares to fight too.

[Jinyangjo] Cao Cao(曹操) makes thousand ships become the land on the river.

Soldiers are noisy, practicing using spears from their horses, performing martial arts, shooting arrows, and riding horses. Pleased to watch them,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to kill a lot of cows and sheep to feed his officers and soldiers. When is it now? It is a day of the full moon in winter. It is clear and bright. The waves are gentle.

The moon over the east mountain is as bright as the sun. The Yangzi(揚子) River looks like a sheet of white silk.

Soldiers in silk military uniforms hold fearsome swords and spears.

Nanping(南屏) Mountain is of diverse brilliant colors, looking as though it were covered by a folding screen.

"In the east is the entrance of Chaisang(柴桑) Castle, in the west the border of Xiakou(夏口) Castle,

in the south Fan(樊) Castle, and in the north Wulin(烏林) Forest. A vast open field in every direction gives rise to a pleasant feeling!

Since I mobilized an army, I promised to conquer the whole of China, but I haven't yet obtained the southern region.

조조 술이 반취하여¹⁸⁰⁾ 강남을 가리켜 가로되,
 “남안¹⁸¹⁾의 주유 노숙이 천시¹⁸²⁾를 불식¹⁸³⁾이라.
 내 진중 투항인지 저의 심복¹⁸⁴⁾ 근심이로구나. 하늘이 나를 위하여
 도움이 분명하고,
 하구¹⁸⁵⁾의 현덕 공명 수중 위에 기거¹⁸⁶⁾하고 태산을 늑감¹⁸⁷⁾하니 그
 뜻이 어리도다.¹⁸⁸⁾
 내 나이 오십사 세라. 여득강남이면¹⁸⁹⁾ 향부귀¹⁹⁰⁾와 낙태평,¹⁹¹⁾
 동작대¹⁹²⁾ 좋은 집에 이교녀¹⁹³⁾의 뜻을 받아 모년향락¹⁹⁴⁾이 나의 원
 에¹⁹⁵⁾ 족할지라.¹⁹⁶⁾
 어와, 장졸들아, 영¹⁹⁷⁾ 들어라. 너희들도 술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치고,¹⁹⁸⁾
 위한¹⁹⁹⁾ 승부를 사생을 결단하여라.²⁰⁰⁾ 사백 년 한실²⁰¹⁾ 운이 거의
 진케²⁰²⁾ 되었으니,
 득천하²⁰³⁾한 연후에²⁰⁴⁾ 부귀영화를 한가지로²⁰⁵⁾ 누리리라.” 만진장
 줄²⁰⁶⁾들이 주육²⁰⁷⁾을 쟁식²⁰⁸⁾하고,

3. (군사 설움 1) 병졸들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제각기 노는데, 한 군사가 부모를 그리워하며 운다.

[아니레] 저희들끼리 유유상종²⁰⁹⁾으로 그날 잔뜩 먹고,
 패패이²¹⁰⁾ 갈라 앉아서 재미있게 노는디, 광경이 여러 가지이던 것이었다.
 한 편을 바라보니,
 [중모레] 노래 불러 춤추고 노는 놈, 설움겨워²¹¹⁾ 곡²¹²⁾하는 놈,
 이야기로 흐흐 하하 웃기는 놈, 투전²¹³⁾하다가 돈을 많이 잃고 개
 평²¹⁴⁾을 달라고 다투는 놈,

Half-drunk, Cao Cao(曹操) points to the southern region and says,
 “Zhu Yu(朱瑜) and Lu Su(魯肅) in the south don’t know about the opportunity from heaven.
 I am worried that their right-hand man really surrendered to me. Heaven must be helping me.
 Foolish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at Xiakou(夏口) rely on Sun Quan(孫權) and dare challenge me.
 I am now fifty four. If I obtain Jiangnan(江南) region, I will enjoy wealth, power, and peace.
 I will live in Tongque(銅雀) Tower with two Qiao(喬) sisters happily in my old age.
 Officers and soldiers! Listen to my order! Help yourselves to wine and rice cake.
 Let’s put an end to the fight between Wei(魏) and Han(漢) Countries. The four hundred year old luck of the Han(漢) Dynasty is running out.
 After obtaining the world, we will prosper together.” Soldiers eat food and meat in competition.

3. (A Soldier’s Sad Song 1) Soldiers have fun, helping themselves to wine and meat. A soldier laments, missing his parents.

[Aniri] Soldiers eat to their satisfaction together.
 They have fun together in groups, creating diverse scenes.
 Below is what happens in Cao Cao’s(曹操) camp.
 [Jungmori] Some soldiers sing and dance. Some soldiers sob, overtaken by grief.
 Some soldiers laugh and create laughter. Having lost money in gambling, some ask for bits of others’ winnings.

잠에 지쳐 서서 자며 창 끝에 턱²¹⁵⁾ 괴인 놈.
 첩첩만한²¹⁶⁾ 군병중에²¹⁷⁾ 병루즉장위불행이라.²¹⁸⁾
 장하²¹⁹⁾의 한 군사 전립²²⁰⁾을 벗어 뿌르르르 말아 베고 누워 봇물²²¹⁾
 터지듯이 울음을 울며,
 “아아아으호호.” 이리 앉아서 설리 울 제,
 [아니래 장하에²²²⁾ 한 군사가 썩 일어서며,
 “아니²²³⁾ 애, 승상은 대군을 거느리고 천리전장²²⁴⁾에 나와서
 승부를 미결하고²²⁵⁾ 대성사²²⁶⁾를 바라는데 방정맞게 울기는 왜 우
 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더 노자.”²²⁷⁾
 저 군사 연하여²²⁸⁾ 우는 말이, “아이고, 이놈아. 말인즉 네 말이 꼭
 옳은 말이다마는, 네 내 서러운 사정을 좀 들어봐라.”
 서러운 사정이란 무엇인고 하니, 아무리 진중²²⁹⁾ 속일지언정 이놈이
 양친부모를 위해서 내놓은 설움인디,
 [진양조 “고당상²³⁰⁾ 학발양친²³¹⁾ 배별²³²⁾하고 떠나온 지가 몇 해나
 되며,
 부혜여 생아시고, 모혜여 육아시니,²³³⁾ 육보지기은인댄 호천망극이
 로구나.²³⁴⁾
 화목하던 절내권당,²³⁵⁾ 규중²³⁶⁾의 홍안²³⁷⁾ 유부²³⁸⁾ 천리전장에 날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거나, 내일이나 기별²³⁹⁾이 올거나 기다리고 바랬더
 니마는,
 서산에 해는 기울어지고 의려지땅²⁴⁰⁾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
 죽 오는 날에 출문땅²⁴¹⁾이 몇 번인고?
 상사곡²⁴²⁾ 단장회²⁴³⁾는 주야 수심²⁴⁴⁾이 맺혔는디,
 만일 객사²⁴⁵⁾를 내가 하오면 그 뉘라서²⁴⁶⁾ 엄토²⁴⁷⁾를 허며,

Some sleep, while standing up with their chins on the ends of spears.

Bad luck comes if a soldier sheds tears among many soldiers. A soldier below a flag takes off his fur hat, folds it, lies down, puts his head on it, and bursts into tears as if a dam has exploded.

He wails woefully.

[Aniri] A soldier below a tent stands up.

“Hey, our premier has led a huge army away from home to this battlefield.

The result of this important war has yet to come out. How can you be flippant and cry?

Come here. Let’s enjoy the wine.”

The soldier responds in tears, “You fool. What you say makes sense, but listen to my sad story.”

What is his sad story? Even though he is in the military, he unfolds a story of how he misses his parents.

[Jinyangjo]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left my old parents. My father has begotten me, and my mother has reared me. I want to return their favor, but it is limitless.

My family and relatives got along with each other. My beautiful young wife said goodbye to me leaving for the distant battleground.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about me.

Numerous times, she must have leaned against the gate, waiting for me as the sun set, and on windy and rainy nights.

I miss my family day and night so much that my intestines might disintegrate.

If I die away from home, who will bury me?

골폭사장²⁴⁸) 호여져서²⁴⁹) 오연²⁵⁰)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
려²⁵¹) 주며, ‘후여!’ 쳐²⁵²)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인거나?’²⁵³)
일일사친십이시²⁵⁴)로 우는구나.

4. (군사 설움 2) 또 한 군사가 집에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 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울고 나니, “아나, 애, 너는 부모 생각으로 이렇게 우니, 부모
생각 네 설움이 성호지심²⁵⁵)이 지극한 사람이다.

아무리 네가 진중 아니라 별간데²⁵⁶)라도, 네가 부모를 생각해서 그렇
게 운다는 것만으로도 너 안 죽고 살아가겠다.

효자다. 그러나 다 울었으니 그만두고, 너 내 설움 좀 들어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놈이 썩 나서더니, 저는 무엇 땀시²⁵⁷) 우는 설움인고 하니, 아들
땀시 우는 설움인디,

[중중모래 “여봐라, 군사들아. 이 내 설움을 들어라.

나는 남의 오대독신²⁵⁸)으로 열여섯 살에 장가들어
사십이 장근도록²⁵⁹) 슬하²⁶⁰) 일점혈육²⁶¹)이 없어 부부 매일 한탄.
온갖 공²⁶²)을 다 드린다.

명산대찰,²⁶³) 영신당,²⁶⁴) 고묘,²⁶⁵) 충사,²⁶⁶) 석왕사,²⁶⁷) 석불,²⁶⁸) 보
살²⁶⁹)에 미륵님전,²⁷⁰)

노구맞이²⁷¹) 집짓기, 칠성불공,²⁷²) 나한불공,²⁷³)

신중맞이,²⁷⁴) 다리 적선,²⁷⁵) 길땀기.²⁷⁶)

집에 들어 있는 날도 성주,²⁷⁷) 조왕,²⁷⁸) 당산,²⁷⁹) 천룡,²⁸⁰) 중천군
웅²⁸¹)에 지신제²⁸²)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고, 심든 남기가²⁸³) 꺾어지랴?

If my bones are scattered on the sand and become food for crows and eagles, who will chase the birds away by clapping his hands?"

I miss my parents all day long.

4. (A Soldier's Sad Song 2) Another soldier grieves, missing his child at home.

[Aniri] Another soldier says, "You are sobbing because you miss your parents. I can see that you are a good son to your parents. You sob because you miss your parents. So you will go back alive, no matter where you are, including the battlefield."

You are a good son. You wailed to your heart's content. It is time now to listen to my sad story."

The soldier steps forward and weeps. His sad story is related to his son.

[Jungjungmori] "Hello, soldiers. Listen to my sad story.

I married at the age of sixteen because I was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Being almost forty but not having a child, my wife and I lamented everyday.

My wife made every effort to have a baby.

She prayed to famous mountains, Buddhist temples, Buddhist shrines, Buddhist statues, and the statues of Buddhist Saints.

She built a house for a shamanic god. She prayed to the Great Bear and Buddhist saints.

She held a ritual for Buddha, and built a bridge and a road for others.

While at home, she dutifully served the gods of the house, the kitchen, the village, the food platform, the sky, and the land. Her conscientious efforts finally paid off.

하루는 우리집 마누래가 십삭²⁸⁴ 태기²⁸⁵를 베풀할 제,²⁸⁶
 석부정부좌²⁸⁷하고, 할부정불식²⁸⁸하고,
 이불청음성,²⁸⁹ 목불시악색²⁹⁰하며 고정좌²⁹¹를 허는구나.
 하루는 해복²⁹² 기미가 있든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순산²⁹³으로 낳아노니, 딸이라도 반가울 데²⁹⁴ 아들을 낳았구나.
 얼굴은 관옥²⁹⁵이요, 풍채²⁹⁶는 두목지²⁹⁷라.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뉘일 날이 전혀 없고, 오줌 똥을 다 가려,²⁹⁸
 삼칠일²⁹⁹이 다 지내 오류 삭³⁰⁰ 넘어가니, 터덕터덕³⁰¹ 노는 양,
 땀긋 웃는 양, 엄마 이빠 도리도리,³⁰² 쥐얌쥐얌,³⁰³ 잘깡잘깡,³⁰⁴
 섬마둥둥³⁰⁵ 내 아들.
 옷고름에 큰 돈을 채우고, 감을 사 꺼풀³⁰⁶을 벗기어
 손에 들려 빨리며,³⁰⁷ ‘주야 사랑 애중한 계³⁰⁸ 자식밖에 또 있느냐?’
 난세³⁰⁹를 당하여서 사당³¹⁰ 문을 열어놓고 통곡재배³¹¹ 하직을 할
 적에,
 간간한³¹² 어린 아해³¹³ 안고 누워 등을 치며,
 ‘여보시오, 마누라. 부디 이것이나 길러 나의 후사³¹⁴를 전하여 주오.’
 생이별³¹⁵ 하직하고 전장³¹⁶에를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림던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악아, 웅아.’³¹⁷
 얼러볼거냐?³¹⁸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One day, she became pregnant and acted as follows for ten months:

She did not sit on a seat, if it were not straight. She did not eat food, if it were not cut straight.

She did not hear indecent words and did not see bad colors. She sat straight up.

One day, there was an indication of childbirth. 'My belly, waist, and legs hurt!'

She delivered a baby easily. Even a daughter would have been good, but the baby was a son.

His face was handsome. His appearance was imposing.

I always held him with my hands, so he never lay down on the ground. I took care of his shit and piss.

After five or six months, he managed to play alone.

He smiled and said 'Mommy' and 'Daddy.' He shook his head, folded and unfolded his fingers. I put him to sleep. I dandled him.

I tied big coin on his cloth string. I bought a persimmon and peeled it.

I had him hold it with his hands and suck it. 'Is there a more precious thing than a child?'

War broke out. I opened the door of my family shrine and bowed twice, saying goodbye to my ancestors.

My wife and I hugged our lovely young child, patting his back. 'Honey, please rear him well and have him continue my family line.'

I came to this battlefield after a hard parting with my family. When will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child in my arms, and dandle him? Alas. Woe is me."

5. (군사 설움 3) 또 한 군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슬피 운다.

[아니레] 울고 나니, 한 놈이 그냥 툭 찐 놈 나무라듯 하느니,

“에이, 승헌³¹⁹) 망할 자식 같으니. 아, 이 자식아.

네 설움을 들어보니, 너는 전장에 나가 죽드라도 네 자식이 있더니 후사를 전할 설움이로구나.

암시랑토³²⁰) 안한 것을, 이 자식아, 울고 있어야?”³²¹)

“이놈아, 내 설움은 참말로 만군중³²²)에도 없고, 언문³²³) 잔주³²⁴)에도 없고, 역대 칠서³²⁵)에도 없는 별너르³²⁶) 설움이로구나.”

“야, 이놈! 네 설움 대단하구나. 어디 한 번 울어 보라. 무엇이냐? 우리가 듣고 정 별하면³²⁷) 모다³²⁸) 돌려서³²⁹) 울력³³⁰)으로 풀어줄게.”

“아, 이놈아. 너그덜³³¹) 재담³³²)으로 알지 말고, 설움을 들어봐.”

이놈은 무슨 설움인고 허니, 지³³³) 가속³³⁴) 땀시³³⁵) 이놈이 설움이 터진 설움인디,

“들어봐, 이놈들아.”

[중모레] “나는 부모 일찍 조사³³⁶)하고, 일가친척 바이없고,³³⁷) 사고 무친³³⁸) 혈혈단신³³⁹) 이내 몸이,

이성지합³⁴⁰) 우리 아내가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하고,³⁴¹)

봉제사³⁴²) 접빈객³⁴³)과 인리³⁴⁴)에 화목을 하고,

종가대사³⁴⁵) 탁신헌정³⁴⁶)

일시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 돌아앉아도 해³⁴⁷)가 나고,

철가는 줄을 모르고 사느니, 뜻밖에 급한 난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5. (A Soldier's Sad Song 3) Another soldier sighs, while missing his wife.

[Aniri] The soldier weep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rebukes him.

"You are a bastard to fall into ruin. You villain.

After listening to your sorrow, I can see that you can carry on your family line even if you die on this battleground.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What entitled you to cry?"

"You rascal. My sorrow is really unique. It can be found neither in a Korean book, nor in many classic books. My sorrow is bizarre."

"You scoundrel! Your sorrow must be special. Tell us about it. What is it about?"

"If your sorrow is really bizarre, we will cry together for you."

"You villain. Don't take my story as a funny one. Listen to me."

This soldier's sorrow is related to his family member, making him cry.

"Listen, folks."

[Jungmori] "My parents died when I was young. Having no relative, I had nobody to turn to and I was lonely.

I married a beautiful and virtuous woman.

She held rituals of my ancestors attentively, served guests heartily, and got along with neighbors.

She conscientiously took care of the big matters of a head family.

I hated to leave her so much that I was even angry to leave her for just a moment.

I wasn't aware of the passage of time. All of a sudden, a war broke 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the Chibi(赤壁) River!"

천아성³⁴⁸) 뛰뛰³⁴⁹) 웨는³⁵⁰) 소리 죽불리지³⁵¹) 끌어내어, 생이별³⁵²)
 을 하직하고 전장을을 나왔으나
 일부일³⁵³) 전쟁은 불식³⁵⁴)이로구나. 망망창해³⁵⁵) 갓³⁵⁶) 없는데,
 살아가기 꾀를 내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³⁵⁷)을 하여 노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싸인 괴기³⁵⁸)가 되었네.
 고향을 바바라보니 구름만 담담³⁵⁹)허고, 아득 정신 기가맥혀 후유
 한숨을 길게 쉬며,
 언제나 내가 고향을 돌아가서 그림던 마누라 손목을 덥석 잡고 만단
 정회³⁶⁰)를 허여보드란³⁶¹) 말이냐? 아이고.”
 울고 난다.

6. (군사 호기) 한 군사가 나서서 우는 군사를 탓하며 큰 공을 이루어 돌아가자고 호기를 부리는데, 또 한 군사는 싸움타령을 한다.

[아니레] 장하에 한 군사가 키는 조그만하고, 수염은 우무가사리
 뿐³⁶²)으로 되고,
 콧구녕³⁶³)은 홍합 속처럼 된 놈이 조그만헌 착도³⁶⁴) 하나 손에다 거
 머쥐고, 왼 군중이 요란케 나오는데,
 이 소리제³⁶⁵)는 옛날 우리나라의 팔명창³⁶⁶)에 권삼득³⁶⁷) 씨, 이 권삼
 득 씨 덜렁제³⁶⁸)로 떠들고 나오는데, 이런 요란이 없던 것이었다.
 [중중모레] “이놈, 저놈 다 듣거라. 너희 울 제 줍놈일다.³⁶⁹)
 위국지는 불고가³⁷⁰)라 옛 글에도 일러 있고,
 남아하필연처자리오? 막향강촌노장년하소.³⁷¹)
 우리 몸이 군사 되어 전장에 나왔다가

The trumpet sound calling soldiers forced me to come to this battlefield after a hard parting with my wife.

This war continues day after day. My home is far from here. Even if we try to survive, we are surrounded in the four directions.

We are like a tiger in a pit or a fish in a net.

My gaze in the direction of my home only meets clouds. Confused and absent-minded, I sigh deeply.

When can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wife's hands, and talk with her as much as I like? Alas."

The soldier weeps.

6. (A Soldier Plays the Hero.) A soldier rebukes sobbing soldiers. He acts like a hero. And another soldier sings the war song.

[Aniri] There is a small soldier in the crowd. His beard is long and sharp.

His nostrils are narrow. Holding a small knife in his hand, he speaks so loudly that everyone can hear.

The soldier sings in uproarious Deolleongje mode, which was created by Gweon Sam-deuk, one of the eight celebrated Pansori singers of 19th century in Korea.

[Jungjungmori] "Listen to me, you cowards. You are crying brats.

There is a saying that a patriot cannot take care of his family. How can you miss your wives and children? You all, forget about your home.

We became soldiers and were taken to this battleground.

공명³⁷²⁾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고 보면 부끄럽지 아니하랴?
 요 내 심중³⁷³⁾ 평생 소원 요하삼척³⁷⁴⁾의 드는 칼로 오한 양진³⁷⁵⁾의
 장수 머리를 일합³⁷⁶⁾에 땡그렁³⁷⁷⁾ 베어 들고,
 번창휘마³⁷⁸⁾ 충돌을 하며, 개가성³⁷⁹⁾ 노래를 부르고 본국으로만 돌아가,
 부모, 동생, 원근친척³⁸⁰⁾을 다시 만나서 보게 되면 이 아니 상쾌하드
 나? 어허허.”

[아니레] 여러 군사들이 이 말을 듣더니마는, “애, 네가 진실로 그럴진
 댄³⁸¹⁾ 천하장사 향도령³⁸²⁾이라고 불러주마.”

[중모레] “싸움타령 불러보세.

습용간과³⁸³⁾ 현원씨³⁸⁴⁾는 여염제로³⁸⁵⁾ 관천싸움.³⁸⁶⁾

능작대무 치우작란³⁸⁷⁾ 사로잡힌 탁록싸움.³⁸⁸⁾

주나라³⁸⁹⁾ 쇠한³⁹⁰⁾ 천지 분분³⁹¹⁾허다 춘추싸움.³⁹²⁾

위북진황³⁹³⁾이 늙어지니 잠식³⁹⁴⁾ 산동³⁹⁵⁾의 육국싸움.³⁹⁶⁾

봉기제장³⁹⁷⁾ 요란하다, 팔년풍진³⁹⁸⁾ 초한싸움.³⁹⁹⁾

칠십여전 공이 없다,⁴⁰⁰⁾ 향도령의 우벽싸움.⁴⁰¹⁾ 동남풍이 슬슬 부니
 위태하다 적벽싸움.”⁴⁰²⁾

“애, 아서라,⁴⁰³⁾ 싸움타령. 가슴 끔적⁴⁰⁴⁾ 기막힌다.

싸움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포⁴⁰⁵⁾ 가고지고.”⁴⁰⁶⁾

술이 반취⁴⁰⁷⁾하여 눈물, 콧물 병류⁴⁰⁸⁾하며, 이놈 말이 옳더니라.

“여봐라, 너희들도 술잔⁴⁰⁹⁾ 먹고 재담,⁴¹⁰⁾ 괴담,⁴¹¹⁾ 장담,⁴¹²⁾ 회
 담,⁴¹³⁾ 실담,⁴¹⁴⁾ 허담⁴¹⁵⁾을 허거니와,

Wouldn't it be a disgrace to go back home without a meritorious deed?

I have a longstanding wish. It is to cut off the heads of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rapidly with one move of my long sword,

to wield my spear on my horse, and to go back home, singing a victory song.

Would it be great if my parents, siblings, and relatives will welcome me? Good."

[Aniri] Many soldiers respond, "Hey soldier. Since you talk like that, we will call you Xiang Yu(項羽)."

[Jungmori] "Let's sing the war song.

In the Banquan(阪泉) War, Xuan Yuan Shi(軒轅氏) who invented the spear and shield fought against Yan Di(炎帝).

In the Zhuolu(琢鹿) War, Chi Wang(蚩尤), who could create fog was captured alive.

After the Zhou(周) Dynasty became weak, there were a lot of wars amongst ancient countries during the Chunqiu(春秋) era.

After powerful and wealthy Qin Shi Huang(秦始皇) became old, six countries fought each other in Shandong(山東) area.

Many generals fought fiercely in the war between Chu(楚) Country and Han(漢) Country for eight years.

Xiang Yu's(項羽) seventy combats ended in vain. Some are in danger in the Chibi(赤壁) War where a southwest wind blows.

"Hey, stop the war song. I feel suffocated in my chest.

Cut the war song out. I wish to perform a meritorious deed and go home."

Half-drunk, soldiers think he is right. Tears and runny noses flow in the same direction on their faces.

"Hello. After drinking, you tell a witty story, a bizarre story, a confident story, a gossiping story, a mistaken story, and an empty story.

명일⁴¹⁶ 대전시⁴¹⁷ 승부간에⁴¹⁸ 뉘 알쏘냐?
 유능제강이요, 약능제강이라⁴¹⁹ 병가⁴²⁰의 징협이요,⁴²¹
 흥망성쇠 재덕⁴²²이라. 보좌⁴²³하면 성군⁴²⁴ 덕 장하올지라.⁴²⁵
 승부간에 익사,⁴²⁶ 액사,⁴²⁷ 형사,⁴²⁸ 급사,⁴²⁹ 즉사,⁴³⁰ 몰사하올 적
 에 건디어 보자스라.”⁴³¹
[아니레] 울고 나니, 못군사⁴³²들이 이 말을 듣고 회심⁴³³ 걱정 낙
 루⁴³⁴들을 허는 판인디,

7. (오작남비)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니 조조가 취흥에 겨워 시를 읊는데, 장수 유복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하였다가 죽임을 당한다.

[진양조] 뗏다, 저 까마귀.
 월명심야⁴³⁵에 저 까마귀. 남천을 무릅쓰고⁴³⁶ 공중으로 등실등실
 떠서, ‘꼭 꼭 골기약 꼭’⁴³⁷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물으시되, “저 까마귀 여하명고?”⁴³⁸
[아니레] 좌우 답왈,⁴³⁹ “의심컨대 간월명이의시천효⁴⁴⁰라. 남예⁴⁴¹
 떠서 우나보오이다.”⁴⁴²
 조조 취흥이 도도하여⁴⁴³ 글 지어 읊었으되,
[시창] “월명성희하고 오작이 남비라.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라.”⁴⁴⁴

But who will win the war tomorrow?

A military expert knows from his experience that a soft thing might defeat a hard thing, and that a weak thing might beat a strong thing.

We will rise or fall, depending on whether we are virtuous or not. It is praiseworthy to support our boss and virtuous king. Whether we win or lose, we will all drown or hang. We will die disastrous deaths, sudden deaths, or instant deaths. Let's endure death."

[Aniri] After listening to his cry, many soldiers are persuaded and worried in tears.

7. (A Crow and a Magpie Fly in the South Sky.) A crow flies, crying. Liu Fu(劉馥), a general, gets murdered by Cao Cao(曹操) after saying that a crow is an ominous sign.

[Jinyangjo] Lo, behold that crow.

When the moon is bright in the deep night, a crow cries high to the south sky and flies away.

Cao Cao(曹操) asks, "What made that crow cry?"

[Aniri] Soldiers answer, "The moon is bright. It appears that the crow flies and cries in the south because it thinks that the daybreak has come."

Ela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Cao Cao(曹操) writes and recites a poem.

[Poetic Mode] "Crows and magpies fly to the south whil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sparse.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아니레] “남으로 까마귀 날아 우리 진중으로 떠 울고 가니 어땡다 이르리오?”

제장 중 유복이⁴⁴⁵ 여짜오되, “남으로 까마귀 날아 우리 진중으로 떠 울고 가니, 임전시⁴⁴⁶에 불길조로소이다.”⁴⁴⁷

조조 듣고 화⁴⁴⁸를 내어 요설⁴⁴⁹이라 집탈⁴⁵⁰하고 취중에 살해하니, 근들⁴⁵¹ 아니 불쌍한가?

8. (조조 제장 분발) 조조가 장수들을 지휘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자진모레] 차일⁴⁵² 수군도독⁴⁵³ 모개,⁴⁵⁴ 우금⁴⁵⁵이요,
연쇄전선 필쇄하고,⁴⁵⁶ 즉일⁴⁵⁷에 진병⁴⁵⁸ 재촉하니,
조조 누선⁴⁵⁹에 높이 앉아 수륙군 제장⁴⁶⁰ 오색기호⁴⁶¹를 차례로 분발⁴⁶²할 제,

수진⁴⁶³의 중협총⁴⁶⁴ 모개, 우금이요,

전협총⁴⁶⁵ 장합,⁴⁶⁶ 좌협총⁴⁶⁷ 문빙⁴⁶⁸이요,

우협총⁴⁶⁹ 여통⁴⁷⁰이며, 후협총⁴⁷¹ 여건⁴⁷²이요,

육진⁴⁷³의 전사파⁴⁷⁴ 서황⁴⁷⁵이며, 좌사파⁴⁷⁶ 악진⁴⁷⁷이며,

우사파⁴⁷⁸ 하후연⁴⁷⁹이, 수륙응접사⁴⁸⁰ 하후돈⁴⁸¹이, 조홍,⁴⁸²

좌우 호위⁴⁸³ 허저,⁴⁸⁴ 장요⁴⁸⁵라.

수진에 발방왈,⁴⁸⁶ “관기청착 이청금고 목시정기

가선여마 견적쟁선 동주공명

[Aniri] “A crow passes over our camp heading south while crying. What does that mean?”

Liu Fu(劉馥), a general, responds, “The bright moon, sparse stars, and crows and magpies flying to the south. That is an ominous sign ahead of a battle.”

Infuriated, Cao Cao(曹操) accuses Liu Fu(劉馥) of speaking wicked words, pulls out his sword, and stabs Liu Fu(劉馥) to death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How pathetic he is!

8. (Cao Cao(曹操) Deploys His Officers.) Cao Cao(曹操) commands his warriors to prepare for war.

[Jajinmori] On that day,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charge of Cao Cao’s(曹操) navy.

They tied the warships together, ready to move the troops.

Cao Cao(曹操) is high on an observatory ship, deploying his army and navy officers by using colorful flag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the middle of the navy formation,

Zhang He(張郃) in the front, Wen Pin(文聘) on the left,

Lu Tong(呂通) on the right, and Lu Qian(呂虔) at the back,

Xu Huang(徐晃) in the front of the troops, Le Jin(樂進) on the left,

Xia Jiao Yuan(夏侯淵) on the right. Xia Jiao Dun(夏侯惇) and

Cao Hong(曹洪) are communications officers.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protect Cao Cao(曹操) on the left and right.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Follow the orders indicated by the flags. Listen to the gongs with ears and see the flags with eyes.

Ride a ship like you rode a horse. If you see enemies, fight and move forward. Live or die together with your ship.

종도적주면, 군법부대 관초고동 기거아!”⁴⁸⁷⁾
 육진에 분부하되, “유유소설하며
 적유소시하여 시여청여라.”⁴⁸⁸⁾
 가증여탈되면 적불급거이니 각대정제하여
 불허참전월후하라!”⁴⁸⁹⁾
 각웅성필에⁴⁹⁰⁾ 전선 풍범으로 연선⁴⁹¹⁾하야 평지같이 왕래하니,
 조조 장대⁴⁹²⁾에 높이 앉아 연습을 관망⁴⁹³⁾할 제,
[아니리] 심중⁴⁹⁴⁾에 대희하여⁴⁹⁵⁾ 방사원⁴⁹⁶⁾의 묘한 계책 군중에 자랑
 하니,
 정욱⁴⁹⁷⁾ · 순욱⁴⁹⁸⁾ 하는 말이, “만일 불로 치올진대⁴⁹⁹⁾ 어찌 회피하오
 리까?”
 조조 웃고 대답하되, “내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다가는 저의 진이 탈 것이니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⁵⁰⁰⁾
 수륙군⁵⁰¹⁾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 제,

**9. (주유 탄식) 주유가 조조의 진중을 살펴보고 동남풍이
 없음을 한탄하니, 공명이 동남풍을 빌겠다고 한다.**

[중모리] 이때에 오나라 주유⁵⁰²⁾는 진세⁵⁰³⁾를 살펴보니,

If you just watch an enemy flee, the military law will not condone you! Let each post hit a drum and move forward!” He issues an order to the camps on the land. ‘Take your time and prepares for a war calmly little by little. Gi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lenient to enemies. Act as if you were alert.

If enemies do not chase you when you get out of the enemy camp, get your unit ready for a fight. Don’t get involved in the fight. Leave the enemies to the units behind you!”

Soldiers take order, tie warships together, and walk on them like on the land.

Cao Cao(曹操) is delighted, watching his soldiers practice.

[Aniri] Elated, Cao Cao(曹操) boasts of Pang Shi Yuan’s(龐士元) strategy of tying ships together.

Cheng Yu(程昱) and Xun Yu(荀彧) ask, “How can we fend off their fire attack?”

Cao Cao(曹操) responds, “We are in the north, and they are in the south.

A fire attack will backfire on their camp, so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a victory without fail.”

Cao Cao(曹操) prepares the navy and the army for a war.

9. (Zhu Yu(朱瑜) Sighs.) Gazing at Cao Cao’s(曹操) camp, Zhu Yu(朱瑜) laments over the absence of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says he will pray for a southeast wind.

[Jungmori] Meanwhile, Zhu Yu(朱瑜) of Wu(吳) Country examines military camps.

광풍홀기하여⁵⁰⁴) 조채황기⁵⁰⁵)는 강중에⁵⁰⁶) 떨어지고,
오진⁵⁰⁷) 깃발은 주유 면상⁵⁰⁸)을 치고 가니 화공⁵⁰⁹)할 정조로되,
동남풍이 없었으니 옥파무계⁵¹⁰)하여 한 소래⁵¹¹) 크게 외고⁵¹²) 토혈
기색⁵¹³) 가련토다.⁵¹⁴)

도둑⁵¹⁵)의 신병⁵¹⁶)이 점점 짙어 눕고 일지⁵¹⁷) 못할 적에,
공명이 자청⁵¹⁸)하여 주유 병을 볼 적에, “양약⁵¹⁹)을 먹일지라.”⁵²⁰)
가만히 십륙 자 글을 써서 주유 주니, 주유 받아보니 글에 하였으되,
‘옥파조병이면 의용화공이라. 만사구비하되 지흠동남풍이라.’⁵²¹)
주유 절절탄왈,⁵²²) “바람은 천지지조화⁵²³)오니 인력⁵²⁴)으로 어이하
오리까?”⁵²⁵)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⁵²⁶)

내 혈 일 다 현 후에 천의⁵²⁷)야 어이하리?”

[아니레 남병산⁵²⁸) 올라가 바람을 비오리다.”

10. (공명 동남풍 기원)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한다.

[자진모래] 노숙과 병마하여⁵²⁹) 남병산 올라가서 동남풍 빌라하고 지
세⁵³⁰)를 살피더니,
동남방⁵³¹)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⁵³²)하여 삼층단⁵³³)을 높이 쌓으니,

Suddenly, a strong wind blows. A yellow flag falls down on the river.

A flag in Zhu Yu's(朱瑜) camp hits Zhu Yu's(朱瑜) face and flies away, which is a sign of a fire attack.

Without a southeast wind, he cannot defeat the enemy, so he shouts. He is about to throw up blood, which is pitiful.

His illness gets worse little by little, and he can't get up.

Kong Ming(孔明) volunteers to diagnose Zhu Yu's(朱瑜) illness. "Give him cool medicine."

Kong Ming(孔明) gives Zhu Yu(朱瑜) a note of sixteen letters which Zhu Yu(朱瑜) takes.

The note reads, 'Only fire can defeat Cao Cao's(曹操) troops. Everything is ready except a southeast wind.'

Zhu Yu(朱瑜) implores, "A wind is created by heaven. How can a human being get it?"

Kong Ming(孔明) answers, "It is up to humans to make a plan. It is up to heaven to make it work.

I will do what I can do. Who knows about heaven's will?

[Aniri] Let me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pray for a southeast wind."

10. (Kong Ming(孔明) Prays for a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climbs up Nanping(南屏) Mountain, makes an altar, and prays for a southeast wind.

[Jajinmori] Kong Ming(孔明) and Lu Su(魯肅) ride horses and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They examine the landscape to pray for a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makes the soldiers build a three-layered altar with red earth from the southeast.

방원⁵³⁴)은 이십사 장,⁵³⁵ 매 일 층 고⁵³⁶ 삼 척⁵³⁷)이니 합고⁵³⁸)가
 구 척이요,
 하 일 층⁵³⁹) 이십팔수⁵⁴⁰) 각 색 기를 꽃았으되,
 동방 칠면의⁵⁴¹) 청기에는 각향저방심미기⁵⁴²)로다. 교룡학호토포⁵⁴³)를 안검⁵⁴⁴)하여, 포창룡지형하여⁵⁴⁵) 동방 청기를 세우고,⁵⁴⁶)
 북방 칠면 흑기에는 두우여허위실벽⁵⁴⁷)이라. 해우복서연저유⁵⁴⁸)를
 안검하여 북방에 세워두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안양장마녹사인⁵⁴⁹)이로다. 구랑치계오후원⁵⁵⁰)
 을 안검하여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⁵⁵¹)
 제일층 이십팔수 황신대기⁵⁵²) 육십사면에 육십사괘⁵⁵³)를 안검하여
 동두렛이⁵⁵⁴) 꽃고,
 서방 칠면 백기⁵⁵⁵)에는 규루위묘필자삼⁵⁵⁶)을 안검, 거백호지위⁵⁵⁷)라.
 상 일 층 용사인⁵⁵⁸) 각인을 속발관대하고⁵⁵⁹) 검은 나포⁵⁶⁰) 봉의⁵⁶¹)
 와 박대⁵⁶²) 주리⁵⁶³) 방군⁵⁶⁴)을 입히고,
 전좌에 입일인하여⁵⁶⁵) 수집장간하고,⁵⁶⁶)
 간침상⁵⁶⁷)에 용계우보하여 이초풍신하고,⁵⁶⁸)
 전후입일인⁵⁶⁹) 계칠성호대⁵⁷⁰) 이표풍색⁵⁷¹)하고,
 후좌일인⁵⁷²)은 봉보검하고,⁵⁷³) 후우일인⁵⁷⁴) 봉향로,⁵⁷⁵)
 “단하⁵⁷⁶) 이십사인⁵⁷⁷)은 각각 정기,⁵⁷⁸) 보검⁵⁷⁹)과 대극,⁵⁸⁰) 황모,⁵⁸¹)
 백월⁵⁸²)과 주변⁵⁸³) 조독⁵⁸⁴)을 잡고 환요사면하라!”⁵⁸⁵)

The altar is 72 meters wide, and each story of the altar is 0.9 meters high. The altar is 2.5 meters high in total.

There are 28 flags of diverse colors on the first level.

A seven-sided blue flag resembling a blue dragon is erected in the east. The seven sides represent the seven constellations which are associated with a salamander, a dragon, a badger, a fox, a hare, a tiger, and a leopard.

A seven-sided black flag stands in the north. The seven sides represent the seven constellations associated with a mythical lion, a cow, a bat, a mouse, a swallow, a pig and a wolf.

A seven-sided red flag resembling a red phoenix is erected in the south. The seven sides represent the seven constellations associated with a wild dog, a sheep, a deer, a horse, a snake and an earthworm.

On the top tier, a large flag is clearly set up in the middl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A seven-sided white flag resembling a white tiger stands in the west. The seven sides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On the top level, four people tie their hair together and put on formal hats and belts. They also put on large clothes of black silk, large belts, red shoes, and formal clothes.

On the left front, a man stands and holds up a long pole.

A chicken feather at the end of the pole calls up a wind.

A man is in the front and another man in the back. A flag is erected on which a picture of the Great Bear is drawn. They mark the color of wind.

On the back left, a man stands and holds up a precious sword.

On the back right, a man stand and holds up an incense burner.

“Twenty four soldiers below the altar! Surround the altar, holding flags with feathers, swords, two-branched spears, yellow flags, white axes, red flags, and black flags.”

공명이 목욕재계⁵⁸⁶)하고 상단 하단 삼차 하고,⁵⁸⁷
 전조단발⁵⁸⁸)하고 단상에 이르러 노숙더러 말을 하되,
 “자경⁵⁸⁹)은 군중에 내려가서 공근⁵⁹⁰)의 조병함⁵⁹¹)을 도우되,
 만일 내⁵⁹²) 비는 바⁵⁹³)에 응함이⁵⁹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말라.”⁵⁹⁵)
 약속을 속썩속썩⁵⁹⁶) 노숙을 보내놓고, 수다한⁵⁹⁷) 장사에게 영⁵⁹⁸)을
 하되,
 “불허천리방위⁵⁹⁹)하고, 불허실구난언⁶⁰⁰)하고, (불허교두접이⁶⁰¹)하
 고,) 불허대경소이⁶⁰²)하라.
 이 영을 어긴 자는 군법으로 참⁶⁰³)하리라.”
 공명이 완보로⁶⁰⁴) 단에 올라 방위 정함을 보아
 분항⁶⁰⁵) 헌작⁶⁰⁶)하고 하늘을 우리러 독축⁶⁰⁷)할 때,

11. (조자룡 탄궁)⁶⁰⁸) 공명이 조자룡과 함께 배를 타고 떠 나가는데, 주유가 공명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지만 조자룡이 활을 쏘아 격퇴한다.

[아니리]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암축⁶⁰⁹)을 하였겠다.
 빌기를 다한 후에 하단,⁶¹⁰) 장중에 잠깐 쉬어 군사를 번갈아 밥 먹이고,
 공명이 단에 올라 풍세⁶¹¹)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중모리] 머리 풀고, 말 벗고,

Kong Ming(孔明) carefully takes a bath, and then climbs up and down the altar three times.

After cutting his fingernails and hair, Kong Ming(孔明) gets on the platform and speaks to Lu Su(魯肅).

“Please go down to the camp and help Zhu Yu(朱瑜) to train his soldiers.

Don’t be puzzled even if my prayer does not work.”

After making the promise in a soft voice, Kong Ming(孔明) sends Lu Su(魯肅) to the camp and issues an order to soldiers.

“Don’t leave your post. Don’t make off-hand remarks. Don’t whisper to each other. Don’t be surprised at a strange thing. Anybody disobeying this order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Kong Ming(孔明) steps up on the platform slowly and makes sure everything is in the right direction.

After burning incense and offering wine, Kong Ming(孔明) looks up at the sky and chants a spell.

11. (Zhao Zi Long(趙子龍) Shoots an Arrow.) Kong Ming(孔明) leaves with Zhao Zi Long(趙子龍) on a boat. Zhu Yu(朱瑜) sends troops to kill Kong Ming(孔明). Zhao Zi Long(趙子龍) repels them by shooting an arrow.

[Aniri] Kong Ming(孔明) prays in his mind so that nobody can hear him.

After the ritual, he steps down from the altar, takes a rest with soldiers, and lets them eat in turn.

He climbs up the altar, tries to find a wind, and notices a wind.

[Jungmori] Kong Ming(孔明) unties his hair and takes his shoes off.

학창의⁽⁶¹²⁾를 거듬거듬⁽⁶¹³⁾ 견고서, 숨어 남병산 조용히 내려갈 제,
 강천⁽⁶¹⁴⁾은 요적⁽⁶¹⁵⁾하고 셋별⁽⁶¹⁶⁾이 등실등실 떠 지는 달이 비쳤는데,
 오강변⁽⁶¹⁷⁾ 내려가니 자룽⁽⁶¹⁸⁾이 바빠 나와 읊⁽⁶¹⁹⁾하고 절을 하며,
 “선생은 위방진중⁽⁶²⁰⁾에 기체⁽⁶²¹⁾ 평안히 오십니까?”
 공명이 반기⁽⁶²²⁾ 여겨 자룽 손길⁽⁶²³⁾ 부여잡고,⁽⁶²⁴⁾
 “현주⁽⁶²⁵⁾ 기체 어떠하시며, 제장군줄⁽⁶²⁶⁾이 무사한가?”
 함께 배에 선뜻 올라 일편⁽⁶²⁷⁾ 풍석⁽⁶²⁸⁾을 순풍⁽⁶²⁹⁾에 추켜 달고,⁽⁶³⁰⁾
 도용도용⁽⁶³¹⁾ 떠나갈 적에,
[아니레] 그 때여 주유, 정봉,⁽⁶³²⁾ 노숙, 장요,⁽⁶³³⁾ 일반 군관⁽⁶³⁴⁾을 일제
 히 청래⁽⁶³⁵⁾하여 장중⁽⁶³⁶⁾에 모여 앉아 군병⁽⁶³⁷⁾ 조발⁽⁶³⁸⁾ 예비할 제,⁽⁶³⁹⁾
 손권이 응접⁽⁶⁴⁰⁾함을 품고⁽⁶⁴¹⁾하고,
 황개⁽⁶⁴²⁾ 화선⁽⁶⁴³⁾ 이십 척에 대전⁽⁶⁴⁴⁾을 선두⁽⁶⁴⁵⁾에 밀포⁽⁶⁴⁶⁾하고,
 갈섰⁽⁶⁴⁷⁾에 유⁽⁶⁴⁸⁾ 발라 유황,⁽⁶⁴⁹⁾ 염초⁽⁶⁵⁰⁾ 가득 싣고, 청포유단⁽⁶⁵¹⁾에
 덮개 덮고,
 선두에는 아기⁽⁶⁵²⁾ 꽃고, 선미⁽⁶⁵³⁾에는 소선⁽⁶⁵⁴⁾ 매고,
 군중에 영을 하되, “적선⁽⁶⁵⁵⁾이 소선이면 이아대선하여⁽⁶⁵⁶⁾ 자고로⁽⁶⁵⁷⁾
 시살⁽⁶⁵⁸⁾하고,
 적선이 뿔아대선커든⁽⁶⁵⁹⁾ 아용소선⁽⁶⁶⁰⁾으로 장로신이하여⁽⁶⁶¹⁾ 작침
 착⁽⁶⁶²⁾하고 이승전인⁽⁶⁶³⁾하여 측근적주여든⁽⁶⁶⁴⁾ 대전연발⁽⁶⁶⁵⁾하라.”
 이날 밤 간간근야⁽⁶⁶⁶⁾에 천색⁽⁶⁶⁷⁾은 박명⁽⁶⁶⁸⁾하고 미풍⁽⁶⁶⁹⁾은 부동⁽⁶⁷⁰⁾
 하니,
 주유 노숙다려⁽⁶⁷¹⁾ 하는 말씀, “공명이 나를 속였고나. 이 엄동⁽⁶⁷²⁾ 때
 동남풍이 그 어이 있을꼬냐?”

He folds up his formal coat hastily and climbs down Nanping(南屏) Mountain furtively.

The sky above the river is quiet. The morning star passes near the setting moon.

He arrives at the Wu(吳) River. Zhao Zi Long(趙子龍) comes out quickly and shows respect to him.

“Sir, are you all right in this enemy country?”

Delighted, Kong Ming(孔明) grabs Zhao Zi Long’s(趙子龍) hands.

“How is His Majesty doing? Are the officers and soldiers all right?”

They quickly get on the boat and unfurl a sail high on a favorable wind. Their boat rocks gently as it leaves.

[Aniri] Meanwhile, Zhu Yu(朱瑜), calls Ding Feng(丁奉), Lu Su(魯肅), Zhang Liao(張遼) and other officers into a tent and to discuss how to arrange troops.

Sun Quan(孫權) welcomes the officers.

Huang Gai(黃蓋) unfolds big arrows on the bows of twenty fire ships.

The fire ships are loaded with reeds pasted with oil, sulphur, and niter. They are covered with blue oily cloth.

Flags are erected on the bows, and small boats are tied on the sterns.

He issues an order to the troops. “If an enemy ship is small, use our large ship and kill them merciless by piercing their legs. If an enemy ship is large, use our small ship, move fast without panicking, and move onto another ship. If the enemy ship passes by, shoot large arrows consecutively.”

The sky is a little bright occasionally at night. Even a breeze doesn’t blow.

Zhu Yu(朱瑜) speaks to Lu Su(魯肅), “Kong Ming(孔明) fooled me. How can a southeast wind blow in winter?”

노숙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속일 사람이 아니오니,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⁶⁷³⁾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알꼬?” “공명을 잠깐 보니 재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⁶⁷⁴⁾라,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거짓말을 하여 남을 어찌 속일 리가 있사오리까?”

[자진모리] 말이 맞지⁽⁶⁷⁵⁾ 못하여 삼경시분⁽⁶⁷⁶⁾에 홀풍성⁽⁶⁷⁷⁾ 깃발이 펄렁.

주유 놀라 장대⁽⁶⁷⁸⁾에 통통통⁽⁶⁷⁹⁾ 나서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⁶⁸⁰⁾ 주작⁽⁶⁸¹⁾ 양 기각⁽⁶⁸²⁾이 백호⁽⁶⁸³⁾ 현무기⁽⁶⁸⁴⁾를 응하여⁽⁶⁸⁵⁾ 서북으로 날리더니,

삼시간에 동남대풍이⁽⁶⁸⁶⁾ 일어 펄렁.

주유 놀라 탄식하되, “이 사람의 탈조화⁽⁶⁸⁷⁾는 귀신도 난측이라.⁽⁶⁸⁸⁾ 만일 오래 두었다가는 동오⁽⁶⁸⁹⁾의 화근이니⁽⁶⁹⁰⁾ 죽여 후환⁽⁶⁹¹⁾을 면하리라.”

서성⁽⁶⁹²⁾ 정봉⁽⁶⁹³⁾ 급히 불러, “수륙으로 나뉘 가서 장단⁽⁶⁹⁴⁾을랑 묻지 말고 제갈량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 오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⁶⁹⁵⁾ 남병산 달려들어 사면을 살펴보니,

집기장사⁽⁶⁹⁶⁾는 당풍이립⁽⁶⁹⁷⁾하고, 지재공명⁽⁶⁹⁸⁾은 직리이거.⁽⁶⁹⁹⁾

군사 불러 묻는 말이, “이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요 너머로 가더이다.”

정봉이 분을 내어 오강변⁽⁷⁰⁰⁾을 내려가니,

원근창과상⁽⁷⁰¹⁾에 잔물결은 흥용한데⁽⁷⁰²⁾ 공명의 내거종적무기처⁽⁷⁰³⁾라.

Lu Su(魯肅) responds, “I think he is not the kind of person to deceive us. Let’s wait a little more.”

“What makes you sure he doesn’t deceive us?” “I spent some time with him recently. He is a talented hero and man of virtue. How could a virtuous hero deceive others on such an important matter?”

[Jajinmori] Before Lu Su(魯肅) finishes, a wind starts to blow deep in the night and flags flutter.

Zhou Yu(周瑜) runs to a commanding post and looks at flags. Facing the flag of a white tiger and the flag of a turtle, the flag of a blue dragon and the flag of a red phoenix flap to the northwest.

All of a sudden, a southeast wind blows.

Zhou Yu(周瑜) sighs, “Even a god can’t fathom what Kong Ming(孔明) can do.

If I leave him alone, he will be a threat to Wu(吳) Country. I’ll eliminate future trouble by killing him.”

He calls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quickly. “Go via both the land and the river. Don’t argue with Kong Ming(孔明). Just cut his head off and bring it here.”

Xu Sheng(徐盛) gets on a boat, and Ding Feng(丁奉) gets on a horse. They climb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look around.

A man holds a flag and faces the wind. Kong Ming(孔明) has just left.

They ask a soldier, “You fool.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The soldier answers, “After he called up the wind, he loosened his hair and went over there with his feet bare.”

Exasperated, Ding Feng(丁奉) goes down to the Wu(吳) River. The waves are short and strong. They run around in the wide blue sea. Not even a trace of Kong Ming(孔明) can be seen.

수줄⁷⁰⁴)이 들어 보하되,⁷⁰⁵ “작일⁷⁰⁶ 일모시⁷⁰⁷)에 강안⁷⁰⁸)에 매인
 배는 양양강수⁷⁰⁹) 맑은 물에 고기 낚는 어선인가?
 십리장강벽파상⁷¹⁰)에 왕래하는 거룻배가?⁷¹¹ 동강칠리탄⁷¹²) 엄자
 룡⁷¹³)의 낚싯배가?
 야박진회근주가,⁷¹⁴ 야박진회근주가 술 사 실러 가는 배? 술 사 실러
 가는 배?
 강하⁷¹⁵)에 매인 배를 만단⁷¹⁶) 의심을 하였더니,
 뜻밖에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학창의⁷¹⁷) 걷어 안고 가만가
 만히 내려올⁷¹⁸) 제,
 배 안에 어떤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보기가 엄숙한 사람이 절을
 하고 읊을 치니,⁷¹⁹)
 입만 대고 종긋종긋,⁷²⁰) 고개를 까딱, 그 배 잡아 타고 금방 떠났소.”
 “웁다. 그게 공명이로구나. 애, 사공아!” “예.”
 “배를 빨리 저어 공명을 잡아야망정,⁷²¹)
 만일에 공명을 잡지 못하면, 네 목을 땡기령⁷²²) 베어 강수⁷²³)에다
 드리치면⁷²⁴) 네 백골⁷²⁵)을 뉘 찾으리?”
 저 사공 겁을 내어 돛을 갈아 붙이더니,
 “허기야 이 허야하 에 허야 에이이히 허야하. 우겨라⁷²⁶) 우겨라 우겨
 라 우겨라.”
 강두⁷²⁷) 마침 떠난 배 오강 여울을 바라보니,
 오강 여울⁷²⁸) 뗏는 배 흰 부채 뒤적뒤적⁷²⁹) 공명일시가⁷³⁰) 분명하다.
 “이놈, 사공아! 공명 탄 배가 분명커든 네가 먼저 물어보아라.”
 사공이 나서 왜⁷³¹) 말이, “앞에 뜬 배가 어디 배냐?”
 공명 탄 배 사공놈은 묵묵부답.⁷³²) “그 뱃놈들은 다 귀 먹었느냐?”
 정봉이 손을 치며,⁷³³)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계⁷³⁴) 머물러
 서 나의 한 말을 듣고 가요!”

A sailor says, "I saw what appeared to be a fishing boat on the bank of the clear river at sunset yesterday.

It might have been a traveling boat on the Yangzi(揚子) River.

It might have been Yan Zi Ling's(嚴子陵) fishing boat.

It might have been a boat going to get liquor for people staying in Qinhuai(秦淮) close to a bar at night.

I was suspicious of the boat tied at the bank of a river.

Unexpectedly, a man came down from the mountain with untied hair, bare feet, and a folded coat.

A majestic man on the boat bowed to the other man.

They whispered to each other, nodded to each other, got on the boat, and left immediately."

"Yes! He must have been Kong Ming(孔明). Hey boatman!"

"Yes."

"Pull the oars fast and catch up with Kong Ming(孔明).

If you don't, I'll cut your head off and throw it into this river. Nobody will ever find your bones."

Petrified, the boat man raises the sail.

"Yo-ho! Yo-heave-ho! Yo-ho! Yo-heave-ho!"

Their boat leaves the port. They see a rapids of the Wu(吳) River.

A boat floats on a rapids of the Wu(吳) River. The man fanning himself leisurely on the boat must be Kong Ming(孔明).

"Hey boatman! You ask them first, if Kong Ming(孔明) is on the boat."

The boatman shouts, "The boat over there! Identify yourself."

The boatman of Kong Ming's(孔明) boat doesn't respond. "Are you all deaf on that boat?"

Ding Feng(丁奉) waves his hand, "Hi, Kong Ming(孔明) over there. Stay where you are. I need to talk with you!"

공명이 하하 웃고 자룽을 곁눈 주어, “주유가 나를 해코자⁷³⁵⁾ 하여
정봉을 보냈으니, 저 일을 어찌 하리오?”

자룽이 분⁷³⁶⁾을 내어, “선생은 염려치 마옵시고 오늘날 소장의 비범
재주를 시험하오.”

우뚝 나서 하는 말이, “이놈, 서성, 정봉아!

우리 선생 해하려는 너희 두 놈 살해 마음 내 이무⁷³⁷⁾ 알았으니 너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화친⁷³⁸⁾을 생각하여 죽이든 앓거니와, 나의 수단⁷³⁹⁾이나 네 보
아라.”

강궁⁷⁴⁰⁾에다 철전⁷⁴¹⁾ 먹여,⁷⁴²⁾ 흥허복실⁷⁴³⁾ 전봇 서며,⁷⁴⁴⁾

대투⁷⁴⁵⁾를 숙이고, 주먹이 터지게 줌통⁷⁴⁶⁾을 짹 쥐고, 하삼지⁷⁴⁷⁾에
힘을 올려 궁현⁷⁴⁸⁾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밑 아씨,⁷⁴⁹⁾ 깍지손⁷⁵⁰⁾을 딱 떼니,⁷⁵¹⁾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⁷⁵²⁾ 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비거공중⁷⁵³⁾ 빠른 번개같이 떠들어가니, 서성 탄 배 돛대 지끈⁷⁵⁴⁾
부러져,

오던 배 가로 서 풍. 오던 배 가로 서 물결이 뒤집혀, 꺾 꺾 꺾 꺾
워리렁 출렁.⁷⁵⁵⁾

서성이 엎드려져서, “아이고, 하느님. 소장은 아무 죄가 없소. 제발
덕분에 살려주시오.”

12.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주유는 화공할 차비를 하고, 공명은 여러 장수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아니리] 서성이 혼⁷⁵⁶⁾이 없어 겁주하여⁷⁵⁷⁾ 돌아와 이 사연을 회보하
니,⁷⁵⁸⁾

Bursting into laughter, Kong Ming(孔明) sends a signal to Zhao Zi Long(趙子龍). Zhu Yu(朱瑜) sent Ding Feng(丁奉) to kill me. What should we do?"

Zhao Zi Long(趙子龍) is infuriated. "Sir, don't worry. My extraordinary skill is put to a test today."

He speaks confidently,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you villains!

I should kill you both because I already know you intend to kill Kong Ming(孔明).

But I won't kill you for the rel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Just enjoy watching my skill."

He loads a large bow with an iron arrow, breathes out, contracts his belly muscles, and takes his position.

He turns his head down, firmly holds the center of the bow with his fist, and puts strength on his lower three fingers, and pulls the string.

He pulls the arrow up to his ear and releases his thumb.

The arrow flies over the river at lightning speed, generating sounds.

It travels fast in the air. The mast of Xu Sheng's(徐盛) boat breaks off.

The pursuing boat stops, creating strong waves around it.

Xu Sheng(徐盛) falls over. "Oh my god. I am innocent. Please spare my life."

12.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Prepare for War.) Zhu Yu(朱瑜) prepares a fire attack. Kong Ming(孔明) assigns missions to his generals.

[Aniri] Confused, Xu Sheng(徐盛) returns to his camp and reports what happened to Zhu Yu(朱瑜).

주유 하릴없어, 조조를 몬야⁷⁵⁹ 치고 현덕을 후도하자⁷⁶⁰고 약속을
다시 하고,

수륙군을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 제,

[중모레] “감녕⁷⁶¹은 채중 항줄⁷⁶²을 거느리고 조조 진중 들어가 거화
위호하라!⁷⁶³”

전영의⁷⁶⁴ 태사자⁷⁶⁵와 좌영⁷⁶⁶에 여몽,⁷⁶⁷

중영⁷⁶⁸ 능통,⁷⁶⁹ 우영⁷⁷⁰ 동습,⁷⁷¹

후영 반장⁷⁷² 등 각술삼천,⁷⁷³ 수륙군 분발⁷⁷⁴ 각처에⁷⁷⁵ 매복⁷⁷⁶
하고,

영병⁷⁷⁷ 군관⁷⁷⁸ 제일대⁷⁷⁹ 한당,⁷⁸⁰ 제이대⁷⁸¹ 주태,⁷⁸²

제삼대⁷⁸³에 장흠,⁷⁸⁴ 제사대⁷⁸⁵에 진무⁷⁸⁶ 등은 삼백 전선⁷⁸⁷ 일
자⁷⁸⁸로 서고,

상부도독⁷⁸⁹ 주유, 정보⁷⁹⁰, 서성, 정봉, 선봉장⁷⁹¹ 육손⁷⁹²이라.”

주유 장중에⁷⁹³ 하령⁷⁹⁴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승화연여운하여 일제 응진하며, 봉충부휴대하여 산
봉여장도라고 하였으니,⁷⁹⁵

황개 화선⁷⁹⁶에 거화⁷⁹⁷ 보아 황혼시⁷⁹⁸ 호령출⁷⁹⁹을 각선에⁸⁰⁰ 청
후하라!” 이때에 공명은

[중모레] 일엽풍선⁸⁰¹ 빨리 놓아⁸⁰² 번구⁸⁰³로 돌아올 제,

일엽편주⁸⁰⁴ 배를 저어, ‘어기야 히야’ 애내성⁸⁰⁵ 높이⁸⁰⁶ 하며,

Zhu Yu(朱瑜) promises to himself to beat Cao Cao(曹操) first and Liu Bei(劉備) later.”

He gets his navy and army ready to move.

[Jungmori] “Gan Ning(甘寧)! You lead Caizhong’s(蔡中) prisoners of war into Cao Cao’s(曹操) camp and send a signal with a torch.

Tai Shi Ci(太史慈) is at the front of the formation and Lu Meng(呂蒙) is on the left.

Ling Tong(凌統) is in the middle of the formation and Dong Xi(董襲) is on the right.

Pan Zhang(潘璋) is at the back of the formation. Each of them leads 3,000 army and navy soldiers and stay in ambush everywhere.

Han Dang(韓當)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first unit and Zhou Tai(周泰) the second unit.

Jiang Qin(蔣欽) i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third unit and Chen Wu(陳武) the fourth unit. Three hundred of their warships stand in a row.

Zhu Yu(朱瑜), Cheng Pu(程普),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are high commanding officers. Lu Xun(陸遜) is the officer at the vanguard.”

Zhu Yu(朱瑜) gives an order to his generals.

“A military strategy holds that we should move when fire and smoke rise up like a cloud, and attack the enemy with rifles and axes as if you were breaking a mountain into pieces.

Huang Gai(黃蓋) in the fire ship! When you see the torch at dusk, send an order to each ship!”

[Jungmori] Kong Ming(孔明) moves his sailing boat fast to return to Fankou(樊口).

While the small sailing boat is rowed, a rowing song is sung loudly.

범피중류⁸⁰⁷) 등등등⁸⁰⁸) 지국충⁸⁰⁹) 소리를 하며 은은히⁸¹⁰) 떠들어
 와서 현주를 뵈인⁸¹¹) 후에,
 방포일성⁸¹²)에 천지를 움직이며, 금고⁸¹³)를 쿵쿵 울리며 장줄⁸¹⁴)을
 분발⁸¹⁵)할 제,
[자진모레] (일부 채록 불능) 진군장군⁸¹⁶)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
 천군⁸¹⁷) 거느리고 오림⁸¹⁸) 갈대숲에 둔병매복⁸¹⁹)하였다가,
 조군⁸²⁰) 절반 지난 후에 불 놓아 엄살⁸²¹)하면, 다는 못 잡아도 절반은
 잡으리로다.”
 거기장군⁸²²) 장익덕⁸²³)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거느리고 오림 이
 룡⁸²⁴)에 두 길 호로곡에 둔병매복하였으면,
 내일 오사⁸²⁵)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갈 것이니 엄살하여 사로잡으라.
 잡든 못하여도 이번 길에 익덕의 공이 적지 않나니.”
 미방,⁸²⁶) 미축,⁸²⁷) 유봉⁸²⁸)을 불러갖고,
 “너희는 각각 전선을 타고 강구⁸²⁹) 멀리 떠나가 패군⁸³⁰) 기계⁸³¹)를
 앓아오너라.”

13. (관운장 출전) 공명이 조조를 놓아줄 것이라며 관운장 에게 임무를 맡기지 않자, 조조를 놓아주면 목숨을 바 치겠다고 약속하고 화용도로 출발한다.

[아니레] 약속하여 분발⁸³²)할 제,
[엇모레] 한수정후⁸³³) 관공⁸³⁴) 대장이 들어온다.
 봉의 눈⁸³⁵)을 부릅뜨고, 삼각수⁸³⁶)를 휘날리고,

The boat creaks as it is row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Moving softly, Kong Ming(孔明) reports to Liu Bei(劉備).

A cannon is shot, shaking the world. Drums are hit when
officers and soldiers prepare for war.

[Jajinmori] Kong Ming(孔明) speaks to Zhao Zi Long(趙子龍).
“Lead 3,000 soldiers to Wulin(烏林) Forest and lie in ambush in
the reeds.

After the half of Cao Cao’s(曹操) troops pass by, burn them to
death. You will get at least half of them, although you can’t get
them all.”

He speaks to Zhang Fei(張飛). “You also lead 3,000 soldiers, go
over the ridge of the mountain on Wulin(烏林) Forest and
Yiling(彝陵), and hide in ambush in Hulu(葫蘆) Valley.

Cao Cao’s(曹操) troops will pass by through rain around noon
tomorrow. Kill the others and catch Cao Cao(曹操) alive.

Even if you fail to catch him, your feat will be important.”

Kong Ming(孔明) speaks to Mi Fang(糜芳), Mi Zhu(糜竺), and
Liu Feng(劉封).

“Get on warships, stay away from Cao Cao’s(曹操) troops, and
then deprive them of their weapons!”

13. (Guan Yu(關羽) Goes to War.) Kong Ming(孔明)
does not assign a mission to Guan Yu(關羽) for
fear that he might release Cao Cao(曹操). After
pledging that he will offer his life if he sets Cao
Cao(曹操) free, he goes to Huarong(華容) Road

[Aniri] Missions are assigned to generals.

[Eonmori] General Guan Yu(關羽) comes in.

He opens his eyes wide which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His whiskers and beard look like a triangle which points up.

청룡도⁸³⁷⁾ 빗겨⁸³⁸⁾ 들고 큰 소리로 여짜오되,
 “관모⁸³⁹⁾가 전장마다 낙후⁸⁴⁰⁾한 일이 없삽더니,⁸⁴¹⁾ 오늘날 찾는 일이
 없사오니 그 뜻이 무삼⁸⁴²⁾ 일리오?”
 [아니레] 공명이 허허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지⁸⁴³⁾ 화용
 도⁸⁴⁴⁾로 보내고자 하였더니,
 장군이 전일⁸⁴⁵⁾ 조조 후대⁸⁴⁶⁾ 정의⁸⁴⁷⁾만 생각하고 반드시 놓으리
 라.⁸⁴⁸⁾
 일로⁸⁴⁹⁾ 하여 찾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한탄할쏘냐?”
 관공이 정색하며⁸⁵⁰⁾ 칼을 짚고 궤고하되,⁸⁵¹⁾
 “군중은 무사⁸⁵²⁾오니 어찌 사정⁸⁵³⁾을 두오리까?
 만일 조조를 놓사오면 의율당참⁸⁵⁴⁾하올 줄로 군령장⁸⁵⁵⁾ 다짐을 하오.”
 다짐 사언 하였으되, “살등⁸⁵⁶⁾ 소장⁸⁵⁷⁾ 관모⁸⁵⁸⁾는 지벌⁸⁵⁹⁾이 수미이
 오나⁸⁶⁰⁾ 충의는 진성이요,⁸⁶¹⁾
 회도원지결의하니⁸⁶²⁾ 망사생지동심이요,⁸⁶³⁾ 전장출이간고이오나⁸⁶⁴⁾
 불위기령이갈력이라.⁸⁶⁵⁾
 기병이공토하니⁸⁶⁶⁾ 방조이하착고.⁸⁶⁷⁾
 여피소아생금함이 무이탐낭취물이니,⁸⁶⁸⁾ 약이위령이옉거든,⁸⁶⁹⁾ 상
 고⁸⁷⁰⁾ 처치 의당사라.”⁸⁷¹⁾
 착함⁸⁷²⁾이 분명하니 공명이 허락하고,
 “장군이 화용도로 가시랑이면⁸⁷³⁾ 화용도 높은 산에 연기 내고, 조조
 를 유인하여 묻지 말고 사로잡아 오오.”
 관공 가로되, “그곳에 길이 둘이오니,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 들
 어오면 어찌 하오리까?”

Holding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he speaks loudly, “Whenever I went to war, I did not fall behind. Today, however, I was not assigned any mission. What is going on?”

[Aniri] Kong Ming(孔明) laughs and answers, “I intended to send you to the most important place, Huarong(華容) Road.

You will release Cao Cao(曹操) without fail, thinking about his past hospitality to you.

I didn’t give you any mission for that reason. Please don’t complain.”

Guan Yu(關羽) turns serious. He kneels down, supporting himself with a sword.

“How can I act on a personal feeling as a military officer?

I made a military pledge that my head will be cut off if I release Cao Cao(曹操).”

The pledge reads, “I am a low-ranking officer. My social standing is low, but my loyalty is high.

In a peach orchard, Liu Bei(劉備), Zhang Fei(張飛), and I pledged to live and die together. We went through hardships in wars, obeyed orders, and did our best.

We are leading an army to destroy the enemy. How can I set Cao Cao(曹操) free and come back?

To catch Cao Cao(曹操) is as easy as to finding something in a pocket. If I disobey your order, I will report to my superior and will be deserved to be killed.”

Since Guan Yu’s(關羽) sign is clear, Kong Ming(孔明) gives the permission.

“You go to Huarong(華容) Road, lure Cao Cao(曹操) by making smoke on a mountain. Don’t argue with him. Just bring him here alive.”

Guan Yu(關羽) asks, “There are two roads there. What if Cao Cao(曹操) does not come to Huarong(華容) Road?”

공명 대답하되,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 들어오면, 나도 이곳에 군령장을 두오니 그리 아오.”

맞군령장⁸⁷⁴) 두 착함이 분명하니,

관공 장군 좋아라고 관평,⁸⁷⁵) 주창⁸⁷⁶) 거느리고, 원앙대로⁸⁷⁷) 배립⁸⁷⁸)하고 화용도로 행군할 제,

기색⁸⁷⁹)은 영웅이요, 검광⁸⁸⁰)은 여상이라.⁸⁸¹)

현덕 공명 칭찬하고 주유 용병⁸⁸²) 간심차로⁸⁸³) 번구⁸⁸⁴)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잠기로다.⁸⁸⁵) 이때에 조조는,

14. (화공) 정욱이 방비를 하자고 하나 조조는 무시하는데, 황개가 불로 공격하자 조조 군사들은 때죽음을 당한다.

[진양조] 장대상에 가⁸⁸⁶) 높이 앉아 제장⁸⁸⁷)과 상의할 제, 제장다려⁸⁸⁸) 상의를 할 제,

“어와, 장졸들아. 내 이 창으로 황건⁸⁸⁹) 동탁⁸⁹⁰)을 베고, 여포⁸⁹¹)를 사로잡아 사해⁸⁹²)를 거의 평정⁸⁹³)하니, 이 아니 천운⁸⁹⁴)이냐?

득천하⁸⁹⁵)한 연후에⁸⁹⁶) 천금상⁸⁹⁷)에 만호후⁸⁹⁸)를 차례로 내가 봉하리라.”

이렇듯이 장담을 할 적에,

[아니레] 정욱⁸⁹⁹)이 여짜오되, “분분설한용동⁹⁰⁰) 때에 동남풍이 괴이하니 미리 예방하사이다.”⁹⁰¹)

조조 듣고 대답하되, “동지에 일양이 시생하니⁹⁰²) 금의⁹⁰³) 동남풍을 의심 말라.”

Kong Ming(孔明) answers, “I also make a military pledge that if Cao Cao(曹操) does not come to Huarong(華容) Road, you can behead me.”

The two pledges are signed clearly.

Delighted, Guan Yu(關羽) leads Guan Ping(關平) and Zhou Cang(周倉). They march together to Huarong(華容) Road.

Guan Yu(關羽) looks like a hero, and his sword shines awesomely.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praise Guan Yu(關羽). Zhu Yu(朱瑜) moves to Fankou(樊口) to take a look around.

A southeast wind begins to blow.

14. (Fire Attack) Cheng Yu(程昱) recommends a defensive measure, but Cao Cao(曹操) ignores his recommendation. As Huang Gai(黃蓋) attacks Cao Cao's(曹操) troops with fire, they are massacred.

[Jinyangjo] Meanwhile, Cao Cao(曹操) sits on the high commanding post and holds a meeting with his officers.

“Hello, officers and soldiers! I killed Yellow-Hooded Gangs and Dong Zhuo(董卓) with this spear and captured Lu Bao(呂包) alive, bringing peace to the world. Isn't this fortunate?

After obtaining the world, I will give you a lot of money and feudal positions.”

He speaks confidently as said above.

[Aniri] Cheng Yu(程昱) says, “It is strange that a southeast wind blows in winter. Let's take a defensive action in advance.”

Cao Cao(曹操) answers, “The day gets longer gradually after the winter solstice. Don't be suspicious of the southeast wind.”

분부하고 황개⁹⁰⁴) 약속을 기다리는데,
 [중머리] 이때에 황개는 이십 화선⁹⁰⁵) 거느리고,
 청룡아기⁹⁰⁶) 선기⁹⁰⁷) 삼아 ‘선봉대장⁹⁰⁸)에 황개라’ 두렛이⁹⁰⁹) 꽃고,
 청포장⁹¹⁰)을 둘러치고, 삼승돛⁹¹¹) 높이 달고
 오강⁹¹²) 여울⁹¹³)을 바람을 맞추어, 조조 진중 바라보며 지국총⁹¹⁴)
 소리하고 은은히⁹¹⁵) 떠 들어올 제,
 조조가 보고 대희⁹¹⁶)하여 진중⁹¹⁷)에 자랑하되,
 “황공복⁹¹⁸)이 나를 위하여 양초⁹¹⁹) 신고 오는 배는 하늘이 도움이라.
 허허 호호.” 대소⁹²⁰)하니,
 [아니레]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군량⁹²¹)을 신고 오는 배량이
 면⁹²²) 선체⁹²³)가 온중할디,⁹²⁴)
 요요⁹²⁵)하고 범류⁹²⁶)하니 만일 간계⁹²⁷) 있을진댄⁹²⁸) 어찌 회피하오
 리까?”
 조조 대체 정욱 말을 듣고 떠 들어오는 배를 가만히 살펴보니, 의심이
 딱 났든가 보더라.
 [자진모레] 문빙⁹²⁹)이 방색⁹³⁰)타가 살 맞아 떨어지고,
 황개 화선 이십 척에 거화포⁹³¹) 신기전⁹³²)과 때때때 나팔소리,
 두리둥둥 뇌고⁹³³) 치며 고향이 진동하며, 한 번 불이 버섯⁹³⁴) 천지가
 떠그르르르르,
 두 번을 불이 버섯허니 우주가 바뀌는 듯, 세 번을 불로 치니 화염⁹³⁵)
 이 충천,⁹³⁶)
 풍성⁹³⁷)이 우르르르, 물결은 출렁, 전선은 뒤뚱,⁹³⁸) 돛대 와지끈,⁹³⁹)
 용총,⁹⁴⁰) 활대,⁹⁴¹) 노사육대,⁹⁴²) 비우,⁹⁴³) 삼관나리,⁹⁴⁴) 죽판,⁹⁴⁵)

After giving the answer, he waits for Huang Gai(黃蓋) to show up.

[Jungmori] Just then, Huang Gai(黃蓋) leads twenty fire ships. He carries a blue dragon flag which clearly reads: 'Huang Gai(黃蓋), the vanguard officer.'

His ship is covered with a blue cloth, and the sail of hemp cloth is spread high.

Huang Gai(黃蓋) moves, while creaking, to Cao Cao's(曹操) area with the help of the flow of the Wu(吳) River and the wind. Cao Cao(曹操) is exuberant and boastful to his troops.

"Huang Gai(黃蓋) is coming to me with the food for men and horses. Heaven is helping me. Hahaha." He laughs loudly.

[Aniri] Cheng Yu(程昱) asks, "If the ships are loaded with the military food, they should be heavy.

But they move easily along with the waves. What if a wicked plan is involved with the ships?"

After listening to Cheng Yu(程昱), Cao Cao(曹操) observes the coming ships carefully and becomes suspicious of them.

[Jajinmori] Trying to block Huang Gai's(黃蓋) ships, Wen Pin(文聘) is shot by an arrow and falls down.

Huang Gai's(黃蓋) twenty fire ships shoot arrow rockets and blow trumpets.

Hitting drums, Huang Gai's(黃蓋) soldiers set ships on fire. The world trembles.

With another fire, the universe seems to change. With the third fire attack, flames rise up to the sky.

A wind blows, waves are created, warships totter, and masts break down.

What drops into the water are ropes for sails, pieces of wood supporting sails, long oars, the bottom parts of ships, small boats, boards,

행장,⁹⁴⁶⁾ 명예,⁹⁴⁷⁾ 각 포대⁹⁴⁸⁾가 물에 가 풍. 기치⁹⁴⁹⁾ 펄펄,
 장막⁹⁵⁰⁾ 쪽쪽,⁹⁵¹⁾ 화진,⁹⁵²⁾ 궁진,⁹⁵³⁾ 방패, 창과 깨어진 통노구,⁹⁵⁴⁾
 거말장,⁹⁵⁵⁾ 마름쇠,⁹⁵⁶⁾ 나발,⁹⁵⁷⁾ 북, 쟁,⁹⁵⁸⁾ 팽과리 쟁그렁 와르르
 철철 산산이⁹⁵⁹⁾ 깨어져서
 풍파강상⁹⁶⁰⁾에 화광⁹⁶¹⁾이 훔훔. 수만 전선이 간 데 없고
 적벽강이 뒤끓어,⁹⁶²⁾ 불빛이 낮빛 아니냐?
 가련할손⁹⁶³⁾ 백만 군병은 날도, 뛰도 못하고, 숨 맥히고, 기맥히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찢려,
 앓어 죽고, 서서 죽고, 울다가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원통히 죽고, 성내어 죽고, 졸다가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⁹⁶⁴⁾으로 죽고, 무단히⁹⁶⁵⁾ 죽고, 함부로덤부로⁹⁶⁶⁾
 죽고,
 땀때그르르 궁굴며⁹⁶⁷⁾ 아뿔싸⁹⁶⁸⁾ 가슴 탕탕 뛰다리며⁹⁶⁹⁾ 죽고,
 참으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이놈 네 에미!” 욕하며 죽고, 떡 입에다 물고 죽고, 꿈꾸다 죽고,
 한 놈은 선두⁹⁷⁰⁾로 우르르 나서며, 이마 위에다 손을 얹고 고향을
 바라보며 양천통곡⁹⁷¹⁾ 호천망극,⁹⁷²⁾
 “아이구, 어머니, 나는 죽습니다.” 물에 풍 빠져 죽고,
 한 군사 내달으며,⁹⁷³⁾ “나는 남의 오대독신⁹⁷⁴⁾이로구나.
 칠십당년⁹⁷⁵⁾ 늙은 양친을 내가 다시 못 보고 죽겠구나.
 내가 아무 때라도 이 봉변 당하면은 먹고 죽을라고 비상⁹⁷⁶⁾ 사 넣었
 더니라.”
 외삭외삭 깨물어 먹고 죽고,

tools, keels, and casemates. Flags flutter.
What gets broken into pieces are tents, fire arrows, arrows,
bows, shields, spears, brass pots, pieces of wood, pieces of iron,
trumpets, drums, and gongs.
Flames move around on the waves of the windy river.
Thousands of warships are destroyed.
The Chibi(赤壁) River boils, and the flames are as bright as the
day.
The pitiful million soldiers can neither fly nor run. They are
suffocated, stunned, and pierced.
Some die, sitting. Some die, standing. Some die, crying and
laughing. Some are trampled to death.
Some are beaten to death. Some die resentfully. Some die,
venting anger. Some die, dozing off.
Some die truly. Some die humorously. Some die without reason.
Some die randomly.
Some roll over, hit their chests, and die.
Some die really. Some die falsely. Some die, trying to die.
Some die while speaking curse words related to someone's
mother. Some die, with rice cake in their mouths. Some die
while dreaming.
A soldier runs to the bow of a ship, puts his hand on his
forehead, looks at the sky in the direction of his hometown,
wails over his parents.
“Mother. Alas. I am dying.” He falls into the water and dies.
A soldier jumps forward. “I am the only child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I am dying without see my seventy year old parents.
I was carrying poison to take in case I fall into such a
misfortune.”
He wildly crunches the poison between his teeth and dies.

한 놈은 그 통에⁹⁷⁷⁾ 한가헌 치라고⁹⁷⁸⁾ 시조 반 장만 빼다가⁹⁷⁹⁾ 죽고,
 직사,⁹⁸⁰⁾ 몰사, 대하수중⁹⁸¹⁾의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풀 듯 더
 러더러⁹⁸²⁾ 풀며,
 적극,⁹⁸³⁾ 조충,⁹⁸⁴⁾ 괴암통,⁹⁸⁵⁾ 남날개,⁹⁸⁶⁾ 독바늘⁹⁸⁷⁾ 적벽풍파⁹⁸⁸⁾에
 떠나갈 적,
 일등 명장이 쓸 데가 없고, 날랜 장수가 무용이로구나.⁹⁸⁹⁾
 허저⁹⁹⁰⁾는 창만 들고, 서황⁹⁹¹⁾은 칼만 들고 남은 군사 거느리고 죽을
 뻔 도망할 제,
 황개 화연⁹⁹²⁾ 무릅쓰고 쫓아오며 왜⁹⁹³⁾ 말이,
 “붉은 홍포⁹⁹⁴⁾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⁹⁹⁵⁾ 죽거라! 선봉대
 장에 황개라!”
 호통하니, 조조 여혼⁹⁹⁶⁾ 기겁⁹⁹⁷⁾하여 입은 홍포⁹⁹⁸⁾ 벗어버리고, 다른
 군사를 가리키며, “참 조조는 저기 간다!”
 제 이름을 제가 부르며, “이놈 조조야, 부질없이 총 놓다⁹⁹⁹⁾
 화약 눈에 튀어들어 몹시도 아리니라. 날다려¹⁰⁰⁰⁾ 조조란 놈 제가
 진실 조조니라.” 피탈양탈¹⁰⁰¹⁾ 도망칠 제,
 장요 활을 급히 쏘니, 황개 맞아서 배 아래 뚝 떨어져 물에 가 풍
 낙수하니,¹⁰⁰²⁾
 “의공¹⁰⁰³⁾아, 날 구하라.” 한당 들고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랴¹⁰⁰⁴⁾ 적에,
 좌우편 호통소리 조조, 장요 낮이 없어 오름계로 도망할 제,
 조조 잔말¹⁰⁰⁵⁾이 비상하여 “둔중¹⁰⁰⁶⁾ 났다 다칠세라. 배 아프다, 농치
 지¹⁰⁰⁷⁾ 마라. 까딱하면은 똥 싸것다.
 여봐라, 정욱아, 위급하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날 살려라. 날 살
 려라.”

Another soldier recites a poem, pretending that he is at leisure in such a situation.

With the many instant deaths, it looks as if noodles are being disentangled in water.

Red spears, old rifles, bullet cases, powder cases, and poisonous needles are blown away by the wind of the Chibi(赤壁) River. The first-rate generals and warriors are useless.

Xu Chu(許褚) holds only a spear, and Xu Huang(徐晃) holds only a sword. They lead the remaining soldiers and narrowly flee.

Huang Gai(黃蓋) shouts, as he chases them through fire and smoke.

“That man in the red silk clothes is Cao Cao(曹操)! Don’t run away. Just die. I am the vanguard officer, Huang Gai(黃蓋). With the shout, Cao Cao(曹操) is petrified, takes off his red coat, and points to a soldier. “The real Cao Cao(曹操) goes over there!”

Calling his own name, Cao Cao(曹操) says, “Cao Cao(曹操), you villain. Don’t shoot a rifle in vain.

Only gunpowder will get into your eyes, hurting them. That man calling me Cao Cao(曹操) is real Cao Cao(曹操).” Cao Cao(曹操) flees, playing a little trick.

Zhang Liao(張遼) shoots an arrow quickly. Shot by the arrow, Huang Gai(黃蓋) falls over into the water.

“Han Dang(韓當), help me.” Han Dang(韓當) picks Huang Gai(黃蓋) out of the water swiftly and sends him to their camp. Confused by shouts on the left and right, Cao Cao(曹操) and Zhang Liao(張遼) flee to Wulin(烏林) Forest.

Cao Cao(曹操) speaks useless words. “I got a boil. I might get hurt. My belly hurts. Don’t shake me. I might take a shit. Hey Cheng Yu(程昱)! I am in jeopardy! Help me.”

조조가 겹겹에¹⁰⁰⁸) 말을 거꾸로 타고,
 “여봐라, 정욱아. 어찌 오늘은 이놈의 말이 퇴불여전¹⁰⁰⁹)하여 적벽강
 으로만 뿌두둥뿌두둥¹⁰¹⁰) 돌아가는구나.
 주유, 노숙이 축지법¹⁰¹¹)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마는, 상부텀¹⁰¹²) 땅
 을 찍어 우기던가보구나.¹⁰¹³)
 여봐라, 정욱아. 위급하다. 날 살려라.” “승상이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옮겨 타겠느냐? 말 머리만 떼어다가 똥구녕¹⁰¹⁴)에다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15. (새타령) 조조가 화용도로 달아나는데, 죽은 장졸의 원 혼이 새가 되어 울음을 운다.

[아니리] 정욱¹⁰¹⁵)이 웃고 여짜오되, “승상 말씀을 듣자오니 영웅이란
 말씀은 삼국에 날만도 하시오.”

[중모리] 창황분주¹⁰¹⁶) 도망을 혈 적에, 새만 푸르르르르 날아가도
 복병¹⁰¹⁷)인가 의심되고, 낙엽만 버쩍하여도 추병¹⁰¹⁸)인가 의심이로
 구나.

[아니리] 조조가 저 화용도로 들어가면서, 말허리에 앉아 목을 움쭙
 움쭙¹⁰¹⁹) 움츠리고 가니,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이제 아무 것도 없으니,
 목을 좀 훨씬 늘여서 사방 경개¹⁰²⁰)를 좀 살펴보고 가십시오.” “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목을 좀 막 늘여가지고 경개를 좀 살펴볼 모양인데,
 의외에 메초리¹⁰²¹) 하나가 조조 탄 말 굽통¹⁰²²) 속에서 표루루루¹⁰²³)
 날아놓은 것이,

Horried, Cao Cao(曹操) gets on the horse backward.
 “Hey Cheng Yu(程昱)! This horse doesn’t move forward. It keeps going backward to the Chibi(赤壁) River.
 I thought Zhu Yu(朱瑜) and Lu Su(魯肅) couldn’t shorten the distance, but it appears they can do so by hitting the ground from the sky.
 Hey Cheng Yu(程昱)! I am in jeopardy. Help me.” “Premier, you are on the horse backward.”
 “When can I sit on the horse forward! Pull the head off the horse and attach it to the asshole quickly.”

15. (Bird Song) As Cao Cao’s(曹操) troops enter Huarong(華容) Road, birds cry. They are the malignant spirits of the dead officers and soldiers.

[Aniri] Cheng Yu(程昱) laughs and says, “From what you say, I can see why you are said to be a hero of the three countries.”
 [Jungmori] While fleeing in a hurry, Cao Cao(曹操) takes flying birds to be ambushing soldiers and falling leaves to be pursuing soldiers.
 [Aniri] As Cao Cao(曹操) enters Huarong(華容) Road, he ducks and sticks his head repeatedly on his horse.
 Cheng Yu(程昱) says, “Premier, there is nothing now. Please stick your neck out and look around the landscape.”
 “Hey, is it really quiet?”
 Cao Cao(曹操) tries to stick his neck out to look around. Suddenly, a quail flies up away from the horseshoes of his horse.

어찌 놀랬던지, “아, 정옥아, 저 내 모가지 좀 있는가 봐라.”
 정옥 웃고 여짜오되, “승상님 목 없으면 말은 어이 하시오?”
 “아따,¹⁰²⁴ 인자¹⁰²⁵ 막¹⁰²⁶ 칼날이 번뜻¹⁰²⁷하고 목너머로 지내갔다.”
 “승상님 눈치 밝소. 조그마한 메추리 보고 놀라실 적에, 큰 독수리를
 보셨으면 그냥 잠을 쓰시겠소그려.”¹⁰²⁸
 조조가 어찌나 열이 없던지,¹⁰²⁹ “아, 이제 막 그것이 메추리냐? 그놈
 비록 조그마하지마는 바싹 구워놓으면 술 안주 몇 점 비상하게¹⁰³⁰
 맛나니라.”
 “이 급한 중에 입맛은 안 변했소그려.” 조조가 장줄을 거느리고 화용
 도로 들어갈 적에, 이것이 적벽가 새타령인디,
 그 새 그 저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¹⁰³¹라는 새가 되어서
 조조를 보고 모두 원망을 하느디,
 [중모레] 산천은 힘준¹⁰³²하고 수목¹⁰³³은 총잡¹⁰³⁴헌디,
 만학¹⁰³⁵에 눈 쌓이고, 천봉¹⁰³⁶에 바람칠 적에,¹⁰³⁷
 화초목실¹⁰³⁸이 없었으니 새가 어이¹⁰³⁹ 올라마는,
 적벽의 객사원귀¹⁰⁴⁰ 고향 생각 한조¹⁰⁴¹들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
 지그려¹⁰⁴² 우더니라.¹⁰⁴³
 도탄¹⁰⁴⁴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헬런고?¹⁰⁴⁵
 귀촉도¹⁰⁴⁶ 귀촉도 불여귀¹⁰⁴⁷라 슬피 우는 저 촉혼조.¹⁰⁴⁸
 여산군량¹⁰⁴⁹을 소진¹⁰⁵⁰하여 춘비노략¹⁰⁵¹이 한때로구나.¹⁰⁵² 솟텅
 솟텅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군¹⁰⁵³이 어인 일고?¹⁰⁵⁴ 히뻘쭉히뻘쭉
 저 뻘쭉새.
 자칭 영웅 간 곳 없고 백계도생¹⁰⁵⁵을 피로만 판다.¹⁰⁵⁶ 피꼬리 수루
 루루 저 피꼬리새.

Cao Cao(曹操) is frightened. “Cheng Yu(程昱)! Check my neck out.”

Cheng Yu(程昱) laughs and says, “If you don’t have a neck, how can you speak?”

“Well, a sword just passed over my neck fast.”

“You have keen eyes. You are frightened at a small quail, so you would passed out at a pheasant.”

Cao Cao(曹操) is ashamed. “Was it a quail? Although small, it could be delicious food that goes well with wine if it were roasted well.”

“Your taste hasn’t changed even in such trouble.” Cao Cao(曹操) enters Huarong(華容) Road with his officers and soldiers. This is called the bird song.

The soldiers who died in the Chibi(赤壁) River already became birds, holding grudges against Cao Cao(曹操).

[Jungmori] Mountains are steep, and forests are thick.

Snow is piled up in numerous valleys, and a wind blows on many mountain tops.

There can’t be sounds of birds because there are no flowers, grass, or fruit.

The resentful spirits of the soldiers who died on the Chibi(赤壁) River away from their homes are reborn into birds and cry resentfully against Cao Cao(曹操).

How many years are the troubled soldiers away from their homes?

The cuckoo says sadly that it cannot go back home.

The huge military food store is exhausted, and soldiers are looting villages. So cries a hungry bird.

How can Cao Cao(曹操) be defeated after bragging about one million soldiers? So cries a sarcastic bird.

The self-proclaimed hero has gone only after playing a trick to survive. So cries a parrot.

초평대로¹⁰⁵⁷)를 마다하고, 심산총림¹⁰⁵⁸)의 골기악 까옥 까옥 울고 가는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들 냉병¹⁰⁵⁹)인들 아니 들랴? 병에 좋다고 쑥국 쑥국.

장요¹⁰⁶⁰)는 활을 들고, 살이 없다 설위 마라, 살 간다. 수루루루루¹⁰⁶¹) 저 호반새.¹⁰⁶²)

반공¹⁰⁶³)에 둥둥 높이 떠 동남풍을 내가 막아주랴고 너울너울 저 바람막이.¹⁰⁶⁴)

철망에¹⁰⁶⁵) 벗어났네. 화병¹⁰⁶⁶)아 우지 마라. 노고지리 노고지리, 저 종달새.

황개 호통¹⁰⁶⁷)에 겁을 내어 벗은 홍포¹⁰⁶⁸)를 내 입었다. 따옥 따오기 저 따오기.¹⁰⁶⁹)

화용도가 불원이로다.¹⁰⁷⁰) 적벽풍파¹⁰⁷¹)가 밀어온다. 어서 가자 저 기러기야.

험난 끝에 겁낸 장졸 갈수록이 알망곶네.¹⁰⁷²) 복병¹⁰⁷³)을 보고서 도망하여라.

이리로 가며 팽당그르르르,¹⁰⁷⁴) 저리로 가며 해뜰해뜰,¹⁰⁷⁵) 사설¹⁰⁷⁶) 많은 저 할미새.

적벽화전¹⁰⁷⁷) 패군지장¹⁰⁷⁸) 순금 갑옷을 어디다 끌러 두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찔러,

기한¹⁰⁷⁹)에 골몰¹⁰⁸⁰)이 되어 내 단장¹⁰⁸¹)을 부러워 말고, 상처 독혈¹⁰⁸²)을 쫓아 주마.

속 텅 빈 고목을 안고, 뽕죽한 저 긴 부리로 오르며 떼그르르르,¹⁰⁸³) 내리며¹⁰⁸⁴) 땡떼그르르르, 또드락 꾸벅 지꼿¹⁰⁸⁵) 떼그르르르르. 저 때찌구리¹⁰⁸⁶)는 처량허다.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Cao Cao(曹操) chose a deep mountain with green trees over a
 wide road with thick grass. So cries a crow.
 How poor! Hungry soldiers must have suffered from the cold
 weather. So consoles a cuckoo.
 Zhang Liao(張遼) holds only a bow. Don't worry you don't have
 an arrow. Here go arrows. So cries a kingfisher.
 I will fly high in the sky and block the southeast wind. So cries
 a bird with its wings wide open.
 Don't weep, cook soldier. You escaped from an iron net. So
 cries a skylark.
 I put on a red coat after Huang Gai's(黃蓋) horrifying shout. So
 cries a sacred ibis.
 Huarong(華容) Road is not far. The strong waves of the Chibi(赤
 壁) River are coming. Let's go quickly. So cries a wild goose.
 After the tough experience, the soldiers were intimidated and
 then became ill-tempered. They saw the ambushing soldiers and
 fled.
 So cries a talkative wagtail, turning around here and there.
 Without his golden body armor, a defeated warrior in the fire
 attack of the Chibi(赤壁) River was shot by an arrow and a
 spear.
 He is hungry and cold. Don't envy my neat look. Do you want
 me to peck your poisonous wound?
 A woodpecker climbs up and down an old hollow tree, creating
 sounds with its sharp long beak. It is pathetic.
 After listening to each bird's cry, Cao Cao(曹操) laments.

16. (조자룡 피해 도망) 조조가 웃다가 조자룡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장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한다.

[아니리] 한참 울더니, 조조는 웃음으로 망했다는 말이 있는데, 멍생이¹⁰⁸⁷ 웃음으로 느닷없이 내갈기는데,¹⁰⁸⁸ “매해해해해.” 하고 웃어 놓으니,

정욱이 질색을 하며, “아이고, 승상님. 근근도생¹⁰⁸⁹ 창황중¹⁰⁹⁰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아니하시고,

이 좁은 골목에서 복병¹⁰⁹¹이 일어나면 어찌실려고 시방¹⁰⁹² 이렇게 웃소?”

“내 웃은 바가 아니라, 읍서¹⁰⁹³ 생각해 보니,

주유는 피가 없고, 공명은 슬기가 없기쥬에¹⁰⁹⁴ 내 홀로 웃은 바가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말이 맺지 못하여 화용 상상봉¹⁰⁹⁵에서 방포일성¹⁰⁹⁶이 ‘꿈.’

[엇모리] 오림산곡¹⁰⁹⁷ 양편으로 고성¹⁰⁹⁸ 화광¹⁰⁹⁹이 층천.¹¹⁰⁰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¹¹⁰¹ 백옥¹¹⁰² 같고, 눈은 소상강¹¹⁰³ 물결 같고, 인¹¹⁰⁴의 허리, 곰의 팔에 장창¹¹⁰⁵을 빗겨 들고,

큰 소리로 호령¹¹⁰⁶하되, “상산명장¹¹⁰⁷ 조자룡을 아는다, 모르는 다?¹¹⁰⁸ 조조는 단지¹¹⁰⁹ 말고 내 장창 받아라!”

말 놓아 달려들어 동에 얼른¹¹¹⁰ 서를 치고, 남에 얼른 북을 치며,

16. (Fleeing from Zhao Zi Long(趙子龍)) After laughing
Cao Cao(曹操) comes across Zhao Zi Long(趙子龍).
He narrowly escapes his death with the help of his
generals.

[Aniri] After weeping, Cao Cao(曹操) suddenly laughs loudly like a goat. It is said that Cao Cao(曹操) collapsed because of his laughter.

Cheng Yu(程昱) is astonished. “Hello, Mr. Premier. We are doing our best to survive this trouble. How can you laugh without thinking about our sad fate?

What if we are ambushed in this narrow road? Why do you laugh now?”

“I didn’t laugh. I pondered while crying.

Zhu Yu(朱瑜) is not sly, and Kong Ming(孔明) is not wise. I only appeared to laugh.”

The moment he finishes his words, the sound of a cannon is heard from the highest peak.

[Eonmori] Loud sounds and flashes of flame rise to the sky from both sides of Wulin(烏林) Forest.

A warrior comes out. His face looks like the white jade from Jing(荊) Mountain.

His eyes look like the water of the Xiao Xiang(瀟湘) River. His waist is like that of a giraffe, and his arms are like those of a bear. He holds a long spear obliquely.

He shouts loudly, “Do you know about the great general, Zhao Zi Long(趙子龍)? Don’t run away. Here goes my sword!”

Riding his horse, he threatens them in the east and attacks them in the west. He threatens them in the south and attacks them in the north.

생문¹¹¹¹)으로 들이달아¹¹¹²) 여기 와 번뜻¹¹¹³)하면 제¹¹¹⁴)가 텅기텅기.¹¹¹⁵)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¹¹¹⁶) 칼 빼듯, 어름과¹¹¹⁷) 어름과, 백송골¹¹¹⁸)이 핑 차듯, 두꺼비 파리 잡듯, 여름날 번개치듯, 은장도 칼 빼듯, 횡행¹¹¹⁹) 횡행 쳐들어갈 제,
장졸들 머리가 추풍낙엽¹¹²⁰)이로구나. 피 흘리 시내가 되고, 주검이 여산¹¹²¹)이 되어,
서황, 장합 쌍접¹¹²²)하여 겨우겨우 방어하고 호로곡¹¹²³)으로 도망할 적에,

17. (조조 장비 피해 도망) 조조가 병졸들과 호로곡으로 도망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다가, 장비의 공격을 받고 겨우 도망간다.

[진양조] 바람은 우루루루루루 지동치듯¹¹²⁴) 불고, 굵은비는 퍼붓는데,

갑옷 젖고, 기계¹¹²⁵)를 잃었으니 어디로 가잔 말이나?

행중¹¹²⁶)에는 양식이 없으니, 말도 잡아 군사 구급¹¹²⁷)을 시키고, 젖은 갑옷을 쇠뿔하고,¹¹²⁸)끓은 말에 풀 씹힐 적에 한 곳을 바라보니, 적적산곡¹¹²⁹) 청계상¹¹³⁰)에 쌍쌍 백구¹¹³¹)만 흘리똥구나.¹¹³²)

두 쪽지를 옆에다 끼고 펄펄 수루루루루¹¹³³) 풍덩.

우후청강¹¹³⁴) 좋은 흥미,¹¹³⁵) “문노라, 저 백구는 홍요월색¹¹³⁶)이 그 어느 곳고?¹¹³⁷)

어적수성¹¹³⁸) 적막한데 뉘¹¹³⁹) 기약을 기다리고,

After going vigorously through a lucky gate, he shows up here abruptly and cuts heads off there.

He attacks them, as a toad snatches a fly, as a woman pulls out a silver knife, as a hawk attacks a pheasant, and as lightning destroys something in the summer sky.

Officers' and soldiers' heads fall down like autumn leaves. The blood becomes a river, and the bodies become a mountain.

Xu Huang(徐晃) and Zhang He(張郃) manage to confront Zhao Zi Long(趙子龍) together and flee to Hulu(葫蘆) Valley.

17. (Cao Cao(曹操) Flees from Zhang Fei(張飛).) Cao Cao(曹操) laments over fate, as he flees to Hulu(葫蘆) Valley with his officers and soldiers. He manages to escape from Zhang Fei's(張飛) attack.

[Jinyangjo] The wind makes a loud sound, and bad rain pours heavily.

Their armor is soaked, they have lost their weapons, and they are confused about where to go.

Having no food, some horses are killed and eaten as a makeshift measure.

They dry their wet armors in the wind, let their hungry horses eat grass, and look at a certain place.

White herons float in pairs on a clear stream of a quiet valley.

They open their wings wide, fly, and jump into the water.

The clear river after rain arouses a poetic mood. "I ask you, white herons! Where is the river reflecting the moon?

This place is quiet except for the sounds of the flutes of fishermen. You must be waiting for somebody.

범피창과¹¹⁴⁰ 흘리며서 오락가락 승유¹¹⁴¹를 할 적에,
나는 이리 분주¹¹⁴²하여 만군졸¹¹⁴³을 몰사¹¹⁴⁴를 시키고, 풍파여
상¹¹⁴⁵ 곤한¹¹⁴⁶ 신세 반생반사고양난¹¹⁴⁷이로구나.”

이리 앓아 울음을 울다가,

[아니레] 조조가 또 음음이 터지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정욱이 질색을 하며, “아, 승상님!”

제장다려¹¹⁴⁸ 모두 허는 말이, “우리 모두 인자¹¹⁴⁹ 다 죽어 왔다. 승
상이 웃으시면 복병¹¹⁵⁰이 꼭꼭 일어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조 얇은 속에 화를 내어, “그놈들 고이한¹¹⁵¹ 놈들이로고.¹¹⁵²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일어난다니 말이지,

내 그 전에 우리 사랑¹¹⁵³에서 그저 여러 번 웃어봤어야 복병쟁이
는,¹¹⁵⁴ 이놈들 뱃병¹¹⁵⁵도 아니 나는 걸, 이놈들 겁을 내가지고 그러?”

[자진모레] 호포¹¹⁵⁶ 함성이 천지를 뒤덮는 듯.

정욱이 혼¹¹⁵⁷이 없어, “여보시오, 승상님. 어서 웃음 한 푸시오. 죽어
도 원¹¹⁵⁸이나 없게.”

조조 정신없이, “장수가 뉘기냐?”¹¹⁵⁹ “무서운 장비 나오.”¹¹⁶⁰

조조 웃음 간 데 없고 눈이 휘둥그런 차에,

표독한 저 기상¹¹⁶¹에 낮빛은 검푸르고, 고리눈¹¹⁶² 다박수염¹¹⁶³
사모장창¹¹⁶⁴ 빗겨¹¹⁶⁵ 들고, 불꽃같이 급한 성정¹¹⁶⁶ 맹호¹¹⁶⁷같이
통¹¹⁶⁸ 나서며,

“이놈 조조야! 빨리 나와 내 장창 받아라. 팔둔갑¹¹⁶⁹이라 비상천¹¹⁷⁰
하며, 두더지라 땅을 팔까?”

우레같이 큰 소리를 벽력같이 뒤지르니,¹¹⁷¹ 나는 새도 떨어지고, 길
짐승도 못 탄는다.¹¹⁷²

조조가 정신없이 갑옷 벗어 후리치고,¹¹⁷³ 군사와 한 데 섞여 었어지
며 자빠지며 쥐 숨 쉬듯 따라갈 제, 우둥통통¹¹⁷⁴ 달아난다.

You have fun, moving back and forth on the blue water.
I was busy and massacred a million soldiers. I am in hardship
and jeopardy, half alive and half dead.”

Cao Cao(曹操) weeps as said above.

[Aniri] Cao Cao(曹操) bursts into laughter again, “Hahahahaha.”
Cheng Yu(程昱) is astonished. “Oh, premier!”

He speaks to the generals. “We will all die now. Whenever the
premier laughs, we are ambushed without fail. What should we
do?”

Narrow-minded, Cao Cao(曹操) loses his temper. “You nasty
villains! Are we ambushed whenever I laugh?”

No matter how hard I laughed back at home, nothing happened.
What is the point of the fuss?”

[Jajinmori] The sounds of cannons and shouts fill the sky.
Confused, Cheng Yu(程昱) says. “Hello, premier. Since you like
laughing, laugh to the degree you won’t regret even if you die.”
Cao Cao(曹操) panics, “What is that warrior?” “Formidable Zhang
Fei(張飛) is coming out.”

Cao Cao(曹操) stops laughing, and his eyes are open wide in
fear.

He looks fierce. His face is bluish black. White circles surround
his eyes, and his beard is strong.

He holds up a long spear obliquely whose end looks like a head
of a snake. Hot-tempered, he attacks like a fierce tiger.

“Cao Cao(曹操), you villain! Come out. Here goes my spear.
You can’t fly because you cannot transform yourself. You can’t
dig ground because you are not a mole.

As he hollers like thunder, flying birds fall down, and animals
with four legs can’t run.

Taking off his armor hurriedly, Cao Cao(曹操) is mingled with
his soldiers. He falls over again and again as he flees wildly like
a rat.

[아니레] 겨우겨우 달아나서 한 곳을 당도하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 지라.

“요 길이 어디로 가느냐?” “요 길이 화용도로 들어가옵니다.” 앞에 군사 전포¹¹⁷⁵)하되,

“지나간 말 발자욱과 파낸 노구¹¹⁷⁶) 자리가 분명하니 복병 훈기¹¹⁷⁷) 가 있는 성쇠소이다.”¹¹⁷⁸)

조조 듣고 대답하되, “이곳이 명산이라 산제¹¹⁷⁹) 불공 다니는 노구 자리 따일시¹¹⁸⁰) 분명하고,

나무장사 말을 몰고 금방 지낸 자취로다.”

18. (장승타령) 조조가 장승을 문초하라 하니, 장승이 조조의 꿈에 나타나 원통함을 말한다.

[아니레] 일행을 재촉하여 한 곳을 당도하니,

첩첩산중¹¹⁸¹) 송림¹¹⁸²) 속에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취안¹¹⁸³)을 쫓고 리고, 노목¹¹⁸⁴)을 질시하고¹¹⁸⁵) 우두머니¹¹⁸⁶) 서 있거늘,

조조가 원청¹¹⁸⁷) 먼 빛으로 봤든지, 어찌 놀랐든지,

“아이구, 여봐라, 정육아! 저기 저 돌틈 밑에 날 보고 우뚝 섰는 장수가 예¹¹⁸⁸) 보던 얼굴 같구나.”

“승상님, 놀라지 마시오. 그 물고지¹¹⁸⁹) 장승¹¹⁹⁰)을 거기다 세워놓았 사옵니다.”

조조가 더욱 놀라며, “그러면 그 장비네 한 장 가란 말이나?”

“아니올시다. 그 저 물고지 실어다 그저 도로에 꽂아놓은 저…….”

조조가 그제야 숨을 쉬며, “그러면 풍운건곤¹¹⁹¹) 날 속일 리가 없었더니,

[Aniri] Cao Cao(曹操) manages to escape and arrives at a place where there are two roads in front of him.

“Where do these roads lead us to?” “This road leads us to Huarong(華容) Road.” A soldier in the front explains in detail. “Footprints of horses and a warm hollow surface for a brass pot indicate an ambush.”

Cao Cao(曹操) replies, “The warm hollow surface for a brass pot must have been made by people who hold rituals for a god on this famous mountain and for Buddha.

The footprints of horses must have been made by woodcutters who just passed by.”

18. (Song of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tells his soldiers to interrogate a wooden statue. The statue shows up in his dream and sobs out his sad story.

[Aniri] Cao Cao(曹操) presses his soldiers to move and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tall silent warrior in the pine grove of a mountain grimaces, glares at Cao Cao(曹操), and stands up without moving.

Cao Cao(曹操) is frightened because the warrior is seen from distance.

“Hey Cheng Yu(程昱)! The warrior looking at me and standing over there looks familiar to me

“Premier, don’t be scared. A wooden statue is erected over there.”

Cao Cao(曹操) is all the more scared. “Is he Zhang Fei’s(張飛) relative?”

“No. The thing was carried there and set up by the road.”

Cao Cao(曹操) now breathes a sigh of relief. “Oh god! Nobody can deceive me in this chaotic world.

요망한 장승높이 나를 속였단 말이나? 네 그놈 당장 잡아들여라.”
 좌우 군병 소리치고 장승 잡아들였거늘,
 정육 시켜 분부하되, “네 비록 목신¹¹⁹²)으로 승상 영훈 경동¹¹⁹³)케
 하였으니 군법으로 참¹¹⁹⁴)하리라.”
 호령하고 꺼낼 적에 조조가 겁심¹¹⁹⁵) 풀 양으로 일호주¹¹⁹⁶) 한 잔을
 먹고 잠깐 조는디,
 장승 혼령이 그렇지 않다고 조조 꿈에 현몽¹¹⁹⁷)을 하느디, 꼭 이와
 같이 하던 것이었다.

[중중모래] “천지만물¹¹⁹⁸) 삼겨날¹¹⁹⁹) 적에 각색 초목¹²⁰⁰)이 먼저 나,
 유소씨¹²⁰¹) 식목실¹²⁰²) 구목위소¹²⁰³)를 하여 있고,
 현원씨¹²⁰⁴)는 작주거¹²⁰⁵) 이제불통¹²⁰⁶)을 하였으니 그 나무 편
 타¹²⁰⁷) 하며,
 석상의 오동목¹²⁰⁸)은 오현금¹²⁰⁹)의 복판¹²¹⁰)이 되어 대순¹²¹¹) 슬
 상¹²¹²)에 빚겨¹²¹³) 앉아, 남풍가¹²¹⁴)를 지어내어 시르령 둥덩¹²¹⁵) 통
 기며 노니
 봉황이 춤을 추니 그 아니 태평이며, 문왕지감당목¹²¹⁶)은 비파성¹²¹⁷)
 을 띠어 있고,
 진황지오후목¹²¹⁸)과 시상촌 오류목¹²¹⁹)은 춘흥¹²²⁰)이 그지없네. ¹²²¹)
 고루거각¹²²²) 동량목¹²²³)은 용성화채¹²²⁴)가 찬란하여 반공¹²²⁵)에 솟
 아 있고,
 사후의¹²²⁶) 관판목¹²²⁷)은 백골신체¹²²⁸) 안장¹²²⁹)하고,
 신발실당¹²³⁰)하올 적에 제율목¹²³¹) 신주¹²³²) 되어
 사시절사¹²³³) 기고일¹²³⁴)로 만반¹²³⁵) 설위¹²³⁶)하고

Did a wicked wooden statue scare me? Arrest the statue and bring it here.”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shout and bring the wooden statue. Cao Cao(曹操) has Cheng Yu(程昱) give an order. “Although you are the god of wood, you will be beheaded by a military law for frightening a premier!”

After yelling, Cao Cao(曹操) drinks a glass of wine in order to calm himself down and dozes off.

The spirit of the statue shows up in Cao Cao’s(曹操) dream, defending himself as follows:

[Jungjungmori] “Grasses and trees were the first things created in the world.

You Chao Shi(有巢氏) taught us how to pick fruit from trees and make a house with trees.

Xuan Yuan Shi(軒轅氏) taught us how to make a ship and a wagon, making it possible to travel to an untrodden place, so wood brought about convenience.

A paulownia tree on a rock became the body of a pentachord and was sat obliquely on King Shun’s(舜) knee when it was played.

Even a phoenix danced. Wasn’t that peaceful? King Wen’s(文) wild pear tree became a lute.

Qin Shi Huang’s(秦始皇) Wu Jiao(五侯) Tree and five willows in Chai Sang(柴桑) Village give rise to a spring mood endlessly. A crossbeam of a grand house on which a picture of a dragon is engraved rises high to the sky.

Boards of a coffin are used to keep white bones after a person dies.

When a person dies, a chestnut tree becomes a divine tag in a family shrine.

The divine tag receives good food every season on ritual days.

분향,¹²³⁷⁾ 헌작,¹²³⁸⁾ 독축¹²³⁹⁾을 하니, 그 소중이 어떠하오?
 목물¹²⁴⁰⁾ 팔자¹²⁴¹⁾가 좋건마는 이 내 일신¹²⁴²⁾ 괴이하여 상중하품
 벗어나고¹²⁴³⁾
 하산작량¹²⁴⁴⁾이 몇 헬린고?¹²⁴⁵⁾
 궁궐 동량¹²⁴⁶⁾이 못 될진대는 차라리 다 떨치고 대광판¹²⁴⁷⁾이나 바랐
 더니,
 무지한 초동¹²⁴⁸⁾들이 무단히¹²⁴⁹⁾ 작별¹²⁵⁰⁾하여, 가지 찢어 방천
 말¹²⁵¹⁾과 마판,¹²⁵²⁾ 구유,¹²⁵³⁾ 작두바탕,¹²⁵⁴⁾ 소용대로¹²⁵⁵⁾ 낸 후에,
 남은 것은 목수놈이 베어 어느 귀신의 얼굴인지, 주먹코,¹²⁵⁶⁾ 방울
 눈,¹²⁵⁷⁾
 주토칠,¹²⁵⁸⁾ 다박수염,¹²⁵⁹⁾ 팔자 없는¹²⁶⁰⁾ 사모품대¹²⁶¹⁾
 장승이라고 이름하고, 행인거래¹²⁶²⁾ 대로변¹²⁶³⁾에다 우두머니¹²⁶⁴⁾
 세워두니,
 입이 있어서 말을 하며, 손이 있어 가르치며,¹²⁶⁵⁾
 발이 있어 오도동통통¹²⁶⁶⁾ 도망하며, 눈이 있으면 볼 수가 있소?
 불피풍우¹²⁶⁷⁾ 우뚝 서서 진퇴유곡¹²⁶⁸⁾하는 내가 목신에게 무삼¹²⁶⁹⁾
 죄요?
 물구즉신¹²⁷⁰⁾이오니 심량¹²⁷¹⁾ 처분하옵심을 천만천만¹²⁷²⁾ 바라내
 다.”¹²⁷³⁾

19. (조조 함담) 조조가 한나라 장수들의 함담을 늘어놓는다.

[아니레] 아, 조조가 깜짝 깨어보니 꿈이로구나.

Incense is burned, wine is offered, and a written prayer is recited. Isn't that great?

Things made of trees are well fated. But my fate is bizarre, being neither too good nor too bad.

How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was taken down from a mountain and I wished to become a pillar of a small house? Although I did not wish to be a pillar in a palace, I wished to be a wide board.

But bad woodcutters cut me down and used my branches to make stakes, the board of a barn, a manger, and the bottom of a straw-cutter.

The remaining part of my body was taken to a carpenter who made a ghostly face, a flat nose, and big eyes out of it.

He pasted red dirt over me and put an official hat on my head which I was not fated to wear.

I was named 'jangseung' and was set up by a wide road where passersby come and go.

Can I speak when I don't have a mouth? Can I point somewhere when I don't have hands?

Can I run away when I don't have legs? Can I see even though I have eyes?

I can't avoid the rain and the wind, standing up vacantly without moving forward or backward. What crime am I, a god of wood, guilty of?

If a thing goes old, it becomes a ghost. I sincerely wish that you think harder about me."

19. (Cao Cao(曹操) Slanders) Cao Cao(曹操) speaks ill of the warriors of the Han(漢) Country.

[Aniri] Cao Cao(曹操) wakes up and realizes that it was a dream.

“아, 이런 허망할 노릇이 있나? 허허, 내가 목신 보고 놀란 것이 도리어 실체¹²⁷⁴)로다. 애, 분간¹²⁷⁵) 방송¹²⁷⁶)하여라.”

조조가 장줄을 거느리고 일방¹²⁷⁷) 취케 일호주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실컷 먹은 후에,

조조 취흥¹²⁷⁸)에 주정¹²⁷⁹)하되, “네 여봐라. 이 손¹²⁸⁰)들 듣거라. 우리가 이번에 세진¹²⁸¹)하여 패군¹²⁸²)은 하였을지언정, 도무지 오한양진 장수 근본¹²⁸³)인즉 똑 모두 다 줌¹²⁸⁴)들이니,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유황숙¹²⁸⁵)은 한중실¹²⁸⁶) 중산정왕¹²⁸⁷) 후예¹²⁸⁸)라고 거드름¹²⁸⁹) 빼거니와,

양산 채마전¹²⁹⁰)에서 돛자리¹²⁹¹)나 짜고 짚신 삼아 생활하던 궁반¹²⁹²)이요.

관공이 기운 있는 체하고 사람은 잘 죽이거니와 하동¹²⁹³) 땅에서 그릇 구워 먹던¹²⁹⁴) 이¹²⁹⁵)란 말이어.

장비¹²⁹⁶)가 표독¹²⁹⁷)한 체하고 우직은 하거니와 제 탁군¹²⁹⁸)에서 제육장사¹²⁹⁹)하던 사람이어.

그러헌 상놈¹³⁰⁰)들이로되, 근래에 그 고리눈¹³⁰¹)이 좋다 하고 결의형제¹³⁰²)를 맺었것다.

근래 인심이 소박하여 약간 주먹이 좀 단단하면, 이놈들이 버르장머리¹³⁰³)라고 없이,

내가 지체¹³⁰⁴)는 고사하고 저희들보다는 나이 실존장¹³⁰⁵)이 넘는다, 여차하면¹³⁰⁶) 이놈들이 내 뒤에 따라다니며, ‘네 이놈 조조야, 조조야.’ 불러제끼니,¹³⁰⁷)

그놈의 소리를 들은즉 세육¹³⁰⁸)에 뜻이 없단 말이어.

그리고 또 이 상산 조자룡¹³⁰⁹)이란 놈, 이놈 벼룩 삼시랑¹³¹⁰)으로 생겼는지,

“How absurd I was! I am ashamed to be frightened by the statue. Hey, set the statue free.”

Cao Cao(曹操) drinks wine with his soldiers until they are fully satisfi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ao Cao(曹操) speaks gibberish.
“Listen to me, folks.

Although I was defeated in this war,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are of low background. Let me explain.

Liu Bei(劉備) acts arrogant, saying he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But he was of a fallen upper class person, growing vegetables on Yangshan(陽山) and weaving mats and shoes out of straw for a living.

Pretending to be strong, Guan Yu(關羽) pierces people with a spear, but he used to make pottery in Hedong(河東).

Zhang Fei(張飛) is fierce and simple, but he used to sell pork in Zhuo(涿) County.

Liu Bei(劉備) made a resolution to be brothers with such a person because white circles surround his eyes.

People are getting weird these days. Relying on their physical strength, they are rude and impolite.

Forget about the ranks. I am older than they, but they often chase me and call me, ‘You villain, Cao Cao(曹操).’

If I hear them, I want to give up my worldly ambition.

Zhao Zi Long(趙子龍) is a weird bastard.

이놈 날쌔기로는 보다 처음 보는 놈은 그놈이여.
 그놈 논지하면¹³¹¹ 외갓집도 없는 놈인데, 상산 돌궁기¹³¹²에서 근
 본¹³¹³ 없이 툭 솟아난 놈은 고놈이여.
 제갈량이가 슬기 있는 체하고 말은 잘하거니와, 남양¹³¹⁴에서 밭 갈
 아 먹던 농토한¹³¹⁵이란 말이여.
 초륜소박¹³¹⁶으로 다려다가¹³¹⁷ 즈그들끼리¹³¹⁸ 선생이니 후생¹³¹⁹
 이니 하여 그러허되,
 일후¹³²⁰에 그놈들이 날 만나거드면¹³²¹ 갓을 못 쓰고¹³²² 두문불
 출¹³²³할 놈들은 그놈들밖에 없지.
 그러고 너희들, 그놈들 보고 저리지¹³²⁴ 마라. 천하에¹³²⁵ 보리봉
 태¹³²⁶놈들은 그놈들이다.
 소시 때¹³²⁷ 관공¹³²⁸이 나허고 씨름을 해서,
 내 깨금발¹³²⁹에 두 번을 간이 떨어지게¹³³⁰ 진 사람이요,
 장비는 내 생꼭지¹³³¹에 세 번을 되게¹³³² 져서,
 꼭 낮으로만 끌려져 갖고 먹통¹³³³이 나왔어서¹³³⁴ 시커머니¹³³⁵ 그
 놈이 그랬니라.”¹³³⁶
 정욱이 앉아 있다 기가맥혀서,
 “그러면 승상님, 장담¹³³⁷ 말고 내가 금방 가서 관공님허고 장비하고
 데려올거라우?”¹³³⁸
 “어라,¹³³⁹ 어라. 그놈들 꿈에도 보기 싫다. 당최 그런 말 마라. 당최
 그런 말 내도¹³⁴⁰ 마라.”
 “그런 헛장담¹³⁴¹ 말으시고, 군사가 몇이나 있는가 없는가 점고¹³⁴²
 나 좀 해봅시다.”
 “야, 야가¹³⁴³ 숙¹³⁴⁴이 있당가, 없당가?¹³⁴⁵ 아, 점고할 것 뭐 있냐?
 다 죽어불고¹³⁴⁶ 너 나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죄다 다 알것구만.”
 “그나저나¹³⁴⁷ 어디 모두 묻혀 있는가 한 번 해 봅시다.”

I have never seen a person faster than that scoundrel.
Without parents, he popped up from a crevice of a rock on Changshan(常山) without a mother.
Even though Kong Ming(孔明) pretends to be wise and eloquent, he was a trivial farmer cultivating a field in Nanyang(南陽).
He is scouted by them and respected as a teacher or something like that only among them.
If I meet them again, they will all stay home and won't go outside of their houses.
Hey folks! Don't be intimidated by them. They are worthless punks of the world.
When I was a child, I had a wrestling match with Guan Yu(關羽).
I beat him hard even with my one leg off the ground.
I threw Zhang Fei's(張飛) head on the ground hard three times. His face always touched the ground first, suffering bruises. As a result, his face became black."
Cheng Yu(程昱) sitting nearby is struck dumb.
"Premier, if you speak that confidently, would you mind if I brought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here?"
"What? I don't want to see them even in my dream. Don't even talk like that to me."
"Stop your confident talk. Let's see how many soldiers we have. Let's inspect them."
"Gosh, are you sane or insane? What is the inspection for? Almost everyone died. We need only fingers to count the remaining soldiers."
"Let's see precisely how many soldiers we have."

산줄¹³⁴⁸) 모으고 점고를 허는디, “명금이하 취타하라!”¹³⁴⁹) ‘나노나니 나노나니 나노나 뛰 때 처르르르르르.’

[중모레] 흘은¹³⁵⁰) 군사 들어온다. 살 맞아 팔 못 쓰는 놈, 다리 절고 눈먼 놈과,

문노라, 한국¹³⁵¹) 사람 한신¹³⁵²) 팽월¹³⁵³) 죽단¹³⁵⁴) 말가?¹³⁵⁵) 청신당¹³⁵⁶) 무삼¹³⁵⁷) 일로 보국충신¹³⁵⁸)을 죽일쏜가? 어떠한 놈 깨어진 통노구¹³⁵⁹)를 들어메고 서서히 들어오니,

20. (군사 점고) 조조가 군사들을 모아 점고한다.

[아니레] 조조 보고, “아, 그래도 불러놓은개¹³⁶⁰) 남은 군사가 무던허구나.¹³⁶¹) 그 어서 바빠 불러라.”

“대문¹³⁶²)에 안이병이!” “물고¹³⁶³)요!”

조조가 듣고, “아차차차,¹³⁶⁴) 아까운 놈 죽었다. 거 안이병이가 어디서 죽었냐?”

“요 전 오림 복병에서 죽었소.”

“허허 그놈, 아까운 놈 죽었다. 너그덜¹³⁶⁵) 그 쉰 놈으로 댓 놈 가서 당장 안이병이를 찾아갖고 오너라.”

“승상님 혼자 가서 불러갖고 오시오.” “아, 이녀석들아, 나 혼자 가서 싸개 맞아¹³⁶⁶) 죽게야?”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왜 하시오?” “하도 아까와서 그런다.”

“전부우사¹³⁶⁷) 천총소¹³⁶⁸)의 허무적이!” “예!”

[중모레] 허무적이가 울고 들어오네.

투구¹³⁶⁹) 벗어 손에 들고, 갑옷 벗어 둘러메고,

한 팔, 한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며 통곡을 하면서 들어오는구나.

They gather soldiers who are spread out and inspect them, “Play the music! Here goes Mr. Premier!” Musical sounds are heard. **[Jungmori]** The scattered soldiers fall in. Arrows have made some arms useless. Some hobble, and some are blind. I ask you, Did Han Xin(韓信) and Peng Yue(彭越) of the Han(漢) Dynasty die? Why did they kill loyal subjects? Carrying a broken brass pot, he comes in slowly.

20. (Inspection of Soldiers) Cao Cao(曹操) inspects his soldiers.

[Aniri] Cao Cao(曹操) says, “The remaining soldiers look bad. Call them quickly.”
“Officer Anibyeong!” “He died!”
Cao Cao(曹操) says, ““Alas! He was a good soldier. Where did Anibyeong die?”
“He died during the ambush in Wulin(烏林) Forest.”
“Alas! A good soldier died. Several strong soldiers, go back to Wulin(烏林) Forest and bring Anibyeong here.”
“Premier, go there alone and bring him here.” “You villains. If I go there alone, I will be beaten to death.”
“If so, why do you talk gibberish?” “I said so because I lost a good officer.”
“Heomujeok, an officer in the right of the formation!” “Yes!”
[Jungmori] Heomujeok comes in, weeping.
He holds his helmet in his hand and hangs his armor over his shoulder.
He moves one of his arms awkwardly, hobbles, and weeps, as he comes in.

[아니레] 조조 보고, “네 이놈, 너는 천총¹³⁷⁰⁾의 도리로 오연불배¹³⁷¹⁾가 되다니……. 꽤 씹하니 네 저놈 당장에 군법으로 목을 베어라.”

[중모레] “승상님, 듣조시오.¹³⁷²⁾ 한 번 더 듣조시오.

적벽강 급한 불에 각기 목숨 살려고 천방지방¹³⁷³⁾으로 도망을 할 적에, 뜻밖에 살 한 개가 수루루루루 떠들어와서 팔 맞아 작신¹³⁷⁴⁾ 부러지고, 다리조차 맞아

전혀 군례¹³⁷⁵⁾를 할 수가 있소이까? 어서 목을 베어 줍소서.¹³⁷⁶⁾ 혼비혼환¹³⁷⁷⁾ 둥둥 떠서 애중하던¹³⁷⁸⁾ 처자 권술¹³⁷⁹⁾ 얼굴이나 볼까 하나이다.”

[아니레] 이놈이 어찌 꺾버리고 울던지 조조가 마음이 언짢았던가 보더라.

“우지 마라. 아으. 가령 논지허면¹³⁸⁰⁾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네 권술이 내 권술이니,
설위 말고 게¹³⁸¹⁾ 있다가 우리 근근도생¹³⁸²⁾해 같이 가자. 어서 불러라.”

하고 부르는디, “좌기병¹³⁸³⁾에 골내종이!”¹³⁸⁴⁾

[자진모레] 골내종이 들어온다. 골내종이 들어온다. 안판낙포¹³⁸⁵⁾ 곱사등이¹³⁸⁶⁾ 다리조차 절룩절룩.

눈시울¹³⁸⁷⁾은 자빠지고, 입 아올러 비틀어지고, 곱배팔¹³⁸⁸⁾ 휘저으며 모양 없이 들어오니,

[아니레] 조조가 딱 보더니, “하하하하. 그놈 병신 부자로구나.

저놈이 어디서, 저 바위 위에서 낮잠 자다가 산벼락¹³⁸⁹⁾ 맞은 놈 아니냐, 이녀석이?

네 여봐라. 저건 우리 군중에 두었다가는 장차 후환거리¹³⁹⁰⁾지.

우리가 멀리 도망하면 저놈은 뒤에 쳐졌다 우리 간 데만 꼭꼭 일러줄 터이니,

[Aniri] Cao Cao(曹操) says, "You villain. Even though you are an officer, you didn't salute me. You are arrogant. Cut his head off by the military law!"

[Jungmori] "Mr. Premier, please listen to me.

When I was trying to escape hurriedly from the fire attack in the Chibi(赤壁) River, an arrow unexpectedly flew at me and broke my arm and leg.

How can I salute to you? Cut my head off right away.

My soul will fly and see my parents, affectionate wife, and children that I miss so much.

[Aniri] Heomujeok cries, losing control of himself. Cao Cao(曹操) feels sorry for him.

"Don't weep. Your parents are my parents, and your family member is my family member."

Don't cry. Let's do our best and try to survive. Call the next."

They call, "Gollaejong, the left flag soldier!"

[Jungjungmori] Gollaejong comes in. He comes in. His chest and back are bent. He hobbles.

The ends of his eyes are slit. His mouth is crooked. He moves his deformed arms in an unsightly manner as he comes in.

[Aniri] Cao Cao(曹操) responds, "Hahaha. He is filled with deformations.

Doesn't he look like he was hit by lightning while taking a nap on a rock?

Hey soldiers. If left alone, he is a root of evil to our troops.

If we flee, he will fall behind and tell the enemy where we went.

네 저놈을 저리 말고, 저 개천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술질해서 잘 씻쳐
갖고,

외국¹³⁹¹⁾ 붓지 말고 폭신¹³⁹²⁾ 삶아서 한 그릇씩 먹고 후환 없이 떠나자.”
저놈이 눈구녕¹³⁹³⁾이 찢어지게 조조를 노려보더니마는, “승상님 눈구
녕 생긴 것이 꼭 인장식¹³⁹⁴⁾하게 생겼소.”

“네 저놈 우악허니¹³⁹⁵⁾ 몰아내고 또 불러라.” “우기병¹³⁹⁶⁾에 전동다
리!”¹³⁹⁷⁾

[중중모레]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들어 메고, 세 발 걸어서 중뛰엄,¹³⁹⁸⁾ 깡충깡충¹³⁹⁹⁾ 와락
뛰어 달려들어, “예!”

[아니레] 조조가 깜짝 놀래어, “아, 이놈이 그냥 이렇게 성하니,¹⁴⁰⁰⁾
이게 장비 군사놈 아니냐? 예끼, 웬 놈이 저리 성하냐?”

익히 아는 체하고, “누가 장비 군사요? 승상님 말이 더 위덱소.¹⁴⁰¹⁾
성한 건 회쳐¹⁴⁰²⁾ 잡수시오그려.”

“아, 죽일 놈! 너 이놈 웬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승상님 말씀이 병든 놈은 국 끓여 먹자고 했응개¹⁴⁰³⁾ 성한 놈은
회쳐 먹어야 안 옳겠소?”

“아, 이놈아, 약간 군사놈들이 모도¹⁴⁰⁴⁾ 코 터지고, 박 터진 놈 병신이
무수기로,¹⁴⁰⁵⁾

너 홀로 성하기에 시방 기특해서 묻는 말인디, 이놈 그렇게 대답을
헌단 말이냐?”

“아, 군사들이 모도 피가 없어 병신이 되제 별것 있대요?”

“야, 이놈 용타.¹⁴⁰⁶⁾ 너는 어찌하였느냐?” “좋은 수¹⁴⁰⁷⁾ 있지요.” “무
슨 수냐?”

“한참 싸움 할 적에 살짝 빠져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술푸덩¹⁴⁰⁸⁾ 밑에
앉아서 가만히 내려다보면은

Don't leave him alone. Take him to a stream and clean him with a brush.

Don't add more water. Boil him hard. Let's eat the soup and take off without worry about the future trouble."

Gollaejong stares at Cao Cao(曹操) intensively. "Your eyes look as if you will eat a human body."

"That villain is atrocious. Get him out of here." "Jeondongdari in charge of the right flag!"

[Jungjungmori] Jeondongdari comes in. He comes in.

Carrying a broken spear over his shoulder, he walks three steps and runs wildly. "Yes!"

[Aniri] Cao Cao(曹操) is surprised. "Why isn't he injured? Isn't he Zhang Fei's(張飛) soldier? Why aren't you wounded?"

Jeondongdari responds informatively, "Who is Zhang Fei's(張飛) soldier? Your words are more dangerous. Since I am unwounded, eat me raw."

"Bastard! How dare you speak so rashly?"

"You said you would cook and eat a wounded soldier, so you should eat an unwounded soldier raw."

"You rascal. Most soldiers are wounded. Their noses are broken. Their heads are cracked. Crippled soldiers are numerous.

Only you are unwounded. I asked the question because I was glad to see you unwounded. How dare you answer like that?"

"The soldiers were crippled because they were stupid."

"You villain. You seem to be smart. What did you do?" "I had a great idea." "What was it?"

"When there was a battle, I stepped away, climbed up a mountain, dug out a pine tree, sat on the pit, and watched the combat below.

신 털 떨어지고, 병신 털 배¹⁴⁰⁹⁾ 없고, 굿¹⁴¹⁰⁾은 꼭 싸움굿¹⁴¹¹⁾이 제일 좋습디다그려.

쟁¹⁴¹²⁾ 치면 살짝 내려와서 호군¹⁴¹³⁾ 먹고. 아 이렇게 편하고 좋습디다그려.”

“하, 이놈 매우 실군사¹⁴¹⁴⁾놈이로구나. 네 이놈, 창은 어찌해서 도막 도막이 부질러¹⁴¹⁵⁾ 갖고 저렇게 왔느냐?”

“저 오림서 장비 만나가지고 지끈동¹⁴¹⁶⁾ 분질러¹⁴¹⁷⁾ 집어내던졌기 땀시¹⁴¹⁸⁾ 도막 주워갖고

오다가 팔아서 밥 사 먹고, 남은 남은 바늘 한 쌍¹⁴¹⁹⁾ 사갖고 왔소.”

“아, 이놈아, 전장에서 바늘은 한 쌍이나 무엇 할려고 사왔느냐?”

“매양¹⁴²⁰⁾ 내가 전장에만 있을 것이오?”

[중모레] “우리집에 들어가면 그림던 마누라가 우루루루 달려들어 좌수¹⁴²¹⁾로 목을 안고, 우수¹⁴²²⁾로 반겨할 제

바늘 한 쌍 정표¹⁴²³⁾ 주고, 우리 마누라를 만나 보리라. 우리 마누라를 만나 보리라.”

[아니레] “오냐, 그래라. 열 번이라도 바늘 사서 넣었다가 느그¹⁴²⁴⁾ 마누래 꼭 주거라, 이? 어서 불러라.”

“마병장¹⁴²⁵⁾에 구먹쇠!” “예.”하고 들어오는데, 이놈 말채¹⁴²⁶⁾만 손에 들고 이놈이 들어오겠다.

“너 이놈, 오다가 잃어버린 것이나 없느냐?”

“예, 별로 잃어버린 것은 없소마는, 대한총¹⁴²⁷⁾ 좋은 말에 구연장을 다뽕¹⁴²⁸⁾ 싣고 오다가 돌아다보니 싹¹⁴²⁹⁾ 빠져볼고¹⁴³⁰⁾ 없지, 다른 것은 잃은 것 없소.”

“아, 저런 망할 놈이 제일 귀중한 것만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하네그려. 네 이놈, 말은 어찌하였느냐?”

My shoes wore out less. There was no chance that I would become crippled. The combat was the best show.

When a gong was hit, I came down and ate food. My life was easy and fabulous.”

“You rat. You were a very selfish soldier. You scoundrel. Why is your spear broken into pieces?”

“I came across Zhang Fei(張飛) in Wulin(烏林) Forest. I broke my spear into pieces and threw the pieces on the ground and picked them up.

On my way here, I sold them and bought meals. I exchanged the remaining piece for a pack of needles.”

“You villain. What did you buy the pack of needles for in the battlefield?”

“Will I be in the battlefield forever?”

[Jungmori] “If I go back home, my dear wife will run to me, hug my neck with her left hand and welcome me with her right hand.

When I meet her, I’ll give her the pack of needles as a show of my love to her.”

[Aniri] “Bravo! Good. You can buy ten packs of needles and give them to your wife. Okay? Call the next.”

“Gumeoksoe, the cavalry officer!” “Yes.” He comes in. He carries only a whip in his hand as he comes in.

“You villain. Didn’t you lose anything while coming here?”

“No, I didn’t lose anything special. I was carrying a lot of tools on a good horse on my way here. I lost them all. I didn’t lose anything else.”

“You bastard. You lost the most important things, but you say you didn’t lose anything special. You villain. What happened to the horse?”

“말 팔아먹었소.” “아, 이놈아. 그 좋은 말을 얼마나 받고 팔았냐?”

“두 돈¹⁴³¹ 오 푼¹⁴³² 받았소.”

조조가 펄펄 뛰며, “하, 제기, 이놈아. 아무리 패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얼 타고 가려고 그 좋은 말을, 이놈아, 헐값으로 팔았던 말이나?”

“오, 그 타고갈 것은 승상님, 염려 마십시오. 들것¹⁴³³을 만들어 갖고 타고 가옵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계에 담아가지고 설령설령¹⁴³⁴ 가면 편하고, 길 분고¹⁴³⁵ 참 좋습니다요.”

“아, 이놈아. 내가 앓은뱅이¹⁴³⁶ 의원이란 말이나? 아, 그놈이 남은 속타는디, 걱정 없이 말하는 것이, 저놈 눈구녁¹⁴³⁷이 큰일 낼 놈일세.”

“아, 눈구녁이야 승상님 눈구녁이 큰일만 꼭꼭 내지, 그럼 별일 있소?”

“네 저놈 우악¹⁴³⁸하니 몰아내라. 내가 우선 시장하니 화병¹⁴³⁹ 시켜서 밥 좀 지어라.”

“화병!” “예!”

“승상님이 시장하시단다. 어서 진지 바빠 지어서 올려라.”

“예!”하고 나가더니마는, 깨어진 통노구¹⁴⁴⁰ 짚수세미로 틀어막고 이제 부시¹⁴⁴¹를 쳐서 밥을 짓는디,

조금 있더니마는, “화병!” “예!”

“거 진지 어찌 되었느냐?” “이제 밥 안치오.”¹⁴⁴²

조금 있더니, “화병!” “예!”

“어찌 되었느냐?” “인제 불 넣소!”

“화병!” “예!” “어찌 되었느냐?” “밥 넘을락허요!”¹⁴⁴³

“화병!” “예! 이제 밥 넘소. 아이고!”

“어찌 되었느냐?” “상 놓소!”

“어찌 되었느냐?” “곧 들여가요.”

“어찌 되었느냐?” “아이고, 인자 죽어도 부시 치오!”

"I sold it." "You fool. At what price did you sell the good horse?"

"I sold it at a few dollars."

"You scoundrel! Why did you sell the good horse at such a low price? We lost the war, but how can I go back home without the horse?"

"Don't worry about your ride. We can make a stretch and you can ride it. Or you can get on an A-frame carrier. It is a convenient ride, and the road gets shorter."

"You fool! Am I handicapped? That bastard talks carelessly when I am worried. His damn eyes indicate he will cause trouble."

"Speaking of eyes, your eyes will certainly cause trouble. They are not special."

"That villain is ignorant and cruel. Get him out of here. I am hungry. Have a cook prepare a meal."

"Cook!" "Yes!"

"The premier says he is hungry. Make a meal quickly."

After saying "Yes!" the cook goes out, fills up the crack of a brass pot with a straw scrubber, and makes sparks by striking flints to cook.

After a few minutes, they call the cook. "Cook!" "Yes!"

"Is the meal ready?" "I just put rice in the brass pot."

After a few minutes, they call the cook. "Cook!" "Yes!"

"Is the meal ready?" "I just made fire!"

"Cook!" "Yes!" "Is the meal ready?" "The rice is about to be boiled."

"Cook!" "Yes! The rice is boiled!"

"Is the meal ready?" "I am putting the rice on the meal table!"

"Is the meal ready?" "I am bringing the table to you soon."

"Is the meal ready?" "Alas. I am striking the flints to make fire!"

어찌 조조가 부애¹⁴⁴⁴)가 났던지, “네 저놈 당장에 가서 목을 그냥
썩¹⁴⁴⁵) 베어버려라.”

“아이고, 승상님. 나오는 대로 말씀 말고, 이리 와서 이 짓¹⁴⁴⁶)을 좀
썰어보시오.

풍랑 중에 어떻게 잔물이 튀어 박혔든지 마자반¹⁴⁴⁷)보다 더 쓴 놈의
짓을 갖고 불이 당겨질¹⁴⁴⁸) 것이오?”

조조가 기가막혀, “네 저놈 몰아내라.” 불과 백여 명 남은 군사가,
[중모레 창 잃은 놈, 투구 잃고 앓은 놈,

기는 놈, 기진¹⁴⁴⁹)한 놈, 피진¹⁴⁵⁰) 놈,

양천통곡¹⁴⁵¹) 호천망극¹⁴⁵²) 설리들¹⁴⁵³) 우는 소리 차마 볼 수가 전혀
없네.

21. (관운장 출현) 조조가 또 웃는데 관운장이 나타난다.

[아니레 조조 마상에서¹⁴⁵⁴) 헛호령¹⁴⁵⁵)하되, “네 이놈들, 사생이 유명
커든¹⁴⁵⁶) 어찌 이리 울어 쌓느냐?

울지 말고 우리가 남은 이 수효라도 살아서 어떻게 기대나가야지 되
겠느냐?”

하더니 또 웃음을 웃는다, “아하하하하하.” 하고 까불어 놓으니,¹⁴⁵⁷)
정욱이 깜짝 놀라,

[자진모레 “큰 변¹⁴⁵⁸) 났다. 큰 변 났다. 애고, 이 일을 어찌하리?
수전중¹⁴⁵⁹) 소벽이¹⁴⁶⁰)에 팔십만병¹⁴⁶¹) 몰사하고,

또 한 번 소벽이에 남은 군병 다 죽이고,

병목같은 심산¹⁴⁶²) 중에 소벽이를 또 하시니, 우리 어찌 살아가리?”

Cao Cao(曹操) is so exasperated that he says, “Cut that villain’s head off right away.”

“Oh, premier. Don’t talk thoughtlessly. Come here and suck on this flint case.

During the rainstorm, salty water was splashed and firmly fixed on it. It is so salty that it does not make fire.”

Cao Cao(曹操) is stunned. “Get that villain out of here.” About one hundred soldiers remained.

[Jungmori] Some lost spears. Some lost helmets.

Some crawl. Some are weak. Some are exhausted.

Soldiers look up the sky and weep plaintively, thinking about their parents, which is quite a sad scene.

21. (Guan Yu(關羽) Shows Up) As Cao Cao(曹操) laughs, Guan Yu(關羽) shows up.

[Aniri] Cao Cao(曹操) issues a useless order from his horse. “You fools. Your lives depend on heaven. Why do you weep?”

Stop crying. Those of us who remained should hang on and move on.”

After saying so, Cao Cao(曹操) laughs flippantly again “Ahahahaha.”

Cheng Yu(程昱) is petrified.

[Jajinmori] “We are in trouble now. What should we do?”

His laughing habit first led to the deaths of 800,000 troops during the naval warfare.

His laughing habit led to the deaths of the remaining soldiers the second time.

He laughed again on the narrow road of a deep mountain. What should we do?”

[아니래] “네 이놈들. 내가 웃으면 그렇게 겁을 내싸니,¹⁴⁶³⁾ 어찌자고 시방¹⁴⁶⁴⁾ 네가 그렇게 말들을 해쌍느냐, 어?

내 달리 웃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르기를 주유, 공명이 지족¹⁴⁶⁵⁾ 허다 이르되, 내 보건대는 무능지배¹⁴⁶⁶⁾라, 하도¹⁴⁶⁷⁾ 시퍼서¹⁴⁶⁸⁾ 웃은 배라.”¹⁴⁶⁹⁾

말이 맺지 못하여 화용 상상봉에서 방포일성¹⁴⁷⁰⁾이 ‘꿈!’ “아이고, 승상님, 저 북소리가 웬 북소리요?”

“놀래지 마라. 이 차산중¹⁴⁷¹⁾에 대찰¹⁴⁷²⁾이 있어 사시공양¹⁴⁷³⁾ 북소리다.”

조금 있더니 총소리가 ‘꿈!’ “아이고, 이것은 어떻게?”

“아, 이놈들아, 놀래지 마라. 이 산중에 이제 포수가 무엇을 잡으려고 시방 그렇게 총을 쏜 것이니라.”

또 한 번 ‘꿈!’ “아이고, 이건 어떻게?” “애들아, 어째서 그렇게 겁을 내쌍냐?

이런 깊은 산중에 어찌 포수 무서워 혼자 땡기겠느냐?¹⁴⁷⁴⁾ 월포¹⁴⁷⁵⁾에 마주 앉아 응포¹⁴⁷⁶⁾하는 소리로다.” 북소리가 ‘둥둥둥둥.’

“아이고, 승상님. 암만해도 위텃소.¹⁴⁷⁷⁾ 여 뭘 소리요?” “아이고, 이놈들아, 그 어째서 그래쌍느냐?”

[자진모래] 천연히¹⁴⁷⁸⁾ 방색¹⁴⁷⁹⁾타가 좌편에서 ‘꿈!’ 우편에서도 ‘꿈!’ 안산¹⁴⁸⁰⁾ 후면¹⁴⁸¹⁾에서도 ‘꿈꿈!’

사면을 살펴보니 청룡기¹⁴⁸²⁾가 쭈적쭈적,¹⁴⁸³⁾ 마병¹⁴⁸⁴⁾ 보졸¹⁴⁸⁵⁾이, 기치창검¹⁴⁸⁶⁾이 흑운¹⁴⁸⁷⁾같이 밀려온다.

창랑¹⁴⁸⁸⁾같이 밀려올 제, ‘툭 쾅 차르르르 흥앵 나노나니 나노나, 우우 꿈!’¹⁴⁸⁹⁾ 청도기¹⁴⁹⁰⁾를 벌였는데,

청도¹⁴⁹¹⁾ 한 쌍, 홍문¹⁴⁹²⁾ 한 쌍,

주작,¹⁴⁹³⁾ 남동각,¹⁴⁹⁴⁾ 남서각,¹⁴⁹⁵⁾ 홍초,¹⁴⁹⁶⁾

[Aniri] “You villains. Why are you scared when I laugh? Why do you talk like that now?”

I laugh because people say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are wise, but in my view they are stupid and easy to deal with.” No sooner does he finish talking than a cannon sound is heard from a mountain top of Huarong(華容). “Oh, premier. What is that sound?”

“Don’t be scared. There is a Buddhist temple on this famous mountain. The drum sounds are from a ritual for Buddha in the temple.”

After a few minutes, a rifle sound is heard. “My goodness. What is that sound?”

“You cowards. Don’t be scared. This time, a hunter shot a rifle to catch something on this mountain.

Another sound is heard. “My goodness. What is this sound?”

“Folks, why are you scared?”

The hunter wouldn’t hunt alone on this deep mountain because he is scared. Another hunter responded to him with his rifle.”

Drum sounds are heard.

“Premier, we seem to be in danger. What are those sounds?”

“You cowards. Why do you panic?”

[Jajinmori] While he pretends that nothing happens, sounds are heard from the left, right, front, and back.

In the four directions, a blue flag is seen. Cavalry and infantry soldiers holding flags, spears, and swords charge like clouds. While they move like blue waves on the vast sea, they create sounds and carry flags:

a pair of cheongdos(淸道), a pair of hongmuns(紅門),
jujak(朱雀), namdong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cho
(紅綃),

남문¹⁴⁹⁷) 한 쌍, 청룡¹⁴⁹⁸) 동남각¹⁴⁹⁹) 서남각¹⁵⁰⁰)
 남초¹⁵⁰¹) 황문¹⁵⁰²) 한 쌍, 등사¹⁵⁰³) 순시¹⁵⁰⁴) 한 쌍,
 황초¹⁵⁰⁵) 백문¹⁵⁰⁶) 한 쌍, 백호¹⁵⁰⁷)
 동북각¹⁵⁰⁸) 서북각¹⁵⁰⁹) 백초¹⁵¹⁰) 홍문¹⁵¹¹) 한 쌍,
 현무¹⁵¹²) 북동각¹⁵¹³) 북서각¹⁵¹⁴) 흑초¹⁵¹⁵)
 홍신, 백신, 황신, 청신, 흑신¹⁵¹⁶) 표미¹⁵¹⁷)
 금고¹⁵¹⁸) 한 쌍, 호충¹⁵¹⁹) 한 쌍, 나¹⁵²⁰) 한 쌍, 쟁¹⁵²¹) 한 쌍,
 나발¹⁵²²) 한 쌍, 세악¹⁵²³) 두 쌍, 고¹⁵²⁴) 두 쌍, 순시¹⁵²⁵) 한 쌍,
 영기¹⁵²⁶) 두 쌍, 중사명¹⁵²⁷) 좌관이¹⁵²⁸) 우영전¹⁵²⁹)
 집사¹⁵³⁰) 한 쌍, 기패¹⁵³¹)는 두 쌍, 군뢰직열¹⁵³²) 두 쌍, 좌마¹⁵³³)
 독¹⁵³⁴)이요,
 난후¹⁵³⁵) 친병¹⁵³⁶) 교사¹⁵³⁷) 당보¹⁵³⁸) 각 두 쌍으로 좌르르르 벌인
 거동¹⁵³⁹)
 기치창검¹⁵⁴⁰)은 일월을 희롱하고¹⁵⁴¹) 금고¹⁵⁴²) 함성¹⁵⁴³)은 천지를
 뒤덮는 듯.
 정육이 혼미중¹⁵⁴⁴)에 기색¹⁵⁴⁵)을 바라보니
 사명기¹⁵⁴⁶)를 받았는데, ‘한종실¹⁵⁴⁷) 유황숙¹⁵⁴⁸) 둘째 아우 대원
 수¹⁵⁴⁹) 관공¹⁵⁵⁰) 삼군대병¹⁵⁵¹)이라 등두렛이¹⁵⁵²) 늙름하다.
 주안¹⁵⁵³) 봉목¹⁵⁵⁴) 삼각수¹⁵⁵⁵)에 황금갑주¹⁵⁵⁶)

a pair of nammuns(藍門), blue dragon(青龍), dongnamgak(東南角), seonamgak(西南角),
namcho(藍招), a pair of hwangmuns(黃門), deungsa(騰蛇), a pair of sunsies(巡視),
hwangcho(黃招), a pair of baengmuns(白門), a white tiger(白虎), dongbuggak(東北角), seobuggak(西北角), baekcho(白招), a pair of hongmuns(紅門),
hyeonmu(玄武), bukdonggak(北東角), bukseogak(北西角), heukcho(黑綃),
hongsin(紅神), baeksin(白神), hwangsin(黃神), cheongsin(青神), and heuksin(黑神), pyomi(豹尾).

They carry other things: a pair of iron drums, and a pair of cannons, a pair of percussion instruments, a pair of gongs, a pair of trumpets, a pair of musical instruments, two pairs of drums, a pair of patrol flags,

two pairs of ordering flags, a commander's flag in the middle, an arrow on the left for piercing the ears of prisoners, and an arrow on the right for delivering a military order.

There are a pair of soldiers, and two pairs of flag soldiers. They carry two pairs of ropes for tying prisoners, an extra horse for a commander, and a front flag.

There are two pairs of rear guards, commander bodyguards, training officers, and scouts.

Flags, spears, and swords outshine the sun. Incessant drum sounds and shouts shake the world.

Confused, Cheng Yu(程昱) looks at the color of a flag.

There is a commander's flag which clearly and majestically reads, 'The Royal Family of Liu Bei's(劉備) Second Brother, General Guan Yu(關羽) in Charge of Three Units.'

His face is red. His eyes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His beard forms a triangle. He wears golden armor and a golden helmet.

청룡도¹⁵⁵⁷)로 길을 끊어, “이놈, 조조야!” 호통하니, 조조 정신없어,
 “여봐라, 정욱아. 전후 검광¹⁵⁵⁸)이 서리 같고,¹⁵⁵⁹ 좌우 복병¹⁵⁶⁰)이
 범 같으니 오는 장수 게¹⁵⁶¹) 누구냐?”
 제장¹⁵⁶²)이 여짜오대,¹⁵⁶³ “기색은 홍색이요, 풍신¹⁵⁶⁴)은 인후¹⁵⁶⁵)하
 니 관공일시¹⁵⁶⁶) 적실¹⁵⁶⁷)하오.”

22. (조조 애걸) 조조가 관운장에게 목숨을 애걸한다.

[아니레] “아이고, 여봐라, 정욱아. 더욱 관공이면 내가 어찌 살아간단
 말이나? 옥퇴무처¹⁵⁶⁸)요, 옥탈무계¹⁵⁶⁹)라.

너희들 죽기로써 대적¹⁵⁷⁰)이나 좀 해보아라.” 제장이 울며 여짜오대,
 “승상님 듣조시오.

관공님 높은 재주 호통소리 한 번이면 기는 짐승 같 길 없고, 검
 광¹⁵⁷¹)이 번뜻하면¹⁵⁷²) 나는 새도 떨어지니,

적수단검¹⁵⁷³)으로 오관참장¹⁵⁷⁴)하던 수단,¹⁵⁷⁵ 인마¹⁵⁷⁶) 기진¹⁵⁷⁷)하
 였으니 어찌 당적¹⁵⁷⁸)하리까?

전후좌우 복병이오니, 승상 전일¹⁵⁷⁹) 은혜 관공에게 있사오니 지성으
 로 빌어볼 수밖에는 없소.”

조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꾀밖에는 꾀가 없던가 보더라. 관공님
 한테로 빌러 들어가는디,

[중모레] 투구 벗어 땅에 놓고, 장검¹⁵⁸⁰)을 빼어서 땅에다 찌르고,
 갑옷 벗어 말게¹⁵⁸¹) 엎고, 대하머리¹⁵⁸²) 고추상투¹⁵⁸³) 가는 목을 움
 츠리며

간교한 웃음으로, 읊¹⁵⁸⁴)하고 복배¹⁵⁸⁵)하며, “장군 본 지 오렐러
 니¹⁵⁸⁶) 별래무양하시니까?”¹⁵⁸⁷)

He blocks the road with his Blue Dragon Sword. “Cao Cao(曹操), you villain!” At his yelling, Cao Cao(曹操) is confused. “Hey Cheng Yu(程昱)! The flash of swords is formidable. It looks this is an ambush. Who is that warrior looking like a tiger?” Officers answer, “The color of the flag is red. He looks like a nice man. He must be Guan Yu(關羽).”

22. (Cao Cao(曹操) Implores.) Cao Cao(曹操) begs Guan Yu(關羽) for his life.

[Aniri] “If he is Guan Yu(關羽), how can I survive? I have no place to flee to, and I can’t escape from him.

Do your best and confront him at the risk of your lives.” Officers say in tears, “Please listen, premier.

If Guan Yu(關羽) hollers, a crawling animal can’t move. If his sword flashes, a flying bird falls down.

He was skillful enough to kill six of our officers only with a sword, going through five gates. Our men and horses are exhausted. How can we face him?”

Because we are ambushed from every direction and you did a favor to Guan Yu(關羽) before, please beg him for mercy.”

Cao Cao(曹操) ponders for a moment. There is no alternative. He goes to beg Guan Yu(關羽) for mercy.

[Jungmori] Cao Cao(曹操) takes off his helmet, pulls out his long sword, and pushes it into the ground.

He takes off his armor and puts it on his horse. He is bald, and his topknot looks like a pepper. He pulls his slim neck in. While laughing, he shows respect to Guan Yu(關羽) and prostrates. “General,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관공이 호통을 치며, “이놈, 목 늘여서 칼 받아라!”
조조가 놀래어,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한 말씀만 들조시오.¹⁵⁸⁸⁾
탁명한사¹⁵⁸⁹⁾ 조맹덕은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¹⁵⁹⁰⁾을 거느리고,
분분천하¹⁵⁹¹⁾ 봉기제장¹⁵⁹²⁾ 낱낱이 항복을 받아 충공¹⁵⁹³⁾을 이루려
고, 장졸 쉴 날이 전혀 없이 주야장전¹⁵⁹⁴⁾을 하옵더니,
오적¹⁵⁹⁵⁾의 패를 만나 만군을 몰사시키고, 초수¹⁵⁹⁶⁾ 오산¹⁵⁹⁷⁾ 험
산¹⁵⁹⁸⁾ 길로 갈 바이¹⁵⁹⁹⁾ 없사오니, 살려 돌려 보내소서.”
관공님 인후하신 양반이라 호의¹⁶⁰⁰⁾로 답하시되, “내가 일정¹⁶⁰¹⁾ 그
곳에 이르러 비록 후은¹⁶⁰²⁾ 입었으나,
오나라 대적시에 조그마한 사¹⁶⁰³⁾로써 어찌 전공¹⁶⁰⁴⁾을 폐할쏘
냐?”¹⁶⁰⁵⁾
조조가 울며, “아이고, 장군님, 한 말씀 들조시오. 다시금 통촉¹⁶⁰⁶⁾을
하옵시오. 장군님의 덕행으로 옛일을 모르시니까?¹⁶⁰⁷⁾
절흥¹⁶⁰⁸⁾같은 흥노¹⁶⁰⁹⁾로되, 백등칠일지위하사¹⁶¹⁰⁾ 한고조¹⁶¹¹⁾를 살
리시고,
지백지신 예양¹⁶¹²⁾이도 조양자¹⁶¹³⁾를 살해코자 궁중도축¹⁶¹⁴⁾하였
으나,
조양자 어지신 마음 의인¹⁶¹⁵⁾이라 이르시고 오근피지¹⁶¹⁶⁾하였으니,
장군님 선심,¹⁶¹⁷⁾ 깊은 정이 소장¹⁶¹⁸⁾을 살리시고 삼가이 피하소서.”
관공이 꾸짖어 말씀하되, “네 말이 간사하구나.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천중대인¹⁶¹⁹⁾이라 일은 그러하거니와,
네 죄를 논지하면¹⁶²⁰⁾ 시각예¹⁶²¹⁾ 너를 죽일 터이로되, 전일 먼
분¹⁶²²⁾을 생각해서 문답은 하거니와, 네 죄를 낱낱이 들어보아라.

Guan Yu(關羽) yells, “You bastard! Stick your head out. Here goes my sword!”

Cao Cao(曹操) is stunned. “I was a poor scholar. But I took charge of many soldier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emperor.

I suppressed the officers who rose up in revolt. I led officers and soldiers in war day and night to distinguish myself for the king.

I ran into Sun Quan(孫權) and lost a large force. I was on a hard journey, going through the rivers of Chu(楚) Country and the mountains of Wu(吳) Country. Please spare my life.”

Gentle and lenient, Guan Yu(關羽) responds politely, “I stayed there for a while and benefited from you.

But when I confront Wu(吳) Country, how can my small personal feeling overrule my meritorious deed?

Cao Cao(曹操) sheds tears. “General, please listen to me. General, please accept my wish. Don’t you know about the past?

Although heinous, the Xiungnu(匈奴) Tribe released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after surrounding him for seven days in Baideng(白登).

Zhi Bo’s(智伯) subject, Yu Rang(豫讓) tried to kill Xiang Zi(襄子) of Zhao(趙). But he was captured by Xiang Zi(襄子).

Being a nice man, Xiang Zi(襄子) called Yu Rang(豫讓) a righteous man and avoided him.

General, you are a generous man. Please spare me and avoid me.”

Guan Yu(關羽) scolds Cao Cao(曹操), “Your language is sly. The pardon was possible because Yu Rang(豫讓) was a righteous man and Xiang Zi(襄子) was a virtuous king.

Speaking of your crime, I should kill you right away. But I am exchanging words with you because we met before. Let me specify your crime.

네 누세한록지신¹⁶²³)으로 능상갑하¹⁶²⁴) 불륜함¹⁶²⁵)과
 일통천하¹⁶²⁶) 삼분함¹⁶²⁷)도 너로 하여 정립하고,¹⁶²⁸)
 기린각충의인¹⁶²⁹)도 너로 하여 망신을 하였으니, 너를 죽여 네 고기
 를 뉘 아니 먹게 하겠느냐?”
 조조가 울며, “장군님 덕행으로 전사¹⁶³⁰)를 잊으니까?¹⁶³¹)
 황건적¹⁶³²) 패를 만나¹⁶³³) 도원형제¹⁶³⁴) 분산하고 거주¹⁶³⁵)를 모르
 실 적에,
 소장의 나라로 모셔 들여, 미부인¹⁶³⁶) 감부인¹⁶³⁷)을 별궁¹⁶³⁸) 지어
 드리시고, 조석¹⁶³⁹)에 출발¹⁶⁴⁰) 진지 정성으로 봉행¹⁶⁴¹)하오며, 장군
 님전 위로지십¹⁶⁴²)
 삼일소연,¹⁶⁴³) 오일대연,¹⁶⁴⁴) 시시로¹⁶⁴⁵) 문안 등대¹⁶⁴⁶) 일본¹⁶⁴⁷) 변
 치를 앓았으니
 나의 도리가 어떠시오? 그 일을 생각하여 살려 돌아보내십¹⁶⁴⁸)을 천
 만천만¹⁶⁴⁹) 바라내다.”¹⁶⁵⁰)
 관공님 꾸짖어 말씀하되, “내 그때 불운함으로 너의 나라를 갓을 적,
 하북대장¹⁶⁵¹) 안량,¹⁶⁵²) 문추¹⁶⁵³)가 기용이 상뻘키로,¹⁶⁵⁴) 너의 나라
 수다¹⁶⁵⁵) 명장이 모두 다 죽거늘,
 내라서¹⁶⁵⁶) 자청¹⁶⁵⁷)하고 단검필마¹⁶⁵⁸)로 전장에 나가랴¹⁶⁵⁹) 제,
 네가 술을 부어 내게다 올리거늘, 공이 없이 그 술 먹기가 체면에
 당찮기로,¹⁶⁶⁰) 잔을 잠시 머물러 놓고,
 날랜 장수 안량 문추를 일합에¹⁶⁶¹) 베어 들고 너의 진을 돌아오니,
 네가 그저¹⁶⁶²) 술을 들고 나 오기만 기다리는데 술이 식지 아니하여,

Your family served the Han(漢) Dynasty for several generations. But you looked down on your superiors and threatened your subordinates into obedience.

The unified China was divided into the three countries because of you.

You tarnished the names of loyal subjects in Qilinge(麒麟閣) Shrine. Everyone resents you.”

Cao Cao(曹操) speaks in tears, “General! Kind General! Did you forget what happened between us?”

After the firm resolution in the peach orchard, you and your brothers were defeated by Yellow-Hooded Gangs,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wandered around.

I invited you to my country. Building a special house for Lady Mi(糜) and Lady Gan(甘), I served them food everyday conscientiously and consoled you.

I threw a small party every three days and threw a big party every five days for you, and I often visited your residence for your wellbeing.

What do you think about my favor to you?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reflect upon the past and set me free.”

Guan Yu(關羽) rebukes Cao Cao(曹操), “I was unlucky when I went to your country.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the brave commanders in Hebei(河北), killed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of yours.

I was about to go to the battlefield voluntarily even though I had only a sword and a horse.

You offered me wine, but I was ashamed to drink it before I did something for you, so I refused the wine for the time being. I beheaded the fast warriors,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in one move, and came back to your camp.

Holding the wine, you waited for me to come back. The wine was still warm.

적장¹⁶⁶³) 혼겁 중에¹⁶⁶⁴) 백마위진¹⁶⁶⁵) 면하였고,
벽산도¹⁶⁶⁶) 천 리 땅을 일전¹⁶⁶⁷)에 내가 앗아¹⁶⁶⁸) 네 안책¹⁶⁶⁹)에 기록하였으니 그 은혜를 갚은지라.

내 길이 충급¹⁶⁷⁰)하니 목을 늘어 칼 받아라!”

[아니리] 조조가 깜짝 놀래며 목을 쏙 움츠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쪽박¹⁶⁷¹)을 쓰고 벼락을 피할망정, 네 옷깃으로 내 칼을 어이 피한다?”¹⁶⁷²)

조조 정신없이, “아이고, 장군님, 초행노숙¹⁶⁷³)하옵다가 초풍¹⁶⁷⁴)할까 조급¹⁶⁷⁵)하오니,

관공은 가까이 서지 말아 주옵소서.” “네 날과¹⁶⁷⁶) 유정타¹⁶⁷⁷)하는 사람이 어찌 나를 가까이 못 켜게 하느냐?”

“장군님은 유정하오나, 청룡도¹⁶⁷⁸)는 무정지물¹⁶⁷⁹)이라 고의¹⁶⁸⁰)를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중모리] “영풍¹⁶⁸¹)하신 관공님은 대의¹⁶⁸²)로써 살려주오.

천하득실은 재천이요,¹⁶⁸³) 조조 생시는 재장군이오니¹⁶⁸⁴) 별반통촉¹⁶⁸⁵)을 하옵시오.

쓰신 투구, 입으신 갑옷, 청룡도, 타신 말을 소장이 드리웁고,
그 칼로 소장이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제발 덕분에 살려주오.”
관공님 인후하신 양반이라 호의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잡을 양¹⁶⁸⁶)으로 각별히 택정¹⁶⁸⁷)을 헐 제,

만일 성공을 못하면은 의율당참¹⁶⁸⁸)하올 줄로 군령장¹⁶⁸⁹)을 다짐하였으니, 너를 놓고¹⁶⁹⁰) 내가 죽기는 절박¹⁶⁹¹)하랴?”

조조가 울며,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유현주와 공명선생이 장군님을 민삽기를¹⁶⁹²) 오른팔로 민삽는디,

초개¹⁶⁹³)같은 이 몸 조조를 놓아주었다 하옵기로 의율시행¹⁶⁹⁴)을 하오리까?

The enemy general was petrified, you escaped from the siege in Baima(白馬).

I took a wide area, and I gave it to you, so I returned your favor.

I am in a hurry. Stick out your head. Here goes my sword!"

[Aniri] Startled, Cao Cao(曹操) pulls his neck in. Guan Yu(關羽) smiles.

"You might as well use a gourd to protect you from lightning. How can you protect yourself from my sword with your sleeve?"

Cao Cao(曹操) panics, "General, I am wandering around, sleeping in cold places. I am afraid I will be shocked.

General, please don't stand near me." "You said I am friendly. How can you tell me not to stand near you?"

"You are friendly, but your Blue Dragon Sword is cold-hearted. I am worried that it might cut our friendship"

[Jungmori] "Bright general, please be righteous and spare my life.

It is up to heaven whether you obtain the world or not. It is up to you, general, whether I live or die. Please be kind to me. Your helmet, armor, Blue Dragon Sword, and horse were my presents.

Wouldn't it be unfair if I die by that sword? Please be merciful to me."

Being a gentle man, Guan Yu(關羽) speaks favorably, "I made a special decision to catch you.

I made a military pledge that if I fail, my head will be cut off by the military law. Wouldn't it be crazy for me to die for releasing you?"

Cao Cao(曹操) speaks in tears, "General, general!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take you as their right hand.

Given that I am a trivial person, will they execute you for setting me free?

장군님도 글을 하셔서¹⁶⁹⁵⁾ 춘추¹⁶⁹⁶⁾를 살피실 제, 옛날 유공사, 자탁 유자¹⁶⁹⁷⁾ 두 사람을 생각하여 살려 돌려보내소서.”

수다¹⁶⁹⁸⁾ 장줄이 모두 다 꿰어 얹저,¹⁶⁹⁹⁾

“특별하신 장군님, 장군님 덕행으로 우리 승상님을 살려주시면, 여산여해¹⁷⁰⁰⁾ 높은 덕을 고향 천리를 가더라도 호호만세¹⁷⁰¹⁾를 하겠 내다.¹⁷⁰²⁾ 깊은 은혜 천추만세¹⁷⁰³⁾를 하오리다.”

수다 장줄이 모두 다 꿰어 얹저 양천통곡¹⁷⁰⁴⁾에 설리 운다.

23. (조조 살아 돌아감) 관운장이 조조를 놓아주고 돌아온다.

[아니리] 인후하신 관공님은 조조를 쾌히¹⁷⁰⁵⁾ 놓아주고, “중군은 하 산¹⁷⁰⁶⁾하라.”

회마하여¹⁷⁰⁷⁾ 돌아와 공명께 복지주왈,¹⁷⁰⁸⁾

“용렬한¹⁷⁰⁹⁾ 관모¹⁷¹⁰⁾는 조조를 놓았사오니¹⁷¹¹⁾ 의율시행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손을 잡고 대답하되,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 로¹⁷¹²⁾ 장군을 그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가 알리오?”

세인¹⁷¹³⁾이 노래를 해 그리하되,

[엇중모리] 제갈량은 칠종칠금¹⁷¹⁴⁾하고, 장익덕은 의석엄안¹⁷¹⁵⁾하고,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 조맹덕¹⁷¹⁶⁾을 살리단 말가?¹⁷¹⁷⁾

천고¹⁷¹⁸⁾에 늪름한 대장부는 한수정후¹⁷¹⁹⁾ 관공이라.

그 뒤야 뉘 알리? 더질더질.¹⁷²⁰⁾

You have read classic books. Think about Yu Gong Si(分公斯) and Zi Zhuo Ru Zi(子濯孺子) and have mercy on me.”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kneel down.

“Special general, if you spare our premier through your virtue, we will praise your high virtue back in our country away from here and will be deeply grateful to you forever.”

Numerous officers and soldiers prostrate themselves and cry sadly.

23. (Cao Cao(曹操) Goes Back Alive.) Guan Yu(關羽) comes back after releasing Cao Cao(曹操).

[Aniri] Benevolent, Guan Yu(關羽) happily sets Cao Cao(曹操) free. “The unit in the middle of the formation! Climb down the mountain.”

Guan Yu(關羽) turns his horse around, comes back to his camp, and kneels down in front of Kong Ming(孔明).

“Silly and inferior, I set Cao Cao(曹操) free. Please execute me in accordance with the law.

Kong Ming(孔明) steps down and grabs Guan Yu’s(關羽) hands.

“Cao Cao(曹操) is not to be killed, so I sent you there. Who could know what I had in mind?”

Folks sing a song as follows:

[Eotjungmori] Kong Ming(孔明) captured an enemy king seven times and released him seven times. Zhang Fei(張飛) from Yan(燕) Country, being righteous, released Yan Yan(嚴顏).

Guan Yu(關羽) set Cao Cao(曹操) free in narrow Huarong(華容) Road.

Guan Yu(關羽) is a majestic hero forever.

Who would know what happens after that? Thank you.

- 1) 大漢時節. 대 한나라 시절. '한나라'는 중국의 왕조 이름.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으로 나누어지는데, 전한('서한(西漢)'이라고도 함)은 고조 유방(劉邦)이 B.C. 202년에 건국하여 A.D. 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후한(東漢)이라고도 함)은 광무제 유수(劉秀)가 서기 25년 유씨의 한나라를 부흥시킴으로써 시작되었는데, 220년 위나라에게 멸망당했음.
- 2) 皇位. 황제의 지위.
- 3) 幼弱. 어리고 나약함.
- 4) 群盜. 무리지어 다니는 도적떼.
- 5) 竝發하니. 두 가지 이상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 6) 奸凶. 간사하며 흉악함.
- 7) 曹孟德. 조조(曹操)의 자. 후한 헌제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8) 天子. 천제(天帝. 하느님). 하늘을 대신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 9) 假稱. 가짜 명칭으로 부름.
- 10) 天下. 온 세상.
- 11) 氾濫하다. 제 분수에 넘치다.
- 12) 孫仲謀. 손권(孫權). '중모'는 손권의 자(字).
- 13)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 14) 險固.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튼튼함.
- 15) 天下. 온 세상.
- 16) 貪心하며. 탐내는 마음을 가지며.
- 17) 倡義하다. (국난을 당했을 때) 의병을 일으키다.
- 18) 劉玄德. (161-223).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건설자. 이름은 비(備), 자(字)는 현덕, 시호는 소열제(昭烈帝)임.
- 19) 宗社.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가리킴.
- 20) 血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 21) 驅馳하니. 치구(馳驅)하니. 남의 일을 위하여 바빠 돌아다님.
- 22) 忠奸. 충성스런 신하와 간사한 신하.
- 23) 共立. 나란히 섬.
- 24) 鼎足. 솥 밑에 달린 세 개의 발. 셋이 나란히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옛 솥은 밑에 세 개의 발이 달려 있어 아무 데나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음.
- 25) 三分할 제. 세 개로 나누어질 때.
- 26)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 27) 모이듯 하고.
- 28) 名將. 훌륭한 장수.
- 29) 蜂起.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남.
- 30) 北魏. 조조가 세운 위나라를 북쪽에 위치한다하여 이르는 이름.

- 31)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32) 荀彧. 조조의 모사(謀士). 본시 원소의 밑에 있었으나, 조조가 황건적을 치고 위세를 떨칠 때 그의 막하에 들었다. 후에 조조의 노여움을 사 50세에 자살하였다. 조조는 그에게 경후(敬侯)라는 시호를 내렸다.
- 33) 荀文若. 순욱(荀彧)의 자. 따라서 '순유(荀攸)'의 잘못. '순유'는 조조의 모사로, 순욱의 조카. 순욱과 함께 조조의 막하에 들었다가, 조조를 위왕으로 받들려 할 때 간하다가 조조의 노여움을 사, 그로 인해 병들어 10일만에 죽었다.
- 34)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동탁을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35)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춰 물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 36)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자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37)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痴)'라고도 불렸음.
- 38)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39) 손권이 세운 오나라를 양자강 동쪽에 위치했다 해서 이르는 이름.
- 40)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자는 자경(子敬). 임회군(臨淮郡) 동성현(東城縣) 사람. 주유의 천거로 손권의 부하가 되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유가 죽은 뒤에 병권을 장악하였다.
- 41)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42) 諸葛瑾. 손권 막하의 모사. 자는 자유(子瑜). 제갈양의 형이며, 난을 피해 강동에 가 있다가 노숙의 천거로 손권을 섬기게 되었다. 아우 양이 유비를 도와 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비 측과의 외교 접촉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사사로이 만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대장군에 예주목(豫州牧)을 겸했는데, 뒤에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각(恪)이 대를 이었으나 권력이 너무 커져 죽임을 당했다.
- 43) 強將. 강한 장수.
- 44)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45)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자(字)는 자의(子義).
- 46)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 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47) 呂蒙. 오나라 장수. 자는 자명(子明). 주유와 함께 조조 군사를 오림에서 크게 무찔렀다.

벼슬은 남군태수(南郡太守).

- 48) 西漢. 서쪽에 있는 한나라.
- 49) 諸葛孔明. (181-234). 이름은 량(亮), 자(字)가 공명이다. 시호는 충무후(忠武侯)이며, 낭야군 양도현(현 산둥성 기남현)에서 태어났다. 호족 출신이었으나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형주에서 숙부 제갈현(諸葛玄)의 손에서 자랐다. 후한 말의 전란을 피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나,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이라 일컬어졌다. 유비를 도와 오나라의 손권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점령하였다. 221년 한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 50) 經天緯地. 온 천하를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여 다스림.
- 51) 無窮造化. 끝이 없이 수많은 일을 꾸미는 재간.
- 52) 計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피나 수단.
- 53)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방은 그의 자(字).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로서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
- 54) 運籌. 주판을 놓듯이 이리저리 궁리하고 계획함.
- 55) 凜凜한. 생김새나 태도가 의젓하고 당당한.
- 56) 關雲長. (? -219). 관우(關羽),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의 무장이다. 수장(壽長) 또는 장생(長生)이라는 자를 썼으나 나중에 운장(雲長)으로 바꿨다. 시호(諡號)는 장무후(壯穆侯)이며,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美髯公)이라고도 불렸다. 유비(劉備)를 오랫동안 섬기며 촉한 건국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관우의 충성심과 의리, 당당한 성품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수로 손꼽힌다. 의리의 화신으로 민담이나 전승에서 널리 이야기되었고, 나중에는 신격화되어 관제묘가 세워졌다. 오늘날에도 관우는 중국인들이 숭배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 57) 태도나 행동이 눈에 띄게 몹시 사나운.
- 58) 張翼德. (167-221). 장비(張飛). 자(字)가 익덕.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59) 堂堂한.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한.
- 60) 趙子龍. (? -229). 이름은 운(雲).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무장으로, 자가 자룡(子龍)이다. 8척에 이르는 큰 키에 생김새가 준수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무예가 출중하였고 특히 창을 잘 썼다. 처음 원소의 부하였다가 그만두고 공손찬을 찾아가 부하가 되었다. 이때 유비도 공손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조운은 유비의 인품을 알아보고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자청했으며, 유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관우, 장비, 황충, 마초와 함께 촉의 오호대장군(五虎大將軍)으로 불렸다. 223년 정남장군이 되고, 양창정후에 봉해졌으며, 227년 제갈량과 함께 위를 정벌(제갈량의 북벌)하기 위해 출병하였다. 이듬해인 229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 61) 善後. 뒷갈망을 잘함.

- 62) 老鍊. 많은 경험으로 익숙하고 능란함.
- 63) 丈夫.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64) 變覆. 뒤집혀 달라짐.
- 65) 天運. 하늘이 정한 운명.
- 66) 博望.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지명.
- 67) 燒屯. 주둔지를 불태움. 박망과 전투에서 공명이 불을 놓아 하후돈을 크게 무찌른 것을 가리킴.
- 68) 白河. 신야 가까이 있는 강 이름.
- 69) 淹沒. 물에 빠뜨림. 조조의 군사가 백하에 다다랐을 때 운장이 포대로 백하를 막았다가 터서 조조의 군사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을 가리킴.
- 70)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 71) 勝氣내년. 지지 않고 이기려는 기개를 보이던.
- 72) 曹仁. 조조의 부하 장수로, 조조의 사촌 동생. 자는 자효(子孝).
- 73) 棄槍逃走. 창을 버리고 도망함.
- 74) 憤心. 분한 마음.
- 75) 曹操. (155-220). 자는 맹덕(孟德), 묘호(廟號)는 태조(太祖), 시호는 무황제(武皇帝)이다. 지금의 안휘성 호주(亳州)에 해당하는 패국(沛國) 초현(譙縣) 출신으로서, 환관 조등(曹騰)의 양자가 된 조숭(曹嵩)의 아들이다.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움으로써 두각을 나타내었고, 동탁(董卓)이 죽자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獻帝)를 옹립하고 종횡으로 무략(武略)을 휘두르게 되었다. 200년 군벌의 최대 세력이었던 관동군의 맹주 원소를 관도(官渡)의 대전에서 격파하였다. 화북을 거의 평정하고 나서 남하를 꾀하였으나, 208년 손권·유비의 연합군과 적벽에서 싸워 대패하였고, 이후에도 그 세력이 강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같은 해 승상(丞相), 213년 위공(魏公), 216년 위왕(魏王)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정치상의 실권은 잡았으나 스스로 제위에 오르지는 않았고, 220년 정월 낙양에서 사망하였다.
- 76) 어리석은.
- 77) 百萬大兵. 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
- 78) 調發하여. (군사를) 불러 모아.
- 79) 怨望이 漲天이요.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퍼져 가득하고.
- 80) 民心이 騷擾로다. 백성들의 동태가 술렁거리며 소란스럽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 81) 南渡. 남으로 건너감. 정광수는 여기를 '천권(擅權)'으로 부름. '천권'은 '권력을 마음대로 함'이라는 뜻.
- 82) 接戰. 서로 맞붙어 싸움.
- 83) 不同. 같지 아니함.
- 84) 玄德. (161-223).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제1대 황제. 이름은 비(備), 자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제(昭烈帝). 후한의 영제(靈帝) 때에 황건적을 쳐서 공을 세우고, 후에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의 손권과 함께 조조의 대군을 적벽에서 격파하였다. 후한이 망하자 스스로 제위에 오르고 성도(成都)를 도읍으로 삼았다.

- 85) 英傑. 영웅과 호걸.
- 86)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 87) 領兵. 병사를 거느림.
- 88) 柴桑屯留. 사상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머물. '시상'은 강서성 구강현 서쪽에 있는 산성.
- 89) 孫權. (182-252). 중국의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 자는 중모(仲謀), 시호(諡號)는 대황제(大皇帝)이다. 손견(孫堅)의 둘째 아들로 200년에 형 손책(孫策)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주유(周瑜) 등의 보좌를 받아 강남(江南)의 경영에 힘썼다. 유비와 손잡고 남하한 조조의 대군을 적벽에서 격파함으로써 강남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 뒤 형주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유비와 대립하였으며, 이 때문에 219년 조조와 결탁하여 유비의 용장 관우를 격파하고 형주를 공략하였다. 이때 손권은 관우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보냈다. 221년 조조가 죽고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한(漢)나라의 제위(帝位)를 찬탈하여 황제로 즉위하자, 유비도 촉한(蜀漢)의 황제가 되었다. 손권도 이에 맞서서 황위에 올라 연호를 황룡(黃龍)이라 하고 도읍을 건업(建業; 南京)으로 정하였다. 만년에 태자로 책봉한 큰아들 손등(孫登)이 죽자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손권은 겨우 10세인 막내 아들 손량(孫亮)을 태자로 책봉하였고, 252년 사망하였다.
- 90)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91) 賢主前. 현주께. '현주'는 '어진 임금'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섬기는 임금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 92) 大驚歎曰. 크게 놀라 탄식하여 말하기를.
- 93) 紛紛한 天下 得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천하를 잃고 얻는 일.
- 94) 民사옴는데. 믿는데.
- 95) 出他國. 다른 나라에 감.
- 96) 深諒處分. 깊이 생각하여 일을 처리함.
- 97) 吳王孫權. 오나라의 왕 손권.
- 98) 魏見曹操. 위나라의 조조를 보니.
- 99) 漢室. 한나라 왕실, 곧 유비가 세운 촉. 유비의 촉이 한나라의 정통을 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임.
- 100) 激動하여. 심하게 충동함.
- 101) 逃走而還. 도망하여 돌아옴.
- 102) 中途而起. 중간에 병사를 일으킴.
- 103) 兩國. 두 나라.
- 104) 形勢. 일이 되어 가는 형편
- 105) 一案에. 하나의 계획으로.
- 106) 圖取하여. 꾀하여 얻어.
- 107) 坐而得功. 가만히 앉아서 공을 세움.
- 108) 一葉船. 한 조각 작은 배.
- 109) 今. 이번.
- 110) 南屏山下. 남병산 아래.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111)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112) 어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 113)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 114)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 115)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116)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117) 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
- 118) 館驛에. '관역'은 관청의 공문을 전달하고, 사신의 왕래나 관리의 부임 때에 말을 대주는 일을 맡은 곳.
- 119) 安歇할새. 편히 쉬니.
- 120) 峨冠博帶. '높은 관과 넓은 띠'라는 뜻으로 벼슬아치들을 가리킴.
- 121)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122) 十餘人. 십여 명. 열 명이 넘는 사람.
- 123) 禮畢. 인사를 마침.
- 124) 管仲樂毅之才. 관중과 악의에 비길 만한 재주.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으뜸가는 제후로 만들었고, '악의'는 연나라의 소왕을 도와 제나라의 여러 성을 항복받았다.
- 125) 胸中. 가슴속.
- 126) 劉裔胄. 유씨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후손인 유비를 가리킴.
- 127)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방은 그의 자(字).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로서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음.
- 128) 比肩.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함을 이르는 말.
- 129) 鵬飛萬里 群鳥가 其志何知리오? 봉새가 만 리를 날아가는데, 못새가 어찌 그 뜻을 알겠는가?
- 130) 萬古. 아주 오랜 세월. 여기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비길 데가 없음'이라는 뜻.
- 131) 孫仲謀. 손권의 자(字).
- 132) 懷疑. 의심을 품음. 여기서는 손권이 조조에게 대적하여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실을 가리킨 듯.
- 133) 激動하여.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되어 어떤 충동이 느껴지게 하여.
- 134) 大智略.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평가하며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뛰어난 슬기와 큰 계략.
- 135) 欲殺孔明. 공명을 죽이고자 함.
- 136) 三日爲限. 삼일을 기한으로 함.
- 137) 十萬箭. 십만 개의 화살.
- 138) 一夜霧中所得하니. 하룻밤의 안개 속에서 얻으니.

- 139) 難測. 헤아리기 어려움.
- 140) 龐統. 양양(襄陽) 사람으로 이름이 통이며, 자가 사원(士元)이다. 유비의 모사(謀士)로, 조조에게 연합계(조조의 군사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쇠줄로 배를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게 하자는 계략)를 쓰도록 하여 대패하게 하였다.
- 141) 連環計. 연합은 쇠고리로 연결함을 뜻하는데, 여기서 연합계란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142)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43) 苦肉計. (궁한 처지에 몰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 몸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꾸미는 계책. 여기서는 황개가 일부러 주유에게 매를 맞고, 거짓 항복 문서를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를 속인 것을 말함.
- 144) 戰船. 전투하는 배.
- 145) 江上陸地. 강 위의 육지. 여기서는 배를 쇠고리로 연결하여 마치 육지처럼 만들어놓은 것을 가리킴.
- 146) 十八技.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열여덟 가지 무예.
- 147) 私習하기. 스승 없이 스스로 훈련하고 익힘.
- 148) 馬上出戰. 말을 타고 싸우러 나감.
- 149) 滿軍中. 모든 군사들 속.
- 150) 大喜. 크게 기뻐함. 매우 기뻐함.
- 151) 軍中. 군대의 안.
- 152) 令. 명령.
- 153) 牛羊. 소와 양.
- 154) 滿陣將卒. 모든 부대의 장수와 병졸.
- 155) 犒軍.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호궤(犒饋). 호석(犒錫).
- 156) 冬. 겨울.
- 157) 十五夜. 십오일 밤. 보름날 밤.
- 158) 天氣. 날씨.
- 159) 清明. 맑고 밝음.
- 160) 風浪. 바람과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61) 安靜. 편안하고 고요함.
- 162) 東山月色. 동산에 떠 있는 달빛.
- 163) 如同白日. 마치 밝은 대낮과 같음.
- 164) 長江一帶. 양자강 주변의 모든 지역.
- 165) 如橫素練.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듯함.
- 166) 錦繡戰袍. 비단에 수놓인 장수가 입는 긴 옷.
- 167) 劍戟. 칼과 창.

- 168) 칼날이 찬 서리같이 흰 빛이 번뜩이어 날카로움을 표현하는 말.
- 169) 南屏山色. 남병산의 색깔.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170) 그림屏. 그림이 그려진 병풍.
- 171) 가리키면 (그곳은).
- 172) 柴桑. 강서성 구강현 서쪽에 있는 산성.
- 173) 夏口城.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손권이 쌓은 성.
- 174)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175)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76) 廣闊. 전망이 트이어 몹시 넓음.
- 177) 起兵. 군사를 일으킴.
- 178) 四海. 온세상.
- 179) 未得之江南. 강남 지방을 아직 얻지 못함.
- 180) 半醉하여. 술에 웬만큼 취하여.
- 181) 南岸. 강이나 바다 따위의 남쪽 기슭.
- 182) 天時.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
- 183) 不識. 알지 못함.
- 184) 心腹.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 185) 夏口. 중국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지명.
- 186) 寄居. 남에게 덧붙어서 사는 일. 여기서는 유비가 손권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뜻함.
- 187) 勒撼. 억지로 흔들어댐.
- 188) 이리석구나.
- 189) 如得江南이면. 만약 강남을 얻으면.
- 190) 享富貴. 부귀를 누림.
- 191) 樂泰平. 태평함을 즐김.
- 192) 銅雀臺. 조조가 업(위나라의 수도)에 쌓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193) 二喬女. 교공(喬公)의 딸인 대교(大喬)와 소교(小喬)를 가리키는데, 둘 다 매우 미인이었다고 함.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교공은 교국로(喬國老)로, 사람됨이 매우 진실하였다고 함.
- 194) 暮年享樂. 늙어서 누리는 즐거움.
- 195) 願에. 바라는 바에. 소원에.
- 196) 足할지라. 만족할 것이다.
- 197) 令. 명령.
- 198) (떡을 차지게 하기 위하여) 떡메로 반죽을 두들기고.
- 199) 魏漢. (조조의) 위나라와 (유비의) 한나라.
- 200) 死生을 決斷하여라.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라.
- 201) 漢室. 한나라 왕실.

- 202) 盡께. 다하게.
- 203) 得天下. 온 세상을 얻음. 곧 온 세상을 통일함.
- 204) 然後에. 후에. 뒤에.
- 205) 함께.
- 206) 滿陣將卒. 진영을 가득채운 모든 장수와 병졸.
- 207) 酒肉. 술과 고기.
- 208) 爭食. 다투어 먹음.
- 209) 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거나 어울림.
- 210) 牌牌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의 무리끼리.
- 211) 서러운 감정이 거세게 일어나 누를 수 없어.
- 212) 哭. 소리내어 슬피 울.
- 213) 鬪戔. 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고 길이 다섯 치쯤 되게 만들
어, 그림과 낚수를 그려 넣은 노름 기구, 또는 그것을 갖고 하는 노름.
- 214)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 215) 턱.
- 216) 疊疊萬恨. 쌓이고 쌓인 수많은 한.
- 217) 軍兵中에. 병사들 중에.
- 218) 病淚卽將爲不幸이라.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곧 불행한 일이 닥친다.
- 219) 帳下. 장막 아래.
- 220) 戰笠. 병거지.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221) 보에 권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 ‘보(漕)’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로, 독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
- 222) 帳下에. 장막 아래에.
- 223)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 224) 千里戰場. 천 리나 떨어진 먼 전쟁터.
- 225) 未決하고.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 226) 大成事. 크게 성공하는 일.
- 227) 놀자.
- 228) 連하여. 이어서.
- 229) 陣中. 군대나 부대의 안.
- 230) 高堂上. 고당 위에. ‘고당’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231) 鶴髮兩親. 학처럼 머리가 허영게 늙으신 부모님.
- 232) 拜別. 이별의 인사를 올림.
- 233) 父兮여 生我시고, 母兮여 育我시니.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 234) 欲報之其恩인데 昊天罔極이로구나. 그 은혜를 갚고자 하면, (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 235) 節內眷堂. 집안의 일가친척.
- 236) 閨中. 아녀자가 기거하는 곳.
- 237) 紅顏. 아주 예쁜 젊은 여자의 얼굴.

- 238) 幼婦. 나이가 어린 부인.
 239) 寄別. 딴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240) 依閨之望.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세운 문에 기대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241) 出門望. 문 밖에 나가 기다림.
 242) 相思曲. 남을 그리워하는 노래.
 243) 斷腸懷.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
 244) 晝夜 愁心. 밤낮으로 하는 근심스런 생각.
 245) 客死. 객지에서 죽는 죽음.
 246) 누가.
 247) 掩土. 겨우 흙이나 덮어서 간신히 장사를 지냄, 또는 그 장사.
 248) 骨曝沙場.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249) 흩어져서.
 250) 烏鳶. 까마귀와 술개.
 251) 두드려.
 252) ‘후여’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세게 하여.
 253) 말인가?
 254) 一日思親十二時. 하루에 12시간을 어버이를 생각함.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생각했으므로, 결국 온 종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임.
 255) 誠孝之心. 참으로 효성스런 마음.
 256) 특별한 곳.
 257) 때문에.
 258) 남의 五代獨身. 자신이 (부모의) 오대독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임. ‘오대독신’은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259) 將近도록. 곧 가깝도록. 거의 다 되도록.
 260) 膝下. 슬하에. 어버이의 곁에.
 261)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262) 供. 신이나 부처에게 정성이나 물건을 바치는 일.
 263)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264)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265) 古廟. 오래 된 사당.
 266)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267)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268) 石佛. 돌로 만든 부처.
 269) 菩薩. 부처의 다음 가는 성인. 도가 높은 중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
 270) 彌勒前. 미륵님께. ‘미륵’은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271) 老軀맞이. ‘노구’는 ‘할멈’이라는 의미인데, 민속의 신(神)의 하나인 듯. 따라서 ‘노구맞이’는 ‘노구신을 맞이하여 비는 일’로 볼 수 있음. 혹 노구메정성으로 볼 수도 있음. ‘노구메정성’은 노구메를 놓고 산천에 기도하는 정성인데, ‘노구메’는 노구술에 지은

- 밥. ‘노구술’은 늦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 272)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 273)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 274) 神衆맞이. ‘신중’이 불법을 지키다는 화엄신장을 뜻하므로, 화엄신장을 맞이하여 비는 일을 가리킨 듯.
- 275) 다리 積善. 다리를 놓는 착한 일을 함.
- 276) 길을 만들어 착한 일을 함.
- 277) 성주신. 민속에서 집을 지키다는 신령.
- 278) 竈王. 민속에서 부엌의 아궁이를 담당한다는 신.
- 279) 堂山. 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곳.
- 280) 天龍. 민속에서 장독대를 담당한다는 신.
- 281) 中天群雄. 하늘에 있는 군웅신. ‘군웅신(구능신)’은 무속의 신의 하나.
- 282) 地神祭. 땅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 283) (힘들여) 심은 나무가.
- 284) 十朔. 열 달.
- 285) 胎氣. 아이를 뱀 기미.
- 286) 임신할 때. ‘벼슬하다’는 속어로 임신하다는 말.
- 287)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88)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89)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90)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91) 固正座. 애써 바른 자세로 앉음.
- 292) 解腹. 출산. 아기를 낳는 일.
- 293) 順產. 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
- 294) 반가울 텐데.
- 295) 冠玉. 관의 앞을 꾸미는 옥으로,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96) 風采.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 297) 杜牧之. (803-852). 중국 당나라 말기의 시인. 이름은 목(牧), 자가 목지(牧之). 호는 번천(樊川). 두보에 상대하여 소두(小杜)라 부르며, 시풍은 호방하면서도 청신하며, 특히 칠언 절구에 뛰어났다. 작품에 〈아방궁부(阿房宮賦)〉, 〈산행(山行)〉 따위가 있다. 얼굴이 잘 생겨, 흔히 미남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 298) 똥오줌을 놀 곳에 누어.
- 299) 三七日. 21일.

- 300) 五六朔. 5-6개월.
- 301) 터덕터덕거리면서. '터덕터덕'은 힘에 벅차서 애처롭게 겨우 움직이는 모양.
- 302)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피우는 재롱.
- 303) 어린아이가 주먹을 자꾸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우는 재롱.
- 304) 어린 아이를 안거나 업고 재우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뜻.
- 305)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 306) 여러 겹으로 된 껍질이나 껍데기의 층.
- 307) 빨개 하며.
- 308) 愛重한 게. 애중한 것이. 사랑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 309) 亂世. 전쟁이나 무질서한 정치 따위로 어지러워 살기 힘든 세상.
- 310) 祠堂.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 311) 痛哭再拜. 슬피 울면서 두 번 절을 함.
- 312) 마음이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 313) 兒孩. 아이.
- 314) 後嗣. 대를 이을 자식.
- 315) 生離別. 살아 있는 부부끼리 하는 이별.
- 316) 戰場. 전쟁터.
- 317) 아기가 변을 볼 때 어르는 말. 또는 아기의 변.
- 318)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볼거나.
- 319) 흥(興)한. 생김새나 태도가 보기에 언짢거나 징그러운.
- 320) 아무렇지도.
- 321) 울고 있느냐?
- 322) 萬軍中. 수많은 군대 속.
- 323) 諺文. 상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
- 324) 잔註. 큰 주석 아래에 더 자세히 단 주석.
- 325) 七書.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일컫는 말.
- 326) 별난. 특별한.
- 327) 別하면. 특별하면.
- 328) 모두.
- 329) 둘러서서.
- 330)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을 함.
- 331) 너희들.
- 332) 才談.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하는 말.
- 333) 제. 자기의.
- 334) 家屬. 한 집안에 딸린 식구.
- 335) 때문에.
- 336) 早死. 일찍 죽음.

- 337) 전혀 없고.
- 338) 四顧無親.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 339) 孑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운 홀몸.
- 340) 二姓之合. 두 성씨가 합치는 일. 두 성씨가 만나 혼인하는 일.
- 341) 갈끔하며 암전하고.
- 342) 奉祭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343) 接賓客. 손님을 접대함.
- 344) 隣里. 이웃동네.
- 345) 宗家大事. 한 문중에서 만이로만 내려온 집안의 큰 일.
- 346) 託身獻情. 몸을 맡겨 정성을 다함.
- 347) 화.
- 348) 天鵝聲.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
- 349) 나팔을 잇달아 부는 소리.
- 350) 외치는.
- 351) 足不離地.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를 아니함.
- 352) 生離別. 살아 있는 혈육이나 부부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짐.
- 353) 日復日. 하루 또 하루 계속 이어서.
- 354) 不息. 그치지 않음.
- 355) 茫茫滄海. 넓고넓은 푸른 바다.
- 356) 끝.
- 357)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 358) 고기.
- 359) 淡淡. 그윽하고 평온함.
- 360)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 361) 해보더란.
- 362) 본디의 생김새.
- 363) 콧구멍.
- 364) 着刀. 지휘봉으로 쓰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
- 365) 판소리를 부르는 양식.
- 366) 19세기에 활동했던 명창 중에서 뛰어났던 여덟 명 정도를 아울러 일컫는 말. 전기 팔명창과 후기 팔명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기 팔명창은 권삼득, 송홍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주덕기, 황해천, 후기 팔명창은 박유전, 박만순, 이날치, 김세중, 송우룡, 정창업, 정춘풍, 김창록, 장자백, 김찬업, 이창운 등이다.
- 367) 權三得. 19세기 초반(1771-1841)에 활동했던 전기 8명창 중의 한 사람. 전복 완주 출신이며, '덜렁제(권제, 권마성제, 설렁제라고도 함)'를 만들었다고 함.
- 368) 권삼득이 만들었다는 판소리 선율의 하나로, 매우 남성적이며, 씩씩한 느낌의 선율이다. 설렁제, 권마성제, 권제라고도 한다.
- 369) 줌뇨이로다. 줌스런 뇨이로다. 보잘 것 없이 작은 뇨이로다.
- 370) 爲國者는 不顧家.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볼 여유가 없다.

- 371) 男兒何必戀妻子리오? 莫向江村老壯年하소. 남자가 하필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는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고향 생각은 하지 마소.
- 372) 功名. 공을 세워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 373) 心中. 마음속.
- 374) 腰下三尺. 허리 아래(에 차는) 석 자 되는 것.
- 375) 吳漢兩陣. 오나라와 한나라(촉)의 두 진영.
- 376) 一合.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한 번 마주침.
- 377) 땡깡. 쇠불이 따위가 세게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쿵개 나는 소리. 여기서는 '사람의 목을 세게 벨 때 나는 소리'임.
- 378) 翻槍揮馬. 창을 내두르고 말을 몰아감.
- 379) 凱歌聲. 전쟁에 이겨 부르는 노래 소리.
- 380) 遠近親戚. 가깝고 먼 친척.
- 381) 그렇다면.
- 382) 項도령. 힘이 장사였다는 항우(項羽)를 가리킴.
- 383) 習用干戈. 창과 방패의 사용법을 익혀 사용함. 현원씨가 제후들을 정벌하려고 창과 방패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함.
- 384) 軒轅氏.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현원(軒轅)인데, 토지의 덕으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땅의 누런 빛깔을 따서 황제(黃帝)라고도 한다. 신농씨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덕이 약해지므로 창과 방패를 만들어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통합했다고 함.
- 385) 與炎帝로. 염제에 맞서서. '염제'는 염제 유방씨(榆罔氏)이다. 신농씨와 동일하게 여겨져 '염제 신농씨'라고 한다. 중국 고대 삼황의 한 사람으로 성은 강(姜)인데,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지녔다고 한다. 쟁기를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또 시장을 열어 물건을 바꾸어가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 386) 阪泉싸움. 현원씨와 염제 유방씨가 싸운 싸움. 이곳에서 현원씨가 유방씨를 이기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387) 能作大霧 蚩尤作亂.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우가 난리를 일으킴. 치우는 제후임.
- 388) 涿鹿싸움. 현재의 중국 허북성 탁록현에서 현원씨와 치우가 벌인 싸움. 현원씨가 응룡(應龍)을 시켜 치우를 치게 하자 치우는 바람 신에게 안개를 일으키게 하므로, 현원씨가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지남거를 만들어 탁록벌에서 치우를 사로잡았음.
- 389) 周.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까지 중국을 지배하던 왕조.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여, 호경에 도읍을 정하고 봉건 제도를 시행하였다. 상(商)나라 다음의 왕조이며, 이전의 하(夏) · 상(商)과 더불어 삼대(三代)라 한다. 요(堯) · 순(舜)의 시대를 이어 받은 이상의 치세라 일컬어진다. 주(周)나라는 왕실의 일족과 공신을 요 지에 두어 다스리도록 하는 봉건제도로 유명하다.
- 390) 衰한. 쇠약해진.
- 391) 紛紛. 떠들썩하고 뒤숭숭함.
- 392) 春秋싸움. 중국 춘추 시대 천하를 놓고 다섯 나라가 다투던 싸움.
- 393) 威福秦皇. 위력 있고 부귀하던 진시황.

- 394) 蠶食. 조금씩 점차적으로 침략하여 들어감.
- 395) 山東. 중국의 산둥 지방. 중국 동부 황해 연안 지방.
- 396) 六國싸움. 여섯 나라의 싸움.
- 397)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여러 장수들.
- 398) 八年風塵. 8년 동안의 전쟁. ‘풍진’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먼지를 가리킴.
- 399) 楚漢싸움. 초나라의 항우(項羽)와 한나라의 유방(劉邦)이 천하를 놓고 싸우던 싸움.
- 400) 七十餘戰 功이 없다. 칠십여 번이나 싸운 전쟁의 공이 수포로 돌아갔다. 항우가 내내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가, 마지막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저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꿈이 허사가 된 것을 가리킴.
- 401) 羽壁싸움. 항우가 해하에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싸운 싸움.
- 402) 赤壁싸움. 적벽강에서의 싸움. 중국 삼국시대 때에 오나라와 한나라의 연합군과 조조의 백만 대군이 싸워 조조가 대패한 싸움. ‘적벽강’은 호북성 가어현에 있는 강.
- 403) 그만두어라.
- 404) 금찍하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참혹하다.
- 405) 功成身退. 공을 세우고 물러남.
- 406) 가고 싶어라.
- 407) 半醉. 술이 웬만큼 취함.
- 408) 竝流.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름.
- 409) 술 몇 잔.
- 410) 才談.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411) 怪談. 괴상한 이야기.
- 412)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
- 413) 毀談. 남을 헐뜯는 말.
- 414) 失談. 실수로 잘못 한 말.
- 415) 虛談. 실상이 없는 빈말.
- 416) 明日. 내일.
- 417) 對戰時. 서로 맞서 싸울 때.
- 418) 勝負間에. 이기고 지고 간에. 이기든지 지든지 아무러하든지.
- 419) 柔能制剛이요, 弱能制强이라.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 420) 兵家. 군사학의 전문가.
- 421) 微驗이요. 경험에 비추어 아는 것이요.
- 422) 在德. 덕에 달려 있음.
- 423) 補佐.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
- 424) 聖君.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 425) 壯하올지라. 장할 것이다. 훌륭할 것이다.
- 426) 溺死. 물에 빠져 죽음.
- 427) 縊死. 목을 매어 죽음.
- 428) 橫死. 뜻밖의 재앙으로 죽음.

- 429) 急死. 갑자기 죽음.
- 430) 卽事.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 431) 보자꾸나.
- 432) 여러 군사.
- 433) 回心.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 434) 落淚. 눈물을 흘림.
- 435) 月明深夜. 달 밝은 깊은 밤.
- 436) 南天을 무릅쓰고. 남쪽 하늘을 무릅쓰고. '무릅쓰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건디어 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남쪽 하늘을 향하여 떠 있다는 뜻으로 쓰였음.
- 437) 까마귀 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 438) 如何鳴고? 어찌 우는가? 왜 우는가?
- 439) 答曰. 대답하여 말함.
- 440) 看月明而疑是天曉. 달이 밝은 것을 보니, 새벽인 줄 착각하다.
- 441) 南에 남쪽에.
- 442) 우나봅니다.
- 443) 醉興이滔滔하여. 술에 취한 흥취를 막을 수 없어.
- 444) 月明星稀에 鳥鵲이 南飛다. 繞樹三匝에 無枝可依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도다.
- 445) 諸將 中 劉馥. 여러 장수 중 유복이가. '유복'은 조조의 부하 장수인데, 패국(沛國) 상현(相縣) 사람으로 양주자사(揚州刺史)를 지냈음.
- 446) 明日 臨戰時. 내일 싸움에 나설 때.
- 447) 不吉兆로소이다. 좋지 않은 징조로소이다.
- 448) 화.
- 449) 妖說. 요사스런 말.
- 450) 執頗. 남의 잘못을 잡아내어 트집을 잡음.
- 451) 그인들. 그것인들.
- 452) 此日. 이 날.
- 453) 水軍都督. 수군의 장수.
- 454) 毛玠. 조조의 모사(謀士).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字)는 효선(孝先).
- 455)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막하로 들어왔다. 후에 관우에게 항복하였다가, 손권이 구하여 조조에게 보내주었다. 조비(曹丕)는 조조의 능 관리를 시켰는데, 일국의 대장으로 항복하였다고 하여, 조조의 공적을 그릴 때에 그의 항복하는 모습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456) 連鎖戰船 畢鎖하고. 전투할 배를 서로 이어놓기를 마치고.
- 457) 卽日. 그 날.
- 458) 進兵. 싸움터 따위로 병사를 내보냄.
- 459) 樓船. 망을 보기 위한 다락집이 있는 배.

- 460) 水陸軍 諸將.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
- 461) 五色旗號. 다섯 가지 색깔의 신호하는 깃발.
- 462) 分撥. 나누어 펼침.
- 463) 水陣. 수군의 진영.
- 464) 中挾搥. 대오의 한가운데서 황색 기를 들고 지휘하는 장수.
- 465) 前挾搥. 대오의 앞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466)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467) 左挾搥. 대오의 왼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468)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처 신야후에 봉해짐.
- 469) 右挾搥. 대오의 오른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470) 呂通. 위나라 장수.
- 471) 後挾搥. 대오의 뒤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472) 呂虔. 조조의 부하 장수로 무성(武城) 사람. 자는 자각(子格).
- 473) 陸陣. 육군의 진영.
- 474) 前司把. 군대의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
- 475)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476) 左司把. 군대의 왼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477)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478) 右司把. 군대의 오른편을 맡은 장수.
- 479) 夏侯淵.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묘재(妙才). 정서장군을 지냈는데, 평양관에서 측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다.
- 480) 水陸應接使. 수군과 육군의 연락을 맡은 장수.
- 481)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조조와는 본디 같은 족속인데, 조조의 아버지가 조씨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성이 달라졌다. 여러 차례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조조가 죽은 뒤 병사하였다.
- 482) 曹洪. 조조의 동생. 자는 자렴(子廉). 벼슬은 표기장군(驃騎將軍).
- 483) 護衛. 여기서는 ‘호위장(護衛將)’을 가리킴. ‘호위장’은 임금을 신변을 지키는 장수.
- 484)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 485)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 486) 水陣에 發榜曰. 수군의 진영에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 487) 官旗聽著 耳聽金鼓 目視旌旗 駕船如馬 見賊爭先 同舟共命 縱逃賊舟 軍法不貸 關哨鼓動 起去아! 관기에 나타난 바를 따라, 귀로는 징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군기를 보아라. 말 타듯이 배를 타고, 적을 보면 앞을 다투며, 배와 생명을 같이 하라. 적의 배를

- 멋대로 도망가게 두면 군법은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 각 초소에 연락해 복을 올리고, 일어서서 출발하라.
- 488) 悠悠小設하며 敵有所施하여 視如聽如라. 여유 있고 침착하게 조금씩 싸울 태세를 갖추고, 적에게 베푸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며, 보는 것같이 하고 듣는 것같이 하라.
- 489) 假曾汝脫退면 敵不急據而니 各隊整齊하여 不許參戰越後하라. 만일에 적진을 빠져나오는데도 적이 급히 쫓아오지 않으면, 각 부대를 정비하여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뒤의 부대로 그 적을 넘겨라.
- 490) 各應聲畢에, 각각 대답하는 소리를 마친 후에.
- 491) 戰船 風帆으로 連船, 전투하는 배와 돛단배를 연결하여.
- 492) 將臺,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493) 觀望, 형세를 바라봄.
- 494) 心中, 마음속.
- 495) 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496) 龐士元, 방통(龐統), 양양(襄陽) 사람으로 이름이 통이며, 자(字)가 사원이다. 유비의 모사(謀士)로, 조조에게 연합계(조조의 군사가 수전에 능하지 못 하므로 쇄줄로 배를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게 하자는 계략)를 쓰도록 하여 대패하게 하였다.
- 497)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498) 荀彧, 조조의 모사(謀士), 본시 원소의 밑에 있었으나, 조조가 황건적을 치고 위세를 떨칠 때 그의 막하에 들었다. 후에 조조의 노여움을 사 50세에 자살하였다. 조조는 그에게 경후(敬侯)라는 시호를 내렸다.
- 499) 처온다면, 공격해 온다면.
- 500) 勝戰할 妙法이로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로다.
- 501) 水陸軍, 수군과 육군.
- 502)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503) 陣勢, 진을 친 형세.
- 504) 狂風忽起하여, 세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 505) 曹寨黃旗, 조조의 진에 있는 누런 깃발.
- 506) 江中에, 강물 속에.
- 507) 吳陣, 오나라 진영.
- 508) 面上, 얼굴.
- 509) 火攻, 불로 하는 공격.
- 510) 欲破無計, (조조의 진을) 격파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음.
- 511) 소리.
- 512) 외치고.
- 513) 吐血氣塞, 피를 토하고 기절함.
- 514) 可憐도다, 가없고 불쌍하다.
- 515) 都督,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 516) 身病. 몸에 생긴 병.
 517) 일어나지.
 518) 自請.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519) 涼藥. 서늘한 약.
 520) 먹도록 하라.
 521) 欲破曹兵이면 諠用火攻이라. 萬事具備하나 只欠 東南風이라.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고자 하면 마땅히 불로 공격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다만 동남풍이 부족하다.
 522) 切切歎曰. 매우 간절하게 탄식하여 말함.
 523) 天地之造化. 하늘과 땅의 조화.
 524) 人力. 사람의 힘.
 525)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526)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527) 天意. 하늘의 뜻.
 528)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피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529) 竝馬하여. 함께 말을 타고.
 530) 3 地勢. 땅의 형세. 땅의 생김새.
 531) 東南方. 동남쪽 방향.
 532) 取用. 가져다가 사용함.
 533) 三層壇. 삼 층으로 된 단.
 534) 方圓. 밑바닥 둘레.
 535) 二十四丈. 스물네 장. '장'은 길이의 단위로 약 3m.
 536) 每一層高. 각각 한 층의 높이가.
 537) 三尺. 석 자.
 538) 合高. 합친 높이.
 539) 下一層. 아래 한 층.
 540) 二十八宿. 해, 달, 항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天球)를 스물여덟으로 나눈 것.
 541) 東方 七面의 靑旗에는. 동쪽 방향의 푸른색 깃발에는.
 542) 角亢氐房心尾箕.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543) 蛟龍貉狐兔虎豹.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도롱뇽, 용, 오소리, 여우, 토끼, 호랑이, 표범.
 544) 按檢. 조사하여 살핌.
 545) 布蒼龍之形하여. 푸른 용의 모양을 본떠서.
 546) 東方 靑旗를 세우고. 동쪽에 푸른 기를 세우고.
 547) 斗牛女虛危室壁.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548) 獬牛蝠鼠燕豬獮.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해

- 태,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이리.
- 549) 豺羊獐馬鹿蛇蚓,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
- 550) 狗狼雄雞烏猴猿,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개, 이리, 꿩, 닭, 까마귀, 원숭이, 긴팔원숭이.
- 551) 成朱雀之狀하여 南方 紅旗를 세우고, 주작의 형상을 만들어 남쪽에 붉은 색 기를 세우고, ‘주작’은 민속에서 섬기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르는데, 붉은 봉황으로 형상화한다.
- 552) 黃神大旗, 중오방기(中五方旗,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군데에 세우는 군기)의 하나로 중앙에 세우는 큰 기.
- 553) 六十四卦, 주역의 팔괘를 여덟 번 겹쳐서 얻은 괘.
- 554) 영글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 555) 白旗, 흰색 기.
- 556) 奎婁胃昂畢觜參,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557) 踞白虎之威, 백호의 위세로 세워놓음.
- 558) 上一層用四人, 맨 위층에는 네 사람을 써서.
- 559) 各人을 束髮冠帶하고, 각자 머리를 묶고, 관을 쓰고, 띠를 두르게 하고.
- 560) 羅布, 비단.
- 561) 鳳衣, 품이 넉넉한 옷.
- 562) 博帶, 넓은 허리띠.
- 563) 朱履, 붉은 신.
- 564) 方裙, 옷자락이 네모난 옷.
- 565) 前左에 立一人, 앞자리의 왼쪽에 한 사람을 세움.
- 566) 手執長竿하고, 손에 긴 장대를 잡게 하고.
- 567) 竿尖上, 장대 끝.
- 568) 用鷄羽葆하여 以招風信하고, 닭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바람을 부르고.
- 569) 前後立一人, 앞과 뒤에 한 사람씩을 세워.
- 570) 繫七星號帶, 복두칠성이 그려진 깃발을 매듭.
- 571) 以表風色, 바람의 색을 표시함.
- 572) 後左一人, 뒤편 왼쪽의 한 사람.
- 573) 奉寶劍하고, 보검을 받들게 하고.
- 574) 後右一人, 뒤편 오른쪽의 한 사람.
- 575) 奉香爐, 향로를 받들.
- 576) 壇下, 단의 아래.
- 577) 二十四人, 스물네 사람.
- 578) 旌旗, 모두 깃발인데, ‘정’은 깃대 끝을 새의 깃털로 꾸민 기임.
- 579) 寶劍, 의장에 쓰던 칼의 한 가지.
- 580) 大戟, 끝이 갈라진 큰 창.
- 581) 黃耗, 누런 깃발.

- 582) 白鐵. 무기로 쓰던 흰 도끼.
 583) 朱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붉은 깃발.
 584) 阜纛. 군대에서 의장에 쓰던 검은색 대장기.
 585) 環繞四面하라. 사방을 둥글게 둘러싸듯 서라.
 586)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587) 上壇 下壇 三次하고. 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세 차례 하고.
 588) 剪爪斷髮.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깎음.
 589) 子敬. 노숙의 자(字).
 590) 公瑾. 주유의 자(字).
 591) 調兵함. 병사를 훈련시킴.
 592) 나의.
 593) 비는 바가. 비는 것이.
 594) 應함이. 어떤 물음이나, 부름, 요구 따위의 사실에 맞추어 행동함.
 595) 怪異함을 두지 말라. 이상아릇하게 생각하지 말라.
 596) 속닥속닥.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97) 數多한. 수많은.
 598) 令. 명령.
 599) 不許遷離方位. 제멋대로 단을 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600) 不許失口亂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601) 不許交頭接耳.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602) 不許大驚小異. 조금 이상한 것에 크게 놀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603) 斬. 목을 베.
 604) 緩步로. 느린 걸음으로.
 605) 焚香. 향불을 피움.
 606) 獻酌. 술잔을 올림.
 607) 讀祝. 축문을 소리 내어 읽음.
 608) 彈弓. 활을 쏘.
 609) 暗祝. 신에게 마음속으로 기원함.
 610) 下壇. 단을 내려옴.
 611) 風勢. 바람의 형세.
 612)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613) 대강 자꾸 걷는 모양.
 614) 江天. 멀리 보이는, 강 위의 하늘.
 615) 寥寂. 고요하고 쓸쓸함.
 616)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을 가리킴.
 617)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618) 趙子龍. (? -229). 이름은 운(雲).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무장으로, 자가 자룡(子龍)이

다. 8척에 이르는 큰 키에 생김새가 준수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무예가 출중하였고 특히 창을 잘 썼다. 처음 원소의 부하였다가 그만두고 공손찬을 찾아가 부하가 되었다. 이때 유비도 공손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조운은 유비의 인품을 알아보고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자청했으며, 유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관우, 장비, 황충, 마초와 함께 촉의 오호대장군(五虎大將軍)으로 불렸다. 223년 정남장군이 되고, 양창정후에 봉해졌으며, 227년 제갈량과 함께 위를 정벌(제갈량의 북벌)하기 위해 출병하였다. 이듬해인 229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 619) 揖,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 620) 危邦陣中. 위험한 적의 진영 속.
- 621) 氣體. 몸과 마음의 형편이라는 뜻으로, 웃어른께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쓰는 말.
- 622) 반갑게.
- 623) 손바닥을 펴 내민 손.
- 624)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고.
- 625) 賢主. 어진 임금. 자신이 섬기는 임금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 626) 諸將軍卒.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
- 627) 一片. 한 조각.
- 628) 風席. (배의) 돛을 만드는 데 쓰는 돛자리.
- 629) 順風. 순조로운 바람.
- 630) 높이 올려 달고.
- 631) 滔滔滔滔. 넘실넘실.
- 632)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 633)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다.
- 634) 軍官. 장교. 조선 시대에, 각 군영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던 낮은 벼슬아치.
- 635) 請來. 청하여 오게 함.
- 636) 帳中. 장막의 안.
- 637) 軍兵. 군인이나 군대.
- 638) 調發. (군사들) 불러 모음.
- 639) 豫備할 제. 예비할 때. 미리 차비를 갖추어 준비할 때.
- 640) 應接. 손님을 맞아들어 접대함.
- 641) 稟告.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쭙.
- 642)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교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643) 火船. 화약과 장작, 쥘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 644) 大箭. 큰 화살.
- 645) 船頭. 뱃머리. 배의 앞부분.

- 646) 密布. 틈이 없이 매우 뻥뻥하게 펼침.
- 647) 갈대 섰. 갈대 잎과 줄기로 된 뿔갈.
- 648) 油. 기름.
- 649) 硫黃. 황(黃)이라고도 한다. 화학 원소의 하나로, 맛과 냄새가 없는 비금속 원소이다. 비료의 주성분이며, 그밖에 화약, 성냥, 살충제, 살균제 등에도 쓰인다.
- 650) 焰硝. 질산칼륨. 검은색 화약, 성냥, 비료 등의 원료로 씀.
- 651) 靑布油單. 푸른 천에 기름을 먹여 만든 방습포.
- 652) 牙旗. 임금이나 대장이 거처하는 곳에 세우던 기. 깃대 끝을 상아로 장식하였다.
- 653) 船尾. 배의 맨 뒷부분.
- 654) 小船. 작은 배.
- 655) 敵船. 적의 배.
- 656) 以我大船하여. 우리 대선을 이용하여.
- 657) 刺股로. 다리를 찔러서.
- 658) 廝殺. 싸움터에서 마구 죽임.
- 659) 逼我大船거든. 우리 큰 배를 공격해 오거든.
- 660) 我用小船으로. 우리는 작은 배를 사용함으로써.
- 661) 將路迅移하여. 나아갈 길을 빨리 옮겨서.
- 662) 作沈着하고. 침착하게 하고.
- 663) 移乘傳人하여. 사람을 옮겨 타게 하여.
- 664) 側近敵舟어든. 적의 배 곁에 다가가거든.
- 665) 大箭連發. 큰 화살을 계속 쏘.
- 666) 間間近夜. 간간이 한밤중.
- 667) 天色. 하늘의 빛깔.
- 668) 薄明.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얼마 동안 주위가 희미하게 밝은 상태.
- 669) 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 670) 不動. 일어나지 않음.
- 671) 魯肅다려. 노숙더러. 노숙에게.
- 672) 嚴冬. 몹시 추운 겨울.
- 673) 기다려보시지요.
- 674) 君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675) 마치지.
- 676) 三更時分. 삼경시. 한밤중. '삼경'은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 677) 忽風聲.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소리.
- 678) 將臺. 장수가 올라서서 명령·지휘하던 대.
- 679) 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세게 굴러 올리는 소리.
- 680) 靑龍. 청룡기(靑龍旗). '청룡기'는 대오망기의 하나로 진영의 문 원편에 세움.
- 681) 朱雀. 주작기(朱雀旗). 대오망기의 하나로 진영의 앞문에 세움.
- 682) 兩旗脚. 두 깃발. '기각'은 깃대의 반대쪽에 있는 깃폭의 귀에 붙인 긴 조각.

- 683)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쪽 문에 세움.
- 684) 玄武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후문에 세움.
- 685) 應하여.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대답하거나 행동하여. 여기서는 '항하여'란 뜻.
- 686) 東南大風. 큰 동남풍.
- 687) 脫造化. 사람이 부릴 수 없는 조화.
- 688) 難測이라. 짐작하기 어렵다.
- 689) 東吳.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양자강 동쪽에 위치했다 해서 이르는 이름.
- 690) 禍根이니. 화근이므로. 재앙의 근원이므로.
- 691) 後患. 훗날의 근심.
- 692)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자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 693)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자는 승연(承淵).
- 694) 長短. 옳고 그름.
- 695) 말을 달려.
- 696) 執旗壯士. 기를 잡고 있는 장사.
- 697) 當風而立. 바람을 맞으며 서 있음.
- 698) 只在孔明. 단지 공명만이 있음. 여기서는 “공명만 남아 있다” 정도의 의미.
- 699) 直離而去. 금방 떠나가 버렸음.
- 700)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701) 遠近滄波上. 가깝고 먼 푸른 물결 위.
- 702) 洶湧한데. 물결이 아주 세차게 일어나는데.
- 703) 來去踪跡無其處. 그곳에는 오고 간 발자취가 없음.
- 704) 水卒. 수군의 병사.
- 705) 報하되. 알리되. 보고하되.
- 706) 昨日. 어제
- 707) 日暮時. 해질 때.
- 708) 江岸. 강 언덕.
- 709) 洋洋江水. 넓고 넓은 강물.
- 710)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장강(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 711) 거룻배인가?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712) 桐江七里灘. 동강의 길이가 7리나 되는 여울. ‘칠리탄’은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울인데, 엄자룡이 낚시하던 곳으로 유명함.
- 713) 嚴子陵. 이름은 광(光). ‘자룡’은 그의 자(字). 한나라의 광무제와 글공부를 같이 했으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다. 황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라는 벼슬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 714) 夜泊秦淮近酒家. 밤 되어 술집 가까운 진회에서 묵는다.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의 한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연룽한수월룡사(煙籠寒水月籠沙) 야박진회근주가(夜泊秦淮近酒家) 상녀불지망국한(商女不知亡國恨) 격강유창후정화(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

는구나. 밤 되어 술집 가까운 진회에서 묵는데,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715) 江下. 강의 아래쪽.
- 716)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 717) 鶴氅衣. 소매가 넓고 뒤 술기가 갈라진 흰옷의 가를 검은 천으로 넓게 댄 옷.
- 718) 내려올.
- 719) 揖을 치니. 읊을 하니. ‘읊’은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 720) 말을 하려고 입을 자꾸 달짝이는 모양.
- 721) 잡아야지.
- 722) 멍경. 쇠불이 따위가 세게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쿵개 나는 소리. 여기서는 ‘사람의 목을 세게 벨 때 나는 소리’임.
- 723) 江水. 강물.
- 724) 폭 적시면.
- 725) 白骨. 살이 다 썩고 남은 하얀 뼈.
- 726) 배를 저을 때 호흡을 마치기 위해 ‘힘차게 저어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 727)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728)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게 흐르는 얇은 곳.
- 729) 물건들을 자꾸만 이리저리 뒤집는 모양.
- 730) 공명인 것이.
- 731) 외치는.
- 732) 默默不答.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 733) 손을 힘 있게 저어서 움직이며.
- 734) 거기에.
- 735) 흘코자. 해하고자. 해치려고.
- 736) 憤. 성.
- 737) 이미.
- 738)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 739)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꾀.
- 740) 強弓. 탄력이 센 활. 활시위는 삼겹실로 드리는데 240가닥으로 꼰다.
- 741) 鐵箭. 쇠로 만든 화살.
- 742) 화살을 시위에 메어.
- 743) 胸虛腹實. 숨을 다 내쉬고 배에 힘을 줌.
- 744) 활 쏘는 자세를 이르는 듯하나 불명.
- 745) 머리 뒤. 뒤통수.

- 746) 활의 한가운데 손으로 쥐는 부분.
- 747) 下三脂. 손을 쥐었을 때 집게 손가락 밑의 세 손가락.
- 748) 弓弦. 활을 맨 줄.
- 749) 아씩. 갑자기 찬 기운이 몸을 스쳐가는 느낌을 느끼는 모양.
- 750) 깍지긴 손. '깍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
- 751) 힘차게 떼어놓으니.
- 752) 海上으로. 바다 위로. 여기서는 '강물 위로'라고 해야 옳음.
- 753) 飛去空中. 공중으로 날아감.
- 754)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 755) 물결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양.
- 756) 魂. 뉘. 정신.
- 757) 怯走하여. 겁에 질려 달아나.
- 758) 回報하니. 돌아와 알리니.
- 759) 먼저.
- 760) 後圖하자. 나중에 일을 꾸미자.
- 761) 甘寧, 손권의 부하 장수. 자(字)는 흥패(興霸). 파군 임강 사람. 양자강을 오르내리며 수적질을 하여 용맹을 떨치다가 손권에게 항복하여 그의 부하 장수가 되었다.
- 762) 蔡中 降卒. 채중의 항복한 병사들. '채중'은 유표(劉表)의 처남이자 수군대장이었던 채모(蔡瑁)의 사촌. 조조를 거짓 배반하고 주유에게 항복했다가, 이를 간파한 주유에게 역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음.
- 763) 炬火爲號하라. 횃불로 신호를 하라.
- 764) 前營의. 앞의 진영에 있는.
- 765)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자(字)는 자의(子義).
- 766) 左營. 왼편에 있는 진영.
- 767) 呂蒙. 오나라 장수. 자는 자명(子明). 주유와 함께 조조 군사를 오림에서 크게 무찔렀다. 벼슬은 남군태수(南郡太守).
- 768) 中營. 가운데 있는 진영.
- 769) 凌統. (189년-217?). 손권의 막하 장수. 회계 사람으로 자는 공적(公績). 15세에 황조(黃祖)를 치는 전투에 종군하였다가, 아버지 능조(凌操)가 감녕(甘寧)의 화살에 맞아 죽자 분전하여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돌아왔다. 뒤에 손권이 함비에서 위(魏)의 장요(張遼)와 싸울 때 그를 위협에서 구해내어 교위(校尉)가 되었다. 감녕을 늘 아버지를 죽인 원수로 대했으나, 죽을 고비에서 그의 덕으로 살아난 뒤 원한을 풀고 지냈다. 벼슬이 편장군(偏將軍)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770) 右營. 오른쪽에 있는 진영.
- 771) 董襲. (?-215). 손책(孫策)이 강동에 진출했을 때, 엄백호(嚴白虎)를 토벌해 손책에게 동용되었다. 이후 산적에게 습격당해 손권(孫權)을 지키던 주태(周泰)가 부상하자 화타(華佗)를 추천해 간병시켰다. 208년, 손권이 황조(黃祖)를 공격했을 때는 감녕(甘寧)의 부장으로서 능통(凌統)과 함께 선진에서 결사대를 이끌었다. 적벽 대전에서는 한천

- 에서 조조의 진을 습격했고 합비 전투에서 위군과 대치했다. 215년, 유수구에서 서성(徐盛)과 함께 수군을 지휘했지만 폭풍우로 선단이 깨멸되어 전사했다.
- 772) 潘璋. (177-234).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무장이다. 동군(東郡) 발간현(發干縣) 사람으로 자(字)는 문규(文珪)이다. 난폭하고 사나운 성격으로 술을 좋아해, 젊을 적에 가난하지만 언제나 술을 즐겨 마셨다. 손권을 섬기면서, 219년 관우(關羽) 토벌에서 관우를 사로잡았다. 222년 이릉 전투에도 참가해 풍습(馮習)을 죽이는 큰 공적을 세웠다. 반장이 이끄는 군대는 수천 명에 불과했으나, 언제나 1만 명의 군세처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반장은 강한 물욕으로 금전에 집착했고, 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을 좋아하며, 부유한 역인이나 병사를 살해해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주 일으켰다. 손권은 반장의 공적을 아껴 죄를 묻지 않았다.
- 773) 各率三千하여. 각각 삼천 명씩을 이끌고.
- 774) 分撥. 나누어 펼침.
- 775) 各處에. 각각의 장소에.
- 776) 埋伏. (적을)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777) 領兵. 병사를 거느림.
- 778) 軍官. 장교.
- 779) 第一隊. 첫 번째 부대.
- 780)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 781) 第二隊. 두 번째 부대.
- 782)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이릉 전투에선 남만장수 사마가를 죽였으며, 후일 조조와의 합비 싸움에서 가장 큰공을 세웠고, 유비와의 싸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783) 第三隊. 세 번째 부대.
- 784) 蔣欽.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공혁(公奕). 수군을 통솔하는 데 뛰어난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785) 第四隊. 네 번째 부대.
- 786) 陳武. 오나라 장수. 여강(廬江) 송자(松滋) 사람. 조조의 세 번째 남침을 맞아 싸우다 방덕(龐德)에게 칼을 맞아 전사했음.
- 787) 戰船. 전투용 배.
- 788) 一字. 일 자 모양으로 나란히.
- 789) 上部都督. '도독'은 한 부대의 총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상부도독은 전방 부대의 총대장을 가리키는 말인 듯.
- 790) 程普. 오나라 장수. 우복평 토는 사람으로 자(字)는 덕모(德謀).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791) 先鋒將. 부대의 가장 앞에 나아가는 장수.
- 792) 陸遜. 손권의 부하 장수.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백언(伯言). 뛰어난 지략을 지닌 장수로 뒤에 승상이 되었는데, 태자를 폐하는 데 반대하였다가 노염을 사고 물러나 병들어 죽었다.
- 793) 帳中에서. (장수가 거처하는) 장막의 안에서.
- 794) 下令. 명령을 내림.

- 795) 乘火煙如雲하여 一齊 應陣하며, 捧銃 斧攜帶하여 山崩如壯圖라고 하였으니. 불이 붙어 연기가 구름처럼 일어날 때를 타서 일제히 군대를 움직여, 총을 들고, 도끼를 지니고 산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공격하라고 하였으니.
- 796) 黃蓋 火船. 황개가 거느린 화선. '화선'은 화약과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 797) 炬火. 횃불.
- 798) 黃昏時. 해질 무렵.
- 799) 號令出. 행동의 개시를 알리는 명령이 내림.
- 800) 各船에. 모든 배에.
- 801) 一葉風船. 한 척의 작은 돛단배.
- 802) 빨리 가도록 힘을 더하여.
- 803) 樊口.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
- 804) 一葉片舟. 한 척의 작은 배.
- 805) 欸乃聲. 어부가 배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806) 크게.
- 807) 泛彼中流. 물 가운데 둥둥실 뜬.
- 808) 둥둥실. 물 위나 공중에 가볍게 떠 있는 모양.
- 809) 배에서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한자를 빌려 '至芻蕘'으로 적기도 한다.
- 810) 隱隱히.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푸레하며 흐릿하게.
- 811) 웃어른을 대하여 본.
- 812) 放砲一聲. 한 차례 포 또는 총을 쏘는 소리.
- 813) 金鼓. 군중(軍中)에서 전진·정지·후퇴 등의 군령을 내리는 데 사용한 징 모양의 신호 기구.
- 814) 將卒. 장수와 병졸.
- 815) 分發. 나누어 출발시킴.
- 816) 鎮軍將軍. 조운(조자룡)을 가리킴. 처음에는 익군장군(翊軍將軍)이었음.
- 817) 三千軍. 삼천 명의 군사.
- 818) 烏林.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는 지명.
- 819) 屯兵埋伏. 군사를 주둔시키고 숨어 있음.
- 820) 曹軍. 조조의 군사.
- 821) 掩殺. 별안간 습격하여 죽임.
- 822) 車騎將軍. 공이 큰 장군에게 붙여주는 호.
- 823) 張翼德. 장비(張飛). 자는 익덕(翼德).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824)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 825) 午時.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 826) 糜芳. 미축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 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827)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 828)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 829) 江口.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 830) 敗軍. 싸움에서 진 군사.
- 831) 器械. 무기.
- 832) 分發. 나누어 출발시킴.
- 833) 漢壽亭侯. 한나라 수정후. 관우를 가리키는 말. '수정후'는 조조가 관우에게 내린 봉호.
- 834) 關公. 관우(關羽)를 높여 일컫는 말.
- 835) 鳳의 눈. 봉황의 눈.
- 836)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837) 靑龍刀. 청룡인월도(靑龍偃月刀).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838) 비스듬히.
- 839) 關某. 관 아무개. 관우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컬을 때 씀.
- 840) 落後. 뒤로 밀려남.
- 841) 없사옵더니. 없더니.
- 842) 무슨.
- 843) 要地. 중요한 곳.
- 844)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 845) 前日. 전날. 여기서는 '예전에라는 뜻으로 썼음.
- 846) 厚待. 잘 대접함.
- 847) 情誼.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
- 848) 농아주리라.
- 849) 이것으로.
- 850) 正色하며. 얼굴에 엄정한 빛을 보이며.
- 851) 跪告하되. 무릎을 꿇고 말하되.
- 852) 無私. 사사로운 감정을 두지 않음.
- 853) 私情. 사사로운 감정.
- 854) 依律當斬. 법에 의해 마땅히 목을 뺨.
- 855)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 856) 白等(白等). 이두식 표기로 '사퇴건대'라는 뜻. 말쑥을 올리건대.
- 857) 小將. 장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858) 關某. 관 아무개. 관우가 제 스스로를 이르는 말.
- 859) 地閥. 개인의 지위와 가문의 사회적 지위.
- 860) 雖微이오나. 비록 보잘 것 없사오나.
- 861) 忠義는 眞誠이요. 충성과 의리는 참되고 지성스럽고.
- 862) 會桃園之結義하니. 도원에 모여 의형제를 맺었으니.
- 863) 望死生之同心이요. 살고 죽기를 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며.
- 864) 戰場出而艱苦이오나. 싸움터에 나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으나.
- 865) 不違其令而竭力이라.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온 힘을 다한 것이라.
- 866) 起兵以共討하니. 군대를 이끌고 가 함께 토벌을 하니.
- 867) 放曹而何著고. 조조를 놓아 주고 어찌 돌아올 것인가.
- 868) 如彼小兒生擒함이 無異探囊取物이니. 저 조그만 아이, 곧 조조를 사로잡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집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겨우’는
- 869) 若而違令이옵거든. 만일에 명령을 어기면.
- 870) 上告. 윗사람에게 알러서.
- 871) 處置 宜當事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 872) 著衡. 문서에 직함과 성명을 적거나 수결(手決)을 둬. ‘수결’은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
- 873) 가실 것 같으면. 가시면.
- 874) 맞軍令狀.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 쓴 군령장.
- 875) 關平. 관우의 양자. 본래 관우가 조조의 보호로부터 탈출하여 오관참장하고 유비를 찾아 나섰을 때 도움을 받은 관정(關定) 노인의 작은 아들이었음. 평생 양부를 따라 행동하다 형주 함락 후에 관우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 876) 周倉. 관우의 부하로 천하장사. 본래 황건적 장보의 부하로 와우산에서 산적질을 하다가, 관우를 만나 최후까지 충성을 다하였다.
- 877) 駕騫大路. 장수의 행차를 가리키는 뜻함.
- 878) 排立. 줄을 지어 죽 늘어섬.
- 879) 氣色. (회로예락 등)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 880) 劍光. 칼에서 빛나는 광채.
- 881) 如霜이라. 서릿발과 같다. 그렇게 위엄이 있음을 나타냄.
- 882) 用兵. 군사를 부림. 군사를 지휘함.
- 883) 看審次로. 살펴볼 셈으로.
- 884) 樊口.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
- 885) 漸起로다. 점점 일어나는구나.
- 886) 將臺上에. 장대 위에. ‘장대’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887) 諸將. 여러 장수.
- 888) 諸將다려. 여러 장수들과.
- 889) 黃巾. 황건적(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로 쇠퇴하

- 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890) 董卓. 후한 사람. 자(字)는 중영(仲穎). 하동 태수로 있을 때 황건적과의 싸움에서 변변한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나, 궁중의 환관들과 줄을 대어 영제(靈帝) 때 전장군(前將軍)이 되고, 그 뒤 헌제(獻帝)를 세워 흉포한 짓을 많이 하다가 여포(呂布), 왕충(王充) 등에 죽임을 당하였음.
- 891) 呂布. 후한 시대의 장수. 본래 형주자사 정원(丁原)의 의자(義子)로 그를 호위하였으나, 동탁이 적토마를 주어 매수하는 바람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 붙었다. 왕윤이 초선으로 하여금 미인계를 쓰니 또 넘어가 동탁을 죽이고, 이각, 광사의 무리와 싸웠다. 후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혀 죽었다.
- 892) 四海. 온 세상.
- 893) 平定.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킴. 적을 무찌르고 자기편에 예속시킴.
- 894) 天運. 하늘이 내려준 운. 아주 좋은 기회.
- 895) 得天下. 온 세상을 얻음. 곧 온 세상을 통일함.
- 896) 然後에. 후에. 뒤에.
- 897) 千金賞. 수많은 돈으로 주는 상.
- 898) 萬戶侯. 만 호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후.
- 899)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900) 紛紛雪寒隆冬. 어수선하게 눈 내리는 추운 한겨울.
- 901) 하십시다.
- 902) 冬至에 一陽이 始生하니. 동지에 양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곧 동지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고, 봄기운이 돈다는 말.
- 903) 今의. 지금의.
- 904)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905) 二十火船. 스무 척의 화선. '화선'은 수전에서 장작, 쉼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적의 배에 불을 옮기는 데 쓰는 배.
- 906) 靑龍牙旗. 청룡이 그려진 대장기.
- 907) 船旗. 배에 다는 기.
- 908) 先鋒隊將. 맨 앞장을 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
- 909) 영크리저거나 흐리지 않고 똑똑하며 분명하게.
- 910) 靑布帳. 푸른색 천으로 만든 포장. '포장'은 피륙을 여러 폭으로 이어 빙 둘러막아 천장막.
- 911) 三升粥. 삼승으로 만든 뜻. '삼승'은 석새 삼배. 곧 올이 굵은 삼배.
- 912)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913)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계 흐르는 얇은 곳.
- 914)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915) 隱隱히.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푸레하며 흐릿하게.

- 916) 大喜. 크게 기뻐함.
 917) 陣中. 군대나 부대의 안.
 918) 黃公覆. 황개(黃蓋). ‘공복’은 황개의 자.
 919)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920) 大笑. 크게 웃음.
 921) 軍糧. 군대가 먹을 양식.
 922) 배 같으면.
 923) 船體. 배의 몸체.
 924) 穩重하다. 무거울 텐데.
 925) 搖搖. 연달아 자꾸 흔들림.
 926) 泛流. 둥둥 떠 물결 따라 흐름.
 927) 奸計. 간사한 계략.
 928) 있었다면.
 929)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930) 防塞.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931) 舉火炮. 화포를 설치함. 신기전이 화약을 장치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무기이기 때문에 화포를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음.
 932) 神機箭. 조선시대의 로켓 병기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처음에는 한 개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후에 화차를 만든 후에는 신기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았음.
 933) 雷鼓. 타악기의 한 가지. 검은 칠을 한 북 세 개를 북틀에 매달아놓고 칠.
 934) 버썩. 물기가 전혀 없이 마르거나, 타버리는 모양.
 935) 火焰. 불꽃.
 936)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937) 風聲. 바람소리.
 938) 戰船 뒤뚱. 전투하는 배가 기우뚱함.
 939) 3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940) 돛을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줄.
 941) 돛 위에 가로 댄 나무.
 942) 노 젓는 긴 나무.
 943) 뱃바닥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944) 삼판나리.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조그만 배.
 945) 足板. 배를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 널빤지.
 946) 行裝. 배 안에 깔아놓은 여러 도구.
 947) 배의 바닥과 뱃전(배의 양 옆)을 고정하기 위해 가로지른 나무.
 948) 砲臺. 포를 쏘기 위해 만들어놓은 축조물.
 949) 旗幟. 깃발.
 950) 帳幕. 야외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옆으로 돌아가

- 며 휘장을 침.
- 951) 형꼬 따위가 찢어지는 소리.
- 952) 火箭. 불화살.
- 953) 弓箭. 활과 화살.
- 954) 질 나쁜 낚시로 만든 밑이 평평한 솔.
- 955) '먼장'인 듯. '먼장'은 돛대의 밑 부분을 고정하는 확처럼 생긴 '개밥통'을 고정하기 위해 엇비슷하게 뱃전에 대는 나무 도막.
- 956)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 957)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958) 鐸. 팽과리.
- 959) 散散이. 여지없이 깨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
- 960) 風波江上. 바람에 물결이 이는 강물 위.
- 961) 火光. 불빛.
- 962) 한 데 마구 섞여서 몹시 끓어.
- 963) 가련한.
- 964) 才談.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하는 말.
- 965) 無斷히.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 966)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또는 대충대충.
- 967) 뒹굴며.
- 968) 뉘우쳐서 탄식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 969) 두드리며.
- 970) 船頭. 뱃머리. 배의 맨 앞부분.
- 971) 仰天痛哭. 하늘을 쳐다보며 몹시 울.
- 972) 昊天罔極. 아버지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 973) 갑자기 밖이나 앞쪽으로 힘차게 뛰어나가며.
- 974) 남의 五代獨身. 자신이 (부모의) 오대독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임. '오대독신'은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 975) 七十當年. 그 해의 나이가 일흔 살임.
- 976) 砒霜. 비석(砒石)을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무서운 독이 있음.
- 977) 그러한 일이 벌어진 환경에.
- 978) 한가한 채하느라고.
- 979) 時調 半章만 빼다가. 시조의 반 장만 노래 부르다가. 시조 한 수는 3장 6구로 되어 있음.
- 980) 즉사(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 981) 大河水中. 큰 강물 속.
- 982) 여기서는 '자꾸만 계속해서'라는 의미.
- 983) 赤戟. 붉은 색 창.
- 984) 鳥銃. 구식 총.
- 985) 총알을 넣는 통.

- 986)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화약, 탄약을 넣는 그릇의 총칭.
 987) 독침(毒針). 살인 수단이나 무기로 쓰는, 독물을 묻힌 바늘.
 988) 赤壁風波. 적벽강의 풍파.
 989) 無用이로구나. 쓸모가 없구나.
 990)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991)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992) 火煙. 불과 연기.
 993) 외치는.
 994) 紅袍. 붉은 색 도포.
 995) 쉽게. 빨리.
 996) 餘魂. 남은 혼.
 997) 氣怯.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람.
 998) 紅袍. 붉은색 도포.
 999) 쏘다가.
 1000) 나더러.
 1001) 피를 부리며, 양탈(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피를 부림)을 하며.
 1002) 落水하니. 물이 떨어지니.
 1003) 義公. ‘의공’은 한당(韓當)의 자(字). ‘한당’은 오나라 장수로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임.
 1004) 보내려고 할.
 1005)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1006) 臀腫. 볼기짝이나 그 근처에 나는 종기.
 1007) 이리저리 흔들지.
 1008) 겁이 나는 바람에.
 1009) 退不如前.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감.
 1010) 제 생각만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고집하는 모양.
 1011) 縮地法. 도술에 의해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1012) 상부터. 위에서부터.
 1013) (땅 따위를 찍어서) 가까이 당기나 보다.
 1014) 동구멍. 항문.
 1015)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1016) 蒼黃奔走. 너무 급하여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1017)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1018) 追兵. 뒤쫓아 오는 군사.
 1019) 자꾸 움츠리는 모양.
 1020) 景概. 경치.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 1021) 메주라기. 쟁과의 겨울 철새로 몸은 병아리와 비슷하나 쫓지가 짧다.
 1022) 말이나 소 따위의 발굽의 몸통.
 1023) 무엇에 놀라 갑자기 날아가는 모양.
 1024)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1025) 이제.
 1026) 바로 지금.
 1027) 빛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모양.
 1028) 기절하시겠소그려.
 1029) 좀 겸연쩍고 부끄럽던지.
 1030) 非常하게. 평범하지 아니하고 뛰어나게.
 1031) 怨鳥.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변하여 되었다는 새.
 1032) 險峻. 지세가 높고 험하며 가파름.
 1033) 樹木. 나무.
 1034) 叢雜. 뻥뻥하게 우집.
 1035) 萬壑. 수많은 산골짜기.
 1036) 千峰. 수많은 산봉우리.
 1037) 바람이 세차게 불 때.
 1038) 花草木實. 꽃과 풀과 나무 열매.
 1039) 어찌.
 1040) 客死冤鬼. 객지에서 원통하게 죽어 한을 품고 있는 귀신.
 1041) 恨鳥. 한 맺힌 새.
 1042) 지절거리면서. 낮은 소리로 잇따라 자꾸 지절이면서.
 1043) 울더나라.
 1044) 塗炭. (진흙 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 빠졌다는 뜻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1045) 헤이던고.
 1046) 歸蜀道. ‘촉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1047) 不如歸. ‘돌아가지 못하다’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1048) 蜀魂鳥. 두견새의 다른 이름.
 1049) 如山軍糧. 산처럼 많은 군대의 양식.
 1050) 燒盡. 모조리 타서 없어져버림.
 1051) 村匪擄掠. 민가에 대한 노략질.
 1052) 한창이로구나.
 1053) 敗軍. 전쟁에서 진 군대.
 1054) 일인가?
 1055) 百計圖生. 온갖 꾀를 써 살려고 함.

- 1056) 궁리한다.
- 1057) 草坪大路. 풀이 우거진 넓은 들판의 큰 길.
- 1058) 深山叢林. 깊은 산 속 우거진 수풀.
- 1059) 冷病. 찬 기운을 얻어서 생기는 병.
- 1060)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혀 물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음.
- 1061) 큰 새가 날개를 치며 나는 모양.
- 1062) 湖畔새. 물총새과에 딸린 물새. 날개 길이 12cm, 부리 5.5cm 쯤 되며, 등은 적갈색에 자줏빛을 띠었고, 등의 아랫부분과 허리는 회고, 아랫도리는 황갈색, 부리는 붉은데 굵고 크며, 다리도 붉음.
- 1063) 半空. 그다지 높지 않은 하늘.
- 1064) 전라도 무당춤에서, 두 손에 지전을 가지고 팔과 어깨를 활짝 벌린 사위를 이르는 말. 따라서 여기서는 바람막이 자세처럼 두 날개를 짝 벌리고 떠 있는 새를 가리킨 듯.
- 1065) 鐵網에. 철망에서. 쇠로 만든 그물에서.
- 1066) 火兵. 군대에서 불을 때서 밥 짓는 일을 하는 군사.
- 1067) (몹시 성이 나거나 남을 위압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꾸짖음. 또는 그 소리.
- 1068) 紅袍. 붉은 색 도포.
- 1069) 저어새과의 겨울 철새. 몸은 회고 부리는 검다.
- 1070) 不遠이로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
- 1071) 赤壁風波. 적벽강의 세차게 일어나는 물결.
- 1072) (성질이) 바르지 못하고 약간 괴상하구나.
- 1073)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 1074) 팽그르르. (작은 것이) 매끄럽고 빨리 한 바퀴 도는 모양.
- 1075) 자꾸 해죽거리는 모양을 가리킨 듯. '해죽거리다'는 가볍게 활갯짓을 하며 두 팔을 내젓거나 그렇게 걷다.
- 1076) 辭說. 길게 늘어놓는 잔소리나 푸념의 말.
- 1077) 赤壁火戰. 적벽강에서 불로 싸운 싸움.
- 1078) 敗軍之將. 전쟁에서 진 장수.
- 1079)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픈 추위.
- 1080) 汨沒. 어떤 한 일에 파묻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음.
- 1081) 丹粧. 얼굴에 분, 연지 등을 발라서 곱게 하고, 머리카락도 등을 매만져 땀이 나게 꾸밈. 여기서는 새의 아름다운 빛깔을 이르는 말.
- 1082) 毒血. 독이 섞인 피.
- 1083) 때구루루. (좀 뽕뽕하고 큰)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져서 구르는 소리.
- 1084) 내려가며.
- 1085)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1086) 딱따구리. 딱따구리과에 속한 새의 총칭.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나무줄기에 붙어 앉기 알맞고, 꼬리 깃은 뾰뾰하고 뽕뽕하여 이것을 줄기에 대고 몸을 버티면서 교묘

- 하게 기어오름. 부리가 곧고 날카로워서 썩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음.
- 1087) 연소.
- 1088) 함부로 해 대는데.
- 1089) 僅僅圖生. 겨우겨우 살아가기를 꾀함.
- 1090) 蒼黃中. 어찌할 겨를이 없이 썩 급한 가운데.
- 1091) 伏兵.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김. 또는 그 군사.
- 1092) 지금.
- 1093) 울면서.
- 1094) 없기 때문에.
- 1095) 上上峰.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 1096) 放砲一聲. 포나 총을 한 차례 쏘는 소리.
- 1097) 烏林山谷. 오림 산골짜기. '오림'은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 1098) 高聲. 큰 소리.
- 1099) 火光. 불빛.
- 1100)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 1101) 荊山.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산. 질 좋은 옥이 남.
- 1102) 白玉. 흰 옥.
- 1103)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 1104) 麟. 기린.
- 1105) 長槍. 긴 창.
- 1106) 號令. 큰 소리로 꾸짖음.
- 1107) 常山名將. 상산 출신의 유명한 장수. 곧 조자룡을 일컫는 말. '상산'은 하북성 정정현의 서북쪽에 있는 지명.
- 1108) 아느냐, 모르느냐?
- 1109) 달리지.
- 1110) 올리.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 1111) 生門. 점술가들이 점치는 여덟 개의 문의 하나로 길한 방위의 문임.
- 1112) 험차게 달려 들어와.
- 1113) 갑자기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모양.
- 1114) 저기.
- 1115) 텅텅뎡. 쇠불이 따위가 계속해서 세게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굵게 나는 소리. 여기서 '사람의 목을 세게 벨 때 나는 소리'임.
- 1116) 銀粧刀. 은으로 만든 장도. '장도'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
- 1117) 대상을 위협하며 나아가는 모양인 듯.
- 1118) 매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는 36cm, 부리는 3.2cm 가량임.
- 1119) 橫行.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
- 1120) 秋風落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 헤어져 흩어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121) 주검이 如山.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음.
- 1122) 徐晃 張郃 雙接. 서황과 장합이 함께 상대방을 상대하여. '서황'은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장합' 역시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1123) 葫蘆谷. 오림에 있는 골짜기 이름. 호리병박처럼 갈수록 좁아지는 골짜기를 뜻함.
- 1124) 바람, 포성 따위로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소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1125) 器械. 군기(軍器). 전쟁에 쓰이는 병기.
- 1126) 行中. 함께 길을 가는 모든 사람.
- 1127) 救急. 급한 일에 대해 우선 응급 처치를 취함.
- 1128) 曬風하고. 바람을 쐬고.
- 1129) 寂寂山谷. 고요한 산골짜기.
- 1130) 淸溪上. 맑은 시냇물 위에.
- 1131) 雙雙 白鷗. 짝을 지어 있는 해오라비.
- 1132) 흐르면서 떠 있구나.
- 1133) 큰 새가 날아오르거나 내리는 모양.
- 31134) 雨後晴江. 비 온 뒤의 맑은 강물.
- 1135) 興味. 흥취. 어떤 대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불꽃아 따르는 감정.
- 31136) 紅蓼月色. 잎이 지고 빨간 대만 남은 물가의 여뀌풀에 비치는 달빛.
- 1137) 곳인고?
- 1138) 漁笛數聲. 어부들이 부는 피리 소리 몇 마디.
- 1139) 누구의. 누구와의.
- 1140)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떠서.
- 1141) 勝遊. 즐겁게 놀.
- 1142) 奔走.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 1143) 萬軍卒. 수많은 군사.
- 1144) 沒死. 모조리 다 죽음.
- 1145) 風波如霜. 서리처럼 차고 매서운 분란이나 분쟁.
- 1146) 困憊. 위험한 지경에 처한.
- 1147) 半生半死固兩難. 거의 죽다시피 되어 진실로 죽기도 살기도 어려움.
- 1148) 諸將다려. 여러 장수들에게.
- 1149) 이제.
- 1150) 伏兵. 요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불의에 적을 공격하는 군사.
- 1151) 고얀. 성미나 언행이 도리에 벗어나는.
- 1152) 놈들이로구나.
- 1153) 舍廊.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 1154) 복명은커녕.
- 1155) 복명의 '복'을 배라는 뜻으로 풀이한 말.

- 1156) 號砲. 군대에서, 신호로 쏘는 총이나 대포.
 1157) 魂. 넋. 정신.
 1158) 冤. 원통함.
 1159) 누구냐?
 1160) 나옵니다.
 1161)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1162)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1163)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수염.
 1164) 蛇矛長槍. 창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1165) 비스듬히.
 1166) 性情. 성질과 심정.
 1167) 猛虎. 사나운 호랑이.
 1168) 발로 탄탄한 곳을 세게 굴러 소리를 내며 나서는 모양.
 1169) 八遁甲. '여러 가지로 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존재'를 이르는 뜻.
 1170) 飛上天. 하늘로 날아 올라감.
 1171) 함부로 지르니.
 1172) 달린다.
 1173) 후려치고. 휘둘러 힘껏 갈기고.
 1174) 우당통탕. 요란스럽게 부딪치거나 뛰는 소리.
 1175) 展布.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1176) 노구술. 낫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자유롭게 옮겨 따로 걸고 쓸 수 있다.
 1177) 薰氣. 훈훈한 기운.
 1178) 것 같습니다.
 1179) 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신령에게 지내는 제사.
 1180) 땅인 것이. 터인 것이.
 1181) 疊疊山中.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속.
 1182) 松林. 소나무 수풀.
 1183) 醉顏. 술 취한 얼굴.
 1184) 怒目. 성낸 눈.
 1185) 嫉視하고. 흘겨보고.
 1186) 우두커니.
 1187) 원체.
 1188) 예전에.
 1189) '물구즉신(物久則神)'이 아닌가 생각됨. '물구즉신'은 물건이 오래 묵으면 낡아서 귀신 이 된다는 뜻. 따라서 '물건이 오래 되어서 신이 된 것' 정도의 의미인 듯.
 1190)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대개 남녀로 쌍을 이루어 한 기둥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또 한 기둥에는

-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고 새긴다.
- 1191) 風雲乾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회 정치적 사변으로 어지러운 정세’를 비유한 말.
- 1192) 木神. 나무의 신.
- 1193) 驚動. 놀라서 움직임.
- 1194) 斬. 목을 뱌.
- 1195) 怯心. 겁을 내는 마음.
- 1196) 一壺酒. 한 병의 술.
- 1197) 現夢. 죽은 이나 신령이 꿈속에 나타남.
- 1198) 天地萬物. 이 세상의 모든 사물.
- 1199) 생겨날.
- 1200) 各色草木. 여러 가지 풀과 나무.
- 1201) 有巢氏.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보고, 뱀이나 짐승의 피해를 막으려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가르쳤다는, 중국 고대의 전설의 성인.
- 1202) 食木實. 나무 열매를 먹음.
- 1203) 構木爲巢. 나무를 엮어 보금자리를 만들.
- 1204)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205) 作舟車. 작주거하여. 배와 수레를 만들어.
- 1206)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207) 便하다. 편하다고.
- 1208) 石上的 梧桐木. 바위 위의 오동나무. 바위 위에 난 오동나무가 현악기 재료로는 최고라고 함.
- 1209) 五絃琴. 순임금이 탔다는 다섯 줄이 있는 비파.
- 1210) 腹板. 가야금이나 거문고 또는 이와 비슷한 악기의 소리가 울리는 부분.
- 1211) 大舜. 위대한 순임금.
- 1212) 膝上. 무릎 위.
- 1213) 비스듬히.
- 1214) 南風歌. 순임금이 지어 불렀다는 노래.
- 1215) 비파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1216) 文王之甘棠木. 문왕의 팔배나무. ‘소백(召伯)의 팔배나무’로 해야함. 《시경》 ‘감당’이라는 시에, 주나라 소백의 덕을 기리기 위해, 소백이 그 아래서 쉰 감당목을 자르지도 꺾지도 말라는 내용이 있다.
- 1217) 琵琶聲. 비파 소리. 여기서는 ‘감당’이라는 시를 비파에 맞춰 노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임.
- 1218) 秦皇之五侯木. 진나라 시황제의 오후목. ‘오후목’은 태산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난 진시황에게 비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벼슬이 내려진 소나무.
- 1219) 柴桑村 五柳木. 진나라의 시인 도연명이 강서성 덕화현 시상촌의 집 앞에 심은 버드나무 다섯 그루.

- 1220) 春興. 봄의 흥취.
 1221) 끝이 없네. 한이 없네.
 1222)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1223) 棟樑木. 기둥과 들보로 쓰일 나무.
 1224) 龍成畫彩. 용을 그린 그림의 빛깔.
 1225) 半空.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1226) 死後의. 죽은 뒤의.
 1227) 棺板木. 관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넓고 긴 널빤지.
 1228) 白骨身體. 죽어서 썩어 흰 뼈만 남은 몸.
 1229)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1230) 身發室堂. 죽은 몸이 집을 떠남. ‘실’은 아녀자가 거처하는 곳, ‘당’은 남자가 거처하는 곳.
 1231) 諸栗木. 여러 밤나무.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 밤나무는 밤을 심어 싹이 나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씨밤이 썩지 않으므로, 자손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번창하라는 뜻에서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었다고 함.
 1232) 神柱. 죽은 조상의 벼슬과 이름을 써서 사당에 모시는 나무 패.
 1233) 四時節祀. 사철 올리는 제사.
 1234) 忌故日. 죽은 날.
 1235) 滿盤. 상에 가득 참.
 1236) 設位. 자리를 베풀어 만들.
 1237) 焚香. 향을 피움.
 1238) 獻酌. 술잔을 올림.
 1239) 讀祝. 축문을 읽음.
 1240) 木物. 나무로 된 물건.
 1241) 八字.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따른 그 사람의 일평생의 운수.
 1242) 一身. 자기 한 몸.
 1243) 上中下品 벗어나고. 아주 좋은 것에서 아주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느 것에도 끼지 못하고.
 1244) 下山作樑. 산에서 베어져 내려와 작은 집의 들보가 됨.
 1245) 해이던고?
 1246) 棟梁. 대들보.
 1247) 大廣板. 크고 넓은 나무 판.
 1248) 樵童. 땔나무를 하는 아이.
 1249) 無斷히. 사전에 허락이 없이.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이.
 1250) 斫伐. 찍어서 베어냄.
 1251) 防川말. 독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는 말뚝.
 1252) 馬板. 마굿간에 까는 판자.
 1253)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나무로 만든 그릇의 일종.
 1254) 작두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작두’는 쪼, 콩깍지 따위의 마소의 먹이를 발로 디디어가며 썰는 연장.

- 1255) 所用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1256) 뭉툭하고 모양이 없이 생긴 코.
 1257) 방울처럼 동그란 눈.
 1258) 朱土漆. 나무로 된 기둥이나 마루 따위에 붉은 흙을 묻게 개어 바르는 칠.
 1259) 다박솔처럼 짧고 억세며 더부룩한 수염. 다박나룻.
 1260) 八字 없는. 팔자에 없는. 평생의 운수에 없는.
 1261) 紗帽品帶. 사모와 품대. '사모'는 벼슬아치가 관복을 갖추는 때 쓰는 모자. '품대'는 벼슬아치가 품계에 따라 허리에 두르던 띠.
 1262) 行人去來. 행인이 오고감. 행인이 오고가는.
 1263) 大路邊. 큰길가.
 1264) 우두커니.
 1265) 가리키며.
 1266) 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가볍게 굴러 올리는 소리.
 1267) 不避風雨. 비바람을 피하지 못 함.
 1268) 進退難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없음.
 1269) 무슨.
 1270) 物久則神. 물건이 오래 묵으면 낡아서 귀신이 됨.
 1271) 深量. 깊이 헤아려서.
 1272) 千萬千萬. 아주 여러 번. 아주 많이.
 1273) 바라나이다. 바랍니다.
 1274) 失體. 체신을 잃음.
 1275) 分揀. 죄지은 형편을 보아서 용서함.
 1276) 放送.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줌.
 1277) 一方. 한편.
 1278) 醉興.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1279) 酒酣.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말하거나 행동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1280) 손아랫사람을 일컫는 말.
 1281) 勢盡. 기세가 다함.
 1282) 敗軍. 싸움에서 짐.
 1283)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1284) 좀스런 놈. 보잘 것 없이 작은 놈
 1285)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1286)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일가붙이.
 1287) 中山靖王. 한나라 경제(景帝)의 여섯째 아들인 승(勝).
 1288) 後裔. 핏줄을 이은 후손.
 1289) 거만스러운 태도.
 1290) 菜麻田. 채소나 삼을 가꾸는 밭.
 1291)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자리. 줄기를 잘게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 발이 가늘다.
- 1292) 窮班. 가난한 양반.
- 1293) 河東. 황하의 동쪽 지방. 오늘날 산서성(山西省) 안읍(安邑).
- 1294) 생업으로 삼던.
- 1295) 사람.
- 1296) 張飛. 자는 익덕(翼德).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호북성에서 태어나 유비, 관우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그는 유비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용맹을 떨쳤다. 그는 뛰어난 호걸이긴 하였지만 너무 성미가 급하고 또한 술을 좋아하였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는 길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되었다.
- 1297) 慄毒. 성질이 사납고 독살스러움.
- 1298) 涿郡. 지금의 중국 허북성에 있는 지명.
- 1299) 豬肉장사. 돼지고기 장사.
- 1300) 常雋. 예전에, 신분이 낮은 남자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 1301)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장비의 눈을 가리킴.
- 1302) 結義兄弟. 의리로 형제를 맺음.
- 1303) '버릇'의 낮은 말.
- 1304)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 1305) 實尊長. 실제로 나이가 많은 어른.
- 1306) 무슨 일이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 1307) 불러젖히니. 막힘없이 함부로 부르니.
- 1308) 世慾.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려는 욕망.
- 1309) 趙子龍. (? -229). 이름은 운(雲).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무장으로, 자가 자룡(子龍)이다. 8척에 이르는 큰 키에 생김새가 준수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무예가 출중하였고 특히 창을 잘 썼다. 처음 원소의 부하였다가 그만두고 공손찬을 찾아가 부하가 되었다. 이때 유비도 공손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조운은 유비의 인품을 알아보고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자청했으며, 유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관우, 장비, 황충, 마초와 함께 촉의 오호대장군(五虎大將軍)으로 불렸다. 223년 정남장군이 되고, 양창정후에 봉해졌으며, 227년 제갈량과 함께 위를 정벌(제갈량의 북벌)하기 위해 출병하였다. 이듬해인 229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 1310) 삼신(三神). '삼신'은 민속에서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본다고 하는 세 신령.
- 1311) 論之하면.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하면.
- 1312) 돌구멍.
- 1313) 根本.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 1314) 南陽. 중국 허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1315) 農土汗.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농민.
- 1316) 超倫素朴. '초륜'은 범상함을 넘어서서 뛰어나다는 뜻이고, '소박'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자연스럽다는 뜻. 여기서는 '예절이나 배움이 없는 사람' 정도의 의미

로 쓴 듯함.

1317) 데려다가.

1318) 저희들끼리.

1319)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선생에 뒤이어 비꼬는 투로 이어 붙인 말.

1320) 日後. 뒷날. 시간이 지나 뒤에 올 날.

1321) 만나면.

1322) 체면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

1323) 杜門不出. 집안에만 틀어박혀 세상 밖으로 나다니지 아니함.

1324) 두려워하지. 겁먹지.

1325) 天下에.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1326) 보릿자루. ‘하잘것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 듯.

1327) 少時 때. 젊었을 때.

1328) 關公. 관우.

1329)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섬. 또는 그런 자세.

1330) 간이 떨어질 만큼 심하게.

1331) ‘상꼭지’라고도 함. 씨름을 할 때에 상대방의 머리를 짚어 돌려 어지럽게 하여 넘어뜨리는 동작.

1332) 아주 몹시.

1333) 목공이나 석공이 먹줄을 치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그릇.

1334) 여기서는 ‘멍이 들었다’는 말.

1335) 새까맣게.

1336) 그랬느니라.

1337)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

1338) 데려올까요?

1339)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말.

1340) 내지도. 꺼내지도.

1341) 헛壯談.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확실하거나 된다고 자신 있게 하는 말.

1342) 點考.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1343) 애가. 이 아이가.

1344)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나 정신. 또는 줏대 있게 행동하는 태도.

1345) 있는가 없는가?

1346) 죽어버리고.

1347) 그러나저러나. 어떠한든지 간에.

1348) 散卒. 흩어진 군사.

1349) 鳴金二下 大吹打하라. 임금이 행차하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에 군악인 대취타곡을 연주하라고 선전관이 외치던 소리. ‘명금’은 쟁과리와 징을 치는 군악(軍樂)이며, ‘대취타’는 ‘무녕지곡(武寧之曲)’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설했을 때에 쓰던 음악.

- 1350) 흠어진.
- 1351) 漢國, 한나라.
- 1352) 韓信, (?-BC. 196). 중국 한(漢)나라 초의 무장. 강소성 회음(淮陰) 출생. 진나라 말에 처음에는 초나라의 항량(項梁) ·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아 유방의 군에 참가하였다. 승상 소하(蕭何)에게 인정을 받아 해하(垓下)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한군을 지휘하여 크게 공을 세움으로써 제왕(齊王), 이어 초왕(楚王)이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의 권력이 확립되자 차차 권력에서 밀려나, BC 201년 회음후(淮陰侯)로 격하되었다. BC. 196년 진희(陳豨)의 난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한신은 한고조(유방)를 원망하며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말을 남겼다.
- 1353) 彭越. 팽월은 창읍(昌邑) 출신으로 자는 중(仲)이다. 항상 거야택(巨野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다가 무리를 모아 도적떼가 되었다. 그 후 팽월은 한신과 함께 유방을 도와 항우를 해하(垓下)에서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한나라를 일으킨 한고조 유방은 처음에는 약속대로 팽월을 양왕에 봉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처형하였다.
- 1354) 죽었다는. 죽었다는.
- 1355) 말인가?
- 1356) 불명.
- 1357) 무슨.
- 1358) 輔國忠臣. 나라일을 돕는 충성스런 신하.
- 1359) 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작은 술. 바닥이 평평하고 위아래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다.
- 1360) 불러놓으니까.
- 1361) 정도가 어지간하구나.
- 1362) '대장(隊長)'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됨. '대장'은 한 무리의 우두머리.
- 1363) 物故. '죽었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말.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이 낡은 것으로 되었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 1364)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에 놀라서 튀어나오는 소리.
- 1365) 너희들.
- 1366)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다투며 승강이를 당하여.
- 1367) 前部右使. 앞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우사. '우사'는 삼사(三司)에 속한 정이품 벼슬.
- 1368) 千總所. '천총'은 조선 왕조 때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금위영, 진무영 등에 딸린 정삼품 무관 벼슬로, '천총소'는 천총이 소속된 곳일 듯.
- 1369) 옛날 군인이 전쟁할 때에 갑옷과 함께 방위용으로 쓰던 쇠로 만든 모자.
- 1370) 千總. 조선 왕조 때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금위영, 진무영 등에 딸린 정삼품 무관 벼슬.
- 1371) 傲然不拜. 거만하게 절을 하지 않음.
- 1372) 들어주십시오.
- 1373) 天方地方. 하늘 방향으로 갔다가 땅 방향으로 갔다 함. '천방지축'과 같은 말.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1374) 작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모양.

- 1375) 軍禮. 군인들이 하는 인사.
- 1376) 주심시오.
- 1377) 魂飛魂喚.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제사하는 데로 혼이 날아감.
- 1378) 愛重하던. 사랑하여 중하게 여기던.
- 1379) 권속(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1380) 論之하면.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하면.
- 1381) 거기에.
- 1382) 僅僅圖生. 생활이 곤궁하여 겨우겨우 살기를 꾀함.
- 1383) 左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왼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384) 骨內腫이. '뼈 속에 종기가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익살스럽게 일컬은 말.
- 1385)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볼썽 내민 사람.
- 1386) 등뼈가 굽어 큰 혹같이 볼거진 등을 가진 사람.
- 1387) 눈언저리의 속눈썹이 난 곳.
- 1388) 병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볼거나 팔뚝이 없는 팔.
- 1389) 죽지 않을 정도로 맞는 벼락이라는 뜻으로, 호되게 당하는 재난을 이르는 말.
- 1390) 後患거리.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거리.
- 1391) 본래 재료에다 더 붓는 국물.
- 1392) 충분히 오래오래.
- 1393) '눈'의 비어.
- 1394) 人醬食. 사람을 잡아 장국을 끓여 먹음.
- 1395) 愚惡하니. 무지하고 포악하며 드세니.
- 1396) 右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오른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397) '절뚝거리는 다리'라는 뜻으로, 부상당하여 절뚝거리는 병사를 익살스럽게 일컬은 말.
- 1398) 세 번 발걸음을 옮기다 크게 뛰는 모양.
- 1399) 긴 다리를 힘 있게 모으고 넓다 연거푸 뛰는 모양.
- 1400) 상한 데 없이 본래대로 온전하니.
- 1401) 위태롭소.
- 1402) 회를 처서, 고기나 생선으로 회를 만들어. '회'는 물고기·고기·야채 따위를 날로 얇게 썬 음식.
- 1403) 했으니까.
- 1404) 모두.
- 1405) 無數키로. 무수하기로.
- 1406) 용하다. 매우 다행스럽다. 재주가 뛰어나고 특이하다.
- 1407)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 1408) 술구덩. 소나무를 파낸 구덩이.
- 1409) 바가.
- 1410) 구경거리.
- 1411) 싸움하는 구경거리.

- 1412) 鍾. 쟁과리.
 1413) 犒軍.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함. 여기서는 호군하는 음식을 가리킴.
 1414) 實軍士. 실질적인 군사.
 1415) 분질러. 부러뜨려.
 1416) 작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져 도막이 나는 모양.
 1417) 부러뜨려.
 1418) 때문에.
 1419) 바늘 스물네 개를 단위로 세는 말.
 1420) 번번이. 늘.
 1421) 左手. 왼손.
 1422) 右手. 오른손.
 1423) 情表. 간절한 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물품을 줌. 또는 그 물품.
 1424) 네. 너희.
 1425) 馬兵長. '마병'은 말 탄 군사이므로, 마병장은 말 탄 군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 듯.
 1426) 말채찍.
 1427) 몽고에서 들어온 말 종류.
 1428) 가득.
 1429) 모두. 전부.
 1430) 빠져버리고
 1431) '돈'은 조선 시대 화폐의 단위로, 열 돈이 한 냥임.
 1432) '푼'은 돈의 십분의 일.
 1433) 거적이나 천 조각의 양쪽에 채를 대서 만들어 두 사람이 맞들게 된 운반기구의 한 가지.
 1434) 팔을 가볍게 저어 바람을 내면서 걷는 모양.
 1435) 길을 가는 거리가 쉽게 늘어나고. '붙다'는 수량이 많아지다는 뜻.
 1436) 하반신 장애인 중에서 앉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437) '눈'을 상스럽게 일컫는 말.
 1438) 愚惡. 무지하고 포악함.
 1439) 火兵. 군대 안에서 밥 짓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
 1440) 품질이 낮은 낫쇠로 만든 작은 술. 바닥이 평평하고 위아래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다.
 1441) 부싷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쇠조각.
 1442) 안칩니다. '안치다'는 밥, 떡, 구이,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린다.
 1443) 넘으려고 합니다. '넘다'는 밥물이 끓어 넘치다.
 1444) 부아. 노엽거나 분한 마음.
 1445) 종이나 형짚 따위를 칼이나 가위로 단번에 베는 소리.
 1446) 갓. 부싷깃. 부시를 칠 때 불뚱이 박혀서 불이 붙도록 부싷돌에 대는 물건.
 1447) 나물이나 해산물 따위에 간장이나 참쌀 풀 따위의 양념을 발라 말린 것을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반찬.

- 1448) 불이 옴아 불을.
 1449) 氣盡. 기운과 힘이 풀려서 다함.
 1450) 지치거나 힘이 없어 몸이 늘어짐.
 1451) 仰天痛哭. 하늘을 우러러 슬피 울.
 1452) 昊天罔極. 아버지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1453) 서럽게들.
 1454) 馬上에서. 말 위에서.
 1455) 아무 소용이 없는 호령.
 1456) 死生이 有命커든. 죽고 사는 것이 명에 달려 있는데.
 1457) 가볍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해 놓으니.
 1458) 變. 갑자기 생긴 재앙이나 괴이한 일.
 1459) 水戰中. 물에서 싸운 싸움 중에.
 1460) ‘소벽(笑癖)’을 의인화한 표현. ‘소벽’은 웃는 버릇. ‘벽’은 고치기 어렵게 굳어 버린 버릇.
 1461) 八十萬兵. 팔십만 명의 군사.
 1462) 深山. 깊은 산.
 1463) 자꾸 겁을 내니.
 1464) 지금.
 1465) 智足. 지혜가 많음.
 1466) 無能之輩. 무능한 무리. 무능한 사람들.
 1467)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아주’, ‘몹시’의 뜻을 나타낸다.
 1468) 다루기 쉬운 사람이나 물체로 취급되어.
 1469) 바이다.
 1470) 放砲一聲. 한 번 총이나 대포를 쏘는 소리.
 1471) 此山中. 이 산속.
 1472) 大刹. 큰 절.
 1473) 四時供養. 하루의 네 때 절에서 부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일.
 1474) 다니겠느냐?
 1475) ‘명월포(明月砲)’의 잘못된 듯. ‘명월포’는 딱총의 하나로 공중에 올라가 터지면서 불이 번쩍하여 달처럼 환하게 된다.
 1476) 應砲. 적이나 상대방에서 쏘는 대포에 대응하여 대포를 쏘.
 1477) 위태롭소.
 1478) 天然히. 시치미를 뚝 떼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아니한 듯이.
 1479) 防塞.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
 1480) 案山. 앞산.
 1481) 後面. 뒤쪽.
 1482) 靑龍旗. 조선 시대에, 대오방기(大五方旗) 가운데 진영의 왼편에 세워 좌군(左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 파란 바탕에 청룡과 파란색·붉은색·누런색·흰색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火炎脚)이 달려 있다.

- 1483) 쭈뼛쭈뼛. 물건의 끝이 다 차차 가늘어지면서 삐죽삐죽하게 솟은 모양.
- 1484) 馬兵. 말 탄 군사. 기병.
- 1485) 步卒. 보병. 걸어서다니며 싸움을 싸우는 군사.
- 1486) 旗幟槍劍.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깃발, 창, 칼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1487) 黑雲. 검은 구름.
- 1488) 滄浪.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 1489) 군악대의 연주 소리를 흉내낸 말.
- 1490) 淸道旗. 행군할 때에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청도(淸道)'는 행군할 때 맨 앞에 세우던 선도 깃발로 두 개이고, 주작, 청룡, 백호, 현무, 등사는 진중의 동서남북을 나타내던 대오방기(大五方旗), 홍신, 백신, 황신, 청신, 흑신은 중오방기이며, 금고는 취타대를 지휘하던 깃발이다.
- 1491) 淸道. 청도기(淸道旗). 관원(官員)의 행차 때 많은 기(旗) 중에 제일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 화염은 붉은 빛이며 '청도(淸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 1492)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 1493) 朱雀. 주작기(朱雀旗).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 전영, 전위를 지휘함.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남색임.
- 1494) 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495) 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496) 紅招. 홍고초(紅縞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497) 藍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498) 靑龍.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앞쪽을 지휘하는 데 쓰이던 깃발.
- 1499) 東南角. 의장기의 하나.
- 1500) 西南角. 의장기의 하나.
- 1501) 藍招.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502) 黃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503) 螭蛇. 등사기(螭蛇旗). 대오방기의 하나. 가운데 진영을 지휘하는 데 쓰이던 깃발.
- 1504) 巡視. 순시기(巡視旗). 대장이 군중을 순시할 때 세우고 다니던 깃발.
- 1505) 黃招.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506) 白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507)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쪽 문에 세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흰 바탕에 백호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 1508) 東北角. 의장기의 하나.
- 1509) 西北角. 의장기의 하나.
- 1510) 白縞. 백고초(白縞招).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511) 紅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 1512) 玄武. 현무기(玄武旗). 후문(後門)에 세워 뒤쪽 진영을 지휘하는 데 쓰이던 깃발. 검은 바탕에 거북을 그림.
- 1513) 北東角. 의장기의 하나.

- 1514) 北西角. 의장기의 하나.
- 1515) 黑綃. 흑고조(黑縞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 1516) 紅神, 白神, 黃神, 靑神, 黑神. 중오방기(中五方旗). 조선조 때 쓰던 군기(軍旗)의 한 가지로 홍신기(紅神旗)·남신기(藍神旗)·황신기(黃神旗)·백신기(白神旗)·흑신기(黑神旗)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동·서·남·북·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다.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다.
- 1517) 豹尾.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깃발.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데 쓰였음.
- 1518) 金鼓. 고려·조선 시대에, 군중(軍中)에서 호령하는 데 사용하던 징과 북.
- 1519) 號銃. 쇠로 만든 대포.
- 1520) 窰쇠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
- 1521) 鐃. 쟁과리.
- 1522) 喇叭. 쇠붙이로 만든 관악기의 한 가지. 주로 신호를 하거나 군(軍) 행진 때 불며, 모양은 긴 대롱처럼 생겼는데,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1523) 細樂. 장구·북·피리·해금 등으로 연주하는 군악.
- 1524) 鼓. 북.
- 1525) 巡視. 순시기(巡視旗). 대장이 군중을 순시할 때 세우고 다니던 깃발.
- 1526) 令旗. 조선조 때 군중에서 군대의 명령을 전할 때 쓰던 기.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으로 ‘令’ 자를 썼음.
- 1527) 中司命. 가운데에는 사명기라는 뜻. ‘사명기’는 각 군영(軍營)의 대장(大將), 유수(留守), 순찰사, 통제사가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軍旗). 기의 바탕 색깔은 각 대장의 방위에 따라 다르며, 가운데에는 진영의 이름에 따라 ‘○軍司命’이라고 썼다.
- 1528) 左貫耳. ‘왼쪽에 관이’라는 뜻. ‘관이’는 군대에서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일 사람의 귀를 꿰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화살.
- 1529) 右令箭. ‘오른쪽에 영전’이라는 뜻. ‘영전’은 군대의 명령을 전하는 화살.
- 1530) 執事. 아전의 직책의 하나.
- 1531) 기패관(旗牌官).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군기(軍旗)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무관.
- 1532) 軍牢直列. 한 줄로 죽 늘어선 군뢰. ‘군뢰’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는 병졸.
- 1533) 座馬. 대장이 말을 탈 때 여벌로 데리고 다니던 말.
- 1534) 纛.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던 깃발.
- 1535) 攔後. 부대의 맨 뒤를 호위하던 군대.
- 1536) 親兵. 임금이나 대장이 친히 거느리던 군사.
- 1537) 教師. 군대의 훈련을 맡던 벼슬.
- 1538) 塘報. 적의 행편을 살펴 알리는 임무를 맡은 척후병.
- 1539) 舉動. 몸을 움직이는 짓이나 태도.
- 1540) 旗幟槍劍.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깃발, 창, 칼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1541) 日月을 戲弄하고. 해와 달처럼 빛나고.
- 1542) 金鼓. 고려·조선 시대에, 군중(軍中)에서 호령하는 데 사용하던 징과 북.

- 1543) 喊聲. 여러 사람이 함께 지르는 고함 소리.
 1544) 昏迷中.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1545) 旗色. 기의 색깔.
 1546) 司命旗. 각 군영(軍營)의 대장(大將), 유수(留守), 순찰사, 통제사가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軍旗). 기의 바탕 색깔은 각 대장의 방위에 따라 다르며, 가운데에는 진영의 이름에 따라 ‘○軍司命’이라고 썼다.
 1547) 漢宗室. 한나라 왕실.
 1548)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1549) 大元帥. 전 군(軍)을 통솔하는 대장.
 1550) 關公. 관우.
 1551) 三軍大兵. 좌익, 우익, 중군을 합친 많은 군대.
 1552) 엇글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1553) 朱顏. 붉은 얼굴.
 1554) 鳳目. 봉의 눈.
 1555)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1556) 黃金甲冑. 황금으로 된 갑옷과 투구.
 1557) 靑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1558) 前後 劍光. 앞과 뒤에서 빛나는 칼의 빛.
 1559) 칼날이 찬 서리같이 흰 빛이 번뜩이어 날카로움을 표현하는 말.
 1560) 左右 伏兵. 좌우에 있는 복병.
 1561) 그것이.
 1562) 諸將. 여러 장수.
 1563) 여쭙되.
 1564) 風神.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1565) 仁厚. 마음이 어질고 깊음.
 1566) 關公일시. 관공인 것이. 관우인 것이.
 1567) 的實. 틀림없이 확실함.
 1568) 欲退無處. 물러나고자 해도 갈 곳이 없음.
 1569) 欲脫無計. 벗어날 방법이 없음.
 1570) 對敵. 적과 맞서 겨룸.
 1571) 劍光. 칼날에서 나는 빛.
 1572)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1573) 赤手單劍. 맨 손에 칼 한 자루뿐임.
 1574) 五關斬將. 관우가 조조로부터 탈출하면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명의 장수를 죽인 것을 가리킴.
 1575)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내는 솜씨와 짜.
 1576) 人馬. 사람과 말.
 1577) 氣盡. 기력이 풀려서 다함. 기운이 다 떨어짐.

- 1578) 當敵. 상대하여 맞서 겨룸.
 1579) 前日. 예전.
 1580) 長劍. 긴 칼.
 1581) 말에게.
 1582) 대머리.
 1583) 고추처럼 생긴 볼품없는 상투.
 1584) 揖.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1585) 伏拜. 엎드려 절함.
 1586) 오래이더니.
 1587) 別來無恙하시니까? 이래로 별 탈이 없었습니까?
 1588) 들어주십시오.
 1589) 濁名寒士. 속세의 가난한 선비.
 1590) 萬軍. 많은 군대.
 1591) 紛紛天下.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운 세상.
 1592) 蜂起諸將. 벌떼처럼 일어난 장수들.
 1593) 忠功. 충성스러운 공로.
 1594) 晝夜長戰. 밤낮으로 하는 긴 전쟁.
 1595) 吳賊. 오나라 도적, 곧 손권을 가리킴.
 1596) 楚水. 옛 초나라 땅(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의 강물.
 1597) 吳山. 옛 오나라 땅(지금의 강소성 일대)의 산들.
 1598) 險山. 험악한 산.
 1599) 바가.
 1600) 好意. 친절함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
 1601) ‘예전에’의 잘못된 듯.
 1602) 厚恩. 두터운 은혜. 많은 은혜.
 1603) 私. 사사로움 일.
 1604) 戰功. 전쟁에서 세우는 공.
 1605) 廢할쏘냐? 없이하겠느냐?
 1606) 洞燭.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1607) 모르십니까?
 1608) 絕凶. 아주 흉악한.
 1609) 匈奴.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서역의 통상로를 지배하여 한나라와 대항하였으나, 후한 시절에 토벌되어 서쪽으로 이동하였음.
 1610) 白登七日之圍하시어. 백등에서 칠일 동안 포위를 당하시어. 한고조가 흉노와 싸우다가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의 왕 모돈에게 이레 동안 포위당해 있었음. 한고조의 신하인 진평이 모돈의 아내 알씨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음.
 1611)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

으나, 그 후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량,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하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장안에 도읍하였다.

- 1612) 智伯之臣 豫讓. 지백의 신하 예양. 예양은 전국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백이 그를 아꼈는데, 지백이 조(趙)나라를 치다가 죽자, 그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음.
- 1613) 趙襄子. 조나라의 양자. ‘양자’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경(卿).
- 1614) 宮中塗廁. 궁중의 변소에 칠을 칠함. 예양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칠을 칠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죽일 기회를 엿본 일을 가리킴. 예양은 조양자를 죽이지 못하고 잡혔으나, 의인이라고 하여 살려주었다. 예양은 다시 문둥이로 변장하여 다리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으나 또 잡히게 되자, 양자의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칼을 뽑아 세 번 찌른 후에, ‘지백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며 자살했다고 함.
- 1615) 義人. 의로운 사람.
- 1616) 吾謹避之. 내가 조심하여 피함.
- 1617) 善心. 착한 마음.
- 1618) 小將.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619) 天中大人. 임금 가운데서도 도량이 크신 분.
- 1620) 論之하면. 옳고 그름 따위를 따져 말하면.
- 1621) 時刻에. 짧은 시간에. 즉시.
- 1622) 面分. 얼굴이나 알 정도로 사귄 교분.
- 1623) 累世漢祿之臣. 여러 세대에 걸쳐 한나라에 벼슬하여 봉급을 타먹은 신하.
- 1624) 凌上怯下. 윗사람을 깔보고, 아랫사람에게 겁을 주어 복종시킴.
- 1625) 不倫함.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남.
- 1626) 一統天下.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됨.
- 1627) 三分함. 셋으로 나누어짐.
- 1628) 鼎立하고. 세 발 달린 솥처럼 나라가 셋으로 나뉘어 서고.
- 1629) 麒麟閣忠義人. 기린각에 새겨놓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가 항복해 왔는데, 선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 신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해 기린각에 충신 열 사람의 초상과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이를 가리킴.
- 1630) 前事. 이전의 일.
- 1631) 잊었습니까?
- 1632) 黃巾賊. 중국 후한(後漢) 말에 장각(張角)을 수령으로 하여 하북(河北)에서 일어난 도적. 그 무리가 13만으로,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황로(黃老)의 도를 받들어 태평도(太平道)라 하고 일시 세력을 떨쳐 난을 일으켰으나, 장각의 병사로 쇠퇴하여, 곧 황보숭(黃甫嵩), 조조(曹操) 등에 의해 평정되었음.
- 1633) 敗를 만나. 패배를 당하여.
- 1634) 桃園兄弟.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밭에서 의를 맺은 형제. 곧 유비, 관우, 장비.
- 1635) 居住. 머물러 사는 곳. ‘거주를 모른다’는 말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여기 저기 떠돈다는 말.

- 1636) 糜夫人. 유비의 부인. 유비에게는 미부인과 감부인(甘夫人)이 있었는데, 미부인에게만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의 아명(兒名)은 아두(阿斗), 이름은 선(禪)이며,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미부인은 장관과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조운에게 아두의 보호를 당부한 뒤 자신은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 1637) 甘夫人. 유비의 두 부인 중 한 사람. 미부인이 죽은 뒤 혼자 유비를 받들다가, 유비가 형주(荊州)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 1638)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1639) 朝夕. 아침과 저녁.
- 1640) 出飯. 식사를 제공함.
- 1641) 奉行. 웃어른이 시키는 대로 받들어 행함.
- 1642) 慰勞之心. 위로하는 마음.
- 1643) 三日小宴. 삼일마다 작은 잔치를 벌임.
- 1644) 五日大宴. 오일마다 큰 잔치를 벌임.
- 1645) 時時로. 때때로.
- 1646) 等待.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 1647) 一分. 조금도.
- 1648) 돌려보내심.
- 1649) 千萬千萬. 천이나 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효를 이르는 말.
- 1650) 바라나이다. 바랍니다.
- 1651) 河北大將. 하북지방에서 일어난 원소(元邵)의 부하 대장이란 뜻.
- 1652) 顏良. 원소의 부하 장수. 일찍부터 용맹을 떨쳐 원소가 늘 자랑하였고, 백마 전투 때는 조조의 여러 장수를 베어 조조 진의 두려움을 샀으나, 관우에게 죽었다.
- 1653) 文醜. 원소의 부하 장수. 일찍부터 용맹을 떨쳐 안량과 함께 원소가 늘 자랑하였고, 백마 전투 때는 조조의 부하 장수인 장요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나, 관우에게 죽었다.
- 1654) 其勇이 相犯키로. 그 용맹으로 장졸들을 번갈아 무찌르므로.
- 1655) 數多. 수다한. 수많은.
- 1656) 내가.
- 1657) 自請. 스스로 청함. 자원함.
- 1658) 短劍匹馬. 작은 칼과 한 마리의 말.
- 1659) 나가려할.
- 1660)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 1661) 一合에. 단 한 차례의 창칼이 부딪침에. ‘합’은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횟수를 세는 단위.
- 1662) 그때까지.
- 1663) 敵將. 적장이. 적의 장수가.
- 1664) 魂怯 中에. 혼이 빠지도록 겁이 나는 가운데.
- 1665) 白馬圍陣. 후한 끝 무렵 원소와 조조가 싸울 때 백마에서 원소가 조조의 군사를 포위한 진.

- 1666) 지명인 듯.
 1667) 一戰, 한 번 싸움.
 1668) 빼앗아.
 1669) 案冊, 책상 위에 놓인 장부.
 1670) 愒怠, 매우 급함.
 1671) 작은 바가지.
 1672) 피하겠느냐?
 1673) 草行露宿, 한데서 잠자고 형편없이 돌아다님.
 1674)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람.
 1675) 躁急, (성질이)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함.
 1676) 나와.
 1677) 有情다. 유정하다. 인정 있다고.
 1678) 靑龍刀, 청룡언월도.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1679) 無情之物, 정이 없는 물건.
 1680) 故誼,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귀어 온 정.
 1681) 英風, 영특한 기운.
 1682) 大義, 큰 의로움.
 1683) 天下得失은 在天이요, 천하를 얻고 잃음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요.
 1684) 在將軍이오니, 장군에게 있사오니.
 1685) 別般洞燭, 특별히 헤아려 살핌.
 1686) 의향, 의도.
 1687) 擇定, 골라 정함.
 1688) 依律當斬, 법에 의해 마땅히 목숨 뱌.
 1689) 軍令狀,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
 1690) 놓아주고.
 1691) 切迫, 다급하여 여유가 없음.
 1692) 민기를.
 1693) 草芥, 지푸라기라는 뜻으로, 쓸모없고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94) 依律施行, 법에 따라 다스림.
 1695) 글공부를 하소서.
 1696) 春秋,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춘추시대 노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에 이르는 242년(B.C.722-B.C.481) 동안의 사적(事跡)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1697) 分公斯 子濯孺子, 춘추시대 때에 정(鄭)나라의 자탁유자가 위(衛)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위나라의 유공사에게 쫓기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활을 잘 쏘았는데, 자탁유자가 윤공타에게 활쏘기를 가르쳤고, 윤공타는 유공사를 가르쳤다. 유공사는 자탁유자를 선생으로 대접하여, 학질에 걸려 활을 못 쏘는 자탁유자를 살려 주면서도, 적을 막아내라는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으므로, 활촉을 뺀 화살 네 대를 마차에 쏘고 돌아갔다.

- 1698) 數多. 수다한. 수많은.
- 1699) 엎드려.
- 1700) 如山如海.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음.
- 1701) 呼號萬歲. 큰 소리로 만세를 부름.
- 1702)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1703) 千秋萬歲. 천만 년. 아주 오랜 세월을 잊지 않음.
- 1704) 仰天痛哭. 하늘을 우러르며 슬프게 울.
- 1705) 快히. 하는 짓이 시원스럽게. 마음이 유쾌하게
- 1706) 中軍. 중앙에 배치하는 군대.
- 1707) 回馬하여. 말을 돌려.
- 1708)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함.
- 1709) 庸劣한.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 1710) 關某. 관 아무개. 곧 관우 자신 낮추어 가리키는 말.
- 1711) 놓아 주었사오니. 살려 주었으니.
- 1712) 故로. 까닭에.
- 1713) 世人. 세상 사람들.
- 1714) 七縱七擒. 일곱 번 놓아주었다가 일곱 번 잡음. 제갈량이 남쪽의 오랑캐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어 끝내 복종시킨 일을 가리킴.
- 1715) 義釋嚴顏. 의로써 엄안을 놓아줌. 엄안은 촉나라 유장(劉璋)의 장수인데, 장비가 엄안을 사로잡은 뒤에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웠다고 비웃자, 엄안이 ‘이 고을에는 머리를 잘리는 장수는 있어도 항복하는 장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장비가 그의 충의를 높이 사서 그를 놓아 주었다.
- 1716)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1717) 말인가?
- 1718) 千古. 아주 오랜 세월.
- 1719) 漢壽亭侯. 한나라 수정후. 관우를 가리키는 말. ‘수정후’는 조조가 관우에게 내린 봉호.
- 1720) 더질더질. 판소리의 끝에 사용하는 말로, 북소리를 흉내낸 말인 듯.

오정숙 창

Sung by O Jeong-suk

1. (서서 하직)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서서를 모사로 삼았는데, 조조가 서서의 모친을 가두고 서서를 부르니 서서가 떠난다.

[아니래 천하대세¹⁾가 분열된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해지고,
합한 지 오래면 반드시 분열되느니.
주나라²⁾ 말엽에 진시황³⁾이 통일하고,
진나라 사슴을 잃으매⁴⁾ 한고조 유방⁵⁾이 인의⁶⁾로 통일하여
사백 년 지보터니,⁷⁾ 헌제⁸⁾에 이르러 한실⁹⁾이 쇠미¹⁰⁾하고,
황제 어리고 약하시어, 사방에 난신적자¹¹⁾ 구름같이 일어날 제,
동에¹²⁾ 손권¹³⁾이는 산하¹⁴⁾의 험고¹⁵⁾ 믿고 천하를 엿보았고, 북은 조조¹⁶⁾인디,
조조 사람됨을 논지¹⁷⁾하면, 정사¹⁸⁾에는 능한 신하요, 난세¹⁹⁾에는 간특²⁰⁾한 영웅이라.
천자를 끼고 제후²¹⁾를 호령하여 세업²²⁾에 뜻을 두니, 그 세력을 당키²³⁾ 어려운지라.
그 때에 한중실²⁴⁾ 유황숙²⁵⁾은 관우, 장비로 더불어 도원²⁶⁾에서 결의²⁷⁾할 제,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피를 마셔 맹세하니,

1. (Xu Shu(徐庶) Says Goodbye.) Liu Bei(劉備),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make a resolution in a peach orchard, taking Xu Shu(徐庶) as their strategist. But Xu Shu(徐庶) leaves as Cao Cao(曹操) holds his mother hostage.

[Aniri] In the world, a long time of division inevitably leads to unity.

A long time of unity inescapably leads to division.

Qin Shi Huang(秦始皇) unified ancient China at the end of the Zhou(周) Dynasty.

The Qin(秦) Dynasty collapsed. Liu Bang(劉邦),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unified ancient China again through his virtues.

His dynasty lasted for 400 years. The Han(漢) Dynasty became weak when King Xian(獻) was on the throne.

The emperor was young and feeble. Traitorous subjects arose like clouds everywhere.

In the east, Sun Quan(孫權) is on the alert for a chance to obtain China, relying on this treacherous territory. In the east is Cao Cao(曹操).

His character is as follows: He is a talented politician. He is a wicked man in chaotic times.

He rules over feudal lords, taking advantage of the emperor. He has the ambition to establish his own country. His force is formidable.

Meanwhile, Liu Bei(劉備), the emperor's uncle, makes a resolution with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in a peach orchard.

They kill a black cow and a white horse. They drink the blood to make a pledge.

금석같은²⁸⁾ 그 언약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바라.
 모사²⁹⁾는 서서³⁰⁾인데, 조조 피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 허창³¹⁾에
 가두고,
 서서 모친의 필적³²⁾을 위조하여 편지를 써서 서서에게 보낸지라,³³⁾
 서서 듣고 낙심하여³⁴⁾ 현덕에게 여짜오니,³⁵⁾
[중모레] 현덕 듣고 크게 놀라, “아이고, 이게 웬 말씀이오?
 범이 바람을 잃고, 용이 구름을 잃은 격이라.
 사세³⁶⁾ 비록 이러허오나, 자모지정³⁷⁾을 생각헌들 아니 갈 수 없사
 오니,
 선생이 가옵시면, 미약헌 우리 한실 뉘 손 빌어 건지리까?
 선생은 가시어서 대부인³⁸⁾을 위로하시고, 조조를 잘 섬기어 대사성
 공³⁹⁾허옵소서.”
 서서 듣고 눈물지며 목이 메어 허는 말이,
 “조조에게 사로잡혀 종신⁴⁰⁾이 되더라도 불설일모⁴¹⁾허갓내다.”⁴²⁾
 제장⁴³⁾에게 당부할 제, “여보 제장, 말 들으오.
 시종⁴⁴⁾ 없이 가는 나를 본받지 말으시고, 청사⁴⁵⁾에 공을 세워 유사
 군⁴⁶⁾을 잘 섬기오.”
 제장 군졸⁴⁷⁾이 눈물지며, “선생이 가옵시면, 분분한⁴⁸⁾ 천하사⁴⁹⁾를 뉘
 계⁵⁰⁾ 의지허오리까?”
 하릴없이⁵¹⁾ 떠나갈 제, 현덕이 통곡하며, “여보아라, 제장들아. 저기
 수림⁵²⁾을 베어 다오
 선생의 가시는 자취 잠시라도 더 불란다.”

It is obvious their pledge as firm as iron or stone.
Their strategist is Xu Shu(徐庶). Cao Cao(曹操) imprisons Xu Shu's(徐庶) mother as a part of his scheme.
He forges her handwriting and sends a letter to Xu Shu(徐庶).
After reading the letter, Xu Shu(徐庶) is disheartened and speaks to Liu Bei(劉備).

[Jungmori] Liu Bei(劉備) is surprised. "I can'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For me to lose you is like for a bird to lose its wings.
Things are as they are. But you can't help thinking about your mother.

If you go, I don't know whose help I can seek to save this weak Han(漢) Dynasty.

Please go and console your mother. Serve Cao Cao(曹操) well and make a big success in your life."

With a lump in his throat, Xu Shu(徐庶) speaks in tears.
"Even if Cao Cao(曹操) captures me alive and puts me to death, I won't give away our strategy."

Xu Shu(徐庶) speaks to the officers. "Officers,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Don't emulate me. I am leaving without distinguishing myself.
Make a historical contribution to Liu Bei's(劉備) royal army.
Officers and soldiers shed tears. "If you go, whom should we rely on to deal with the chaotic world?"

Xu Shu(徐庶) hesitantly leaves. Liu Bei(劉備) speaks in tears.
"Hello, officers. Cut down the trees in that forest.
I want to see Xu Shu(徐庶) for as long as I can."

2. (삼고초려 1) 서서가 떠나면서 유비에게 제갈공명을 천거하니, 유비가 직접 공명을 찾아간다.

[아니레] 서서 하릴없이 가다가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는지라.
현덕이 반겨히여,⁵³⁾ “선생은 어찌 도로 오시니까?”⁵⁴⁾
“잇고 간 말씀이 있어 도로 왔나이다. 양양성외⁵⁵⁾ 이십리허⁵⁶⁾에 만고
영웅⁵⁷⁾이 있사와,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양이요, 자⁵⁸⁾는 공명이요, 도호⁵⁹⁾는 와룡⁶⁰⁾이
라 허옵는디,⁶¹⁾
상통천문⁶²⁾ 하달지리⁶³⁾하오며, 육도삼략⁶⁴⁾에 구궁팔괘⁶⁵⁾와 둔갑장
신법⁶⁶⁾을 흉중에⁶⁷⁾ 품었삽고,⁶⁸⁾
앞아 천리 밖에 승패를 능히 결단허는⁶⁹⁾ 사람이오라,
앞어서는 불러오지 못할 테니 친히⁷⁰⁾ 찾아가 보옵소서.”
현덕 듣고 허는 말이, “선생 말씀 아니었던들 천추⁷¹⁾에 한을 끼칠
뻔허었나이다.” 이렇듯 작별헌 연후,
하루는 편안히 모실 수레와 금은옥백⁷²⁾ 예물⁷³⁾을 갖추고 남양성중⁷⁴⁾
찾어갈 제,
[자진모레] 경개⁷⁵⁾ 무궁⁷⁶⁾ 좋을시고. 산불고이수려⁷⁷⁾허고, 수불심이
징청⁷⁸⁾이요,
지불광이평탄⁷⁹⁾허고, 임불대이무성⁸⁰⁾이라. 원학⁸¹⁾은 상친⁸²⁾허고,
송죽⁸³⁾은 교취⁸⁴⁾한데
시비⁸⁵⁾ 앞 당도히여 동자⁸⁶⁾ 불려 묻는 말씀, “선생이 계옵시냐?”

2. (Visit 1) While leaving, Xu Shu(徐庶) recommends Kong Ming(孔明)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visits Kong Ming(孔明) in person.

[Aniri] While hesitantly leaving, Xu Shu(徐庶) turns his horse around and comes back.

Liu Bei(劉備) is delighted. “Why are you coming back?”

“I came back to tell you something. A historical hero lives near Xiangyang(襄陽) Castle.

His last name is Zhu Ge(諸葛), his first name is Liang(良), his adult name is Kong Ming(孔明), and his nickname is Wo Long(臥龍).

He has grasped the principles of Heaven and Earth. He mastered two classic books on military strategy, eight divinations, and a way to make himself invisible.

He knows who will win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You can’t bring him here without going there yourself. Please visit him in person.”

Liu Bei(劉備) responds, “If you hadn’t told me about him, I would have been at a loss forever.” He says goodbye to Xu Shu(徐庶).

One day, Liu Bei(劉備) visits Nanyang(南陽) Castle with a carriage to pick up Kong Ming(孔明) along with presents: gold, silver, jade, and silk.

[Jajinmori] The view is extremely great. Mountains are not high but beautiful. Streams are not deep but clear.

The land is not wide but even. The forest is not wide but thick with trees. Monkeys and cranes are on good terms with each other. Pine trees and bamboos are green.

Kong Ming(孔明) arrives at the twig gate and calls a boy in the house. “Is Kong Ming(孔明) here?”

동자 여짜오되, “영주⁸⁷⁾의 석광원⁸⁸⁾과 박릉⁸⁹⁾의 최주평⁹⁰⁾과 여남⁹¹⁾의 맹공위⁹²⁾와 매일 서로 벗이 되어, 강호⁹³⁾에 배 띄우고, 임간⁹⁴⁾에 바둑 두러 떠나신 지 오래오이다.”

유현주⁹⁵⁾ 이른 말씀, “선생이 오시거든, 한종실⁹⁶⁾ 유흥숙⁹⁷⁾이 뵈오러 왔더이다 잊지 말고 여쭙어라.”

3. (삼고초려 2) 유비가 두 번이나 공명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세 번째 찾아간다.

[아니레 신야⁹⁸⁾로 돌아와 사오일 지낸 후에 또 찾어가 한 곳을 바라 보니,

표연⁹⁹⁾한 소년이 글상¹⁰⁰⁾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앉았거늘,

와룡¹⁰¹⁾인가 반겼더니 셋째 아우 군일레라.¹⁰²⁾

지필¹⁰³⁾을 청하여 정찰¹⁰⁴⁾을 써 두고 돌아갔다가

십여 일만에 세 번째 찾아가려 혈 제, 장비가 골¹⁰⁵⁾을 내어,

“형님, 그까짓 우부¹⁰⁶⁾를 삼고초려¹⁰⁷⁾ 웬 일시오? 형장¹⁰⁸⁾은 오시지 마오.

소제¹⁰⁹⁾ 급히 가서 와룡을 결박¹¹⁰⁾하여 안전¹¹¹⁾에 대령¹¹²⁾허오리다.”

유현덕 이른 말씀, “현제¹¹³⁾야, 네 말이 무도¹¹⁴⁾허다.

길도 험악하고, 날도 또한 극한¹¹⁵⁾이니 따러오지 말려무나.”

장비 허는 말이, “사차불피어든¹¹⁶⁾ 풍세¹¹⁷⁾에 굽히리까?”

The boy responds, “He left here a long time ago to spend time on a boat on a river and a lake, and to play chess in a forest with his friends: Shi Guang Yuan(石廣元) in Yingzhou(潁州), Cui Zhou Ping(崔州平) in Boling(博陵) and Meng Gong Wei(孟公威) in Ruban(汝南).”

Liu Bei(劉備) says, “If he comes back, don’t forget to tell him the uncle of the emperor of the Han(漢) Dynasty visited here to see him.”

3. (Visit 2) Liu Bei(劉備) visits Kong Ming(孔明) for the second time in vain, and visits him for the third time.

[Aniri] Liu Bei(劉備) comes back to Xinye(新野), and stays there for several days. He again visits Kong Ming(孔明) and looks at a certain place.

An elusive boy reads a book in front of a reading table.

Liu Bei(劉備) gladly thinks he is Kong Ming(孔明), but he is Jun(均), Kong Ming’s(孔明) third brother.

He asks for a sheet of paper and a brush, writes a conscientious letter to Kong Ming(孔明), and he leaves.

After a dozen days, he is about to leave for the third time to see Kong Ming(孔明). Zhang Fei(張飛) gets angry.

“Brother, why do you visit the fool in his cottage three times? Brother, stay here.

I will go there in a breath, tie him up, and bring him to you.”

Liu Bei(劉備) responds, “Brother, watch your language.

The road is rough, and it is very cold. Please stay here.”

Zhang Fei(張飛) replies, “How can I back down in front of the reality?

“그러면 함께 가자.” 다시 예물을 갖추고 삼형제 길을 떠나 와룡강¹¹⁸⁾
을 찾아갈 제,

[진양조] 당당헌¹¹⁹⁾ 유현주¹²⁰⁾는 신장¹²¹⁾은 칠척오촌¹²²⁾이요,
면여관옥¹²³⁾허고, 자고기이¹²⁴⁾허며, 수수과슬¹²⁵⁾이라.

오모홍포¹²⁶⁾에 쌍고검¹²⁷⁾ 빗겨¹²⁸⁾ 차고

적추마상¹²⁹⁾에 앉은 거동 태조¹³⁰⁾의 기상이요,

관공 위엄 불작시면¹³¹⁾ 주안,¹³²⁾ 봉목,¹³³⁾

삼각수¹³⁴⁾ 거사리고,¹³⁵⁾ 머리에는 쌍봉투구,¹³⁶⁾

몸에는 녹포은갑¹³⁷⁾이라.

청룡도¹³⁸⁾ 빗겨 들고 적토마상¹³⁹⁾에 뚜렷이 앉은 거동¹⁴⁰⁾ 위풍¹⁴¹⁾이
늠름허고,¹⁴²⁾

장비 위엄 불 양이면 곰의 등, 범의 머리에

먹장 얼굴,¹⁴³⁾ 쌍고리눈¹⁴⁴⁾에 제비턱¹⁴⁵⁾

다박나루,¹⁴⁶⁾ 몸에는 앵무전포,¹⁴⁷⁾ 머리에는 녹건¹⁴⁸⁾이라.

장팔¹⁴⁹⁾ 사모장창¹⁵⁰⁾을 눈 우에다 번듯¹⁵¹⁾ 들고

흑충마상¹⁵²⁾에 앉은 거동 진삼국지맹장¹⁵³⁾이라.

초려¹⁵⁴⁾를 찾아가 말계¹⁵⁵⁾ 내려, 동자¹⁵⁶⁾를 가만히 부르는구나.

“If you insist, let’s go.” The three brothers again pack up the presents and leave for the valley where Kong Ming(孔明) lives.

[Jinyangio] Liu Bei(劉備) is majestic and tall.

He is handsome with large earlobes. His arms are long enough to reach his knees.

He wears a black helmet and a red coat, carrying two wide swords obliquely.

On a good horse, he looks like the first emperor of a nation. Behold Guan Yu(關羽). His face is red, and his eyes are like those of phoenix.

The end of his triangled beard goes up. A couple of phoenixes are attached on his helmet.

He wears a green coat and silver armor.

He holds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on a red horse. He looks stately and awesome.

Behold Zhang Fei(張飛). His back looks like that of a bear, and his head that of a tiger.

His face is black. Two white circles surround each of his eyes, and the end of his chin is flat.

His beard is thick and short. His military coat is yellow. On his head is a green silky hat.

He holds high up a long spear whose end looks like the head of a snake.

On a horse which is bluish white except the black mane, he looks like the warrior of the three nations.

They get off their horses in front of the cottage and call the boy softly.

4. (장비의 급한 성질) 동자가 공명이 잠을 주무시는데 깨우기 어렵다고 전하자, 장비가 화를 낸다.

[아니리] “동자야!” 동자 나오며, “예.” “오늘은 선생이 계옵시냐?”¹⁵⁷⁾
동자 여짜오되, “어제야 돌아오시어 서책¹⁵⁸⁾을 보시다가, 초당¹⁵⁹⁾에
곤히¹⁶⁰⁾ 주무시오니

기침키¹⁶¹⁾ 어렵사웁니다.” “그러면 아직 고허지¹⁶²⁾ 말라.”

현덕이 공수¹⁶³⁾ 국궁¹⁶⁴⁾히고 뜰 아래 가만히 서 있을 제,

[중모리] 익덕¹⁶⁵⁾의 성질은 급한지라,

고리눈¹⁶⁶⁾ 부릅뜨고, 검은 팔 뒤걸으며¹⁶⁷⁾ 고성대질왈,¹⁶⁸⁾

“어어, 우리 형장은 금지옥엽¹⁶⁹⁾이라.

저만한 사람을 보라허고 삼고초려 지극커늘, 저렇듯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부서 무찌르고, 한 끄럼지¹⁷⁰⁾ 불을 썩 버썩 질러 통째
로 태워 버리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니,

참말인가, 가수¹⁷¹⁾인가, 자나, 깨나, 앓았나, 누웠나, 죽나, 사나 보
리라!”

우루루루루루루 달려드니, 현덕이 만류한다.

“현제야, 현제야. 아우는 그리 말라. 비성인즉 불성이라.¹⁷²⁾

은나라 탕임금¹⁷³⁾도 이윤¹⁷⁴⁾을 볼 양으로 신야¹⁷⁵⁾에 세 번 갔고,

춘추 적¹⁷⁶⁾ 제 환공¹⁷⁷⁾도 동곽야인¹⁷⁸⁾ 보라허고 다섯 번 찾아갔다

한 번 계우¹⁷⁹⁾ 보아 있고,

주 문왕¹⁸⁰⁾도 강태공¹⁸¹⁾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4. (Zhang Fei's(張飛) Impatience) The boy says he can't wake Kong Ming(孔明) up. Zhang Fei(張飛) gets angry.

[Aniri] "Hey, boy!" The boy comes out. "Yes." "Is Kong Ming(孔明) around today?"

The boy answers, "He came back yesterday. While reading books, he went into a deep sleep in his cottage.

I can't wake him up." "Then, don't tell him we're here."

He stands still on a yard with his hands together and with his back bent.

[Jungmori] Zhang Fei(張飛) is hot-tempered.

He opens up his white-circled eyes, folds up his black sleeves, and speaks loudly in anger.

"My brother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He visited this cottage three times to see that little man. How can that man be so arrogant?

I'll break this cottage into pieces and burn it to the ground."

I heard he has magical power.

I'll see if that is true, if he pretends to sleep, if he is sleeping or wakes up, if he sits or lies, and if he dies or lives."

He runs to the cottage. Liu Bei(劉備) stops Zhang Fei(張飛).

"Brother, don't act like that. You cannot accomplish anything without a conscientious effort.

King Tang(湯) of the Yin(殷) Dynasty visited Xinye(新野) three times to see Yi Yin(伊尹).

In the Chunqiu(春秋) Era of ancient China, the feudal lord Huang(桓公) of Qi(齊) Country managed to meet a scholar to the east of a castle on his fifth visit.

King Wen(文) of Zhou(周) Country treated Lu Shang(姜太公) well.

우리도 정성으로 와룡선생¹⁸²⁾을 보리로다.

운장¹⁸³⁾은 익덕 다리고¹⁸⁴⁾ 저편 멀리 가 하회¹⁸⁵⁾를 기다려라.”

5. (공명의 유비 영접) 공명과 유비가 마주 앉아 서로의 영 웅될 기상을 알아본다.

[아니레] 이럴 적에,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돌아 누우며 글 한
수¹⁸⁶⁾를 읊었으되,

[시창] “초당에 춘수족하니, 창외일지지요.

대몽을 수선각고? 평생을 아자지라.”¹⁸⁷⁾

[아니레] 글 읽기를 다 한 후에 동자 불러 물으시되, “밖에 손님이
오셨느냐?”

동자 대답하되, “전일¹⁸⁸⁾ 왔던 유황숙¹⁸⁹⁾이 세 번째 와

기다린 지 이무¹⁹⁰⁾ 반일¹⁹¹⁾이 되었사옵니다.”

“음, 그러면 어찌 진즉 고허지¹⁹²⁾ 아니하였는고?”

[중모레] 공명의 거동 보아라. 후당¹⁹³⁾으로 들어가서 예복¹⁹⁴⁾을 갖춘
후에,

현덕을 영접하여 당¹⁹⁵⁾에 올라 예필¹⁹⁶⁾ 좌정¹⁹⁷⁾ 후,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살펴보니,

면여관옥이요, 자고기이하며, 순약도지¹⁹⁸⁾허고, 수수과슬이라.

오모홍포¹⁹⁹⁾에 뚜렷이 얹은 모양 중홍²⁰⁰⁾할 인군²⁰¹⁾이요,

현덕 또한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보니,

Likewise, we will treat Kong Ming(孔明) with respect.
Guan Yu(關羽), please take Zhang Fei(張飛) over there and wait for my call.”

5. (Kong Ming(孔明) Welcomes Liu Bei(劉備).) Kong Ming(孔明) and Liu Bei(劉備) sit face-to-face and recognize that they will become heroes.

[Aniri] Meanwhile, Kong Ming(孔明) wakes up, turns around, and recites a poem.

[Poetic Mode] “I had a sound spring sleep in this cottage. The day gets longer and longer outside the window.

After waking up from a big dream, I came to know about my whole life.”

[Aniri] After he finishes reciting, Kong Ming(孔明) calls the boy. “Do we have guests outside?”

The boy answers, “An uncle of the emperor came here for the third time.

He has been waiting for you for a quarter of a day.”

“If so, why didn’t you report to me right away?”

[Jungmori] Behold Kong Ming(孔明)! He enters the separate house in the rear and puts on formal clothes.

He leads Liu Bei(劉備) to a room, bows to him, and sits down. Kong Ming(孔明) turns his eyes up and takes a close look at Liu Bei(劉備).

He is handsome with large earlobes. His lips are red, and his arms are long enough to reach his knees.

With a black helmet and a red coat, he looks like a king to strengthen the weak nation.

Liu Bei(劉備) also turns his eyes up and takes a close look at Kong Ming(孔明).

머리에는 윤건²⁰²⁾이요, 몸에는 학창의²⁰³⁾라.
 백우선²⁰⁴⁾ 손에 들고 엄연히²⁰⁵⁾ 앉은 거동,
 기질²⁰⁶⁾이 약현지라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할 듯하나,
 미간²⁰⁷⁾에 천지조화며 강산 정기²⁰⁸⁾가 어렸으니,
 운주유악지중하여 결승천리지외²⁰⁹⁾할 당시 영웅이 분명쿠나.

6. (유비 간청) 유비가 공명에게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아니레] 현덕이 공명을 보고, 다시 보고, 아무리 보아도 영웅이 분명 현지라,
 현덕이 다시 꿰어앉아 지성²¹⁰⁾으로 비는 말이,
 [중모레] “선생, 잠깐 들주소. ²¹¹⁾한실²¹²⁾이 미약하고, 국운²¹³⁾이 망극²¹⁴⁾이라,
 종묘사직²¹⁵⁾이 망재조석²¹⁶⁾인데, 초야²¹⁷⁾에 묻힌 영웅 한탄이 무궁²¹⁸⁾이나,
 장사²¹⁹⁾는 말을 타고 싸우기를 싫어하니, 가련한 게 사직이요, 불쌍한 게 백성이라.
 선생의 높은 위명²²⁰⁾ 듣자와²²¹⁾ 모시옵고자²²²⁾ 불고염치²²³⁾ 왔사오니,
 경천위지지재²²⁴⁾와 안방보국지심²²⁵⁾으로 어린²²⁶⁾ 나를 구하소서.”
 [아니레] 공명이 절하고 여짜오되, “양이 본래 무식하와,²²⁷⁾
 시골의 천한 선비로 남양²²⁸⁾에 밭갈이와 강호²²⁹⁾에 고기 낚기, 글 읽기를 일삼거든,

Kong Ming(孔明) wears a silk towel on his head and a coat with large sleeves on his body.

He sits stately, holding a fan of white feathers.

Physically weak, he appears unable to endure his clothes.

But the principles and the energy of nature are between his two eyebrows.

He can think up a strategy to win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a battlefield. He is certainly a hero of this time.

6. (Liu Bei(劉備) Asks.) Liu Bei(劉備) asks Kong Ming(孔明) to help him to salvage the world.

[Aniri] Liu Bei(劉備) takes a long look at Kong Ming(孔明). It appears to Liu Bei(劉備) that Kong Ming(孔明) is certainly a hero. Liu Bei(劉備) kneels down and talks to Kong Ming(孔明) with respect.

[Jungmori] “Please listen to me for a minute, sir. The royal family of the Han(漢) Dynasty is weak. The luck of this country has hit rock bottom.

The royal family and the country might collapse in a day. A hero languishing in a remote country sighs deeply.

The strong and the courageous hate fighting on horses. The royal family is pathetic, and the people are poor.

I’ve heard of your high fame. I came here shamelessly to ask you to help me.

Please help me with your magical talent and loyalty to the country.”

[Aniri] Kong Ming(孔明) bows to Liu Bei(劉備) and speaks. “I’m not an educated person.

I’m a humble rural scholar, cultivating a field, fishing in a river and a lake, and reading books.

천하도모²³⁰⁾헌단 말씀 당치 않는 말씀이오라,
 헛소문을 들으시고 존가²³¹⁾ 허행²³²⁾을 허셨나이다.”
 형주²³³⁾와 익주²³⁴⁾ 지적도²³⁵⁾를 펼쳐 놓고 중원역사²³⁶⁾ 대강 이르며,
 이해만 따져 말힐 뿐이요, 나설 뜻은 없는지라. 현덕이 기가 맥혀
 [진양조] 다시 꿇어 여짜오되, “여보 선생, 살피소서. 방금 삼국이 분
 분허여,²³⁷⁾
 사방에 난신적자²³⁸⁾ 구름 일듯 하옵기로, 억조창생²³⁹⁾이 집을 비우고
 피난이라.
 북풍은 쓸쓸허고, 백설²⁴⁰⁾은 분분헌디,²⁴¹⁾
 손 불어 축천²⁴²⁾허고, 발 굴러 찾아올 제
 선생을 바라고 왔사오니, 선생이 아니시면 미약헌 우리 한실 뉘랴²⁴³⁾
 부흥시키리까?”
 목이 메어 말을 맞지²⁴⁴⁾ 못허고, 용안²⁴⁵⁾에는 눈물이요, 쉬는 것이
 다만 한숨이로구나.
 현덕의 일편심²⁴⁶⁾이 구천²⁴⁷⁾에 사무쳤네.

7. (박망과 전투) 공명이 유비를 따라 나와, 박망과 전투에서 대승한다.

[아니래] 공명 또한 눈물지며,
 “얇고 짧은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현주²⁴⁸⁾를 도와 견마의 힘²⁴⁹⁾
 을 다허겠나이다.”
 현덕이 반겨 듣고 운장과 익덕을 불러,
 “이 사람은 내 둘째 아우 운장이요, 이 사람은 셋째 아우 익덕이오
 이다.”

It is absurd that I can conquer the world.
 Having heard a false rumor, you came here for nothing.”
 Kong Ming(孔明) unfolds a map of China for Liu Bei(劉備),
 briefly explaining the history of China.
 Kong Ming(孔明) states historical facts without going further. Liu
 Bei(劉備) is stunned.
[Jinyangjo] Liu Bei(劉備) kneels down again. “Hello sir. Be
 mindful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in chaos now.
 Rebellious forces rise up like clouds everywhere. Numerous
 people flee from their homes.
 A north wind was desolate, and white snow flew around.
 I blew on my cold hands and prayed to heaven. I stamped the
 ground on my way here.
 I hoped you would work with me. Who will revive this weak
 royal family if not you?”
 Choked with sad feeling, Liu Bei(劉備) can’t finish. Tears are on
 his face. He only sighs.
 His resolution rises up to the sky.

7. (Bowangpo(博望坡) Battle) Kong Ming(孔明) comes out with Liu Bei(劉備), and wins a huge victory in Bowangpo(博望坡) Battle.

[Aniri] Kong Ming(孔明) sheds tears too.
 “You don’t give up my trivial talent. I’ll dedicate myself to you,
 a virtuous lord.”
 Delighted, Liu Bei(劉備) calls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
 飛).
 “This is my second brother, Guan Yu(關羽). This is my third
 brother, Zhang Fei(張飛).”

공명이 가만히 살펴보니 아름답기 그지없는지라.²⁵⁰⁾ 아우 균을 불러,
“애, 균아. 유·관·장²⁵¹⁾ 세 분께서 날같은²⁵²⁾ 천사²⁵³⁾를 대접코저
금과 예물²⁵⁴⁾을 갖추고 세 번씩이나 초려²⁵⁵⁾를 찾으시니,
지극한 그 은혜 잇을 길이 없는지라 이 몸을 허락하니,
후원의 매화를 버리지 말 것이며, 내 공을 이루고 돌아올 날이나 기다
려라.”

이렇듯 아우에게 당부한 연후 현덕과 한가지로²⁵⁶⁾ 신야²⁵⁷⁾로 돌아
오니,

병졸은 천 명에 불과하고, 장수는 열 명에 불과한지라.

천하사²⁵⁸⁾를 의논할 제, 침식²⁵⁹⁾을 같이 하며 날이 밝도록 서로 의논
하니,

현덕은 마음이 환출²⁶⁰⁾하나, 운장은 기꺼치²⁶¹⁾ 아니하여 왈,

“형님, 공명이 나이 어리고 진실한 재주 없거늘,

형장²⁶²⁾께서 너무 과대히 대접하심이 불가한가²⁶³⁾ 하나이다.”

현덕 왈, “내가 공명을 얻음은 고기 물을 얻음과 같은지라. 아우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루는 공명이 허는 말이, “주공²⁶⁴⁾께서는 빨리 군사를 모으게 하소서.”

현덕이 백성 삼천 인을 뽑거늘, 공명이 시시로²⁶⁵⁾ 진법²⁶⁶⁾을 가르쳐
교련²⁶⁷⁾터니,

한 군사 보하되,²⁶⁸⁾ “조조가 하후돈²⁶⁹⁾으로 하여금 십만대병²⁷⁰⁾을 이
끌고 짓쳐오나이다”²⁷¹⁾ 허거늘,

공명 왈, “운장이 군령²⁷²⁾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²⁷³⁾을 빌리소서.”²⁷⁴⁾ 현덕이 칼과 인을 빌리시니,²⁷⁵⁾

[중모레] 하루는 공명이 장대²⁷⁶⁾에 올라 제장²⁷⁷⁾을 분발²⁷⁸⁾할 제,

Kong Ming(孔明) takes a look at them. They are very handsome.
 Kong Ming(孔明) calls his brother, Jun(均).
 “Hey Jun(均)! These gentlemen visited my cottage three times to see me, a little scholar, bringing presents.
 Being unable to forget their favor, I’m following them.
 Don’t desert the plum flowers in the backyard. Wait for the day when I’ll come back after achieving a success.”
 Passing along a request to his brother, Kong Ming(孔明) follows Liu Bei(劉備) to Xinye(新野).
 They have only one thousand soldiers and ten officers.
 They eat together and sleep together, discussing the world affairs all night.
 Liu Bei(劉備) is happy, but Guan Yu(關羽) is not deep in his mind.
 “Brother, Kong Ming(孔明) is young and doesn’t have a true talent.
 It is not reasonable for you to treat him too well.”
 Liu Bei(劉備) replies, “I am to him as a fish is to water. Brother, don’t say like that.”
 One day, Kong Ming(孔明) speaks, “Your Majesty, please gather soldiers right away.”
 Liu Bei(劉備) selects three thousand people. Kong Ming(孔明) teaches them how to arrange soldiers on a battlefield.
 One day a soldier reports, “Cao Cao(曹操) had Xia Jiao Dun(夏侯惇) lead 100,000 troops toward us.”
 Kong Ming(孔明) says, “Guan Yu(關羽) is not likely to obey my order.
 So let me borrow your sword and the iron symbol of your office.”
 Liu Bei(劉備) lends his sword and symbol to Kong Ming(孔明).
[Jungmori] One day, Kong Ming(孔明) stands on a commanding post, giving orders to his officers.

“박망과²⁷⁹⁾란 뵈²⁸⁰⁾ 있어 이름이 예산²⁸¹⁾이요, 우편에 수풀이 있어 이름이 안림²⁸²⁾이라.

운장은 일천군²⁸³⁾을 거느리고 가만히 매복²⁸⁴⁾허였다가,
적병이 지내되 양초²⁸⁵⁾가 뒤에 있을 것이니,
남편²⁸⁶⁾에 불 일어남을 보아 박망성²⁸⁷⁾을 향하여 양초에 불을 놓으라.
조운은 전군²⁸⁸⁾ 선봉²⁸⁹⁾이 되어 적장²⁹⁰⁾을 유인허고,
익덕은 중군²⁹¹⁾이 되어 적군이 이르거든 일시에 엄살²⁹²⁾허라.
주공은 일천 군을 거나려 뒤를 접응²⁹³⁾허소서.”

운장, 익덕이 웃어 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집 속에 편안히 있고자 하느뇨?”²⁹⁴⁾

공명이 호령허되, “칼과 인이 예²⁹⁵⁾ 있거늘 위령자²⁹⁶⁾는 참²⁹⁷⁾허리라.”
벽력²⁹⁸⁾같은 호통소리 위엄이 추상²⁹⁹⁾ 같은지라. 현덕 듣고 무안³⁰⁰⁾ 허여,

“현제야, 현제야. 운주유악지중허여 결승천리지외³⁰¹⁾를 어이 모르는가? 두 아우는 영을 어기지 말라.”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략³⁰²⁾을 모르는지라,
형장 현덕 땀에³⁰³⁾ 영을 듣기는 허나, 장히³⁰⁴⁾ 의혹하더니라.
그 때에 하후돈, 우금,³⁰⁵⁾ 이전³⁰⁶⁾이 박망과에 이르러 현덕의 진을 보더니,
크게 웃어 가로되, “염소떼를 몰아다 맹호를 침범함이로다.”

“There is Yu(豫) Mountain in Bowangpo(博望坡). On the right side is An(安) Forest.

Guan Yu(關羽) will stay in ambush there with one thousand troops.

The enemy will pass by with food on the rear of the formation. If you see fire in the south, set fire on the food and hay in the direction of Bowang(博望) Castle.

Zhao Zi Long(趙子龍) will lead our front unit and lure the enemy head into a trap.

Zhang Fei(張飛) will take charge of the middle unit. If the enemy reaches you, surround them and kill them quickly.

Your Majesty will take charge of one thousand troops and confront the enemy at the back.”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laugh at Kong Ming(孔明). “While we’re fighting the enemy, are you staying home in comfort?”

Kong Ming(孔明) yells at them. “I have this sword and symbol. Anybody disobeying my order will be beheaded.”

His shout is as loud as thunder and as chilly as frost. Liu Bei(劉備) is ashamed.

“Brothers, he can think up a strategy to win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a battleground. Brothers, obey his order.”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don’t know about Kong Ming’s(孔明) deep thoughts.

They obey Kong Ming’s(孔明) order because of Liu Bei(劉備), but they are deeply suspicious of Kong Ming(孔明).

Meanwhile, Xia Jiao Dun(夏侯惇),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arrive at Bowangpo(博望坡) and gaze at Liu Bei’s(劉備) camp.

They laugh loudly and say, “A group of goats try to attack a tiger.”

[자진모리] 조운³⁰⁷⁾이 말을 놓아³⁰⁸⁾ 급급히³⁰⁹⁾ 달려오다가,
 하후돈과 서로 맞아 십여 합³¹⁰⁾ 싸우더니, 조운이 패하는 체 오던
 길로 닫는지라,³¹¹⁾
 하후돈이 의기양양 쫓기로 작정하니, 우금과 이전이 왈, “적을 없수이
 여기면³¹²⁾ 패한다 허였으며,
 길이 좁고 갈수석³¹³⁾과 수목이 총잡³¹⁴⁾헌디, 만일 불로 치거드면³¹⁵⁾
 그 일을 어찌하리오?”
 돈이 듣고 옹게 여겨 군사를 쉬려허더니,³¹⁶⁾ 뜻밖에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화광³¹⁷⁾이 충천,³¹⁸⁾
 화성³¹⁹⁾이 우루루루루루 후닥 꿈.
 자룡이 말을 놓아 좌충우돌³²⁰⁾ 쫓아오니,
 하후돈이 대경³²¹⁾하여 넋을 잃고 도망허고,
 그 뒤에 장익덕은 고리눈 부릅뜨고, “네 이놈, 우금 이전아! 닫지³²²⁾
 말고 창 받아라!”
 추상같이 큰 소리로 산악이 깨어진 듯 우금을 몰아치고,
 또 그 뒤를 바라보니 후봉대장³²³⁾ 관운장이라.
 번개같은 큰 소리에 이전이 황겁³²⁴⁾하여 정신없이 달아날 제,
 그 때 공명선생 군사를 거두거늘, 운장 익덕이 그제야, ‘공명이 과연
 영결³²⁵⁾이로고나.’

8. (노숙 공명을 만남) 오나라의 노숙이 유비의 군정을 염 탐하러 와서 공명과 만난다.

[중모리] 공명선생 높은 재주 이렇듯 한 번 출전하여 박망에 적을 소탕,³²⁶⁾

[Jajinmori] Zhao Zi Long(趙子龍) rides a horse fast.

He fights Xia Jiao Dun(夏侯惇) a dozen times. Zhao Zi Long(趙子龍) pretends to be defeated and flees to his previous place. Xia Jiao Dun(夏侯惇) intends to chase him in triumph.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speak, “It is said if you look down on your enemy, you will lose.

The road is narrow, stones are on a dry stream, and trees and grasses are thick. What if they attack us with fire?”

Persuaded, Xia Jiao Dun(夏侯惇) intends to stop his troops. All of a sudden, fire rises up from every direction, filling up the sky.

The sounds of fire are loud.

Zhao Zi Long(趙子龍) on a horse chases Xia Jiao Dun(夏侯惇), killing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Petrified, Xia Jiao Dun(夏侯惇) flees in panic.

Zhang Fei(張飛) opens up his white-circled eyes. “You villains! Yu Jin(于禁) and Li Dian(李典)! Don’t run away. Here goes my spear!”

His voice is so loud that it sounds as if a mountain cracks. He chases Yu Jin(于禁).

Behind him is Guan Yu(關羽) in charge of the back unit.

Horried at his loud shout, Li Dian(李典) flees in panic.

Kong Ming(孔明) now takes his soldiers back. Guan Yu(關羽) and Zhang Fei(張飛) think Kong Ming(孔明) is really a hero.

8. (Lu Su(魯肅) Meets Kong Ming(孔明).) Lu Su(魯肅) of Wu(吳) Country comes to observe Liu Bei’s(劉備) army secretly and meets Kong Ming(孔明).

[Jungmori] Highly talented, Kong Ming(孔明) defeated his enemy in Bowang(博望) in his first battle.

두 번째 출전하여 백하³²⁷⁾에 엄몰³²⁸⁾하니, 공명의 장헌³²⁹⁾ 이름 삼국에 진동터라.

그 때여 조승상³³⁰⁾은 팔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손권에게 포고문³³¹⁾을 보낸지라.

이 때 오나라 손권이는 조조의 포고문을 본 연후에³³²⁾ 묘책³³³⁾을 의논할 제,

노숙³³⁴⁾이 여짜오되, “동오³³⁵⁾와 서한³³⁶⁾이 이왕³³⁷⁾ 화친³³⁸⁾을 약조³³⁹⁾하였으니,

원컨대 현주³⁴⁰⁾께서는 강하³⁴¹⁾에 가옵시어, 유비와 동심합력³⁴²⁾하시어 조조 진을 치울진댄,³⁴³⁾

가히³⁴⁴⁾ 대사를 이루리라.”

손권이 옳게 여겨 노숙을 강하에 보낸지라.

이 때에 유현덕은 조조 파할³⁴⁵⁾ 묘책을 의논할 제,

수문장³⁴⁶⁾이 여짜오되, “강동³⁴⁷⁾ 손권의 밀사³⁴⁸⁾ 노숙이 와서 뵈옵겠다 허옵니다.”

[아니래] 공명 듣고 웃으시며,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겼도다. 큰 일을 이루리라.

노숙이 우리 군정³⁴⁹⁾을 염탐³⁵⁰⁾허러 온 일이니,

만일 조조의 동정³⁵¹⁾을 문삽거든 나에게로 미루소서.”

노숙이 청하니, 노숙이 들어와 현덕과 면담할 제,

“유현주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래오나, 조조와 싸워보니 장졸³⁵²⁾이 얼마나 되더이까?”

“그 일은 공명선생이 아나이다.” 노숙이 다시 공명과 면담할 제,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랜지라. 선생이 기왕 전장에 몸을 허락 하시려면

어진 인군³⁵³⁾을 도움이 몇몇한 일어어늘, 무도현³⁵⁴⁾ 유허숙을 무엇하러 따라오셨나이까?”

In his second battle, he drowned his enemy in Baihe(白河) River. The great name “Kong Ming(孔明)” resound over the three countries.

Meanwhile, Cao Cao(曹操) has a large army of 800,000 troops. He sends a letter to Sun Quan(孫權).

After reading Cao Cao's(曹操) letter, Sun Quan(孫權) discusses the matter with his officers to come up with a clever plan.

Lu Su(魯肅) speaks.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Han(漢) Country in the west already signed a peace treaty.

Your Majesty, please go to Jiangxia(江夏) and attack Cao Cao(曹操) in cooperation with Liu Bei(劉備).

We'll surely accomplish a feat.”

Thinking Lu Su(魯肅) is right, Sun Quan(孫權) sends Lu Su(魯肅) to Jiangxia(江夏).

Meanwhile, Liu Bei(劉備) tries to think up a clever plan to defeat Cao Cao(曹操).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gate reports to Liu Bei(劉備). “Lu Su(魯肅), a secret envoy from Sun Quan(孫權), wants to see you.”

[Aniri] Kong Ming(孔明) is pleased. “Something good happened. We'll accomplish something great.

Lu Su(魯肅) came here to observe our army secretly.

If he asks a question about Cao Cao's(曹操) army, please let me answer him.”

Lu Su(魯肅) comes and meets with Liu Bei(劉備).

“I've heard of your great name for a long time. You fought Cao Cao(曹操) before. How strong is his army?”

“Kong Ming(孔明) knows about that the most.” Lu Su(魯肅) meets with Kong Ming(孔明).

“I've heard of your great name. You already got yourself into a war.

You should help a virtuous king. Why do you help Liu Bei(劉備), a bad person?”

9. (공명이 오나라로 건너감) 노숙이 함께 오나라로 가자고 설득하자, 공명은 속는 체하며 오나라로 건너간다.

[중모레] “나를 따라 강동 갑세.³⁵⁵⁾

우리나라 손장군³⁵⁶⁾은 총명인혜³⁵⁷⁾하고, 어질고, 겸양³⁵⁸⁾하며,
육군³⁵⁹⁾을 웅거³⁶⁰⁾하여 장병³⁶¹⁾이 십만이요,
병정양족³⁶²⁾하고, 문무가 구비³⁶³⁾하여 영웅이 집래³⁶⁴⁾하니,
나를 따라 강동 가면 부귀영화 누릴 테니 나를 따라감이 어떠시오?”
공명이 짐짓³⁶⁵⁾ 속는 체 가기를 허락하고
현주전³⁶⁶⁾ 하직하니, 현덕이 대경탄왈,³⁶⁷⁾
“분분한 천하득실³⁶⁸⁾ 선생만 민삽거늘, 어찌 신야를 떠나리오?”
공명이 현주전에 은근히 여짜오되,
“삼국이 분분헌 중 위국이 부강하고, 한실이 미약하니,
오나라에 한 번 들어가 손권을 달래이고,
주유를 격동시켜³⁶⁹⁾ 조조를 치게 한 후 수이³⁷⁰⁾ 돌아 올 것이니,
자룡에게 군사 백 명만 주어, 십일월 이십일 갑자³⁷¹⁾에 남병산하³⁷²⁾
오강³⁷³⁾ 뒤로 신지신지³⁷⁴⁾ 보내소서.
만일에 잊으시면 양³⁷⁵⁾은 다시 돌아오지 못 허리니, 부디 명심허옵
소서.”

[중중모레] 하직하고 길을 떠나

9. (Kong Ming(孔明) Goes to Wu(吳) Country.) Lu Su (魯肅) asks Kong Ming(孔明) to go to Wu(吳) Country. Kong Ming(孔明) goes to Wu(吳) Country, pretending he is on their side.

[Jungmori] “Follow me to Jiangdong(江東)?

My king, Sun Quan(孫權), is wise, kind, nice, and modest. Six units, in total 100,000 troops, are defending many places. The soldiers are courageous, and the food is abundant. Heros gather in our country because we respect the sword and the pen.

If you follow me to Jiangdong(江東), you will enjoy wealth and honor. Would you follow me?”

Kong Ming(孔明) says to Lu Su(魯肅) he will follow him, pretending that he is persuaded.

Kong Ming(孔明) says goodbye to Liu Bei(劉備). Liu Bei(劉備) sighs with surprise.

“I am relying only on you in this chaotic world. Why are you leaving Xinye(新野)?”

Kong Ming(孔明) secretly tells something to Liu Bei(劉備).

“Of the rivaling three countries, Wei(魏) Country is rich and strong, and Han(漢) Country is weak.

I’ll go into Wu(吳) Country and win Sun Quan’s(孫權) favor. I’ll come back after I prod Zhu Yu(朱瑜) to attack Cao Cao(曹操). Give Zhao Zi Long(趙子龍) one hundred troops. Send him to Wu(吳) River at the bottom of Nanping(南屏) Mountain on November 12 without fail.

In case you forget to do so, I can never return. Please keep that in mind.”

[Jungjungmori] Kong Ming(孔明) leaves Liu Bei(劉備).

손권의 막하³⁷⁶⁾에 다다르니, 장소³⁷⁷⁾ 고옹³⁷⁸⁾ 등 이십여 인이 공명과 수작³⁷⁹⁾혈 제,
 “선생은 관중악의지재³⁸⁰⁾를 흉중에³⁸¹⁾ 품었다 허옵는디,
 유현주³⁸²⁾는 선생 얻기 이전보다 더함이 없사오니,
 그리고 어찌 장자방³⁸³⁾의 재조를 비기리오?”
 공명이 대답허되, “봉비만리³⁸⁴⁾에 군조³⁸⁵⁾가 기지하지오?”³⁸⁶⁾
 공명의 너룬³⁸⁷⁾ 말을 뉘가 능히 당할쏜가?
 이 때 황개³⁸⁸⁾ 크게 소리 질러 좌우를 꾸짖어 왈,
 “대사³⁸⁹⁾ 급박헌데 무슨 수작³⁹⁰⁾이 장황헌고? 선생은 관용³⁹¹⁾허옵
 시고,
 주공³⁹²⁾과 의논을 하시어 좋은 묘책을 이르사이다.”³⁹³⁾

10. (공명, 주유 조롱) 손권이 주유를 통해 조조를 칠 계책을 물으니, 공명이 주유와 손책의 아내를 조조에게 보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공명선생 손권에게 들어가니 손권이 허는 말이,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랜지라. 선생의 힘을 빌리시와³⁹⁴⁾ 조조를 패허게³⁹⁵⁾ 하여주소서.”
 공명선생 이른 말이, “주공은 힘 알아 항복하옵소서.”
 손권이 화³⁹⁶⁾를 내어, “그러면 유현주는 어찌 될꼬?”

He meets and talks with Sun Quan's(孫權) staff: Zhang Zhao(張昭), Gu Yong(顧雍), and dozens of others.

"Sir, we've heard you are as wise as Guan Zhong(管仲) and Le Yi(樂毅).

But Liu Bei's(劉備) situation hasn't gotten better after he obtained you.

How can you be as smart as Zhang Zi Fang(張子房)?"

Kong Ming(孔明) replies, "How could a little bird understand the thoughts of a big bird?"

Who could beat Kong Ming(孔明) in a debate?

At that moment, Huang Gai(黃蓋) shouts at people loudly.

"We have an urgent business. Cut the long silly talk out. Kong Ming(孔明), please forgive them.

Let's have a discussion with our king. Let's think up a great strategy."

10. (Kong Ming(孔明) Derides Zhu Yu(朱瑜).) Sun Quan(孫權) tells Zhu Yu(朱瑜) to ask Kong Ming(孔明) for a plot to attack Cao Cao(曹操). Kong Ming(孔明) recommends that Zhu Yu(朱瑜) and Sun Quan(孫權) offer their wives to Cao Cao(曹操).

[Aniri] Kong Ming(孔明) meets with Sun Quan(孫權). Sun Quan(孫權) speaks to Kong Ming(孔明).

"I've heard about you for a long time. I hoped to defeat Cao Cao(曹操) with your help."

Kong Ming(孔明) says, "Know yourself, and surrender to Cao Cao(曹操)."

Sun Quan(孫權) gets angry. "Then, what will become of Liu Bei(劉備)?"

[자진모래] “우리 성군³⁹⁷ 유현주는 한실의 종친³⁹⁸이요,
지혜 많고 재주 있어 의기³⁹⁹가 넉넉하여 세상을 덮었으니 남의 나라
에 굽히리오?”

손권이 화를 내어 좌우를 돌아보며, 네 급히 파양⁴⁰⁰ 가서 주유⁴⁰¹를
불러오라!”

사자⁴⁰²를 파양에 보내 주유를 청한지라.

이 때 주유 들어올 제, 공명을 인도하여 주유에게로 들어가니,

주유 예로⁴⁰³ 좌정⁴⁰⁴ 후에 공명전 여짜오되,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래오니, 선생은 묘계를 이르사⁴⁰⁵ 적을
막게 하옵소서.”

공명이 대답하되, “강동은 염려 없고 편할 일이 있더이다.” “무슨 일로
편하리까?”

“조조 내심 음흉하여 동작대⁴⁰⁶ 지은 뜻은,

강동을 무찌르고 강동 사람 교공⁴⁰⁷의 딸 천하일색 대교 소교⁴⁰⁸ 두

계집을 다려다가⁴⁰⁹ 호강⁴¹⁰코자 헌 일이니,

만일에 그 두 계집을 조조에게다 보내시면, 강동은 염려 없이 편한
줄로 아옵니다.”

주유 듣고 분을 내어, “선생이 어찌 아오?”

“조조의 둘째 아들 동작대 지은 글⁴¹¹을 사방 선비 외우기로,

나도 그 글을 사랑하여 주야로 외나이다.”

주유 듣고 허는 말이, “그 글을 조금 들어지이다.”⁴¹²

공명의 거동 보소. 태연히 정좌⁴¹³하여 심중⁴¹⁴헌 안색으로 그 글을
외는디,⁴¹⁵

“중명후이희유혜여, 등충대이오정이요,

견태부지광개혜여, 관성덕지소영이며,

[Jajinmori] “My virtuous king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of the Han(漢) Dynasty.

His wisdom, talent, and courage cover the whole world. How can he surrender to another country?”

Going berserk, Sun Quan(孫權) looks around. “You, go to Poyang(鄱陽) Lake immediately and bring Zhu Yu(朱瑜) here.” He sends a messenger to Poyang(鄱陽) Lake to bring Zhu Yu(朱瑜). Zhu Yu(朱瑜) comes in. They lead Kong Ming(孔明) to Zhu Yu(朱瑜).

After bowing to Kong Ming(孔明), Zhu Yu(朱瑜) sits down and speaks to him.

“I’ve heard about you for a long time. Please tell us about a smart plan to defeat the enemy.”

Kong Ming(孔明) replie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Jiangdong(江東).” “What makes you think so?”

“Wicked in his deep mind, Cao Cao(曹操) built a tower in his capital city.

He plans to invade Jiangdong(江東) with the view to living happily with Sir Qiao’s(喬) two beautiful daughters.

If you offer the two girls to him, Jiangdong(江東) will be stable and peaceful.”

Zhu Yu(朱瑜) is exasperated. “How do you know about that?”

“Many scholars recite the poem Cao Cao’s(曹操) second son wrote about Tongque(銅雀) Tower.

I love the poem myself, so I recite it day and night.”

Zhu Yu(朱瑜) asks, “Let me hear a little bit of the poem.”

Behold Kong Ming(孔明). After sitting down calmly, he recites the poem with a serious look on his face.

“I followed a wise king and we did fun together. We climbed a tower and had a good conversation.

We looked over the wide capital city. I could fathom what the virtuous king wants.

건고문지차아혜여, 부쌍궐호태청이요,
 입중천지화관혜여, 연비각호서성이며,
 임장수지장류혜여, 망원과지자영이요,
 입쌍대어좌우혜여, 유옥용여금봉이며,
 남이교어동남혜여, 낙조석지여공이라.”⁴¹⁶⁾
 주유 듣고 분을 내어, 칼을 들어 문을 치며,
 “음골⁴¹⁷⁾의 늙은 도적이 이다지도 무례할꼬?”⁴¹⁸⁾
 공명이 모르는 체, “옛날에 한 고조도 흉노⁴¹⁹⁾를 달래어서 화친을 허
 였거늘,
 국가 대사 위급헌디 민간의 아녀자를 그다지 아끼리까?”

11. (공명의 계책) 공명이 삼일 안에 화살 십만 개를 마련하 여 조조와 싸우겠다고 하니 주유가 비웃는다.

[아니래] 주유 듣고 이른 말이, “선생은 모르리다.
 대교라 허는 이는 손백부⁴²⁰⁾의 안택⁴²¹⁾이요, 소교라 허는 이는 바로
 나의 아내로소이다.”
 공명이 놀래는 체, “아, 나는 과연 모르웁고 실언⁴²²⁾을 허였나이다.”
 주유 더욱 분을 내어, “선생은 힘을 도와 조조를 파히게⁴²³⁾ 하여주소서.”

Two gates are erected high. Two palaces are high.
 A high tower shines brightly. It looks as if it flies over to a west castle.
 I stand by a long river. I wish for the trees in the garden to bear a lot of fruit.
 The two towers are built on the left and on the right. They are Yulong(玉龍) Tower and Jinfeng(金鳳) Tower.
 I'll bring Sir Qiao's(喬) two beautiful daughters. I'll have a party day and night with them."
 Zhu Yu(朱瑜) is indignant. He holds up his sword and hits the door.
 "The old bastard is lewd and rude."
 Kong Ming(孔明) pretends he is ignorant. "The first king of the Han(漢) Dynasty appeased Xiongnu(匈奴) and got along with them.
 This country is in jeopardy. What's the point of cherishing the two women?"

11. (Kong Ming's(孔明) Scheme) Kong Ming(孔明) says that he will fight Cao Cao(曹操), after he gets 100,000 arrows within three days. Zhu Yu(朱瑜) laughs at him.

[Aniri] Zhu Yu(朱瑜) says, "Sir, you might not know this. The elder Qiao(大喬) is Sun Ce's(孫策) wife, and the younger Qiao(小喬) is my wife."
 Kong Ming(孔明) pretends he is surprised. "Gee! I didn't know that and made a mistake."
 Zhu Yu(朱瑜) gets more exasperated. "Sir, please help us quash Cao Cao(曹操)."

하고 손권에게 들어가니, 손권이 허는 말이,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하구⁴²⁴)에다 둔취⁴²⁵)하고 포고문을 보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자진모리] 주유 듣고 대답하되, “노적⁴²⁶)이 방자⁴²⁷)하여 우리를 능욕⁴²⁸)하니,

결단코 늙은 도적을 산 채로 잡아오겠나이다.”

손권이 대희⁴²⁹)하여, 주유로 즉석에서 대도독⁴³⁰)을 삼은지라.

주유는 물리나와 공명께 묻는 말이,

“팔십만 대적군⁴³¹)을 무엇으로 대전⁴³²)하리?”

공명의 속마음에 불로 처야 혈 일인 줄 변연히⁴³³) 알면서,

짐짓⁴³⁴) 대답허는 말이, “살⁴³⁵)로 대전하오리다.”

주유 속으로, ‘저런 것을 어찌 모사라 혈 것인고?’ 공명을 죽일 작정으로,
“그러면 지금 이후로 열흘 말미⁴³⁶) 줄 것이니, 선생의 대책으로 팔십만 개를 만들겠소?”

공명이 대답하되, “적선⁴³⁷)을 지척⁴³⁸)에 두고 어찌 열흘을 가오리까?

삼일 말미만 주사이다.”⁴³⁹) 주유 더욱 기뻐하여,

“그러면 군령⁴⁴⁰)에 다짐⁴⁴¹) 두겠소?” “예. 다짐 두지요.”

다짐 두고 물리나와 노숙께 허는 말이,

“주도독이 삼일 안에 팔 십만 개를 만들라 하니, 어데 가 얻어 올꼬?”

노숙이 대답하되, “자취지화군⁴⁴²)이니 뉘를 원망하오리까?”

Zhu Yu(朱瑜) goes to Sun Quan(孫權). Sun Quan(孫權) says, “Cao Cao(曹操) mobilized his army.

Stationed at Xiakou(夏口), he declared war against us. What should we do?”

[Jajinmori] Zhu Yu(朱瑜) replies, “Arrogant, the old thief is insulting us.

I’ll catch the old bandit alive without fail.”

Pleased, Sun Quan(孫權) appoints Zhu Yu(朱瑜) as the head of the military immediately.

After leaving Sun Quan(孫權), Zhu Yu(朱瑜) asks Kong Ming(孔明) a question.

“How can we confront the huge army of 800,000 troops?”

Kong Ming(孔明) knows that they should attack the enemy with fire.

His word does not match his thought. “We’ll attack them with arrows.”

Zhu Yu(朱瑜) thinks to himself, ‘How can he be a military strategist?’ He wants Kong Ming(孔明) dead.

“Then, can you come up with 100,000 arrows in ten days?”

Kong Ming(孔明) answers, “How can we take ten days, when the enemy ships are already close to us?

Give me just three days.” Zhu Yu(朱瑜) is all the more glad.

“Can you make a pledge as a general?” “Yes, I can.”

After making the pledge, Kong Ming(孔明) goes to Lu Su(魯肅) and says to him.

“Zhu Yu(朱瑜) told me to come up with 100,000 arrows. How can I get them?”

Lu Su(魯肅) responds, “You caused the trouble yourself, so you can’t blame anybody.”

12. (조조로부터 화살을 얻음) 공명이 배에 갈대와 썰을 가득 싣고 조조의 진영을 거짓 공격하는 체하여, 조조의 군사가 쏜 화살을 많이 얻어서 돌아온다.

[아니레] “자경⁴⁴³)은 나를 도와 군사 백 명과 전선⁴⁴⁴) 십여 척에 갈대와 썰⁴⁴⁵)을 많이 싣어,
청포장⁴⁴⁶)으로 둘러 주면, 살을 얻어 오오리다.”
노숙 묻는 말이, “살은 어데 가 얻어 오겠나이까?”
“적벽강 조조에게 가 얻어오지요.”
노숙 듣고 어이없어, “여보, 그런 푸석푸석헌⁴⁴⁷) 소리 허지 마오.
아, 차라리 여기 앉아서 통죽음⁴⁴⁸)을 허는 것이 낫지,
아, 기어코 멀리까지 가서 더운 죽음⁴⁴⁹)을 원헌단 말이오?”
공명이 웃으며, “못 얻으면 죽는 게니,
내 말대로나 허여 주시오.” 그대로 허여 주니,
[중중모레] 공명선생은 배를 타고 적벽강⁴⁵⁰)으로 들어갈 제,
일락서산⁴⁵¹) 황혼 되어 안개 차차 강상⁴⁵²)을 덮는지라,
쟁⁴⁵³) · 북 · 팽쇠⁴⁵⁴) · 바라⁴⁵⁵)를 일제히 두드리며,⁴⁵⁶)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면서 중강⁴⁵⁷)에 떠 있을 제,
조조 장수 모개⁴⁵⁸) 우금 조조에게 아뢰는디,
“적선이 들어오니 미리 방비⁴⁵⁹)허사이다.”
조조 듣고 이른 말이, “안개가 끼었으니 아예 요동⁴⁶⁰)허지 말고, 활로만 대고 쏘라.”
또 육진⁴⁶¹)에 분부하여, 장요⁴⁶²) 허저⁴⁶³)를 불러들여,

12. (Getting Arrows from Cao Cao(曹操)) Kong Ming (孔明) pretends to attack Cao Cao's(曹操) camp with ships filled with reeds and grasses. He comes back with a lot of arrows which Cao Cao's(曹操) soldiers have shot.

[Aniri] “Lu Su(魯肅), give me a hundred troops and ten warships filled with reeds and grasses.

If you cover them with blue cloth, I will get you arrows.”

Lu Su(魯肅) asks, “How can you get the arrows?”

“I’ll get them from Cao Cao(曹操) on the Chibi(赤壁) River.

Lu Su(魯肅) is at a loss. “Stop this absurd talk.

I would rather die here along with the others.

Why would you want to go far away from here to die by fire?”

Kong Ming(孔明) laughs. “I’ll die anyway if I don’t get you arrows.

Please do as I ask you to do.” Lu Su(魯肅) complies with Kong Ming’s(孔明) wish.

[Jungjungmori] Kong Ming(孔明) proceeds to the Chibi(赤壁) River by ship.

As the sun sets below a west mountain, fog covers the river. Kong Ming’s(孔明) soldiers hit gongs and drums, and play trumpets, while shouting in the middle of the river.

Cao Cao’s(曹操) officer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report to Cao Cao(曹操).

“Let’s prepare for the approaching enemy ships.”

Cao Cao(曹操) says, “Since it is foggy, don’t move at all, and just shoot arrows.”

Cao Cao(曹操) calls his officers, Zhang Liao(張遼) and Xu Chu(許褚) who are in their camp.

“궁노수⁴⁶⁴ 삼천 명을 강변에 급히 보내
 북소리 나는 곳을 그저 활로 쏘게 하라.”
 조조의 무사들이 일시에 활을 쏘니,
 허다현⁴⁶⁵ 많은 살이 공명 탄 배 갈슘⁴⁶⁶에 가 모두 다 박힌지라.
 순식간에 살 받은 게 배가 한 편으로 기울거늘,
 띄 많은 공명선생 배를 돌려 살 받은 게, 그 수를 뉘 알리오?
 이윽고 구름 안개 벗어지니, 공명선생 군사 시켜,
 “승상⁴⁶⁷이 살을 많이 빌리시니 은혜 백골난망⁴⁶⁸이오.
 공명은 이 살로 승상을 쏘아, 승상의 배를 산적⁴⁶⁹ 꿔듯 허오리다.”
 조조 듣고 분을 내어, “예, 바빠 저 공명을 붙잡으라!”
 장요 허저 비선⁴⁷⁰ 타고 아무리 쫓아간들,
 선생 탄 배 떠난 자가 이무⁴⁷¹ 오래 되었으니, 잡을 가망이 있겠느냐.

13. (조조 호기) 조조가 천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잔치를 베풀며 호기를 부린다.

[아니레] 이 때에 공명선생 살 얻어다 주유 주며
 그 수를 헤어보니, 십일만 팔천여 개라.
 감택⁴⁷²의 거짓 항서⁴⁷³와 황개⁴⁷⁴의 교육계⁴⁷⁵며,

“Send three thousand archers to the riverside right away.
 Have them shoot arrows towards the sound of the drums.”
 Cao Cao’s(曹操) soldiers shoot arrows at once.
 Numerous arrows get stuck in the reeds and grasses of Kong
 Ming’s(孔明) ships.
 The ships instantly get slanted due to the weight of the arrows.
 Smart, Kong Ming(孔明) used the ships to get arrows. Who
 could have imagined his ruse?
 Finally, the clouds and fog clear up. Kong Ming(孔明) sends a
 soldier to Cao Cao(曹操).
 “Mr. Premier, you gave me a lot of arrows. I can’t forget your
 favor.
 I will shoot you with these arrows. They will pass through your
 belly.”
 Cao Cao(曹操) is infuriated. “Catch Kong Ming(孔明) right away!”
 Zhang Liao(張遼) and Xu Chu(許褚) get on a fast ship and chase
 Kong Ming(孔明).
 But his ship left a long time ago. There is no possibility they
 will catch up with him.

13. (Cao Cao’s(曹操) Heroic Temper) Cao Cao(曹操) leads one thousand ships. He plays the hero while throwing a party.

[Aniri] Meanwhile, Kong Ming(孔明) brings the arrows to Zhu
 Yu(朱瑜).
 He counts the arrows which turned out to be about 118,000.
 Kan Ze(闕澤) made the plot to make a false surrender. Huang
 Gai(黃蓋) made the second plot to sacrifice himself to deceive
 the enemy.

방통⁴⁷⁶의 연환계⁴⁷⁷를
 귀신인들 측량⁴⁷⁸허리! 그 때에 적벽강 조조는,
 [진양조] 천여 척 전선⁴⁷⁹으로 연환계 굳이 무어⁴⁸⁰ 강상육지⁴⁸¹를
 삼어 두고,
 일등 명장을 유진⁴⁸²허여, 말 달려 창 쓰기와 활 쏘고, 총 놓기며,⁴⁸³
 십팔기⁴⁸⁴ 사습⁴⁸⁵허기 만군중⁴⁸⁶이 요란허니 조조가 보고 대희허여,
 우양⁴⁸⁷을 많이 잡어 만진장줄⁴⁸⁸을 먹일 적에,
 이 때는 어느 땐고? 십일월 십오야⁴⁸⁹라. 천기⁴⁹⁰ 청명⁴⁹¹ 풍랑⁴⁹²이
 안정허니,
 동산 월색⁴⁹³은 여동백일⁴⁹⁴이요, 장강⁴⁹⁵ 일대는 여횡소련⁴⁹⁶이라.
 좌우 모사와 수백여 인의 용장⁴⁹⁷들은 다 각기 금수전포⁴⁹⁸에 걸
 극⁴⁹⁹이 서리 같고,
 남병산색은 채색⁵⁰⁰이 영롱허여 그림병풍⁵⁰¹을 돌렸난 듯.
 “동편을 보니 시상구⁵⁰²요, 서편은 하구경⁵⁰³이요,
 남쪽은 번성⁵⁰⁴이요, 북을 보니 오림⁵⁰⁵이라.
 사방이 광활⁵⁰⁶허니, 이 아니 즐거우랴! 이제 내 나이 오십사 세,
 기병⁵⁰⁷ 이래로 시해⁵⁰⁸를 거의 평정⁵⁰⁹허였으되, 못 얻은 게 강남이나,
 백만 군사 정병⁵¹⁰이요, 제장⁵¹¹ 또한 용장⁵¹²이니,
 손권 주유를 내 어찌 염려허며,
 하구의 현덕 공명 천사⁵¹³를 제 모르고 태산을 늑가⁵¹⁴허니, 그 뜻이
 어리도다.⁵¹⁵
 어와, 장병⁵¹⁶ 영⁵¹⁷ 들어라! 천하에 대업⁵¹⁸을 한 사람께 맡겼으랴?

Pang Tong(龐統) made the third plot to burn the enemy's ships after telling them to tie the ships with chains.

Even a ghost cannot imagine such ruses! Meanwhile, Cao Cao(曹操) is on the Chibi(赤壁) River.

[Jinyangjo] Cao Cao(曹操) ties up a thousand ships together with iron chains. The river becomes the land.

Able officers stay in camps, throwing spears from horses, and shooting arrows and rifles.

They exercise martial arts by themselves. The whole military is noisy. He is pleased to see his soldiers.

He kills many cows and sheep, feeding all of his soldiers.

When is all of this happening? It is full moon night, December 15th. It is clear and bright. The waves are gentle.

The moon over the east mountain is as bright as the sun. The Yangzi(揚子) River looks as if the white silk is unfold.

Strategists and brave officers in satin military clothes hold fearsome swords and spears.

Nanping(南屏) Mountain is of diverse brilliant colors, looking as though it were covered by a folding screen.

“In the east is the entrance of Chaisang(柴桑) Castle, in the west the border of Xiakou(夏口) Castle,

in the south Fan(樊) Castle, and in the north Wulin(烏林) Forest.

A vast open field in every direction gives rise to a pleasant feeling! I am now fifty four.

I mobilized an army and conquered the whole of China except the southern region.

My one million troops are well-trained. My officers are brave.

Why would I be afraid of Sun Quan(孫權) and Zhu Yu(朱瑜)?

Foolish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at Xiakou(夏口) look down on me.

Officers and soldiers! Listen to my order! I cannot accomplish this monumental feat alone.

너희도 오늘은 술 고기 떡 밥을 많이 먹고,
위오한⁵¹⁹⁾ 승부에 사생⁵²⁰⁾을 결단허라.
사백 년 한실⁵²¹⁾ 운이 거의 진케⁵²²⁾ 되었으니,
득천하⁵²³⁾헌 연후에⁵²⁴⁾ 부귀영화를 한가지로⁵²⁵⁾ 누리리라.”

14. (군사들 노는 모양) 병졸들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제각기 논다.

[아니레 만진장졸⁵²⁶⁾이 술 고기를 시새워⁵²⁷⁾ 많이 먹고, 술들이 취해
노니,
못놈⁵²⁸⁾들이 제각기 조대로⁵²⁹⁾ 놀든 것이었다.
[중모레] 노래 불러 춤추는 놈, 설움 계워⁵³⁰⁾ 곡⁵³¹⁾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과 투전⁵³²⁾허다 다투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끝에 툇 괴인⁵³³⁾ 놈,
첩첩만한⁵³⁴⁾ 군병중⁵³⁵⁾에 병루불식⁵³⁶⁾이 불행이라.
장하의⁵³⁷⁾ 한 군사는 전립⁵³⁸⁾ 벗어 뚜르르르르르 말아 베고 누워,
봇물⁵³⁹⁾ 터진 듯이 울음을 우는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이놈의 노릇을 어쩔꼬나.”

15. (군사 설움 타령 1) 한 군사가 부모와 아내를 그리워하 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⁵⁴⁰⁾ 울 제 한 군사 대답허되,
“아나 애, 승상은 대군을 거느리고 천리 전장을 나오셔서,

Help yourselves to wine, meat, rice cake, and rice today.
Risk your lives in the war with Wei(魏), Wu(吳), and Han(漢)
Countries,
The Han(漢) Dynasty which lasted for four hundred years is
running out its luck.
After obtaining the whole of China, we will prosper in wealth
and fame together.”

**14. (The Soldiers Have Fun.) The soldiers have fun,
after helping themselves to wine and meat.**

[Aniri] Officers and soldiers in the camp help themselves to wine
and meat, getting drunk.

Many amuse themselves in the manners of soldiers.

[Jungmori] Some sing and dance. Some cry, overtaken with
sorrow.

Some laugh while chatting. Some have quarrels while gambling.
Some sleep, standing with their chins on the ends of spears.
Some are so sad that their tears do not stop.

A soldier below a flag takes off his fur hat, folds it, lies down,
and puts his head on it.

He bursts into tears as if a dam has exploded.

“Alas! Alas! Woe is me! What should I do?”

**15. (A Soldier's Sad Song 1) A soldier sighs, missing
his parents and wife.**

[Aniri] When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responds,

“Our premier has led a huge army to this battlefield far from
home.

승전을 못 끝내고 대성사⁵⁴¹)를 바래는디,
방정맞게 울음은 왜 우느냐? 이리 오너라. 술이나 한 잔 먹자.”
저 군사 울면서 허는 말이, “말인즉 네 말이 옳다마는, 네 내 설움을
좀 들어봐라.”

[진양조] “고당상⁵⁴²) 학발 양친⁵⁴³) 배별⁵⁴⁴)헌 지가 몇 날이나 되는거
나?⁵⁴⁵)

부혜여 생아허시고, 모혜여 육아허시니,⁵⁴⁶) 육보지덕택인댄 호천망
극이라.⁵⁴⁷)

화목허든 절내권당,⁵⁴⁸) 규중⁵⁴⁹)의 젊은 아내 천리 전장 날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나, 내일이나 편지 올까 기다리고 바래다가,
서산에 해는 떨어질 적에 의려망⁵⁵⁰)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 밤에 의문망⁵⁵¹)이 몇 번인지 모르건만,
소중량장의 흥안거래⁵⁵²) 편지를 뉘 전허며,
상사곡⁵⁵³) 단장회⁵⁵⁴)는 주야 수심⁵⁵⁵)이 맺혔도다.

조충⁵⁵⁶) 환도⁵⁵⁷)를 드러메고⁵⁵⁸) 육전⁵⁵⁹) 수전⁵⁶⁰)을 섞어 할 적에 생
사가 조석이로구나.⁵⁶¹)

만일 객사⁵⁶²)를 허거드면, 뉘라 엄토⁵⁶³)를 허여 주며,
골폭사장⁵⁶⁴)에 호여져서⁵⁶⁵) 오연⁵⁶⁶)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뿌다
리며,⁵⁶⁷) 툇 쳐 후여 쳐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나?
일일사친십이시로구나.”⁵⁶⁸)

16. (군사 설움 타령 2) 또 한 군사가 집에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또 한 군사 허는 말이,

He hasn't yet finished the war. He wants a big accomplishment. It is rash to cry such a grave situation. Come here. Let's have a drink together."

The crying soldier says, "What you said is right. But listen to my sorrow."

[Jinyangjo] "Numerous days have passed since I left my old parents.

My father has begotten me, and my mother has reared me. I want to return their favor, but it is limitless.

My family and relatives got along with each other. My young wife said goodbye to me leaving for the distant battleground.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about me.

Numerous times, she must have leaned against the gate, waiting for me as the sun set, and at windy and rainy nights.

Su Wu(蘇武) sent a letter to his country, using a wild goose. I miss my family day and night so much that my intestines might disintegrate.

I carry a rifle and a big sword. I fight on land and water, and I could die at any time.

If I die away from home, who will bury me?

If my bones are scattered on the sand and become food for crows and eagles, who will chase the birds away by clapping his hands?

I miss my parents all day long."

16. (A Soldier's Sad Song 2) A soldier grieves, while missing his child at home.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says,

“네 설움을 들어보니, 부모생각 너의 설움 효성지삼⁵⁶⁹)이 지극히다미는,
네 설움 잠깐 들여놓고 내 설움을 좀 들어봐라.”

[중중모리] “네 내 설움을 들어라. 네 내 설움을 들어봐.

나는, 나는 남의 오대독신⁵⁷⁰)으로 열일곱에 장가들어,
사십이 장근토록⁵⁷¹) 슬하⁵⁷²) 일점혈육⁵⁷³)이 없어 매일 부부 한탄.
아따,⁵⁷⁴) 우리집 마누라가 자식을 보려히고 온갖 공⁵⁷⁵)을 다 드릴 제,
명산, 대찰,⁵⁷⁶) 영신당,⁵⁷⁷) 고묘,⁵⁷⁸) 총사,⁵⁷⁹) 석왕사⁵⁸⁰)며 석불,⁵⁸¹)
보살,⁵⁸²) 미륵⁵⁸³)님께 허유허유⁵⁸⁴) 다니며,
노구맞이⁵⁸⁵) 집짓기와 칠성불공,⁵⁸⁶) 나한불공,⁵⁸⁷)
백일산제,⁵⁸⁸) 제석불공,⁵⁸⁹) 다리권선,⁵⁹⁰) 길땀기,⁵⁹¹)
집에 들어 있는 날도 성주⁵⁹²) 조왕에⁵⁹³) 당산,⁵⁹⁴) 천룡,⁵⁹⁵) 중천군
웅⁵⁹⁶)에 지신제⁵⁹⁷) 지극 정성 다 드리니,
공든 탑 무너지며, 심든 나무가⁵⁹⁸) 부러지랴.
아따, 우리집 마누라가 십삭⁵⁹⁹) 태육⁶⁰⁰) 벼슬혈 제,⁶⁰¹)
석부정부좌⁶⁰²)히고, 할부정불식⁶⁰³)히고,
이불청음성,⁶⁰⁴) 목불시악색⁶⁰⁵)허여
십삭이 점점 찬 연후에, 하루는 해복 기미⁶⁰⁶)가 있드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순산⁶⁰⁷)으로 낳아 놓으니
딸이라도 반가운디, 아들을 낳었구나.
깨목불알⁶⁰⁸)에 고초자지⁶⁰⁹)가 대랑대랑 달려,

“After listening to your sorrow, I can see that you miss your parents and you are a good son.

But set your sorrow asid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y sorrow.”

[Jungjungmori] “Listen to my grief and sorrow.

I am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 got married at seventeen.

Approaching forty but not having a child, my wife and I sighed everyday.

Gee, my wife made every effort to have a baby.

She prayed to famous mountains, Buddhist temples, Buddhist shrines, Buddhist statues, and the statues of Buddhist Saints.

She built a house for a shamanic god. She prayed to the Great Bear and a Buddhist saint.

She paid tribute to Buddha for a hundred days. She paid money to build a bridge and built a road for others.

While at home, she dutifully serves the gods of the house, the kitchen, the village, the food platform, the sky, and the land. Her conscientious efforts finally paid off.

While my wife was pregnant for ten months, she behaved as follows:

She did not sit on a seat, if it were not straight. She did not eat food, if it were not cut straight.

Her ears did not hear indecent words. Her eyes did not see bad colors.

Ten months gradually passed. One day, there was an indication of childbirth.

‘My belly and waist hurt!’ The birth was an easy one.

Even a daughter would have been good, but the baby was a son.

His brown balls and pepper-like penis hung down, moving back and forth.

열 손에다가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이, 오줌 똥을 다 개리어⁶¹⁰⁾

삼칠일⁶¹¹⁾이 다 지나고 오륙삭⁶¹²⁾이 넘어가니, 장판방⁶¹³⁾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⁶¹⁴⁾ 노는 양,

빵긋 웃는 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⁶¹⁵⁾ 쥐암쥐암⁶¹⁶⁾ 잘깡잘깡,⁶¹⁷⁾ 웃고름에다가 큰 돈을 채워,⁶¹⁸⁾ 밤을 사 껌질을 벗겨 손에 쥐어서 빨리며,

아비 쉬엄⁶¹⁹⁾을 검쳐잡고⁶²⁰⁾ 응글응글⁶²¹⁾ 노는 양, 주야 사랑 애중⁶²²⁾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난리 났다.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너라!’
웨는⁶²³⁾ 소리 아니 갈 수 없더구나.

사당문⁶²⁴⁾ 열어 놓고 통곡 재배⁶²⁵⁾ 하직하며,

간간한⁶²⁶⁾ 어린 자식 부부 안고 등 만지며,

유정한⁶²⁷⁾ 아내 얼굴 한 데 대고 문지르며,

‘여보 마누라. 부대⁶²⁸⁾ 이것이나 잘 길러 나의 후사⁶²⁹⁾를 전해 주오.’

생이별⁶³⁰⁾ 하직하고 전장예를 나왔으나,

언제 다시 고향 가서 기롭던⁶³¹⁾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악아, 응아.’

올러⁶³²⁾ 불끄나?

아이고 아이고, 내 설움이야.”

17. (군사 설움 타령 3) 또 한 군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또 한 군사 내달으며,

I always held him with my hands, so he never lay down on the ground. He was potty-trained.

After five or six months, he became plump and managed to play in the room.

He smiled and said 'Mommy' and 'Daddy.' He shook his head, folded and unfolded his fingers. I dandled him.

I tied big money on his cloth string. I bought chestnuts and peeled them. I had him hold them with his hands and suck them.

He grabbed my beard, while making faces as play. For me, only my child was a precious thing.

The sudden shout 'A war broke 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came in my ear, so I couldn't help leaving my house.

I bowed twice to the family shrine and bid farewell to my ancestors.

My wife and I hugged our lovely young child, touching his back. My affectionate wife and I rubbed each other's faces.

'Honey, please rear him well and have him continue my family line.'

I came to this battlefield after a hard parting with my family. When will I go back home, dandle my lovely child in my arms, and talk to him?

Alas! Woe is me!"

17. (A Soldier's Sad Song 3) Another soldier sighs, while missing his wife.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steps forward.

“제기 참, 자식 두고 우는 놈 천하에 제일가는 시러베아들놈의 자식⁽⁶³³⁾이다.

너는 전장에서 죽드래도 후사는 전혈 것이니,
네 설움 들어 놓고, 내 설움을 좀 들어봐라.”

[중모레]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일가친척 바이없어,⁽⁶³⁴⁾ 사고무친⁽⁶³⁵⁾ 내 고장에 혈혈단신⁽⁶³⁶⁾ 이 내 몸이,

이성지합⁽⁶³⁷⁾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허여,⁽⁶³⁸⁾
봉제시⁽⁶³⁹⁾ 접빈객⁽⁶⁴⁰⁾과 가장⁽⁶⁴¹⁾ 공경, 치산⁽⁶⁴²⁾ 범절⁽⁶⁴³⁾ 세상에 짝이
없고,

중가⁽⁶⁴⁴⁾ 대사 탁심헌정⁽⁶⁴⁵⁾

일시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 돌아앉아도 화⁽⁶⁴⁶⁾가 나고,

철 가는 줄을 모를 적에, 뜻밖에 급한 난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천아성⁽⁶⁴⁷⁾ 때때⁽⁶⁴⁸⁾ 부는 소리, 억지로 끌어내어 생이별 하직허고 전
장에 나왔으나,

일부일⁽⁶⁴⁹⁾ 전쟁은 끝이 없네.

망망창해⁽⁶⁵⁰⁾ 갓⁽⁶⁵¹⁾ 없는디, 동서남북으로 수직⁽⁶⁵²⁾을 허니,

살아가기 꾀를 현들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싸인 고기로다.

고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나 구름만 담담⁽⁶⁵³⁾허니,

아득 정신 기가막혀 후유 한숨 길게 쉬며,

언제나 내가 고향 가서 기롭던⁽⁶⁵⁴⁾ 아내 손길 잡고, 만단정회⁽⁶⁵⁵⁾를
풀어볼까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런지고.”⁽⁶⁵⁶⁾

“You rascal. You are the most deplorable man in the world because you cry over your child.

You can carry on your family line even if you die on this battleground.

Forget your sorrow and listen to mine.”

[Jungmori] “My parents died when I was young.

Having no relative, I had nobody to turn to and I was lonely in my village.

I married a beautiful and virtuous woman.

She held rituals of my ancestors attentively, served guests heartily, respected her husband, managed her home well, and had the good manners.

She conscientiously took care of the big matters of a head family.

I loved my wife as much as I always wanted her to stay next to me. Whenever she looked away from me, I got angry.

I wasn't aware of the passage of time. All of a sudden, a war broke out.

‘The people of Wei(魏) Country,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The trumpet sound calling soldiers made me come to this battlefield after a hard parting with my wife.

This war continues day after day.

The blue sea is vast and without limit. We are guarding the four directions.

Even if we try to survive, we are like a tiger in a pit and a fish in a net.

My gaze in the direction of my home only meets clouds.

Confused and absent-minded, I sigh deeply.

When can I go back home, hold my lovely wife's hands, and talk with her as much as I like?

Alas! Alas! Woe is me.”

18. (군사 설움 타령 4) 또 한 군사가 첫날밤에 전장에 잡혀 온 사연을 말하며 탄식한다.

[아니리]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또 한 군사 내달으며,
“애, 네 설움을 들어보니, 네놈 설움도 나와 똑같은 연처지정⁶⁵⁷이다
마는,

네 설움 잠깐 들여놓고, 내 설움을 좀 들어 보라.”

[중중모리] “여봐라, 군사들아. 네 내 설움을 들어라. 네 내 설움을
들어 보라.

나는 부모님의 은덕으로 십오세에 장가들어
열일곱에 상처⁶⁵⁸허고, 서른 살에 간신히 구혼하여
사주단자⁶⁵⁹를 보냈더니 택일⁶⁶⁰ 기별⁶⁶¹이 왔더구나.
신행⁶⁶² 차비⁶⁶³를 차리는데, 장풍헌네⁶⁶⁴ 비리먹은⁶⁶⁵ 말에다
이좌수택⁶⁶⁶ 줌친⁶⁶⁷ 안장, 박도령 쌍얼청이,⁶⁶⁸ 공도령 안판낙보⁶⁶⁹
두 쌍으로 징씨⁶⁷⁰ 세우고, 정동장⁶⁷¹ 함진애비,⁶⁷² 집안 좋은 외눈
통이,⁶⁷³

전동다리⁶⁷⁴ 피수아비,⁶⁷⁵ 친구종⁶⁷⁶ 즐거⁶⁷⁷ 들고, 외삼촌 상객⁶⁷⁸
갈 제,

암소에다 안장을 지어 뚜덕뚜덕⁶⁷⁹ 넋짓⁶⁸⁰ 타고,
사모품대⁶⁸¹에 능라호사⁶⁸² 호기 있게 건너가서,
초례청⁶⁸³에 전안⁶⁸⁴허고, 대례청⁶⁸⁵ 대례허고,
신부방에 들어가 차담상⁶⁸⁶을 받아 먹고, 해 지기를 기다릴 제,
일락함지⁶⁸⁷ 해가 지니 저녁상이 오더구나.

18. (A Soldier's Sad Song 4) Another soldier moans,
telling how he was forced to the battleground on
his wedding night.

[Aniri] While the soldier cries as said above, another soldier
jumps forward.

"Hey, I got your sorrow. Your sorrow and mine are both about
wives.

But put your sorrow asid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ine."

[Jungjungmori] "Hey soldiers. Listen to my grief. Listen to my
sad story.

Thanks to my parents, I got married at fifteen.

I lost my wife at seventeen. I managed to make a proposal of
marriage at thirty.

I sent a letter to the house of my future wife. They responded
with the wedding date.

I prepared to depart for a wedding hall. I got on a sick horse
with no hair.

The saddle was moth-eaten. Mr. Bak was double hare-lip. Mr.
Gong was a hunchback.

They escorted me. Mr. Jeong carried a present box. A one-eyed
servant was from a good family.

A lame man, a clever man, a servant, and my uncle followed
me to the wedding hall.

A saddle was placed on a cow. I sat on the cow softly and it
moved slowly.

I went proudly to my bride's house, wearing a helmet, a belt,
and silky clothes for wedding.

She and I bowed to each other and drank in the wedding hall.

I entered her room and had a snack. I waited for the sunset.

With the sunset, the dinner was brought in.

갓은 반찬에 저녁밥을 든든히 먹은 후에
 가만히 앉았을 제, 아따, 우리집 마누라 될 신부가 들오는다,⁽⁶⁸⁸⁾
 옆눈질해 살펴보니 화기⁽⁶⁸⁹⁾가 똥똥 뜨고, 안광⁽⁶⁹⁰⁾이 영롱터라.
 상하를 한번 훑어보니, 머리에는 화관⁽⁶⁹¹⁾이요, 몸에는 원삼⁽⁶⁹²⁾이다.
 처삼촌댁 처남의댁⁽⁶⁹³⁾이 신부를 옹위⁽⁶⁹⁴⁾하여,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드랑⁽⁶⁹⁵⁾ 잡고 인도하여 방으로 들어와,
 병풍 뒤에다 앉혀놓고 내⁽⁶⁹⁶⁾ 나가듯 다 나가고
 신부 혼자 앉았기에, 곰곰히 생각허니
 첫날밤에 신부 손을 잡으면 공방수⁽⁶⁹⁷⁾가 든다기로,
 놀래잖게 가만가만 들어가, 화관 원삼을 훨훨 벗겨 높은 데 걸어놓고,
 저고리 치마 적삼 벗겨 병풍 위에 걸어놓고,
 놀래잖게 안고 누워 촛불을 끄랴할 제,
 방포행군⁽⁶⁹⁸⁾ 고각⁽⁶⁹⁹⁾ 함성⁽⁷⁰⁰⁾ 담은 방문을 떼뜨리고,⁽⁷⁰¹⁾
 저기 있는 저 군사가 우루루루루 달려들어 상투 잡고 추켜들며 앞
 어뺨⁽⁷⁰²⁾을 후닥딱.
 ‘이 네기를 모를 놈⁽⁷⁰³⁾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혼미정신⁽⁷⁰⁴⁾ 황겁⁽⁷⁰⁵⁾
 중에 붙들려 나왔으니,
 이런 기막히고, 숨 막히고, 오사,⁽⁷⁰⁶⁾ 육사,⁽⁷⁰⁷⁾ 급살⁽⁷⁰⁸⁾ 맞고, 천살⁽⁷⁰⁹⁾
 맞을 놈의 설움이
 어디가 또 있드란 말이나?”

There were a lot of side dishes, so I ate a lot.
While I was sitting quietly, my bride entered the room.
I took a side glance at her. I felt warmth from her. Her eyes were brilliant.
I took a look at her entire body. She wore a gorgeous wedding hat and a ceremonial attire.
Her brothers' wives escorted her on the left and right.
'Let's go quickly.' They held her arms and helped her into the room.
They placed her behind a folding screen and left quietly.
The bride sat there alone. I pondered for a moment.
It is said that if you touch your bride's hands at the wedding night, she will be fated to be a widow.
I approached her slowly for fear of scaring her. I took off her wedding hat and attire and hung them in a high place.
I took off her jacket and skirt, and put them on the folding screen.
I slowly hugged her and tried to blow out the candle.
The closed door was torn apart by the sounds of marching artillery, drums, trumpets, and shouting.
The soldier over there ran at me, grabbed my topknot, pulled me up, and hit me by the cheek.
'You villain! Let's go to war in Chibi(赤壁).' I was bewildered, forced to come here in a hurry.
I was stunned and suffocating. My sorrow should suffer from an unfair, miserable, and tragic death.
Why do we have such fate?"

19. (군사 호기) 한 군사가 나서서 우는 군사를 탓하며, 큰
공을 이루어 돌아가자고 호기를 부린다.

[아니레] 이렇듯 야단혈 제 한 군사 나오는다,
키는 자그만허고,⁷¹⁰⁾ 수염은 우뭇가사리⁷¹¹⁾ 같고,
콧구녕⁷¹²⁾은 홍합 속처럼 생긴 놈이
조그마헌 착도⁷¹³⁾ 하나를 들고, 제법 큰 소리를 허고 나오든 것이었다.
[중중모레] “이놈 저놈, 다 듣거라. 네 이 우는 놈 줌⁷¹⁴⁾일다.
위국자는 불고가⁷¹⁵⁾라 옛 글에도 일렀으니,
남아하필원처자리오?⁷¹⁶⁾ 막향강촌에 노장년허소.⁷¹⁷⁾
우리 몸이 군사 되어 전장에 나왔다가,
공명⁷¹⁸⁾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⁷¹⁹⁾ 돌아가면 부끄럽지 아니허랴?
요 내 심중⁷²⁰⁾ 평생 소원 요하⁷²¹⁾ 삼척⁷²²⁾ 드는 칼로 오한⁷²³⁾ 양
진⁷²⁴⁾의 장수 머리를 한 칼로 땡기령⁷²⁵⁾ 베어 들고,
변창휘마⁷²⁶⁾ 충돌허여, 승전고⁷²⁷⁾ 올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 처자 권술⁷²⁸⁾ 원근 친척⁷²⁹⁾ 아잡⁷³⁰⁾ 삼촌 반기⁷³¹⁾ 만나
보거드면,⁷³²⁾ 그 아니 질거우랴?⁷³³⁾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제발덕분에⁷³⁴⁾ 우지 마라.”
[아니레] 이렇듯 호령혈 제, 한 편에서는 싸움타령⁷³⁵⁾을 허고, 또 한
편에서는,

19. (A Soldier Plays the Hero.) A soldier rebukes crying soldiers. He acts like a hero, proposing to go back home after performing a meritorious deed.

[Aniri] While the soldiers fuss as said above, another moves forward.

He is small and has a long sharp beard.

His nostrils look like the inside of a mussel.

He holds a small sword. He speaks with a loud voice as he steps forward.

[Jungjungmori] "Listen up, everyone. If you cry, you are narrow-minded.

There is a saying that a patriot cannot take care of his family. How can you miss your wives and children? You all, forget about your home.

We became soldiers and were taken to this battleground.

Wouldn't it be a disgrace to go back home without a meritorious deed?

It is my long time wish to cut off the heads of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with one move of my long sword.

I wish to go back home on a horse, wielding my spear proudly and hitting the victory drum.

Wouldn't it be a pleasure to meet parents, brothers, sisters, wife, children, distant and close relatives, and uncles.

Don't cry. Don't weep. Please don't cry."

[Aniri] While the soldier reproaches others, some soldiers sing a war song.

20. (오작남비)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니, 조조가 취흥에 겨워 시를 읊는데, 장수 유복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가 죽임을 당한다.

[진양조] 떴다, 보아라.

월명심야간의⁷³⁶⁾ 저 까마귀 남천⁷³⁷⁾에서 공중으로 둥실 높이 떠서,
‘깍 깍’ 울고 가니,

조조가 듣더니 묻는 말이, “남천에 까마귀 무슨 연유⁷³⁸⁾로 울꼬?”
좌우 듣고 대답하되, “의심컨대 저 까마귀 밝은 달 새벽됨에 남천에
떠서 우나 보이다.”

[아니리] 조조 듣고 취흥⁷³⁹⁾이 도도하여 글 지어 읊었으되,

[시창] “월명성희에 오작이 남비허니,

요수삼잡에 무지가의로다.”⁷⁴⁰⁾

[아니리] 제장 중 유복⁷⁴¹⁾이 여짜오되,

“월명성희 오작이 남비는 임전시⁷⁴²⁾에 불길조⁷⁴³⁾로소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일삼오칠 간 데 없고, 이사육팔이 죽는단 말이
냐?”⁷⁴⁴⁾

요설⁷⁴⁵⁾이라 집탈⁷⁴⁶⁾허고 취중에 살해허니, 근들⁷⁴⁷⁾ 아니 붙쌍허리.

21. (조조 장수 분발) 조조가 장수들을 지휘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중중모레] 이 때 수군도독⁷⁴⁸⁾ 모개⁷⁴⁹⁾ 우금⁷⁵⁰⁾이요,

20. (A Crow and a Magpie Fly.) A crow cries as it flies by. Cao Cao(曹操) recites a poem, heated by wine. Liu Fu(劉馥), a general, gets murdered after saying that a crow is an ominous sign.

[Jinyangjo] Lo and behold!

When the moon is bright in the deep night, a crow cries high in the south sky and flies away.

Cao Cao(曹操) asks, “What made the crow cry in the south sky?” They answer, “It appears it cries in the south sky because the moon is bright and daybreak is coming.”

[Aniri] Cao Cao(曹操) writes and recites a poem, ela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Poetic Model] “Crows and magpies fly to the south while the moon is bright and stars are sparse.

They turn around a tree three times, but there is no branch to sit on.”

[Aniri] Liu Fu(劉馥), a general, asks,

“The bright moon, sparse stars, and crows and magpies flying to the south are an ominous sign ahead of a battle.”

Cao Cao(曹操) is infuriated. “How can I lose the war when I am stronger than my enemy?”

Cao Cao(曹操) murders Liu Fu(劉馥) while drunk for speaking the wicked words. How pathetic he is!

21. (Cao Cao's(曹操) Officers Move.) Cao Cao(曹操) commands his officers, preparing to fight.

[Jungjungmori] Meanwhile,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charge of Cao Cao's(曹操) navy.

연쇄전선 필쇄허고⁷⁵¹) 즉일⁷⁵²) 진군⁷⁵³) 재촉혈 제,
 조조 누선⁷⁵⁴)에 높이 올라 수록제장⁷⁵⁵) 오색기호⁷⁵⁶)를 차례로 분
 발⁷⁵⁷)혈 제,
 수진⁷⁵⁸)의 중협총⁷⁵⁹) 모개 우금이요,
 전협총⁷⁶⁰) 장합⁷⁶¹)이며, 좌협총⁷⁶²) 문빙⁷⁶³)이요,
 우협총⁷⁶⁴) 여통⁷⁶⁵)이며, 후협총⁷⁶⁶) 여진⁷⁶⁷)이요,
 수진⁷⁶⁸) 전사과⁷⁶⁹) 서황⁷⁷⁰)이며, 좌사과⁷⁷¹) 악진⁷⁷²)이요,
 우사과⁷⁷³) 하후연⁷⁷⁴)이며, 후사과⁷⁷⁵) 이진⁷⁷⁶)이요,
 수록웅접사⁷⁷⁷) 하후돈⁷⁷⁸) 조인⁷⁷⁹)이며,
 좌우 호위⁷⁸⁰) 허저⁷⁸¹) 장요⁷⁸²)라. 수진에 발령⁷⁸³)허여
 각응성필⁷⁸⁴)에 전선⁷⁸⁵) 풍기업⁷⁸⁶)으로 연선⁷⁸⁷)하여 평지같이 왕래
 하니,
 조조 장대⁷⁸⁸)에 앉어 크게 기뻐하는구나.
[아니레] 정욱⁷⁸⁹) 순욱⁷⁹⁰)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쳐올진대⁷⁹¹) 어찌
 회피허오리까?”
 조조 듣고 대답허되, “내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거드면⁷⁹²) 저의 진이 탈 것이니 반드시 승첩⁷⁹³)할 묘법
 이로다.”
 수록군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혈 제,

They tied the warships together, ready to move the troops.
 Cao Cao(曹操) is high on an observatory ship, sending signals
 with a five-colored flag to his army and navy officers.
 Mao Jie(毛玠) and Yu Jin(于禁) are in the middle of the navy
 formation,
 Zhang He(張郃) in the front, Wen Pin(文聘) on the left,
 Lu Tong(呂通) on the right, and Lu Qian(呂虔) at the back,
 Xu Huang(徐晃) in the front of the troops, Le Jin(樂進) on the
 left,
 Xia Jiao Yuan(夏侯淵) on the right, and Li Dian(李典) at the
 back.
 Xia Jiao Dun(夏侯惇) and Cao Ren(曹仁) are communications
 officers.
 Xu Chu(許褚) and Zhang Liao(張遼) protect Cao Cao(曹操) on
 the left and right.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to the navy.
 The soldiers answer with loud voices, tie warships together, and
 walk on them like on the land.
 Cao Cao(曹操) is delighted, sitting on the commanding post.
[Aniri] Cheng Yu(程昱) and Xun Yu(荀彧) ask, “How can fend
 off their fire attack?”
 Cao Cao(曹操) answers, “My camp is in the north, and their
 camp is in the south.
 A fire attack will backfire on their camp, so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a victory without fail.”
 Cao Cao(曹操) prepares the navy and the army for a war.

22. (주유 탄식) 주유가 조조의 진중을 살펴 보며 동남풍이 불지 않음을 한탄한다.

[중모레] 이 때에 오나라 주도독⁷⁹⁴)은 조조 진세⁷⁹⁵)를 살펴보니, 광
풍⁷⁹⁶)이 홀기⁷⁹⁷)하여
조조 진중 중앙에서 황깃대⁷⁹⁸) 지끈⁷⁹⁹) 부러져 풍파강상⁸⁰⁰)에 둥실
떠나가고,
주유 진중 깃발은 바람결에 휘날리어 주유 면상⁸⁰¹)을 치고 가니, 주
유 할 일 깨닫고 허는 말이,
“화공⁸⁰²)혈 징조로되, 동남풍이 없으니 육파무계⁸⁰³)로다.”
한 소리 크게 지르고 토혈⁸⁰⁴) 기색⁸⁰⁵)이 가련쿠나.
병세 점점 짙어 늙고 일지⁸⁰⁶) 못혈 적에,
공명이 자청⁸⁰⁷)하여 주도독의 병세를 볼 제,
가만히 십육 자 글을 써 주거늘, 받아 보니 허였으되,
‘육파조병인댄 의용화공이요, 만사구비허나 흠동남풍이라.’⁸⁰⁸) 허였
거늘,
주유 보고 탄식허되, “바람은 천지의 조화오니 인력⁸⁰⁹)으로 어찌허오
리까?”
공명이 대답허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⁸¹⁰)
내 혈 일 다 헌 후에, 천의⁸¹¹)야 어찌 뉘 알리오?”

22. (Zhu Yu(朱瑜) Sighs.) Zhu Yu(朱瑜) laments over the absence of southeast wind, while gazing at Cao Cao's(曹操) camp.

[Jungmori] Meanwhile, Zhu Yu(朱瑜) of Wu(吳) Country examines Cao Cao's(曹操) camp. Suddenly, a strong wind blows.

A yellow flagpole in the middle of Cao Cao's(曹操) camp breaks off in the wind and floats away in the river.

A flag in the middle of Zhu Yu's(朱瑜) camp flutters in the wind and hits Zhu Yu's(朱瑜) face. Hitting upon an idea, Zhu Yu(朱瑜) says,

“That is a sign of a fire attack. Since there is no southeast wind, we cannot defeat the enemy.”

After shouting, he is about to throw up blood, which is pitiful. His illness gets worse, and he can't get up from his bed.

Kong Ming(孔明) voluntarily diagnoses Zhu Yu(朱瑜).

Kong Ming(孔明) gives him a note of sixteen letters. Zhu Yu(朱瑜) takes and reads it.

‘Only a fire attack can demolish Cao Cao's(曹操) troops. Everything is prepared except a southeast wind.’

Zhu Yu(朱瑜) sighs. “Heaven controls wind. How can a human do something about it?”

Kong Ming(孔明) answers, “A human makes a plan, and heaven makes it work.

We just do our best and then wait for the will of heaven.”

23. (공명 동남풍 기원)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한다.

[아니리] “내 일죽⁸¹² 신인⁸¹³을 만나

둔갑⁸¹⁴허는 술법⁸¹⁵을 배워 비바람을 능히 부를 줄 아오니,

내 이제 남병산⁸¹⁶에 올라가 칠성단⁸¹⁷ 높이 못고,⁸¹⁸

십일월 이십일 갑자에 동남풍을 빌어 도독의 군세⁸¹⁹를 도읍게 허오
리다.”

주유 듣고 기뻐하여 노숙을 불러 분부하고,

오백 정병⁸²⁰ 도부수⁸²¹를 내어주며, “너희들은 공명선생의 영을 기
다려라.”

[자진모리] 공명선생 거동 보소.

노숙과 의논 후에 동남풍 빌러 갈 제, 오백 도부수 앞세우고,

“일백이십 정군인⁸²²은 기를 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⁸²³허라!”

노숙과 같이 떠나 남병산 올라가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취해다가⁸²⁴ 삼층단⁸²⁵을 높이 쌓으니,

방원⁸²⁶은 이십사장⁸²⁷이요, 매 일층 고⁸²⁸ 삼척이니, 합고⁸²⁹가 구
척이라.

하 일층⁸³⁰ 이십팔수⁸³¹ 각색 기를 꽃았으며,

동방 칠면⁸³²의 청기⁸³³에는 각항저방심미기⁸³⁴로다.

교룡학호토호포⁸³⁵를 안검⁸³⁶하여 청룡을 그려 꽃고,

북방 칠면의 흑기⁸³⁷에는 두우여허위실벽⁸³⁸이라,

23. (Kong Ming(孔明) Prays for a Southeast Wind.)
Kong Ming(孔明) climbs Nanping(南屏) Mountain,
makes an altar, and prays for a southeast wind.

[Aniri] “I met a god before.

I learned from him how to transform myself, and how to bring rain and wind.

I will go up Nanping(南屏) Mountain and make an altar for the Great Bear.

I will assist your troops by creating a southeast wind on November 20th.”

Pleased, Zhu Yu(朱瑜) calls Lu Su(魯肅).

He gives him five hundred well-trained troops holding swords and axes. “You all will wait for Kong Ming’s(孔明) order.”

[Jajinmori] Behold Kong Ming(孔明)!

After talking with Lu Su(魯肅), he goes to pray for a southeast wind with the five hundred troops.

“One hundred twenty well-trained troops! Hold flags and wait for my order!”

He climbs Nanping(南屏) Mountain with Lu Su(魯肅).

Kong Ming(孔明) makes the soldiers build a three-layered altar with red earth from the southeast.

The altar is 72 meters wide, and each story of the altar is 0.9 meter high, total height is 2.7 meters.

There are 28 flags of diverse colors on the first floor.

Blue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east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east.

On the blue flags are the figures of a salamander, a dragon, a badger, a fox, a hare, a tiger, and a leopard.

Black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north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north.

해우복서연자유⁸³⁹⁾를 안검하여 북방에다가 뚜렷이 꽃고,
 서방 칠면의 백기⁸⁴⁰⁾에는 구루위묘필자삼⁸⁴¹⁾이라,
 구랑치계오후원⁸⁴²⁾을 안검하여 거백호지위⁸⁴³⁾허고,
 남방 칠면의 홍기⁸⁴⁴⁾에는 정귀유성장익진⁸⁴⁵⁾이라,
 안양장마녹사인⁸⁴⁶⁾으로 주작⁸⁴⁷⁾을 그려 꽃고,
 한가운데 황신기⁸⁴⁸⁾ 육십사괘⁸⁴⁹⁾를 응하여⁸⁵⁰⁾ 팔위⁸⁵¹⁾로 세웠는데,
 그 곁에 사명기⁸⁵²⁾ 붉은 바탕에 황금대자⁸⁵³⁾로 뚜렷이 새겼으며,
 ‘대한실 충무후 제갈량⁸⁵⁴⁾이라.’
 상 일층 한 사람은 속발관⁸⁵⁵⁾에다
 조라포⁸⁵⁶⁾를 입혀, 봉의⁸⁵⁷⁾ 박대⁸⁵⁸⁾와 주리⁸⁵⁹⁾ 방군⁸⁶⁰⁾으로 뚜렷이
 세워 두고,
 전좌⁸⁶¹⁾에 한 사람은 칠성탕관⁸⁶²⁾을 매어
 끝에 닭의 깃을 꽂아 풍신⁸⁶³⁾을 부르게 허고,
 전우⁸⁶⁴⁾에 한 사람은 칠성⁸⁶⁵⁾ 그린 기를 들고 바람의 소식을 표허
 게⁸⁶⁶⁾ 허고,
 후우⁸⁶⁷⁾에 한 사람은 향로⁸⁶⁸⁾ 들고,
 후좌⁸⁶⁹⁾에 한 사람은 보검⁸⁷⁰⁾ 들고,
 이십사인⁸⁷¹⁾ 보개⁸⁷²⁾ 정기⁸⁷³⁾ 주변⁸⁷⁴⁾ 조독⁸⁷⁵⁾을 붙잡혀 사면으로
 세워두고,
 용기운촉⁸⁷⁶⁾ 휘황⁸⁷⁷⁾헌디,
 채일⁸⁷⁸⁾ 장막⁸⁷⁹⁾ 높이 쳐 산수병풍⁸⁸⁰⁾ 돌렸네.

On the black flags are the figures of a mythical lion, a cow, a bat, a mouse, a swallow, a pig, and a wolf.

White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west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west.

On the white flags are the figures of a dog, a wolf, a pheasant, a chicken, a crow, a monkey, and a gibbon.

Red flags on the seven sides in the south represent seven constellations in the south.

On the red flags are the figures of a wild dog, a sheep, a deer, a horse, a snake, and an earthworm.

Yellow flags on the eight sides in the middle of the altar represent the eight directions.

Beside the yellow flags is the commanding flag of red color on which there are large golden letters.

‘Kong Ming(孔明) of Han(漢) Country.’

A man on the top floor ties up his hair and then puts on a hat. He wears a black silk robe, a large coat with squared sleeves, wide belt, and red shoes.

In the left front, a man carries a medicine pot symbolizing the Great Bear.

A chicken feather is attached to the end of the pot, invoking the wind god.

In the right front, a man carries a flag of the Great Bear to recognize the presence of a wind.

On the right side in the back, a man carries an incense burner.

ON the left side in the back, a man carries a ceremonial sword.

Twenty four men hold parasols, red flags, and black flags in the four directions.

A bright dragon flag rises up above the clouds.

A sunshade and a folding screen of landscape are placed high around the altar.

탑상⁸⁸¹) 앞에 제상⁸⁸²) 놓고, 어동육서⁸⁸³) 흥동백서⁸⁸⁴) 방위 찾아서
 차려 놓고,
 노숙께 당부허되, “자경⁸⁸⁵)은 군중에 내려가 도독의 기세⁸⁸⁶)를 도
 우되,
 만일에 비는 바가 응함이 없드래도 괴이함을 두지 말라.”
 약속을 한 연후 노숙을 보낸 후에, 단 지킨 장사들께 차례로 하령⁸⁸⁷)
 허되,
 “불허천리방위⁸⁸⁸)허고, 불허고두접이⁸⁸⁹)하며,
 불허실구난언⁸⁹⁰)허고, 불허대경소괴⁸⁹¹)하나니,
 만일에 위령자⁸⁹²)는 군법으로 참⁸⁹³)허리라!”
 이렇듯 분부헌 후 다시 목욕재계⁸⁹⁴)허고,
 전조⁸⁹⁵) 단발⁸⁹⁶) 신평도복⁸⁹⁷) 단하에 꿇어 앉어
 양천암축⁸⁹⁸)혈 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두런두런.

24. (공명 하산) 공명이 빌기를 마친 후 하산하여 조자룡과 함께 떠나간다.

[아니리] 이렇듯 속으로 암축을 허였으니,
 뉘 능히 그 축문을 알 수 있으리오마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정렬 선생님의 전통으로 제게 전해 주셨으되,
 그 축문의 사연인즉, “유세차 건안 십이년 십일월 을사 삭 십구일 계해
 한중실 유비 근건관 제갈량 감소고우.

A ritual table is put on the altar. Fish, meat, red fruit, and white fruit are placed in proper directions on the ritual table.

Kong Ming(孔明) asks Lu Su(魯肅), "Please go to the camp and boost Zhu Yu's(朱瑜) morale.

Even if heaven doesn't answer my prayer, don't be puzzled." After making the promise, Kong Ming(孔明) sends Zhu Yu(朱瑜) off. He gives orders to the soldiers guarding the altar.

"Don't leave your post of your own will. Don't even whisper to each other.

Don't speak thoughtless words. You must not be surprised at bizarre things.

Anybody disobeying this order will be put to death pursuant to the military law."

After issuing the order, he takes a bath.

He cuts his fingernails and hair. He puts on a coat and kneels down below the altar.

He prays to heaven in secret. He chants a prayer to himself in his mind so that nobody can hear him.

24. (Kong Ming(孔明) Climbs Down the Mountain.) **Kong Ming(孔明) climbs down the mountain after** **the prayer, and leaves with Zhao Zi Long(趙子龍).**

[Aniri] Kong Ming(孔明) chants the prayer only to himself.

Nobody can know the content of his prayer.

But my Pansori teacher delivered the content of the prayer to me under Jeong Jeong-ryeol's tradition.

The content goes as follows: "I hereby begin on November 19th. I am Kong Ming(孔明) working for Liu Bei(劉備),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of Han(漢) Country. I pray to you.

천지개정 일월성신 화덕진군 산신후토 감차미성
 난신적자 조맹덕 행권용사 찬역도모
 의용화공 일제소탕 한실회복
 차제 동남풍 삼일간 허용지지 천만복축 상사 상 향.”⁸⁹⁹⁾
 이렇듯 빌기를 다 한 후에, 장중⁹⁰⁰⁾에 잠깐 쉬어 군사들을 번갈아
 밥 먹이고,
 공명이 단에 올라 풍세⁹⁰¹⁾를 가만히 살피더니마는,
 [중모레]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학창의⁹⁰²⁾를 거듬걸어⁹⁰³⁾ 안고 장막 밖으로 선뜻 나와 남병산 내려
 갈 제,
 강촌⁹⁰⁴⁾은 요락⁹⁰⁵⁾허고 샛별⁹⁰⁶⁾은 등실 등실 지는 달 비졌는디,⁹⁰⁷⁾
 오강변⁹⁰⁸⁾ 내려가니 자룡이 급히 배에 내려 읊⁹⁰⁹⁾허고 여짜오되,
 “선생은 위방진중⁹¹⁰⁾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기허여⁹¹¹⁾ 자룡 손길⁹¹²⁾ 덥석 잡더니만,
 “현주⁹¹³⁾ 기체⁹¹⁴⁾ 어떠허옵시며, 제장군졸⁹¹⁵⁾이 무사하오?”
 “예. 다 무고⁹¹⁶⁾하옵니다.” 함께 배에 선뜻 올라,
 일편풍석⁹¹⁷⁾을 높이 달고 도용도용⁹¹⁸⁾ 떠나간다.

25. (조자룡 탄궁) 주유가 공명을 죽이려고 장군을 보내니, 조자룡이 활을 쏘아 격퇴한다.

[아니레] 이 때 주유 일만 군관⁹¹⁹⁾을 일제히 불러들여,

The sun, the moon, and stars were created after heaven. Gods of fire and mountain, please listen to my little prayer.

Being a wicked subject, Cao Cao(曹操) uses the power for his own benefits and plots a rebellion.

I intend to defeat his army with fire and restore the royal authority of Han(漢) Dynasty.

I earnestly wish a southeast wind to blow for three days. Please take my offerings.”

After finishing the prayer, he takes a brief rest in the tent and has his soldiers eat food by turns.

He climbs up the altar and watches for a wind.

[Jungmori] Kong Ming(孔明) unties his hair and takes his shoes off.

He picks up his coat, goes out of the tent, and climbs down Nanping(南屏) Mountain.

A river village is visible in a distance. The morning star passes near the setting moon.

He goes down to Wu(吳) River. Zhao Zi Long(趙子龍) gets off a boat fast and shows respect to Kong Ming(孔明).

“Sir, are you okay in this dangerous enemy country?”

Glad, Kong Ming(孔明) grabs Zhao Zi Long’s(趙子龍) hands.

“How is His Majesty? How are the officers and soldiers?”

“Yes, they are all fine.” They quickly get on the boat.

They raise a sail high and leave, and their boat rocks gently.

25. (Zhao Zi Long(趙子龍) Shoots an Arrow.) Zhu Yu(朱瑜) sends officers to kill Kong Ming(孔明). Zhao Zi Long(趙子龍) repels them by shooting an arrow.

[Aniri] Meanwhile, Zhu Yu(朱瑜) calls all the officers.

장중⁹²⁰)에 모아 얹어 동남풍이 일어나면 적벽강 불지를 의논을 허라
힐 제,

이 날 십야⁹²¹)에 천기⁹²²)는 명랑하고, 적은 바람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주유 좌우다려⁹²³) 왈, “공명이 날 속였구나. 융동⁹²⁴) 때 동남풍이 그
어찌 있을쏜가?”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으로는 속일 사람이 아니오니, 잠깐 기다려
보사이다.”⁹²⁵)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는고?”

“공명을 잠깐 보오니, 재조⁹²⁶)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⁹²⁷)라.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어찌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일 리가 있사오
리까?”

[자진모래] 말이 맞지⁹²⁸) 못하여, 삼경시분⁹²⁹) 홀풍성⁹³⁰) 기각⁹³¹)이
움죽.⁹³²)

주유 바빠 장대⁹³³)에 툭툭 나서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⁹³⁴) 주작⁹³⁵) 양 기각이 백호⁹³⁶) 현무기⁹³⁷)를 응하여⁹³⁸) 서북으
로 펄펄,

동남풍이 분명쿠나.

주유 놀래 탄식하되, “이 사람의 탈조화⁹³⁹)는 귀신도 난측⁹⁴⁰)이라.
만일 오래 두었다는 동오⁹⁴¹)의 화근⁹⁴²)이로다.

내 이 늙을 일찍 죽여 후환⁹⁴³)을 면허리라.”

서성⁹⁴⁴) 정봉⁹⁴⁵) 양 장수 급히 불러 분부하되,

“너희 이제 남병산을 나는 듯이 올라가서,

공명을 만나거든 장단⁹⁴⁶) 묻지 말고 대칼에⁹⁴⁷) 목을 싹⁹⁴⁸) 베어
오라!”

두 장수 청령⁹⁴⁹) 후에 서성은 일백 도부수⁹⁵⁰) 거느리고 배를 놓아
수로⁹⁵¹)로 쫓고,

They sit down in a tent. They discuss burning Cao Cao's(曹操) warships on the Chibi(赤壁) River once a southeast wind blows. It is midnight, and the weather is good. Even a soft wind does not rise.

Zhu Yu(朱瑜) says to officers, "Kong Ming(孔明) lied to me. How can a southeast wind blow in winter?"

Lu Su(魯肅) answers "I think he is not the kind of person to fool us. Let's give him a minute."

"How do you know he would not deceive us?"

"I briefly watched him. He is a talented hero and virtuous man. How could a heroic and virtuous man deceive us on such a grave matter?"

[Jajinmori] Before Lu Su(魯肅) finishes his sentence, the sound of wind is heard around midnight, and a long flag flutters. Zhu Yu(朱瑜) moves fast to the commanding post and looks at the flag.

Facing the flag of a white tiger and the flag of a turtle, the flag of a blue dragon and the flag of a red phoenix flap to the northwest.

Clearly, a southeast wind is blowing.

Zhu Yu(朱瑜) is surprised. "Kong Ming(孔明) can work out a miracle, so even a god can't guess what he can do.

If we leave him alone, he will be a threat to Wu(吳) Country. I will kill him and get rid of future trouble in advance."

Zhu Yu(朱瑜) calls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and gives an order.

"Go to Nanping(南屏) Mountain quickly.

If you come across Kong Ming(孔明), say nothing to him, just cut his head off with a slash, and bring his head here!"

The two officers follow his order. Xu Sheng(徐盛) chases Kong Ming(孔明) on a boat with one hundred troops armed with swords and axes.

정봉은 일백 궁노수⁹⁵²⁾ 거느리고 말을 몰아 남병산에 올라가니,
 정기폐일⁹⁵³⁾허고, 검극⁹⁵⁴⁾이 창일⁹⁵⁵⁾허여 비사주석⁹⁵⁶⁾이 펼 펼.
 화극주아삼두⁹⁵⁷⁾ 백일⁹⁵⁸⁾이 냉랭헌디,⁹⁵⁹⁾ 크게 부는 동남풍에 깃대
 지끈 부러져,
 끈 떨어진 채일⁹⁶⁰⁾ 장막⁹⁶¹⁾ 벽공⁹⁶²⁾에 너울너울.
 공명은 간 데 없고, 기 잡은 군사들만 바람결을 못 이기어 흔들흔들.
 “이 놈, 군사야!” “에이!”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단하
 로⁹⁶³⁾ 가더이다.”
 두 장수 이 말 듣고 오강변 내려가니,
 원근 창과상⁹⁶⁴⁾에 물결은 흥용⁹⁶⁵⁾헌디,
 공명의 내거종적⁹⁶⁶⁾ 묘무기철⁹⁶⁷⁾이라.
 수줄⁹⁶⁸⁾을 호통허되, “공명을 보았느냐?”
 수줄이 여짜오되, “작일⁹⁶⁹⁾ 일모시⁹⁷⁰⁾ 강안⁹⁷¹⁾에 매인 배 양양강
 수⁹⁷²⁾ 맑은 물 고기 잡든 어선인가,
 동강 칠리탄⁹⁷³⁾ 엄자룽⁹⁷⁴⁾ 뉘싯뻬가,
 십리장강벽과상⁹⁷⁵⁾의 왕래허든 거렛배,⁹⁷⁶⁾
 오희상연월야에 범상국 가던 뱃가⁹⁷⁷⁾ 만단⁹⁷⁸⁾ 의심을 허였더니,
 뜻밖에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은 채 창황분주⁹⁷⁹⁾ 내려와,
 그 배에 어떤 장수, 한 번 보고 두 번 보기가 엄숙한 일원⁹⁸⁰⁾ 대장과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입만 대고 쫓긋쫓긋, 고개만 서로 까딱까딱.
 그 배를 칩떠타고⁹⁸¹⁾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⁹⁸²⁾

Ding Feng(丁奉) climbs up Nanping(南屏) Mountain on a horse
 with one hundred troops armed with bows and arrows.
 Flags block the sunshine. Swords and spears are many, sand
 flies along the wind, and stones roll fast.
 The sun is strong in the clear sky, but it is cold. The southeast
 wind knocks down flagpoles.
 Guide ropes break, and tents flutter in the blue sky.
 Kong Ming(孔明) has disappeared. Soldiers holding flags are
 swayed by the wind.
 “Hey soldier!” “Yes!” “Where did Kong Ming(孔明) go?”
 The soldier responds, “After creating the wind, he loosened his
 hair, took off his shoes, and went below the altar.”
 With the answer, the two officers climb down to the Wu(吳)
 River.
 The strong waves rise up in the close and distant blue river.
 Not even a trace of Kong Ming(孔明) can be seen.
 The two officers yell at a naval man. “Have you seen Kong
 Ming(孔明)?”
 The naval man answers, “At sunset yesterday I saw what
 appeared to be a fishing boat on the bank of the river.
 It might have been Yan Zi Ling’s(嚴子陵) fishing boat.
 It might have been a traveling boat on the Yangzi(揚子) River.
 I took it to be Fan Li’s(范蠡) leisure boat floating on lakes in
 the foggy moonlight.
 Unexpectedly, a man came down to the boat with untied hair
 and bare feet.
 There was a warrior on the boat. He looked majestic like a
 general, and they whispered to each other.
 They moved their mouths and nodded to each other.
 They got on the boat and went to the upper stream.” “Yes! He
 must have been Kong Ming(孔明).”

날랜 배 급히 불러 사공다려 분부하되, “이 놈, 사공아!” “예이.”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탄 배를 잡어야지,
 만일 잡지 못하라는 이 칼로 네 목을 탕기령 베어 이 물에 풍덩 디리
 치면,⁹⁸³⁾
 네 백골⁹⁸⁴⁾을 뉘 찾으랴!”
 사공이 겁을 내어, “닷을 감고 노를 저어라.
 치다리⁹⁸⁵⁾ 잡고 돛을 달아라. 아두줄⁹⁸⁶⁾ 다리고⁹⁸⁷⁾ 따리⁹⁸⁸⁾를 틀
 어라.
 위겨라.⁹⁸⁹⁾ 저어라.” 쫓아가며 상류를 바라보니,
 일범 풍선두상⁹⁹⁰⁾에 흰 부채 뒤적뒤적. 공명일시⁹⁹¹⁾ 분명쿠나.
 서성이 크게 불러,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배 머물러 이 내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하하’ 대소⁹⁹²⁾하며, “그대는 오지 말고 도둑 진중으로 돌아가
 호호용병⁹⁹³⁾허라!”
 서성이 못 들은 체 배를 놓아 쫓아오니, 자룽이 분을 내어 선두에
 우뚝 서,
 “네 이 간사헌 서성 정봉아! 상산 조자룡⁹⁹⁴⁾을 아느냐, 모르느냐?
 장판교 큰 싸움에 조맹덕의 팔십만 병 팔공산에 초목같이⁹⁹⁵⁾ 일전⁹⁹⁶⁾
 에 다 쳤거늘,
 조그마헌 일엽선⁹⁹⁷⁾을 내 어찌 저어허랴?⁹⁹⁸⁾
 우리 선생 높은 재조 너의 나라 들어가 성공허고 오시는데,
 간교⁹⁹⁹⁾한 주도독은 무삼¹⁰⁰⁰⁾ 일로 해허려고¹⁰⁰¹⁾ 너희를 급히 보내
 더냐?
 너를 꼭 쏘아 죽일 테나, 양국 화친을 생각허여 죽이든 앓거니와 내의
 수범이나 보고 가라.”

The two officers get a fast-moving boat and give an order to a boatman. "Hey boatman!" "Yes."

"Pull the oars fast and catch up with Kong Ming's(孔明) boat. If you don't, I'll cut your head off with this sword, and throw it into this river.

Nobody will ever find your bones!"

The boatman is scared. "Pull up the anchor and pull the oar. Hold the rudder and unfurl the sail. Tighten the string of the mast and turn the tiller.

Yo-ho! Pull the oar." They move to the upper stream.

They spot a man stand on the bow of a sailing boat with a white fan on his hand. He must be Kong Ming(孔明).

Xu Sheng(徐盛) calls him loudly. "Hi there, Mr. Kong Ming(孔明)! Stay where you are.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Kong Ming(孔明) laughs. "Don't follow me. Go back to your country and become a good officer!"

Xu Sheng(徐盛) chases Kong Ming(孔明), pretending he did not hear anything. Infuriated, Zhao Zi Long(趙子龍) stands up on the bow.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You wicked boys! Have you heard of Zhao Zi Long(趙子龍)?

I cut the heads off of Cao Cao's(曹操) 800,000 troops in the Changban(長坂) Bridge Battle like cutting the trees and grasses of Bagong(八公) Mountain.

Why would I be scared of a small boat?

Having a mysterious power, Kong Ming(孔明) did a good thing to your country.

Zhu Yu(朱瑜) is wicked to send you here quickly to do harm to him.

I want to kill you with my arrow. But I won't kill you because of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Just watch my shooting skill."

가는 배 돛 지고,¹⁰⁰²⁾ 오는 배 바라보니,
 백 보¹⁰⁰³⁾ 안애가 든 듯 마 듯.¹⁰⁰⁴⁾ 철궁¹⁰⁰⁵⁾에 왜전¹⁰⁰⁶⁾을 먹여,¹⁰⁰⁷⁾
 비정비팔¹⁰⁰⁸⁾허고, 흥허복실¹⁰⁰⁹⁾하고,
 줌통¹⁰¹⁰⁾이 터지거라 하삼지¹⁰¹¹⁾ 누르고,
 대투¹⁰¹²⁾를 사리고, 귀밑 아씩,¹⁰¹³⁾ 궁현¹⁰¹⁴⁾을 따르르 딱 붙여 깎지
 손¹⁰¹⁵⁾을 떼뜨리니,¹⁰¹⁶⁾
 번개같이 빠른 살이 수루루루루 떠들어가, 서성 탄 배 돛대 맞아
 와직끈 물에 가 풍 꺼꾸러져, 오던 배 물결에 가로잡쳐¹⁰¹⁷⁾ 뱃머리
 움쑥,
 빙빙빙빙빙 뒤둥그러져,¹⁰¹⁸⁾ 위리령 출렁.¹⁰¹⁹⁾
 [중모레] 정봉이 대경¹⁰²⁰⁾허여, 서성을 크게 불러,
 “제갈량의 신기¹⁰²¹⁾ 묘술,¹⁰²²⁾ 자룡의 만부대적¹⁰²³⁾ 게 뉘랴¹⁰²⁴⁾ 당
 허리오?”
 하릴없이¹⁰²⁵⁾ 돌아간다.

26. (주유와 공명 제장 분발) 주유는 적벽강 불지를 차비를 하고, 공명은 여러 장수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아니레] 본진¹⁰²⁶⁾으로 돌아가 주도독께 회보¹⁰²⁷⁾허니,
 주유 듣고 대경허여, “음, 그 사람의 그 지략¹⁰²⁸⁾에 내 침식¹⁰²⁹⁾이
 불안쿠나.”
 노숙이 여짜오되, “조조를 먼저 파헌¹⁰³⁰⁾ 후에 다시 한¹⁰³¹⁾을 도모허
 사이다.”¹⁰³²⁾

Zhao Zi Long(趙子龍) faces the pursuing boat with his back to
 the mast of his boat,
 The pursuing boat is about one hundred steps away. He loads
 a strong bow with a short arrow.
 His feet take positions. He lets air out of his lungs and strains
 his belly muscles.
 He presses the middle of the bow hard with his lower three
 fingers.
 He touches the back of his head and pulls the arrow to his ear.
 He releases his thumb.
 The arrow flies at lightning speed, hitting the mast of Xu
 Sheng's(徐盛) boat.
 The mast falls upside down into the water. The waves clash with
 the bow.
 The boat turns around. The waves move around the boat.
[Jungmori] Petrified, Ding Feng(丁奉) calls Xu Sheng(徐盛).
 “Who could defy Kong Ming's(孔明) divine intelligence and Zhao
 Zi Long's(趙子龍) strength?”
 They can't help but go back.

**26.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Prepare for
 War.) Zhu Yu(朱瑜) prepares to burn Cao Cao's(曹
 操) warships on the Chibi(赤壁) River, and Kong
 Ming(孔明) assigns tasks to his officers.**

[Aniri]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return to their camp
 and report to Zhu Yu(朱瑜).
 Zhu Yu(朱瑜) is infuriated. “He is so intelligent that I don't feel
 safe in my daily life.”
 Lu Su(魯肅) says, “Let's destroy Han(漢) Country after we dispell
 Cao Cao(曹操).”

그 말이 옳다하고 적벽강 불지를 차비¹⁰³³)를 허는디,
 [중모레] 각각 전선 삼백 척, 화선¹⁰³⁴) 이십 척 불 잘 붙는 갈섶,¹⁰³⁵)
 화약 염초¹⁰³⁶) 많이 실어 수전면¹⁰³⁷)에 띄워두고,
 감녕¹⁰³⁸) 불러 분부허되, “그대는 군사 삼천 병을 거느리고 오림¹⁰³⁹)
 을 취하여¹⁰⁴⁰) 조조 양초¹⁰⁴¹) 불 지르라!”
 태사자¹⁰⁴²) 불러 분부허되, 그대는 군사 삼천 병을 거느리고 이
 룡¹⁰⁴³)을 취하여, 조조 진을 엄살¹⁰⁴⁴)허라!”
 여몽¹⁰⁴⁵) 불러 분부허되, “그대는 군사 삼천 병을 거느리고, 감녕을
 접응¹⁰⁴⁶)하라!”
 이렇듯 분발¹⁰⁴⁷)헐 제, 그 때여 공명선생 하구로 돌아와
 현주를 모시고 제장을 분발헐 제, 자룽 불러 분부허되,
 “그대는 군사 삼천 병을 거느리고, 오림을 취하여 수목을 의지허고
 가만히 매복¹⁰⁴⁸)허었다가,
 조조 그리 갈 것이니 패군기¹⁰⁴⁹)를 탈취허라!”
 익덕 불러 분부허되, “그대도 군사 삼천 병을 거느리고 이룽을 취하
 되,
 내일 비 온 후에 조조 그리 갈 것이니, 패군기를 탈취허라!”
 “이번 싸움에 다는 못 잡어도, 익덕의 공이 적지 아니하렷다.”
 “미방¹⁰⁵⁰) 미축¹⁰⁵¹) 유봉¹⁰⁵²) 삼장¹⁰⁵³) 등은
 각각 전선 타고 적벽강 멀리 뗏다 조조의 패군기를 탈취허라!”

Zhu Yu(朱瑜) agrees and prepares to burn Cao Cao's(曹操) warships on the Chibi(赤壁) River.

[Jungmori] In the front are three hundred warships and twenty fire-ships loaded with flammable materials such as gunpowder and reeds.

Zhu Yu(朱瑜) gives an order to Gan Ning(甘寧). “Lead three thousand troops, secure Wulin(烏林) Forest, and burn the food for Cao Cao's(曹操) troops and horses!”

He says to Tai Shi Ci(太史慈), “Lead three thousand troops, secure Yiling(彝陵), surround Cao Cao's(曹操) camp, and kill them all!”

He speaks to Lu Meng(呂蒙), “Lead three thousand troops and meet Gan Ning(甘寧)!”

He issues orders to his officers as said above. Meanwhile, Kong Ming(孔明) is back in Xiakou(夏口).

While Liu Bei(劉備) is looking on, he assigns tasks to his officers. He gives an order to Zhao Zi Long(趙子龍).

“Lead three thousand troops, secure Wulin(烏林) Forest, and hide in ambush behind trees and grasses.

Cao Cao's(曹操) soldiers will pass by. Snatch his white flag from them!”

He speaks to Zhang Fei(張飛), “Lead three thousand troops and take over Yiling(彝陵).

Cao Cao's(曹操) troops will pass by after the rain tomorrow. Deprive them of his white flag!”

“We can't kill all of them in this war. But Fei's(張飛) feat will not be forgotten.”

“Mi Fang(糜芳), Mi Zhu(糜竺), and Liu Feng(劉封)!

Get on warships on the Chibi(赤壁) River, stay away from Cao Cao(曹操), and then deprive him of his white flag!”

27. (관운장 항의) 관운장이 자신에게는 아무 임무도 맡기지 않자 화를 내며 그 이유를 묻는다.

[아니리] 현주전¹⁰⁵⁴) 여짜오되, “현주께서는 번구¹⁰⁵⁵)에 둔병¹⁰⁵⁶)히
였다가,

오늘밤 삼경야¹⁰⁵⁷)에 주란¹⁰⁵⁸)의 적벽대전을 구경하소서.”

그 때에 운장이 밖에 섰으되 종시¹⁰⁵⁹) 분부가 없거늘,

운장이 노기¹⁰⁶⁰) 충천¹⁰⁶¹)하여 들어오는데,

[엇모래]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와.

얼굴은 무른¹⁰⁶²) 대초빛¹⁰⁶³) 같고, 봉의 눈에 누에 눈썹,¹⁰⁶⁴) 삼각
수¹⁰⁶⁵) 거사리고,¹⁰⁶⁶)

황금갑옷 봉투구¹⁰⁶⁷) 청룡도¹⁰⁶⁸) 빗겨¹⁰⁶⁹) 들고,

뚜덕뚜덕¹⁰⁷⁰) 들어와, 공명 앞에 와 우뚝 서

고성¹⁰⁷¹)으로 아뢰는데, “소장이 형장¹⁰⁷²)을 모시고 수삼차¹⁰⁷³) 출전
허였으되 낙후¹⁰⁷⁴)함이 없었거늘,

오늘날 대전시¹⁰⁷⁵)에 쓰지 아니허옵시니, 무삼¹⁰⁷⁶) 연유로 그러
시오?”

28. (전투 준비 완료) 각 진영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가운데, 정욱이 동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방비를 하자 고 하나, 조조는 의심 말라며 호기를 부린다.

[아니리] 공명선생 대답하되,

“장군은 전일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지라, 필연코 놓을지니¹⁰⁷⁷) 보내
지 못허나이다.”

27. (Guan Yu(關羽) Complains.) Being given no mission, Guan Yu(關羽) gets angry and asks why.

[Aniri] Kong Ming(孔明) asks Liu Bei(劉備), “Your Majesty, please stay in Fankou(樊口) with soldiers.

Enjoy watching the chaotic Chibi(赤壁) War around midnight tonight.”

Meanwhile, Guan Yu(關羽) has been waiting outside. But no mission is assigned to him.

Infuriated, he comes in.

[Eonmori] A general comes in.

His face looks as red as a soft jujube. His eyes look like those of a phoenix. His eyebrows are long and thick. His whiskers and beard look like a triangle whose end goes up.

He wears golden armor and a helmet to which phoenixes are attached. He holds the Blue Dragon Sword obliquely.

He plods in. He stands in front of Kong Ming(孔明).

He speaks loudly, “I went to war with my brother several times. He has never let me down.

In this big war today, you did not assign any mission to me. What is the reason?”

28. (Getting Ready for War) Each camp prepares for a war. Cheng Yu(程昱) asks Cao Cao(曹操) to be ready for the southeast wind. Cao Cao(曹操) shows off his bravery by telling him not to worry about it.

[Aniri] Kong Ming(孔明) answers,

“Cao Cao(曹操) did you a favor. So you will release him. So I can't send you to the battleground.”

운장 여짜오되, “선생이 그 하나만 아시고, 그 둘은 모르는 말씀이오.
 소장이 후한 은혜는 입었사오나,
 안량¹⁰⁷⁸ 문추¹⁰⁷⁹ 두 장수 머리를 베어 백마¹⁰⁸⁰ 땅에 위급함을 면
 케 했사오니
 그 은혜는 진즉 갚은지라, 어찌 조조를 놓으리까?”
 “만일 놓으면 어쩔 테요?” “군법에 따라 마땅히 목을 바치기로 군령
 다짐 두오리다.”
 “그리 하오.”
 다짐 사연 허였으되, ‘만일 조조를 놓을시면¹⁰⁸¹ 이를 상고¹⁰⁸²하여
 군법으로 참¹⁰⁸³할 사’¹⁰⁸⁴라 허였것다.
 공명선생 이른 말씀, “장군은 화용도¹⁰⁸⁵ 작은 길로 들어가, 높은 봉
 에 불을 놓아 연기를 내어, 조조를 유인하오.”
 운장 여짜오되, “조조가 연기를 보면 북병¹⁰⁸⁶인가 의심하여 어찌 그
 리 오오리까?”
 공명 이른 말씀, “장군이 허허실실¹⁰⁸⁷을 모르는 말씀이오.
 조조 병서¹⁰⁸⁸를 많이 읽은지라, 허튼 수작이라 허고 연기를 쫓아 올
 것이니,
 장군은 의심치 마오. 나도 다짐 두오리다.” 두 다짐이 분명허다.
 그 때에 운장이 청령¹⁰⁸⁹허고,
 오백 정병 도부수를 거느리고 위풍¹⁰⁹⁰이 늠름허게 화용도로 들어
 갈 제,
[자진모리] 그 때여 주도독은 각선¹⁰⁹¹을 조발¹⁰⁹²헐 제,
 “제일대¹⁰⁹³ 한당,¹⁰⁹⁴ 제이대¹⁰⁹⁵ 주태,¹⁰⁹⁶ 제삼대¹⁰⁹⁷ 장흠¹⁰⁹⁸)이,
 제사대¹⁰⁹⁹ 진무,¹¹⁰⁰
 선봉¹¹⁰¹ 황개,¹¹⁰² 후봉¹¹⁰³ 육손¹¹⁰⁴)이,

Guan Yu(關羽) replies, “Sir, you don’t know the full story. It is true that he did me a favor. But I cut off the heads of two generals,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thereby saving him. I returned his favor. Why would I set him free?”

“What if you release him?” “I pledge that I will offer my head to you pursuant to the military law.”

“Okay, then.”

A written pledge reads: ‘If I release Cao Cao(曹操), I will be investigated and my head will be cut off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Kong Ming(孔明) says, “Go to Huarong(華容) Road and entice Cao Cao(曹操) there by making smoke on the top of a high mountain.”

Guan Yu(關羽) responds, “If Cao Cao(曹操) sees the smoke, he might not come, suspecting that we lie in ambush.”

Kong Ming(孔明) answers, “You don’t seem to know anything about strategy.

Cao Cao(曹操) read a lot of military books. So he will come, thinking that the smoke is a fake.

Trust me, general. I also pledge that he will come.” The two pledges are clear.

Guan Yu(關羽) takes Kong Ming’s(孔明) order.

He looks majestic when he heads to Huarong(華容) Road with five hundred well-trained troops armed with swords and axes.

[Jajinmori] Meanwhile, Zhu Yu(朱瑜) prepares his ships for a war.

“Han Dang(韓當) is in charge of Unit 1, Zhou Tai(周泰) Unit 2, Jiang Qin(蔣欽) Unit 3, and Chen Wu(陳武) Unit 4.

Huang Gai(黃蓋) is in the front, and Lu Xun(陸遜) in the back.

상선¹¹⁰⁵) 주도독은 서성 정봉으로 좌우익¹¹⁰⁶)을 삼고, 군중에 하
령¹¹⁰⁷)허되,

선일 이하 차장이 선 초패허든 해조각석에 종전제허고, 각수습 정위
허라.¹¹⁰⁸)

청명은 간천색이 청제허고, 풍랑이 부작허여 장일호여든 주반식허고,
수십봉색 등고허여 주일면으로 명금멸이어든 발초선 웅거하여,
주사면으로 탐적장허라.”¹¹⁰⁹)

각 초선¹¹¹⁰)에 기를 세워 대장 청도¹¹¹¹)로 행군혈 제,

청도 한 쌍, 홍문 한 쌍,

청룡 동남각, 동북각, 청고초, 청독 한 쌍,

주작, 남동각, 남서각, 홍고초,

남문 한 쌍, 백호 서북각,

서남각, 백고초, 백문 한 쌍, 현무 북동각,

서북각, 흑고초, 호통 한 쌍, 황신,

표미,¹¹¹²) 금고 한 쌍, 영기 두 쌍,¹¹¹³)

나발¹¹¹⁴) 한 쌍, 적¹¹¹⁵) 한 쌍,

바라¹¹¹⁶) 한 쌍, 새납¹¹¹⁷) 두 쌍,

고¹¹¹⁸) 두 쌍, 쟁¹¹¹⁹) 한 쌍, 소발¹¹²⁰) 한 쌍, 툽 쾡 치르르르르르.

삼승¹¹²¹) 범포¹¹²²) 덩그렇게 높이 달고 순풍에 행선¹¹²³)혈 제,

그 때에 조승상은 상선¹¹²⁴)에 높이 앓어 강북을 바라보니,

Zhu Yu(朱瑜) is on the largest ship. Xu Sheng(徐盛) and Ding Feng(丁奉) are on the left and right. Zhu Yu(朱瑜) issues an order.

If an officer waves a flag, soldiers in each unit should move to their positions.

Drink wine and eat food when the sky is so clear that it looks like a lake.

Move an observation ship after dozens of soldiers go up high to a high place, scout around, and signal by hitting a bell.

Search for the enemy's officers in all directions."

Ships loaded with dry grass move forward with flags:

a pair of cheongdos(淸道), a pair of hongmuns(紅門),
cheongryong(青龍), dongnamgak(東南角), dongbuggak(東北角),
cheonggocho(青縞綃), a pair of cheongdos(淸道),
jukak(朱雀), namdong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gocho
(紅縞綃),

a pair of nammuns(藍門), baeko(白虎), seobuggak(西北角),
seonamgak(西南角), baeggocho(白縞綃), a pair of baengmuns
(白門), hyeonmu(玄武), dongbuggak(北東角),
seobuggak(西北角), heuggocho(黑縞綃), a pair of hochos(號招),
hwangsin(黃神),

pyomi(豹尾), a pair of geumgos(金鼓), and two pairs of
yeonggies(令旗).

Soldiers carry musical instruments: a pair of trumpets, a pair of
flutes,

a pair of cymbals, two pairs of hoots,

two pairs of drums, a pair of gongs, and a pair of small cymbals.

These instruments make sounds.

They pull up high large hemp sails. Their ships move by a
favorable wind.

Meanwhile, Cao Cao(曹操) looks at the upper river from the high
post of the largest ship.

남병산색¹¹²⁵)은 그림 같고, 강파만리¹¹²⁶)에 기세도 좋을시고.
조조 의기양양하여 황개 약속을 기다릴 제,
뜻밖에 동남풍이 일어나 풍세¹¹²⁷)가 요란하니,
정욱이 여짜오되, “동남풍이 불길하오니, 미리 방비허사이다.”
조조 듣고 이른 말이, “네 몰랐다, 네 몰라.
동지 일양이 부생하니,¹¹²⁸) 동남풍을 의심 말라.”
점점 황혼 되어 조조 남편 바라보니,
일엽편주¹¹²⁹)로 청룡아기¹¹³⁰)를 휘날리며 바람을 쫓아 들어오니, 조
조가 대희¹¹³¹)하여,
“황공복¹¹³²)이 나를 위하여 군량 군기¹¹³³) 실코 오니, 하늘이 나를
도우심이라.”

29. (화공) 주유의 군사가 조조의 진영에 불을 지르자 싸움 터는 온통 이수라장이 되고, 조조는 패하여 도망한다.

[아니레] 정욱이 여짜오되, “그 배 분명 간사하오
군량 실은 배 같으면 깊이 떠 올 것인디, 오는 배 복병인 듯하오니,
만일 간사헌 께가 있어 불질¹¹³⁴)이나 허거드면 그 기세를 어찌 당허
오리까?”

[자진모레] 이 말이 지듯마듯,¹¹³⁵) 선중에서¹¹³⁶) 청도 발방¹¹³⁷)을 풀어
‘각 삼관¹¹³⁸) 전선 상상¹¹³⁹)에 명고일웅¹¹⁴⁰)이어든 선대장,¹¹⁴¹)
차¹¹⁴²) 기충,¹¹⁴³) 차 초관,¹¹⁴⁴) 차 파충,¹¹⁴⁵) 차 정이기¹¹⁴⁶)어든
중군¹¹⁴⁷)을 위상케허라.’¹¹⁴⁸)

Nanping(南屏) Mountain is beautiful. Numerous waves are strong.

Cao Cao(曹操) is confident, waiting for Huang Gai(黃蓋) who promised to come.

All of a sudden, a strong southeast wind blows.

Cheng Yu(程昱) says, "The southeast wind is ominous. Let's be prepared."

Cao Cao(曹操) replies, "You know nothing.

The southeast wind blows because the spring is coming."

The sun gradually sets. Cao Cao(曹操) gazes at the south.

A small ship with a dragon flag comes toward him with the help of the wind. Cao Cao(曹操) is pleased.

"Huang Gai(黃蓋) is bringing food and weapons to me. This shows heaven helps me."

29. (Fire Attack) Zhu Yu's(朱瑜) soldiers set fire to Cao Cao's(曹操) ships, plunging the battleground into chaos. Cao Cao(曹操) flees.

[Aniri] Cheng Yu(程昱) says, "That ship is evil.

If it is loaded with food, it should sink in water. I am afraid it is a fake.

How could you confront them if they play the wicked tactic of setting fire to us?"

[Jajinmori] The moment Cheng Yu(程昱) finishes his words, a public notice is posted on the ship.

'If a drum is heard from the top of a ship, officers in the front, the task force, commandos, and guards should make their moves.

Attack the middle of the enemy formation.'

각 초선¹¹⁴⁹)에 기를 세워 좌우병¹¹⁵⁰) 소리쳐 ‘우!’,
 대고¹¹⁵¹) 소리는 두리둥 둥둥, 꼬부랑 나발은 따따따,
 거화포¹¹⁵²) 신기전¹¹⁵³)이 쓰루루루루 떠들어가,
 조조 결선¹¹⁵⁴) 수척¹¹⁵⁵) 중에 불이 버썩.¹¹⁵⁶) “적벽강 불이야!”
 두 번째 불이 버썩. 대해¹¹⁵⁷)가 뒤넘고,¹¹⁵⁸)
 세 번째 불이 버썩. “불이야!” 우주가 바뀌는 듯,
 풍조화세¹¹⁵⁹)허고 화염풍성¹¹⁶⁰)이 우루루루루루
 물결은 위리령 출렁. 상선¹¹⁶¹) 전선이 뒤뚱,
 선대¹¹⁶²) 망선¹¹⁶³) 거북고래선¹¹⁶⁴) 팔대선 사대선¹¹⁶⁵) 더우기¹¹⁶⁶)
 거루선¹¹⁶⁷) 돛대 와지끈 부러지고,
 치¹¹⁶⁸)도 빠지고, 용충마루¹¹⁶⁹) 닻도 끊쳐,¹¹⁷⁰)
 뜸집¹¹⁷¹) 전집¹¹⁷²) 화라지¹¹⁷³) 족판¹¹⁷⁴)이 모두 다 타고,
 홍양산¹¹⁷⁵) 청일산¹¹⁷⁶) 사명기¹¹⁷⁷) 청신기 홍신기 백신기 흑신
 기¹¹⁷⁸) 깃대 지끈 부러지고,
 기폭도 떨어져, 소소리¹¹⁷⁹) 광풍¹¹⁸⁰)에 단풍잎 뜨듯 어둥실¹¹⁸¹) 떠나
 가고,
 장막도 쪽쪽, 투구 갑옷 환도¹¹⁸²) 삼지창¹¹⁸³)
 언월도¹¹⁸⁴) 청룡도¹¹⁸⁵) 철궁¹¹⁸⁶) 왜전편¹¹⁸⁷)
 가는데기¹¹⁸⁸) 살방패¹¹⁸⁹) 배가마¹¹⁹⁰) 쇠도리깨¹¹⁹¹) 숙정패¹¹⁹²)
 절부월¹¹⁹³) 장막대¹¹⁹⁴) 매우래기¹¹⁹⁵) 목수뢰기,¹¹⁹⁶) 부스러진 수레
 바퀴, 조충¹¹⁹⁷)
 귀약통¹¹⁹⁸) 요구쇠¹¹⁹⁹) 마름쇠¹²⁰⁰) 나발¹²⁰¹) 새납¹²⁰²) 쟁¹²⁰³) 북 바
 래¹²⁰⁴)
 산산히 깨어져 풍비박산¹²⁰⁵)에 등실 뜨고,
 적벽강이 뒤눌¹²⁰⁶) 제 불빛이 낮빛¹²⁰⁷)이요,
 수만 전선 간 곳 없고, 무죄헌¹²⁰⁸) 백만 대병¹²⁰⁹) 일시 함몰¹²¹⁰) 다
 죽을 제,

Each ship loaded with dry grass has a flag.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shout.

A big drum makes sounds: boom-boom. A curved trumpet makes sounds: ttattatta.

Arrow rockets move into Cao Cao's(曹操) formation.

They set ablaze Cao Cao's(曹操) several ships which are tied together. "Fire on the Chibi(赤壁) River!"

Another fire rises up. It looks as if the wide sea is upset.

The third fire goes up. "Fire!" It looks as if the universe changes.

A wind strengthens the fire. The flame and the wind create loud sounds.

The waves are high. The largest ship loses its balance.

The masts of reconnaissance ships, turtle ships, whale ships, and small ships are broken.

Their rudders, strings, and anchors are cut off.

Straw rooms, wood, and stepping boards are all burning.

The poles of red parasols, blue parasols, commanding flags, blue flags, red flags, white flags, black flags are broken off.

Torn off, flags fly away in a cold violent wind like autumn leaves.

The tents, helmets, armor, long swords, three-pronged spears, blue dragon swords, iron bows, short arrows,

shields, fire pots, iron flails, boards,

symbols of office, long sticks, broken wheels, rifles,

gunpowder bags, sharp weapons, trumpets, hoots, bells, and drums

are all broken into pieces and float around in the river.

When the Chibi(赤壁) River rocks, the fire is as bright as daylight.

Numerous ships disappeared. A million innocent troops die in the river at once.

[휘모리] 이 놈 죽고, 저 놈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서서 죽고, 앉어 죽고, 보다 죽고, 못 봐 죽고,
 울다 죽고, 웃다 죽고, 자다 죽고, 졸다 죽고,
 실없이,¹²¹¹⁾ 어이없이 죽고, 가없이 죽고, 화내¹²¹²⁾ 죽고,
 성내 죽고, 힘써 죽고, 애써 죽고, 원통히 죽고,
 절통히¹²¹³⁾ 죽고, 불쌍하게 죽고, 시원하게 죽고, 왜 죽느냐 묻다
 죽고,
 어떤 군사는 전나무 돛대 위에 기엄기엄¹²¹⁴⁾ 올라가,
 “아이고, 하느님! 내가 삼대독신¹²¹⁵⁾이요. 살려 주오.” 빌더니마는,
 “내가 이럴 때 먹고 죽을라고 비상¹²¹⁶⁾ 닷돈중¹²¹⁷⁾을 사서 두었더
 니라.”
 비상을 내어 아드드득 아드득 깨물더니마는 배 아래 뚝 떨어져 물에
 가 풍 빠져 죽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목 부러져 죽고,
 횡사¹²¹⁸⁾ 급사¹²¹⁹⁾ 즉사¹²²⁰⁾ 오사¹²²¹⁾
 악사¹²²²⁾ 액사¹²²³⁾ 합사¹²²⁴⁾허여,
 대해¹²²⁵⁾ 중 깊은 물에 국수가락 풀어논 듯히고,
 좌우에 저 함성소리 정신이 상망¹²²⁶⁾히고,
 날랜 군사도 쓸 데가 없고, 일등 모사¹²²⁷⁾도 무용¹²²⁸⁾이요,
 어젯밤 장담¹²²⁹⁾ 조조 홍안¹²³⁰⁾이 솟빛이요, 정육 얼굴은 뚱뚱이라.

[Hwimori] This man dies, and that man dies. A man dies, while going, and another dies, while coming.

Another dies, while standing, and another dies, while sitting. Another dies, while looking, and another dies, while not looking.

Another dies, while crying, and another dies, while laughing. Another dies, while sleeping, and another dies, while dozing. Another dies without reason, and another dies unexpectedly. Another dies poorly, and another dies, while getting angry.

Another dies, infuriated, and another dies with effort. Another dies, attempting to live, and another dies sadly.

Another dies pathetically, and another dies easily. Another dies bitterly, and another dies, while asking others why he dies.

A soldier climbs up a fir mast little by little.

“Oh God! I am the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in my family. Please help me.” After the prayer, he says,

“I am carrying poison to take in such a situation.”

He takes out the poison and chews it hard. He falls down into the water and dies.

A soldier breaks his arm, and another his leg. Another breaks his waist, and another his neck and dies.

A soldier dies an instant death, and another an unexpected death. Another dies on the spot, and another dies a tragic death. Another dies a cruel death, and another is hanged to death. Two die together.

Numerous soldiers are drowning like noodles in water.

There are confusing sounds here and there.

Well-trained soldiers are of no use. Top strategists are useless too.

Cao Cao(曹操) was confident yesterday. His face looked healthy, and it now looks ill. Cheng Yu's(程昱) face also looks bad.

조조 황급¹²³¹)허여 배 아래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장요의 용맹으로 일척선¹²³²)에 건져 싣고 선두¹²³³)에다가 내려노니,
[자진모리] 황개의 거동 보소.

장창¹²³⁴) 보검¹²³⁵)을 눈 우에 번뜻 들고
우레같은 큰 소리를 벽력같이 뉘지르며,¹²³⁶)
“네 이 놈, 조조야! 선봉대장 황개를 아느냐, 모르느냐?
단지¹²³⁷) 말고 칼 받아라!” 추상같이 나는 소리,
조조가 황급¹²³⁸)허여 젖은 홍포¹²³⁹)를 훔훔 벗고, 군사 전립¹²⁴⁰) 옷
어¹²⁴¹) 쓰고

다른 군사를 가리키며, 제 이름을 제가 불리, “참 조조 저기 간다!
저 쉬염¹²⁴²) 질고¹²⁴³) 뇌런헌¹²⁴⁴) 놈이 조조니라. 잡아라!”

조조가 쉬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아이고, 이놈의 수염이 어찌자고 많이 나서 날 못살게 허는구나.”
정신없이 달아날 제, 여몽 감녕¹²⁴⁵)은 좌우익¹²⁴⁶)을 몰아치고,
한당 장흠은 뒤로 쫓아 막다를¹²⁴⁷) 제,
진퇴유곡¹²⁴⁸) 패군¹²⁴⁹) 조조 갈 길이 막연쿠나.

30. (오림 패주) 조조가 오림으로 달아나다가 공연한 웃음 을 웃는다.

[아니레] 이것이 삼강은 수전이요, 적벽은 오병¹²⁵⁰)이라는 저 유명한
적벽대전이라.

혼비백산¹²⁵¹) 조승상은 정신없이 달아날 제,

Petrified, Cao Cao(曹操) falls out of the ship. He is in jeopardy. Zhang Liao(張遼), a brave officer, picks him up from a ship and places him in the bow.

[Jajinmori] Behold Huang Gai(黃蓋).

He holds up a long spear and a good sword.

He shouts loudly like thunder at Cao Cao(曹操).

“Cao Cao(曹操), you villain! Do you know Huang Gai(黃蓋) in the vanguard or not?

Don't flee. Here goes my sword!” His voice is fearsome.

Panicking, Cao Cao(曹操) takes off his red coat. He takes a fur hat from a soldier and puts it on.

He calls his own name as he points to a soldier. “There goes Cao Cao(曹操)!

That villain with a long beard and a yellow coat is Cao Cao(曹操). Arrest him!”

He grabs his beard with his hands.

“Alas! My beard is so long that it gives me trouble this time.”

He runs away fast. Lu Meng(呂蒙) and Gan Ning(甘寧) attack Cao Cao(曹操) on the right and the left.

Han Dang(韓當) and Jiang Qin(蔣欽) attack Cao Cao(曹操) from the back. Cao Cao(曹操) can't move forward.

Cao Cao(曹操) can't move back either. It is not clear where he can go.

30. (Flee to Wulin(烏林) Forest) He laughs without reason, while fleeing to Wulin(烏林) Forest.

[Aniri] This is the famous Chibi(赤壁) War. It broke out in the San(三) River, and numerous soldiers were exterminated.

Cao Cao(曹操) is frightened out of his senses while he flees.

[중모레] 허저는 창만 들고, 장요는 활만 들고,
 정육¹²⁵²이는 패군줄¹²⁵³을 영거¹²⁵⁴허여 천방지축¹²⁵⁵ 달어날 적,
 이곳은 오림¹²⁵⁶이로구나. 산고곡십¹²⁵⁷ 험한 길에,
 눈 위에 찬 북풍은 살 쏘듯 들이불고,¹²⁵⁸
 빙판석거¹²⁵⁹ 좁은 길로 반생반사¹²⁶⁰ 가는 장줄 죽는 자 태반¹²⁶¹
 이라.
 조승상이 정신을 차려 좌우 산천을 둘러보더니,
 공연한 웃음을 내어, ‘히히 하하하하’ 웃거늘, 정육이 여짜오되,
 “여보시오, 승상님. 무죄헌 백만 대병 일시 함몰¹²⁶² 다 죽이고 무엇
 이 즐거워서 웃나니까?”¹²⁶³

31. (조조 조자룡에게 패퇴) 조조가 조자룡을 만나 패해 도망한다.

[아니레] “애들아, 웃음 아니 날까 보아라.
 공명과 주유를 모사라 허나, 실상은 가소롭다.
 병 모가지처럼 이렇게 좁디좁은 곳에 눈 먼 장수 하나만 매복시켜
 두었던들, 우리들 남은 목숨 독 속의 쥐새끼제¹²⁶⁴ 별 수가 있겠느냐?”
 헛장담¹²⁶⁵ 이 말 끝에 뜻밖에 산상에서¹²⁶⁶ 뇌고소리¹²⁶⁷ ‘쿵.’
 [엇모레]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와. 얼굴은 형산¹²⁶⁸ 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¹²⁶⁹ 물결 같고, 기린 허리,¹²⁷⁰ 곰의 팔
 백포린엄신갑,¹²⁷¹ 사모장창¹²⁷²을 눈 위에 번뜻 들고,

[Jungmori] Xu Chu(許褚) carries only a spear. Zhang Liao(張遼) carries only a bow.

Cheng Yu(程昱) hurriedly runs away with his defeated soldiers. They arrive at Wulin(烏林) Forest. Mountains are high, valleys are deep, and roads are rugged.

Cold wind blows hard in the snow.

Soldiers seriously wounded walk on a narrow icy waterway. Half of them die, while walking.

Cao Cao(曹操) comes to himself and looks around.

He laughs without reason. “Hee, hee! Hahahaha!” Cheng Yu(程昱) asks,

“Hello, Premier! You killed a million innocent soldiers at one time. What makes you funny?”

31. (Cao Cao(曹操) is Defeated by Zhao Zi Long(趙子龍).) Cao Cao(曹操) comes across Zhao Zi Long(趙子龍) and runs away from him.

[Aniri] “Look, I cannot help laughing.

Kong Ming(孔明) and Zhu Yu(朱瑜) are said to be intelligent. But they are ridiculous.

Since this road is as narrow as the neck of a bottle, even a blind soldier in ambush here would make us rats in a pot.”

At the end of his fake confident word, violent multiple drum sounds are heard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all of a sudden.

[Eonmori] An officer comes out. His face looks like the white jade from Jing(荊) Mountain.

His eyes look like the waves of Xiaoxiang(瀟湘) Rivers. His waist is like the neck of a giraffe. His arms are like those of a bear. He wears white armor. He holds up a long spear which looks like the head of a snake.

우레같은 큰 소리 벽력같이 뒤질러,¹²⁷³⁾
 “네 이 놈, 조조야! 상산¹²⁷⁴⁾ 조자룡을 이는다,¹²⁷⁵⁾ 모른다?¹²⁷⁶⁾
 길다,¹²⁷⁷⁾ 날다,¹²⁷⁸⁾ 날다, 길다?
 팔랑개비라 비상천¹²⁷⁹⁾허며, 뒤지기¹²⁸⁰⁾라 땅을 났까?¹²⁸¹⁾
 단지 말고 창 받아라!” 번개같이 달려들어,
 동에 들어서¹²⁸²⁾ 서에 땡기령, 남에 들어서 북에 땡기령,
 예가¹²⁸³⁾ 번뜻, 제가¹²⁸⁴⁾ 번뜻. 백송고리¹²⁸⁵⁾ 꿩 차듯,¹²⁸⁶⁾ 두꺼비 파
 리 잡듯.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¹²⁸⁷⁾이로구나.
 조조가 황급하여 말 아래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허저 장요 장합 등이 죽도록 구원하여 간신히 도망한다.

32. (조조 신세 한탄) 부상을 입은 병졸들과 호로곡으로 도망하던 조조가 신세를 한탄한다.

[아니레] 가련한 조조 신세 근근도생¹²⁸⁸⁾ 도망할 제,
 [진양조] 화염¹²⁸⁹⁾에 상헌 장졸¹²⁹⁰⁾ 살¹²⁹¹⁾도 맞고 창에 찔려, 촌
 보¹²⁹²⁾혈 길이 전혀 없네.
 십전구도¹²⁹³⁾ 계우¹²⁹⁴⁾ 걸어 이릉¹²⁹⁵⁾ 어구¹²⁹⁶⁾ 당도하니,
 날이 장차 밝아지며 동남풍도 그치잖네.¹²⁹⁷⁾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굿은비는 퍼붓는다,
 반생반사 가는 장졸 우중에¹²⁹⁸⁾ 불쌍하다.
 호로곡¹²⁹⁹⁾을 당도하니, 한수¹³⁰⁰⁾ 여울¹³⁰¹⁾ 나린¹³⁰²⁾ 물결 이릉으로
 닿았는데,

He yells at Cao Cao(曹操) like thunder.
 “Cao Cao(曹操)! You bastard! Do you know about Zhao Zi Long(趙子龍) from Changshan(常山)?
 Will you crawl or fly? Will you fly or crawl?
 Will you fly to the sky like a pinwheel? Will you dig into earth like a mole?
 Don’t flee! Face my spear!” Zhao Zi Long(趙子龍) moves fast.
 He attacks Cao Cao’s(曹操) soldiers from all directions.
 He shows up here and there abruptly. He looks like a hawk attacking a pheasant, or a toad snatching a fly.
 The heads of troops fall off like autumn leaves.
 Panicking, Cao Cao(曹操) falls from his horse. His life is in jeopardy.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Zhang He(張郃) manage to save him and flee.

32.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s Fate.) Cao Cao(曹操) laments over his fate, as he flees to a narrow valley with his wounded soldiers.

[Aniri] Poor Cao Cao(曹操) runs away for his life.
 [Jinyangjo] Soldiers are injured by fire, arrows, and spears. They can hardly walk.
 They manage to arrive at the entrance of Yiling(彝陵) Region.
 The sun rises, and the southeast wind continues to blow.
 Dark clouds rise up, and it rains heavily.
 The poor soldiers, half-dead, plod on through the rain.
 They arrive at a narrow valley. They get to a shallow part of a stream with a rapid current.

“적적산골¹³⁰³) 청계상¹³⁰⁴)에 묻노라, 저 백구야. 홍요월색¹³⁰⁵)이 어느 곳고?¹³⁰⁶)

어적수성¹³⁰⁷)이 적막헌디, 너는 어이 한가하여 범피창과¹³⁰⁸) 높이 떠 뉘 기약¹³⁰⁹)을 기다리며, 나는 어이 분주하여 백만 대병 물사를 당하고

이리 곧케¹³¹⁰) 되었으니,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이놈의 노릇을 어찌자는 말이나? 천리 본국¹³¹¹)을 어이 갈거나?”

33. (조조 밥 재촉) 조조가 밥을 재촉하나, 밥 짓는 군사는 불이 붙지 않아 밥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

[아니레] 이렇듯이 울음을 울며

젖은 의복 뿔뿔 벗어 낫별¹³¹²)에 걸어놓고,

군사들 시켜 썩은 나무 꺾어다 불 놓아 어한¹³¹³)하며,

“어, 추워 못 가겠다. 화병¹³¹⁴) 시켜 밥이나 지어라.”

중관¹³¹⁵)이 대답하고, 화병¹³¹⁶) 시켜 밥이나 지어라.” “예!”

허더니 깨어진 통노구¹³¹⁷)를 짚쑤세미¹³¹⁸)로 틀어막고,

밥 안치고,¹³¹⁹) 부쇠¹³²⁰) 칠 제, 조꿈¹³²¹) 있더니, “화병!” “예!”

“진지 바빠 지어라!” “예!” 또 조꿈 있다가, “화병! 진지 바빠 올려라.”

“예! 인제 밥 넘소.”¹³²²) “화병! 진지 어찌 되었느냐?”

“예!” 저놈이 부쇠만 탁탁 치며, “아이고, 인제 몇 마디 안 남었는디,

이놈의 부쇠가 날 죽일 놈의 부쇠로구나. 예! 인제 밥 넘소!”

“Let me ask you, white gulls on a clear stream in a quiet valley.
Where is the moon reflected on the stream?
This place is quiet except for the sounds of flutes by fishermen.
You are floating leisurely on the blue water.
Are you waiting for somebody? I am in a hurry after killing a
million troops.
I am in big trouble. Alas!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now? How can I go back to my country far
from here?”

**33. (Cao Cao(曹操) Requests a Meal) Cao Cao(曹操)
requests a meal, but the cook answers he cannot
cook because he can't make fire.**

[Aniri] Cao Cao(曹操) laments as depicted above.
He takes off his wet clothes and spreads them in the sunshine.
He warms himself by having his soldiers make fire with dry
wood.
“It is too cold to go further. Make a cook prepare a meal.”
His servant responds, “Cook, he told you to make a meal.”
“Okay!”
The cook blocks a crack of a brass pot with a straw scrubber.
He puts rice in the pot. He hits flints together. After a while,
the servant says, “Cook!” “Yes!”
“Make a meal quickly!” “Yes!” After a while, the servant says
again, “Cook! Bring the food here quickly.”
“Yes! It is almost done.” “Cook! Is the food ready now?”
“Yes!” The cook has only been hitting flints to make fire. “Alas!
Now, I have few words in reply.
These darn flints may kill me. Yes! The food is almost done!”

“화병! 진지 어찌 되었느냐?” “예! 인제 상 놓소!”
 “화병!” “예! 아이고, 이제 나 죽는다.”
 “화병!” “아이구, 당장에 능지처참¹³²³)을 당헌대도 인제 부쇠 치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예, 저놈 잡아내어 목 베어라!”
 [중모레 화병이 이 말 듣고 조조 앞에 가 엎드리지며,
 “여보시오, 승상님! 여보, 승상님, 들조시오.¹³²⁴)
 나온 대로 말씀 받으시고, 이것을 좀 씹어 보오.
 적벽강에서 젖은 짓¹³²⁵)이 마자반¹³²⁶)보다 더 짭니다.
 아무리 부쇠를 쳐도 짓에 불이 안 덩기니,¹³²⁷) 어찌 진지를 지으리까?
 죽여 주오. 죽여 주오. 당장에 이놈을 죽여 주오.”

34. (조조 장비에게 패퇴) 조조가 장비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나, 장수들의 구원으로 간신히 도망하여 화용도에 당도한다.

[아니레] 조조 가만히 듣더니만, “그렇겠다. 네 저놈 살려 주고, 너희들도 이리 와서 불이나 좀 쪼아라.”
 불 쪼고 늘어앉아 조조 산 쪽을 가만히 둘러보더니,
 또 공연한 웃음을 내어 ‘히히 하하하하’ 웃거늘,
 중관¹³²⁸)이 여짜오되, “승상님, 왜 또 웃소?”
 “너 이놈들. 승상이니 망상¹³²⁹)이니 허면서,
 내 평생 즐겨하는 웃음도 못 웃게 헌단 말이나?”
 “승상님만 웃으시면 꼭꼭 복병¹³³⁰)이 일어납니다.”

“Cook! What happened to the meal?” “Yes, I am putting the food on a meal table.”

“Cook!” “Yes! Alas, I will die now.”

“Cook!” “Alas! Even if you kill me, I must say I have been hitting flints to make fire!”

Exasperated, Cao Cao(曹操) says, “Cut his head off!”

[Jungmori] After hearing Cao Cao(曹操), the cook kneels down in front of him.

“Mr. Premier! Please listen to me.

Please think before you speak. Please taste this grass.

It got wet on the Chibi(赤壁) River, and it is salty.

It does not catch fire no matter how hard I hit flints. How can I make food?

Please kill me. Please kill me immediately.”

**34. (Cao Cao(曹操) Gets Beaten by Zhang Fei(張飛).)
Zhang Fei(張飛) attacks Cao Cao(曹操) who
manages to run away with the help of his officers
and arrives at Huarong(華容) Road.**

[Aniri] Cao Cao(曹操) says, “I see. I won’t kill you.

Come here and warm yourselves in front of this fire.”

While they sit in front of the fire, Cao Cao(曹操) looks at a mountain.

He again laughs without reason. ‘Heehee! Hahahaha!’

His servant asks, “Mr. Premier, why do you laugh again?”

“You villains. How can you curse at me?

How can you tell me not to laugh when I have liked laughing all my life?”

“Premier, if you laugh, we fall into an ambush without fail.”

“이놈들아, 내 집에서는 날마다 웃어도, 복병은 커녕 뱃병도 안 나고,
술병만 들오더라.”

헛장담 이 말 끝에,

[자진모레] 뜻밖에 산상에서 뇌고소리¹³³¹⁾ ‘꽁 두리둥 등 등 등 등’.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와. 얼굴이 먹장¹³³²⁾ 같고,

고리눈¹³³³⁾ 다박수염¹³³⁴⁾ 장창을 빗겨 들고,

우레같은 큰 소리를 벽력같이 뽐지르며,¹³³⁵⁾ “네 이놈, 조조야! 단지
말고 창 받아라!”

불꽃같은 급한 성정¹³³⁶⁾ 번개같이 달려들어 좌우익¹³³⁷⁾을 몰아치니,
조조 패진¹³³⁸⁾ 장졸 죽음이 여산¹³³⁹⁾이라.

장비의 호통소리 나는 새도 떨어지고, 길짐생¹³⁴⁰⁾도 머무르니, 조조
정신 있을쏘냐?

“아이고, 정육아! 저기 오는 장수 누구인가 보아라!”

정육이도 겁짐이라,¹³⁴¹⁾ 끝만 따서 허는 말이, “아이고, 승상님. 떡이
요. 떡이로소이다!”

“떡이라니, 먹는 떡이란 말이나? 이 판¹³⁴²⁾에 무슨 떡이냐?”

“장비, 장익덕이란 말이오!” “아이고, 이 무서운 떡이로구나!”

조조가 황급하여 마하¹³⁴³⁾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허저 장요 장합 등이 죽도록 구원하여 간신히 도망을 허는구나.

[중모레] 늘어진 잠목, 평퍼진¹³⁴⁴⁾ 떡갈잎, 얼크러진 칩년출 휘청휘청
검쳐잡고,¹³⁴⁵⁾

후유 끝끝 한숨 쉬며, 축도지난¹³⁴⁶⁾이 험타현들¹³⁴⁷⁾ 이에서¹³⁴⁸⁾ 더할
쏘냐?

송림¹³⁴⁹⁾ 헤쳐 넘어갈 적, 이곳은 화용도¹³⁵⁰⁾ 지경¹³⁵¹⁾이로구나.

“You villains! When I laughed at home everyday, I didn’t get ambush. I got only wine.”

Something happens at the end of his confident words.

[Jajinmori] Suddenly, multiple drum sounds are made from the mountain. Doong! Doong! Doong!

A general comes out. His face is black.

White circles are around his eyes. His beard is strong. He carries his long spear obliquely.

He shouts loudly like thunder. “Cao Cao(曹操)! You villain! Don’t flee! Face my spear!”

Hot-tempered, Zhang Fei(張飛) attacks Cao Cao’s(曹操) soldiers on the left and right.

The bodies of Cao Cao’s(曹操) defeated soldiers are piled up like a mountain.

With Zhang Fei’s(張飛) shouting sound, birds fall down and animals stand motionless. Cao Cao(曹操) is horrified.

“Cheng Yu(程昱)! Check out that warrior over there!”

Petrified, Cheng Yu(程昱) mispronounces his name. “Premier, he is a cake. He is a cake!”

“What? Is he a cake, an edible thing? Why do you talk about a cake in this situation?”

“He is Zhang Fei(張飛)!” “God! He is a fearsome cake!”

Frightened, Cao Cao(曹操) falls from his horse and puts himself in danger.

Xu Chu(許褚), Zhang Liao(張遼), and Zhang He(張郃) save him and manage to flee.

[Jungmori] While faltering, Cao Cao(曹操) grabs tall bush, wide leaves, and vines entangled together.

He sighs deeply repeatedly, as he takes the difficult journey on the rugged terrain.

He goes through a pine forest and arrives at Huarong(華容) Road.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가도 복병인가 놀래이고,¹³⁵²⁾
낙엽만 버섯 휘날려도 장수가 오는지 놀래이며,
말갈기¹³⁵³⁾를 두 손으로 붙들고, 말등에다 얼굴 대고,
두 눈을 뜨지 못하고, 벌렁벌렁 떠는 모냥¹³⁵⁴⁾ 가련하고 불쌍하다.

35. (조조 장승 보고 놀람) 조조가 벌벌 떨다가 장승을 보고 질겁한다.

[아니래]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일어났어¹³⁵⁵⁾ 허리 좀 펴고, 눈
좀 뜨시오.”
“아따,¹³⁵⁶⁾ 애, 듣기 싫다. 아무 말도 말어라. 귀에서는 화살 소리가
확확 나고,
눈에서는 칼날이 번뜻번뜻하여, 내가 눈을 못 뜨겠다.”
“여기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정신 좀 차리시오.”
조조 일어났어 눈을 뜨고 사면을 막 바라볼 제,
뜻밖에 말 굽통¹³⁵⁷⁾ 밑에서 메초리¹³⁵⁸⁾ 한 쌍이 푸루루루루. 조조
질색¹³⁵⁹⁾하여 엎드지며,¹³⁶⁰⁾
“아이고, 정욱아! 이 장수가 누구인가 보아라! 조자룡 옷수¹³⁶¹⁾로 날
래구나.”
“승상님, 그게 장수가 아니라 메초리올시다.”
조조 정신 차려, “그게 메초리란 말이나?
내가 메초리에게 놀랬단 말은 혹시 딴 사람들 들을까 두렵구나.
그러나 그놈 잡어 북아놓으면 술안주감 좋느니라.
결망¹³⁶²⁾에 술 내려라. 좋은 안주 본 김에¹³⁶³⁾ 한 잔 먹자.”

When birds fly, he gets frightened because he takes them to be soldiers lying in ambush.

When leaves fly, he gets frightened because he takes them to be enemy warriors.

He holds the horse's mane with his hands and puts his head on the back of the horse.

Without opening his eyes, he trembles in fear. He is pitiful.

35. (Cao Cao(曹操) Gets Frightened at a Wooden Statue.) While Cao Cao(曹操) trembles, he gets fearful of a wooden statue.

[Aniri] Cheng Yu(程昱) asks, "Premier, please get up, straighten your back, and open your eyes."

"No. Be quiet. Don't say anything. I hear arrow sounds clearly. I clearly see swords moving around. I can't open my eyes."

"There is nothing here. Please recover your senses."

Cao Cao(曹操) sits up, opens his eyes, and takes a look around. Unexpectedly, a couple of quails fly up from under the horse. Petrified, Cao Cao(曹操) gets off his horse.

"Cheng Yu(程昱), check out that general! He is much faster than Zhao Zi Long(趙子龍)."

"Mr. Premier, it was not a general but quails."

Cao Cao(曹操) collects himself. "Was it quails?"

I am afraid people might hear I was scared by quails.

If we catch the quails, they will be good food to drink wine with.

Take some wine out of our bags. Since I saw the good food, I want to have a drink."

이렇듯 말을 허다가,
[진양조] 건넌 술숯 바라보니,
 어떠한 일원¹³⁶⁴ 대장 신장¹³⁶⁵은 구척이요, 위풍¹³⁶⁶이 늠름하니,
 주먹코¹³⁶⁷ 주홍낮¹³⁶⁸에 삼각수¹³⁶⁹를 거사리고,¹³⁷⁰
 봉의 눈을 부릅뜨고 뚜렷이 서 있거늘,
 조조가 보고 겁을 내어, “아이고, 정욱아.
 저기 섰는 장수 누구인가 보아라! 보던 중에 제일 무섭다.”
 정욱이 여짜오되, “아이고, 승상님. 그게 장수가 아니오라, 장승¹³⁷¹
 이을시다.”
 조조 장승이라니 더 질색하여, “애, 장승 같으면 장비와 한 장 가로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찌자는 말이나? 나는 정녕 꼭 죽었다.”

36. (장승 문초) 조조가 장승을 잡아 들어라 하여 죄를 묻는다.

[아니리] “그런 게 아니오라, 이곳에 수표¹³⁷²해 놓은 지경¹³⁷³ 장승
 이을시다.”
 조조 그제야 정신 차려 호령하되,
 “제가 장승 같으면, 풍운¹³⁷⁴ 천하 영웅 나를 제 능히 놀랜진대,
 거만스런 장승이로구나. 네 장승 바빠 잡어 들어라!”
[자진모래] 좌우군병¹³⁷⁵ 영¹³⁷⁶을 들고 와르르르르 달려들어 장승을
 둘러싸어,¹³⁷⁷
 “어기야차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차” 와르르르르 끌면서, “장승 잡어
 들었소!”
[아니리] 조조 분부하되,
 “이 놈! 너는 어떠한 목신이니,¹³⁷⁸

He speaks as said above.

[Jinyangjo] Cao Cao(曹操) looks at a pine forest.

A tall warrior stands there. He looks imposing.

His nose looks like a fist. His face is red. His beard forms a triangle.

His eyes are fearsome. He stands there clearly.

Cao Cao(曹操) is scared. "Hey Cheng Yu(程昱).

Check who is the general standing over there! He is the most fearsome warrior I have ever seen."

Cheng Yu(程昱) responds, "God! Premier, it is not an officer but a wooden statue."

Cao Cao(曹操) is all the more scared. "He looks like Zhang Fei(張飛)!"

Alas! What should I do now? I am bound to die."

36. (Interrogation of the Wooden Statue) Cao Cao(曹操) arrests the wooden statue and interrogates it.

[Aniri] "It is not a human being but a wooden statue, which is a kind of road sign."

Cao Cao(曹操) collects himself and yells at Cheng Yu(程昱).

"It is a wooden statue, but it scared me, the global hero.

It is an arrogant wooden statue. Arrest it and bring it here quickly!"

[Jajinmori] Taking Cao Cao's(曹操) order, soldiers run at the wooden statue and pull it up.

"Yo-heave-ho!" They drag it and say, "We have brought the wooden statue, sir."

[Aniri] Cao Cao(曹操) interrogates the wooden statue.

"You bastard! Are you a god of wood?"

관장¹³⁷⁹)이 지내는디 군례¹³⁸⁰)도 아니하고,
수림간¹³⁸¹)에 우뚝 서서 위왕¹³⁸²)을 놀렸으니,
네 죄가 만사무석,¹³⁸³) 군법으로 베일¹³⁸⁴) 테니 네 죽노라 한을
말라!”

이렇듯 분부하니 장승이 조조 앞에 엎드려 비는디, 장승이 어찌 말을
허리오마는,

천하가 말세 되어 시절이 분분하면¹³⁸⁵) 인신¹³⁸⁶)이 잡유¹³⁸⁷)하여 목
신도 능히 말을 허든 것이었다.

“이 내 몸이 호산지목¹³⁸⁸)으로
가히¹³⁸⁹) 인형¹³⁹⁰)을 입어 노상¹³⁹¹)에 있삽더니,
금일 대왕 행차시에 장읍불배¹³⁹²) 죄당만사¹³⁹³)오나,
원통지정¹³⁹⁴)을 날날이 아뢰리다.”

37. (장승타령) 장승이 신세타령을 하며, 원통하다고 말한다.

[진양조] “천지지간¹³⁹⁵) 만물지중의¹³⁹⁶) 나무라 생겼으되,
어떤 나무 팔자 좋아, 고대광실¹³⁹⁷) 좋은 집의 상량목¹³⁹⁸)이 되어
있어

용상화채¹³⁹⁹) 찬란히게 뚜렷이 섰으니 그 나무 팔지는 어떠하며,
용목¹⁴⁰⁰) 괴목¹⁴⁰¹) 인개가절¹⁴⁰²) 음양으로 가께수리¹⁴⁰³) 되어서,
분벽사창¹⁴⁰⁴) 요적¹⁴⁰⁵)헌 데 편안케 놓였으니 그 나무 팔자 어떠
하며,

지루헌¹⁴⁰⁶) 밤나무는 대가¹⁴⁰⁷) 영당¹⁴⁰⁸)에 신주¹⁴⁰⁹) 되어,
정조¹⁴¹⁰) 한식¹⁴¹¹) 단오¹⁴¹²) 추석 만반진수¹⁴¹³)를 차려놓고,
분향¹⁴¹⁴) 침작¹⁴¹⁵) 독축¹⁴¹⁶)하여

Who are you not to show respect to an official?
 How dare you scare the king of Wei(魏) Country, standing like
 that in the forest?
 Your guilt deserves thousands of deaths. I'll cut your head off
 pursuant to the military law. Don't resent your death!"

With Cao Cao's(曹操) words, the statue kneels down in front of
 him. How can a wooden statue speak?

In a chaotic and disorderly world, human beings interact with
 ghosts, and a wooden statue can speak.

"I am a piece of wood protecting the mountain.
 I was standing by the road in the form of a human being.
 Today I did not show respect to Your Majesty, so I deserve to
 die.
 But let me tell you about my sad story at length."

37. (Song of the Wooden Statue) The wooden statue says he feels bitter about his fate.

[Jinyangjo] "A tree is one of the many things in the world.
 A tree is born with a good fate. It becomes a frame of a grand
 house.
 A dragon is splendidly engraved on it. It has a good fate.
 A tree is cut by a human being and became a piece of furniture.
 It is put in a well-decorated quiet room. It has a good fate.
 A chestnut tree becomes a divine tag in a shrine of a high family.
 On big holidays, a meal table which is full of delicious food
 is prepared.
 Incense is burned, wine fills glasses, and a written prayer is
 read.

소중이 자별¹⁴¹⁷⁾허니 그 아니 존중¹⁴¹⁸⁾허며,
 석상¹⁴¹⁹⁾의 벽오동¹⁴²⁰⁾은 오현금¹⁴²¹⁾ 복판¹⁴²²⁾이 되어,
 대순¹⁴²³⁾ 슬상¹⁴²⁴⁾에 비껴¹⁴²⁵⁾ 앉어
 스리령 동덩실¹⁴²⁶⁾ 쉬어 탈 제 봉황도 춤을 추니, 그 나무 팔자는
 어떠허며,”
[중모레] “월궁¹⁴²⁷⁾의 계수나무¹⁴²⁸⁾ 항아¹⁴²⁹⁾의 정자¹⁴³⁰⁾ 되고,
 요지연¹⁴³¹⁾의 벽도¹⁴³²⁾는 서왕모¹⁴³³⁾ 과실이요,
 노나라¹⁴³⁴⁾ 살구나무 공자님의 강단¹⁴³⁵⁾이요,
 오나라¹⁴³⁶⁾ 참나무는 자서¹⁴³⁷⁾ 충성 표허였고,¹⁴³⁸⁾
 진나라¹⁴³⁹⁾ 노송¹⁴⁴⁰⁾나무 대부 벼슬 허였으니,¹⁴⁴¹⁾ 그 나무 팔자는
 어떠허오?
 천하¹⁴⁴²⁾ 몸쓸 이 내 몸은 나무 중에 전목¹⁴⁴³⁾이 되어,
 궁궐 동량¹⁴⁴⁴⁾ 못 될망정 대광판¹⁴⁴⁵⁾이나 바랬더니,
 욕심 많은 초동¹⁴⁴⁶⁾들이 방장부절¹⁴⁴⁷⁾ 제 모르고 가지 치고 옷둥¹⁴⁴⁸⁾
 잘러,¹⁴⁴⁹⁾
 개천가 방천말¹⁴⁵⁰⁾과 마관¹⁴⁵¹⁾ 아니면 개밥통¹⁴⁵²⁾ 칩간가래¹⁴⁵³⁾
 덕대나무¹⁴⁵⁴⁾ 대문중방¹⁴⁵⁵⁾ 작두바탕¹⁴⁵⁶⁾ 다 주어 쓴 연후에,
 지관¹⁴⁵⁷⁾ 목수 합력¹⁴⁵⁸⁾허여 뉘 할아비 얼굴인지 입과 눈과 귀 만들
 고, 코 만들어,
 원¹⁴⁵⁹⁾ 몸에 주홍칠¹⁴⁶⁰⁾을 벌그렇게¹⁴⁶¹⁾ 흰 연후에,
 팔자 없는¹⁴⁶²⁾ 사모¹⁴⁶³⁾를 씌우고,
 삼각수는 웬 일이며,

The divine tag is held dearly. It is respected.
 A paulownia tree on a rock became the body of a five-stringed musical instrument.
 It was placed obliquely on the knee of King Shun(舜) who was a famous king of ancient China.
 When it was played, a phoenix danced. The tree had a good fate.”
[Jungmori] “A cinnamon tree on the moon became a pavilion for a goddess.
 Divine peaches by an legendary pond belong to another goddess.
 An apricot tree was transformed into a platform for Confucius of Lu(魯) Country.
 An oak tree of Wu(吳) Country signifies the loyalty of Wu Zi Xu(吳子胥).
 An official position was granted to an old pine tree in Qin(秦) Country. Aren't their fates all good?
 But my fate was bad and became a thick board.
 I did not want to be a pillar in the palace. I only wished to be a wide board.
 Greedy young woodcutters, not knowing that a young tree is not to be cut down, cut off my branches and tops.
 Out of my body, they made stakes, a barn board, a dog food container, a bathroom cleaner,
 a bier frame, a gate frame, and the bottom of straw-cutter.
 After that, a geomancer and a carpenter together made an old man's face consisting of a mouth, eyes, ears, and a nose.
 They painted a red color over my entire body.
 After that, they put a formal hat on my head that does not fit my position.
 I can't believe they made a three-angled beard.

흥복부¹⁴⁶⁴)에다 글을 새겨, 북거¹⁴⁶⁵) 오십 리 장성이요,
 지명은 화옹도라 뚜렷이 새겨 세워 놓고 한 잔 술로 제 지내니,
 까막¹⁴⁶⁶) 까치 새 짐승들이 머리 우에다 똥을 눈들,
 손이 있어 날려 보며, 입이 있은들 말을 허며,
 발이 있어 달아나오리까?
 왕래 행인 길 위하여 불피풍우¹⁴⁶⁷) 우뚝 서서,
 세월을 원망하며 반생반사¹⁴⁶⁸)로 지내는 몸,
 대왕께서 모르시고 그다지¹⁴⁶⁹) 놀랬사오나,
 역적모의¹⁴⁷⁰) 아닌 나를 무슨 죄가 지중¹⁴⁷¹)허여
 군법으로 참¹⁴⁷²)하시랴오?
 갇히 통촉¹⁴⁷³)허옵심을 천만축수¹⁴⁷⁴) 비읍니다.”

38. (조조 험담) 조조가 유비 · 관우 · 장비 · 조자룡 · 제갈 공명의 험담을 늘어놓자, 정욱이 만류하며 영웅이라 일컫는다.

[아니리] 조조 분부허되, “공산¹⁴⁷⁵)의 풍락지목¹⁴⁷⁶)으로 저렇듯 말을
 하니,
 죄 있더라도 방송¹⁴⁷⁷)허매 장승 물리쳐라.”
 장승을 꺼낸 연후에 조조 빈 속에 호로주¹⁴⁷⁸) 실컷 먹고,
 술이 얼근허니¹⁴⁷⁹) 취해노니, 속 못 채린¹⁴⁸⁰) 장담이 나오것다.
 “너희들 거그¹⁴⁸¹) 늘어얏어 내 얘기 좀 들어 봐라.

They engraved letters on my chest and belly. The letters say
 Janseong is about 20 km away from here.
 The name of the place is written clearly as Huarong(華容) Road.
 They hold a ritual with a glass of wine.
 Birds, such as crows and magpies, take shits on my head.
 I can't drive them away because I don't have hands. I can't yell
 at them because I don't have a mouth.
 I can't run away because I don't have legs.
 I stand here for travelers despite the wind and the rain.
 While resenting the world, I am here in a state of half-death.
 Your Majesty was scared of me because you didn't know who
 I was.
 I don't have a plot to rebel against you. I didn't commit a serious
 crime.
 Why do you try to cut my head off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I am begging you to be sympathetic to me."

**38. (Cao Cao's(曹操) Gossip) Cao Cao(曹操) gossips
 about Liu Bei(劉備), Guan Yu(關羽), Zhang Fei(張
 飛), Zhao Zi Long(趙子龍), and Kong Ming(孔明).
 Cheng Yu(程昱) stops him, saying they are heros.**

[Aniri] Cao Cao(曹操) says, "The statue is a piece of dead wood
 on an empty mountain, but it speaks words.
 Set it free even if he is guilty."
 After releasing the statue, Cao Cao(曹操) drinks a lot of wine
 from a gourd bottle when his stomach was empty.
 So he becomes drunk. He speaks imprudent words.
 "Hey folks! Sit down there and pay attention to me.

내가 이번 싸움에 꽤¹⁴⁸²)는 보았으되,
오한진¹⁴⁸³) 장수 놈들이 사실상 말이제, 근본¹⁴⁸⁴)은 내놓을 것이 없
느니라.

유현덕이 제가 종실입네¹⁴⁸⁵) 허고 거드름¹⁴⁸⁶)을 빼거니와,
양산 채마전¹⁴⁸⁷)에서 자리¹⁴⁸⁸) 매고¹⁴⁸⁹) 신¹⁴⁹⁰) 삼어 생계¹⁴⁹¹)허든
손¹⁴⁹²)이요,

관운장이 얼굴은 붉고 소리는 크게 지르고 다니나,
하동¹⁴⁹³)에서 사기장사¹⁴⁹⁴)허든 점한¹⁴⁹⁵)의 자식이요,
조자룡인지 요 놈, 날래기는 비호제.¹⁴⁹⁶)

이 놈이 진중에 들면 아까운 인물만 싹싹¹⁴⁹⁷) 도리고¹⁴⁹⁸) 다니니,
아, 고런 방정의 아들놈¹⁴⁹⁹)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도 알거니와, 그 놈의 선대¹⁵⁰⁰)를 누가 알겠느냐, 외가를 알겠
느냐?

상산 돌궁기¹⁵⁰¹)에서 쫓 비져나온¹⁵⁰²) 놈이요,
장비라 허는 놈, 고리눈¹⁵⁰³) 부릅뜨고 우지끈뚝뚝¹⁵⁰⁴) 어찌고 허나,
탁군 땅에서 제육장사¹⁵⁰⁵)허든 손이요,

제갈량이 슬기 있는 체허고 말은 야발지게¹⁵⁰⁶) 잘 하제.

그러나 남양에서 밭 갈아 먹든 농토생¹⁵⁰⁷)의 아들놈이로다.

근래 인심이 주책없어, 주먹심만 돈독¹⁵⁰⁸)허면 여간 심¹⁵⁰⁹)만 믿고
버릇없는 것이 많여.

또한 지체¹⁵¹⁰)는 고사허고,¹⁵¹¹) 나이로 말허드래도 내가 저희들 실존
장¹⁵¹²)은 되는 터인디,

아, 요사이 이놈들이 얼른¹⁵¹³)허면, ‘조조야, 조조야.’ 허니,

내 도무지 세상 욕심에 뜻이 없다.

그러나 내 말 한 마디면, 이놈들 세상에 얼굴을 못 들 것이여.”

[중모래] 정욱이 듣더니 여짜오되, “승상님 그게 웬 말씀이요?

I am defeated in this war.
 But the generals of Wu(吳) Country and Han(漢) Country have
 nothing to brag about.
 Liu Bei(劉備) acts arrogant, saying he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But his ancestors made a living by making mats and shoes out
 of straw on a vegetable field.
 Guan Yu(關羽) has a red face and shouts loudly.
 But his ancestors were craftsmen making and selling pottery.
 Zhao Zi Long(趙子龍) is as fierce as a tiger.
 But he only slashes good people to deaths in a battlefield.
 Who is more detestable than he?
 As you already know, nobody knows his ancestors, including
 his mother's family line.
 He was born from a hole of a rock on Changshan(常山).
 Zhang Fei(張飛) is fearsome with white circles around his wide
 eyes.
 But his ancestors were butchers selling pork.
 Kong Ming(孔明) acts as if he were smart, and he has a strong
 mouth.
 But he is a son of a peasant working on a field.
 These days, people are rude. If they are physically strong, they
 become impolite.
 Set aside the fact that my social standing is higher than theirs.
 In terms of age, I am much older than they.
 But the bastards dare call me as if they call their friend.
 I now lost the will to achieve anything in the world.
 But if I speak a word, they will lose face at any time."
[Jungmori] Cheng Yu(程昱) speaks, "Premier,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왕후장상이 따로 씨가 없다¹⁵¹⁴⁾ 옛부터 일렀삽고,
 병교지는 패라¹⁵¹⁵⁾ 허오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유현주¹⁵¹⁶⁾ 지체는 고사하고 당시 종실로 있사오니 그 아니 일인¹⁵¹⁷⁾
 이며,
 하동에 관운장은 우리나라 있을 적에 미부인¹⁵¹⁸⁾ 감부인¹⁵¹⁹⁾을 주야
 로 모셨으되,
 예절 체통¹⁵²⁰⁾ 장하옵¹⁵²¹⁾과 충렬지심¹⁵²²⁾이 극진허니, 그 아니 가륙
 허며,
 상산의 조자룡은 산양수 큰 싸움¹⁵²³⁾에 아두¹⁵²⁴⁾를 품에 품고 팔만진
 중¹⁵²⁵⁾을 횡행¹⁵²⁶⁾허되,
 아두 잠이 안 깼으니 그 아니 명장이며,
 장비라 허는 장수 고리눈 부릅뜨고
 우레같은 큰 소리를 벽력같이 뉘지르면,¹⁵²⁷⁾ 나는 새도 떨어지고, 영
 웁 열사들도 다 놀래니
 그 아니 대장이며, 남양의 제갈선생 천문 지리 능통하고,
 팔진도¹⁵²⁸⁾ 축지법¹⁵²⁹⁾과 풍운 조화를 임의로¹⁵³⁰⁾ 부리오니, 그 아니
 영웅이오?
 그런 말씀 말으시고, 군사 점고¹⁵³¹⁾나 허사이다.”¹⁵³²⁾

39. (군사 점고) 군사를 점고하니, 전쟁 통에 상한 군사들이 들어오며 울음을 운다.

[아니레] 조조 염치없어라고 곱새고¹⁵³³⁾ 앓았겠다.
 “점고할 것 뭇 있느냐? 여기 앓어서도 다 세겠다.
 정육이 너하고 나하고, 나하고 너하고, 또 너하고 나하고, 나하고 너
 하고.

One can obtain a high social status regardless of his ancestors.
It is said an arrogant leader loses a war. So stop the gibberish.
Liu Bei(劉備) i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and top figure.
Guan Yu(關羽) took good care of Liu Bei's(劉備) two wives
when he was in our country.

He is good-mannered and loyal to his boss, so he is
praiseworthy.

Zhao Zi Long(趙子龍) beat 80,000 troops by himself, while
holding Liu Bei's(劉備) son on his chest.

Since the baby didn't wake up, he is a great warrior.

Zhang Fei(張飛) has white circles around his wide eyes.

If he shouts loudly like thunder, even flying birds fall down, and
all warriors are frightened.

He is a true general. Kong Ming(孔明) mastered the principles
of nature.

He knows how to win the war, to travel a long distance fast,
and to control the wind and clouds. Isn't he a hero?

Stop gossiping about them. Let's take the roll call of our
soldiers."

39. (Roll Call of Soldiers) Wounded soldiers move forward in tears during the roll call.

[Aniri] Cao Cao(曹操) feels ashamed and a little angry.

"What is the roll call for? I can count them even here.

Here are you and me, me and you, you and me, and me and
you.

저기 드러누웠는 놈 한 열댓 명하고 합치면, 한 이십 명 되겠다.
 행여 흩어졌는가 불러나 보아라.” 정욱이 기 두르며¹⁵³⁴⁾ 군중에 하령
 하되,
 “명금이하 대취타허라!”¹⁵³⁵⁾ 영¹⁵³⁶⁾이 난들 적벽강 급한 불에 새
 납¹⁵³⁷⁾인들 있겠느냐?
 나뭇잎 뜯어 조금¹⁵³⁸⁾으로 불어노니,
 [진양조] 허튼¹⁵³⁹⁾ 군사 모여들 제, 갑옷 벗은 제장¹⁵⁴⁰⁾이며,
 군복 벗어 들어멘 놈, 부러진 창 짚은 놈,
 꺾인 활 들어멘 놈, 깨어진 통노구 멘 놈,
 불에 타서 검은 군사들은 반신불수¹⁵⁴¹⁾ 같 수 없고,
 창에 찔려 오는 군사 백공천창¹⁵⁴²⁾ 피 흘린 놈, 배 고파 기진¹⁵⁴³⁾헌
 놈,
 냉병¹⁵⁴⁴⁾ 들어 설사난 놈은 뒤보느라고¹⁵⁴⁵⁾ 같 수 없고,
 “어서 오너라!” 부르는 놈, 어떠한 군사 하나는 병치¹⁵⁴⁶⁾ 벗어 목에
 걸고,
 군복 벗어 팔에다 메고, 부러진 창대를 꺼꾸로 짚고,
 전동전동¹⁵⁴⁷⁾ 들어오며 방성통곡으¹⁵⁴⁸⁾ 설리 운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¹⁵⁴⁹⁾ 같거나? 천리 고국을 어이 같거나?
 존중¹⁵⁵⁰⁾허신 우리 부모, 규중의 젊은 아내 천리 전장 날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거나, 내일이나 기별이 올거나, 의려망¹⁵⁵¹⁾이 몇 밤
 이며,
 화석지탄¹⁵⁵²⁾이 몇 날이나 되는고? 영 영.” 울음을 운다.

A dozen of people are lying down over there. In total, we have about twenty people.

Call and bring scattered ones over here, if any.” Cheng Yu(程昱) swings a flag to give an order.

“Play the march music!” Would they have even a hoot when they got a fire attack on the Chibi(赤壁) River?

They pick up leaves and play them like flutes.

[Jinyangjo] Soldiers scattered around gather in one place. Some officers had taken off their armor.

Some hang their clothes over their shoulders. Some support themselves with broken spears.

Some carry broken bows over their shoulders. Some hold cracked brass pots.

Burned black and crippled, some cannot move.

Pierced by spears, some shed blood and create a mess. Starving, some are exhausted

Some have cold bellies and loose bowels. They can't move because they are busy taking shit.

Some say, “Come here quickly!” A soldier takes off his fur hat and hangs it around his neck.

He takes off his uniform and hangs it over his arm. He holds a broken spear upside down.

He cries loudly and sadly as he hobbles in.

“Alas! Alas! How can I go back home? How can I go back home far from here?”

My dear parents and young wife parted from me leaving for a distant battlefield.

They must be looking forward to the news about me in front of the village day and night.

How many days did they lament? Alas!” He cries as above.

40. (허무적이) 조조가 허무적이를 죽이려 하자, 허무적이 가 조조에게 대든다.

[아니래] 조조 듣고 분을 내어, “네 이놈들! 사생이 조석인데¹⁵⁵³⁾
진중에 요망헌¹⁵⁵⁴⁾ 곡성¹⁵⁵⁵⁾이 웬 일이나?
만일 다시 우는 놈은 군법으로 참허리라!”
한 군사 듣더니 저 혼자말로, “허허, 무던한 군중인 치라고.¹⁵⁵⁶⁾
이게 어디 군중인가? 말간헌¹⁵⁵⁷⁾ 산중인다.”
정욱이 기 두르며¹⁵⁵⁸⁾ 차례로 호명¹⁵⁵⁹⁾허되,
“일대장¹⁵⁶⁰⁾에 안우병이!”
한 군사 보¹⁵⁶¹⁾하되, “물고¹⁵⁶²⁾요!”
조조 듣고 무릎을 치며, “에이? 안우병이가 죽다니, 아까운 놈 죽었다.
그래, 어디서 죽었느냐?” “오림에서 자룡 손에 죽었나이다.”
“그렇지. 아, 고 방정맞은 놈은 아, 고런¹⁵⁶³⁾ 그 아까운 인물만 꼭꼭
그렇게 도린단¹⁵⁶⁴⁾ 말여.
또 불러라.” “좌사천총¹⁵⁶⁵⁾에 허무적이!”
[중모레] 허무적이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를 꺼꾸로 짚고 전동전동¹⁵⁶⁶⁾ 들어오며,
“아이고, 아이고, 어이 갈거나? 고향 천리를 어이 갈거나?
야속허지, 제갈선생. 부질없이 동남풍을 빌어 내어, 이리 곤케¹⁵⁶⁷⁾
허시네그러.
애닭도다, 우리 승상. 일각삼추¹⁵⁶⁸⁾ 바쁜 길에 가거나 헐 일이지,
점고허기 웬 일인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40. (Heomujeok) Cao Cao(曹操) tries to kill Heomujeok, and Heomujeok defies Cao Cao(曹操).

[Aniri] Cao Cao(曹操) is indignant. “You villains! We are in jeopardy.

How can you cry on the battlefield?

Anybody crying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A soldier speaks to himself. “He acts as if we were on a battlefield.

But are we on a battlefield? We are on a mountain!”

Cheng Yu(程昱) calls the names of soldiers as he swings the flag.

“An Ubyeong, the commander of the first unit!”

A soldier reports, “He died!”

Cao Cao(曹操) hits his knee. “What? Is An Ubyeong dead? That is a big loss to us.

So where did he die?” “He was killed by Zhao Zi Long(趙子龍) in Wulin(烏林) Forest.”

“That’s right. Zhao Zi Long(趙子龍) is a bastard because he terminates only good warriors.

Call names again!” “Heomujeok, the commander of the left unit!”

[Jungmori] Heomujeok comes in.

He holds a broken spear upside down, as he hobbles in.

“Alas! Alas! How can I go back? How can I go back home far from here?

Kong Ming(孔明) is cruel. He invoked a southeast wind, plunging us into this misery.

My premier is pitiful. We are in a hurry, so we should keep going.

This roll call is pointless.” He cries as above.

조조 가만히 듣더니만 분을 내어 허는 말이,
 “이 놈! 너는 군례¹⁵⁶⁹)도 허지 않고 우는 일이 웬 일이냐?
 저런 놈 그저 두면¹⁵⁷⁰) 다른 놈 본볼¹⁵⁷¹) 테니, 잡아내어 목 베어라!”
 천총이 기가 맥혀 불고사생¹⁵⁷²) 달려든다.
 “여보시오, 승상님! 여보, 승상님, 듣조시오.¹⁵⁷³)
 무죄한 백만 대병 일시함몰¹⁵⁷⁴) 다 죽이고,
 무슨 염치로 목 베라 허시오?
 살어 고향 못 갈 인생 어서 바빠 죽여주면,
 혼비중천¹⁵⁷⁵) 높이 날어 위국¹⁵⁷⁶) 고향 돌아가서
 기롭던¹⁵⁷⁷) 부모 처자를 혼이라도 나는 만날랴요.
 어서 바빠 죽여주요.”
 어서 급히 죽여 달라고 벌벌벌 떨면서 울음을 운다.

41. (골내종이, 등덩바리) 골내종이는 성한 데가 없는 몸으로 들어오고, 등덩바리는 성한 몸으로 들어와 싸움마다 뒤로 숨어 그렇다고 말한다.

[아니리] 조조 듣고 분부허되,
 “에, 저 놈 물리치고, 또 불러라!”
 “좌기병¹⁵⁷⁸)에 골내종이!”
 [중중모리] 골내종이가 들어온다.
 골내종이가 들오넌디,
 안팎낙보¹⁵⁷⁹) 등콰사
 눈시울¹⁵⁸⁰)이 찢어진 놈,
 입한저¹⁵⁸¹) 빼틀어지고,
 귀 하나 떨어지고,

After hearing Heomujeok, Cao Cao(曹操) is infuriated.
 “You rascal! How dare you cry without even saluting me?
 If I don’t punish him, I am afraid others will follow him. Arrest
 and behead him!”
 Heomujeok is dumfounded. He is defiant, not fearing death.
 “Look, premier! Hello, premier! Listen to me.
 You killed a million innocent troops on a river.
 You are shameless to give an order to cut my head off.
 I am fated not to go back home alive. Kill me immediately.
 My soul will rise up and fly to my hometown in Wei(魏)
 Country.
 My soul will meet my parents and wife that I missed so much.
 Kill me quickly.”
 He trembles intensely, as he asks for his death in tears.

**41. (Golnaejong, Dungdeongbal) Covered with wounds,
 Golnaejong comes in. Dungdeongbal says he is in
 one piece because he was behind the formation in
 every battle.**

[Aniri] Cao Cao(曹操) issues an order.
 “Get him out of here and bring another!”
 “Golnaejong, the flag soldier on the left!”
 [Jungjungmori] Golnaejong comes in.
 He comes in.
 He is a hunchback.
 There are wounds at the sides of his eyes.
 His mouth is crooked.
 One of his earlobes is cut off.

코설주¹⁵⁸²) 부러진 놈,
팔 하나 없고,
다리 절고, 곰배팔¹⁵⁸³) 휘저으며 들어와,
“예!”

[아니레] 조조 보고 기가 맥혀, “야, 그 놈 병신 부자로 생겼다.
저놈이 어디서 낮잠을 자다가 산벼락¹⁵⁸⁴)을 맞은 놈 아니냐?
저런 놈 군중에 두어야 아무 짝에도 못 쓰니라.
우리는 앞에 달아나면 저 놈은 뒤에 쳐졌다가 우리 간 데만 꼭꼭 일러
줄 것이니,
저놈을 잘 씻쳐,¹⁵⁸⁵) 탄 국물 붓지 말고
우리 한 그릇¹⁵⁸⁶)씩 먹고 가자.”
골내종이 어이없어, 조조를 물끄러미 보더니,
“송상님 눈 조¹⁵⁸⁷)가 인장식¹⁵⁸⁸) 많이 허시게 생겼소.”
“저것 보기 싫다. 물리치고 또 불러라!”
“우기병¹⁵⁸⁹)에 둥덩바리!”

[중중모레] 둥덩바리가 들어온다.
둥덩바리가 들오는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사모장창¹⁵⁹⁰)을 눈 우에 번뜻 들고,
조조 앞에 와 우뚝,
“예!”

[아니레] 조조 보고 질색하여,
“아이고, 정육아. 이것 장비 군사 아니냐?”
둥덩바리 어이없어, “아니, 뉘 아들놈이 장비 군사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내 군사냐? 내 군사 같으면, 어찌 그렇게 성허냐?”¹⁵⁹¹)
“성허거든 회쳐서 잡수시오.” “네 이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요. 아까 병든 군사 끓이라 허시더니,

His nose is broken.

He lost his arm.

He limps and shakes his deformed arm, as he comes in.
“Yes!”

[Aniri] Cao Cao(曹操) is stunned. “God! He has abundant injuries.

He must have been hit by lightning while taking a nap.

He is useless in the military.

When we flee ahead, he will fall behind and tell the enemy where we went.

Clean him up and make soup out of him.

Let’s eat a bowl of soup and take off.”

Speechless, Golnaejong looks at Cao Cao(曹操) vacantly.

“Premier, the way your eyes look indicates that you eat a human soup a lot.”

“I dislike this man. Get him out of here and bring another!”

“Dungdeongbal, the flag soldier on the right!”

[Jungjungmori] Dungdeongbal comes in.

He comes in with glaring eyes.

He holds up his triangled-spear above his eyes.

He stops in front of Cao Cao(曹操).

“Yes!”

[Aniri] Cao Cao(曹操) is scared.

“Cheng Yu(程昱), isn’t this man Zhang Fei’s(張飛) soldier?”

Dungdeongbal is stunned. “What? Who do you think is Zhang Fei’s(張飛) soldier?”

“Then, are you my soldier?” If you are, why are you unscathed?”

“If I am uninjured, please eat me raw.” “You villai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gave an order a minute ago to boil a disabled soldier.

성허다는 말씀에 하도 제가 위태로워 갖고 드리는 말씀 아납니까?”
 “너는 저리 성허기에 반가워서 허는 말이로다.”
 동덩바리 허는 말이, “군사놈들이 말끔¹⁵⁹² 미련하여 죽고 모두 다
 병신되지요.
 씹¹⁵⁹³헐 제는 뒤로 숨고,
 씹 아니헐 때는 앞장을 서서 쪼쪼거리고¹⁵⁹⁴ 다니게 되면,
 병신될 리도 만무¹⁵⁹⁵허고, 죽을 리도 없겠지요.”

42. (마병 덜렁쇠) 마병 덜렁쇠는 한 필 남은 말을 바늘 한 씹 받고 팔았다고 말한다.

[아니리] “아따,¹⁵⁹⁶ 그 놈 군중의 씨헐까¹⁵⁹⁷ 무섭다.
 저 놈 몰아내고 또 불리라.” “마병¹⁵⁹⁸에 덜렁쇠!”
 [중모리] 덜렁쇠가 들어온다. 덜렁쇠가 들오는다,
 말을 어데¹⁵⁹⁹ 매고 오는 듯이
 말채¹⁶⁰⁰ 하나 허리춤¹⁶⁰¹에 꼽고,¹⁶⁰² 말방울 한 개를 손에 들고,
 방울을 찼렁찼렁 흔들면서 부러진 창대 꺼꾸로 짚고
 아무 걱정 없이 들어오니, 조조 보고 묻는 말이,
 “이 놈. 말은 다 어찌고 너 혼자 오느냐?”
 “영거¹⁶⁰³허든 말 삼백 필을 화전¹⁶⁰⁴ 만나 다 죽이고,
 다만 하나 남은 것을 한사결단¹⁶⁰⁵ 끌고 오다,
 선길장사¹⁶⁰⁶ 하나 만나 발병 낫다고 사자기에,
 군중에 말 두어야 쓸 데 있소?
 점심 한 때 얻어먹고 바늘 한 씹¹⁶⁰⁷과 환매¹⁶⁰⁸허였나이다.”

I said so because you said I am uninjured and I felt I am in danger.”

“I said so because I was glad you are in one piece.”

Dungdeongbal says, “Soldiers are completely stupid, so they either die or become crippled.

When there is a battle, hide behind the formation.

When there is no battle, stay confidently in front of the formation.

And there is no occasion you will be crippled or die.”

42. (Deolleongsoe, a Cavalry Soldier) Deolleongsoe, a cavalry soldier, says he exchanged his last horse for a bag of needles.

[Aniri] “I am afraid he might pollute others.

Get him out of here and bring another.” “Deolleongsoe, a cavalry soldier!”

[Jungmori] Deolleongsoe comes in. He come in.

It looks as if he fastened his horse somewhere.

He carries a whip on his waist. He has a bell in his hand.

He shakes the bell and holds a broken spear upside down.

He comes in without any worry. Watching Deolleongsoe, Cao Cao(曹操) asks,

“You villain! Where are the horses? Why are you coming alone?”

“All the three hundred horses we previously had died during the fire attack.

One survived, and I was bringing it here, risking my life.

I came across a peddler who wanted to buy it, saying his legs hurt.

I thought the horse was useless to us.

I exchanged it for lunch and a bag of sewing needles.”

43. (복통쇠) 밥 짓는 군사 복통쇠가 들어와 어린 동생을 걱정하며 운다.

[아니래] 조조 듣고 기가 맥혀 한편 펄펄 뛰면서도,
조조 본래 간웅¹⁶⁰⁹)으로 급함을 당할수록 웃기를 잘하는 성품이라,
얼굴에 웃음빛만 띄워놓으면 군사들도 함부로 농¹⁶¹⁰)을 허겼다.
“아니 그래, 군중에 말은 쓸 데 없고, 바늘은 쓸 데 있단 말이나?”
“어느 놈이 평생 군중에만 다니겠소?”
천행¹⁶¹¹)으로 살아나서, 위국 고향 돌아가서, 부모 처자 만나보고
바늘 한 쌍 두고 쓰면, 말 한 필만 못허리까?”
조조 펄펄 뛰며, “이놈아, 아무리 패군장¹⁶¹²)이 되었다고 무엇을 타고
간단 말이나, 이놈아.”
“말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오. 들것¹⁶¹³)을 타고 가웁던지,
정 편하게 가실려면 지계에다 담어 지고 설령설령¹⁶¹⁴) 가오면, 길도
분고¹⁶¹⁵) 좋아웁니다.”
“이놈아, 내가 앓은뱅이 의원이나, 지계에다 지고 가게?
아, 저 놈은, 아, 나는 기양¹⁶¹⁶) 속 타서 말을 허는디,
저는 암시랑토¹⁶¹⁷) 앓게 말을 허네그려.
저 놈 보기 싫다. 몰아내고 또 불러라.” “화병¹⁶¹⁸)에 복통쇠!”
[진양조] 복통쇠가 들어오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그나?
나는 전장에 나올 적에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이 의지할 곳
바이없는,¹⁶¹⁹) 계우¹⁶²⁰) 칠 세 된 어린 동생을 내던지고 나왔는디,
불쌍헌 우리 동생 죽었느냐, 살었느냐?
문전걸식¹⁶²¹) 눈치를 받고, 형을 부르고 다니면서 아사지경¹⁶²²)이 되
었느냐?
언제나 고향 가서, 불쌍헌 우리 동생 얼굴이나 다시 볼거나?”
영영 울음을 운다.

43. (Boktongsoe) Boktongsoe, a cook, cries, while worrying about his young brother.

[Aniri] Struck dumb, Cao Cao(曹操) runs wild.

He is originally a wicked man, so he often laughs when he is surprised.

If he smiles, his soldiers dare joke with him.

“Why do you think we don’t need a horse, but we need a needle?”

“Who will be in the military in his entire life?

If heaven helps me, I will go back home and meet my family.

A bag of needles will be more useful than a horse.”

Cao Cao(曹操) goes wild. “You rat! I am a defeated leader, but I need a horse to ride.”

“You don’t need to worry that there is no horse. You can ride a stretcher.

If you insist a comfortable ride, you can use A-frame carrier.

It is good to take a long trip.”

“You rascal! Why would I ride an A-frame carrier when I am not crippled?

I spoke my words because I was worried.

But he speaks in a care-free manner.

I hate him. Get him out of here and bring another.”

“Boktongsoe, a fire soldier!”

[Jinyangjo] Boktongsoe comes in. “Alas! What should I do?

When I came to this war, I left a seven-year-old brother behind who didn’t have parents or relatives to turn to.

Is my poor brother dead or alive?

Is he begging in front of houses, calling me around, and starving?

When can I go back home and see my poor brother’s face?”

He cries loudly.

44. (옹돌쇠) 복통쇠가 밥술 잃은 사연을 말한 후, 군량지기 옹돌쇠가 들어온다.

[아니래] 이렇듯 울고 오니, 조조 듣고 해를 내어,
“네 이놈, 통노구¹⁶²³)는 어디다 두고, 요망헌 곡성¹⁶²⁴)이 웬 일이나?”
저 놈이 울면서 줍치¹⁶²⁵)를 끄르더니,
엽전만큼헌¹⁶²⁶) 쇠 한 쪼각을 내놓으며, “통노구 여기 있소.”
조조 어이없어, “네 이놈, 이것이 통노구나?”
“승상님, 들어보시오. 적벽강 급한 불에 화전¹⁶²⁷)을 만나 도망힐 제,
어떤 장수 하나 와락 뛰어 달려들어,
‘이놈! 너 진 게 그게 무엇이냐?’ 허고 묻기에,
‘산제¹⁶²⁸) 지내는 통노구올시다.’ 허였더니,
통노구 복판에 위나라 위 자를 보더니마는,
‘아, 이게 조조놈의 화병¹⁶²⁹)이로구나.’”
조조 듣고 어이없어, “네 이놈, 내가 내 앞에서 조조놈이라고 히
야¹⁶³⁰) 웅단 말이나?”
“아,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장수가 그러드란 말이요.”
“그래 어쨌느냐?” “취같은 조조놈의 피를 본받아 잔피가 비상허다
허며,”
“아, 저런 환장¹⁶³¹)을 헌 놈이 있는가?”
“아니요. 아, 그 장수가 그러드란 말이요.” “그래 대관절 어쨌느냐?”
[중모래] “통노구를 번쩍 들어 공중에다 뱉데¹⁶³²) 치니 편편파쇠¹⁶³³)
되었기로,
그 표적¹⁶³⁴)이나 하려허고 한 쪼각 주워가지고 왔나이다.”
“저 놈 몰아내고 또 불러라!” “군량지기¹⁶³⁵) 옹돌쇠!”

44. (Ongdolsoe) After Boktongsoe explains how he lost a brass pot, Ongdolsoe, a cook, comes in.

[Aniri] As Boktongsoe cries as said above, Cao Cao(曹操) gets angry.

“You villain! Where did you put the brass pot for cooking? What is the crying for?”

While crying, the soldier pulls out a bag.

He takes out a small piece of brass from the bag. “Here is the brass pot.”

Stunned, Cao Cao(曹操) says, “You bastard! Is this a brass pot?”

“Look, premier. I was running away from the fire attack on the Chibi(赤壁) River.

A warrior ran at me fast.

He asked, ‘What is it that you are carrying?’

I said, ‘It is a brass pot used during the ritual for a mountain god.’

He spotted the letter ‘Wei’ in the middle of the brass pot.

‘You must be a cook for the villain, Cao Cao(曹操).’

Cao Cao(曹操) is dumfounded. “You bastard! How can you say the villain, Cao Cao(曹操), in front of me?”

“I didn’t say that. The warrior did.”

“What did he say to you?” “He said I am as devious as a fox like Cao Cao(曹操).”

“How dare you say I am as cunning as a fox?”

“The warrior said that, not me.” “What happened afterwards?”

[Jungmori] “The officer held up the brass pot high and threw it on the ground, breaking it into pieces.

To prove what happened, I have brought a piece of it.”

“Get him out of there and bring another.” “Ongdolsoe, a rice soldier!”

웅돌쇠가 들어오는다, 조조가 술을 먹다 술병을 앞에 놓았거늘,
술잔이나 얻어 먹으라고
전대¹⁶³⁶)에 쌀 한 홉 쪼든 것을 행행 돌리고 들어오며,
거짓말 국량¹⁶³⁷)을 허였구나.

45. (웅돌쇠의 거짓말) 웅돌쇠가 거짓 사연을 늘어 놓으며 조조에게 술을 얻어 마신다.

[아니래 “네 이놈, 군량은 다 어쨌느냐?”

“군량 요 녀에다¹⁶³⁸) 두었습니다.”

조조 내림¹⁶³⁹)에 하도 회한하여, “거 어떻게 두었느냐?”

“승상님, 들어보시오. 적벽강 급한 불에 백만 군사 다 죽는다,
군량인들 온전허오리까? 할 수 없이 상선¹⁶⁴⁰) 닻줄 끌러다가,
사백오십 석 실은 배 허리를 질뽕¹⁶⁴¹) 걸어 깊어지고 육지로 도망힐 제,
오림을 당도허니 자룡이가 보고 똥을 싸고 달아납디다.”

“아, 저런! 너 기운 세구나.” “그저 힘꼴¹⁶⁴²)이나 쓰지요.”

“그래 어쨌느냐?” “이릉¹⁶⁴³)을 당도허니, 장비도 보더니 뉘을 잃고 달
어납디다.”

“그럴 것이다. 아, 장비는 별 놈이냐?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너를 앞장세웠던들 이런 패를 안 볼 뻔허였구나.”

“승상님이 말씀 허신께 말이제, 소인놈을 선봉만 주었으면, 아, 그까
짓 것들이 다 무엇이오?”

“그렇지야. 그래 어쨌느냐?”

Ongdolsoe comes in. Cao Cao(曹操) had a drink and has put a bottle of wine in front of him.
Ongdolsoe intends to get a drink of wine from Cao Cao(曹操). He swings a bag containing a cup of rice, as he comes in. He made up his mind to tell a lie.

45. (Ongdolsoe's Lie) Ongdolsoe gets a drink from Cao Cao(曹操) as he tells a false story.

[Aniri] "You villain! What did you do to the military rice?"

"I kept the military rice over there."

Cao Cao(曹操) thinks Ongdolsoe is strange. "Where exactly did you keep the rice?"

"Look, premier. A million troops died by fire on the Chibi(赤壁) River.

Would the rice be intact? Inevitably, I took an anchor rope off the largest ship.

With the use of a rope, I carried a ship loaded with 450 bags of rice, and fled to the land.

I reached Wulin(烏林) Forest. Zhao Zi Long(趙子龍) saw me, shit his pants, and ran away."

"My goodness! You are strong!" "I am a little bit strong."

"What happened after that?" "I arrived at Yiling(彝陵). After seeing me, Zhang Fei(張飛) was confused and ran away."

"I see. Zhang Fei(張飛) is not a great warrior.

If I had known that, I would have put you in the front line, and we would not be in this trouble."

"Speaking of the front line, if I had been in the front line, we would have beaten the enemy warriors."

"I agree. What happened after that?"

“그렇게 지고 오자니 허리오지¹⁶⁴⁴)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숨 가빠 나 말 못허겄소.

이럴 적에 술이나 한 잔 있었으면, 목이나 좀 축여서 말썸이나 올릴 것을.”

조조가 속으로 딱 반했겠다. “오냐. 내게 술 있다. 이놈 먹고 말허여라.”

부어 주니 먹은 후에, “그래 또 어쨌느냐?”

“식량을 그렇게 많이 줘어졌으나,

승상님은 연일 불식¹⁶⁴⁵)허시고, 패군졸¹⁶⁴⁶)을 거느리고 정신없이 가셨는디,

인정상 밥 못 해 먹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사람의 인정이 그래야지.” “인정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말 못 허겄소.”

“아나, 술 한 잔 더 먹어라.” “주실 테면 아주 기양¹⁶⁴⁷) 한 서니 잔 주시오.”

“그래라.” 부어주니 먹은 후에, “그래 어쨌느냐?”

[중모레] “요 념예를¹⁶⁴⁸) 당도허니,

치어다보니 만학천봉¹⁶⁴⁹)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장¹⁶⁵⁰)이라. 층암절벽¹⁶⁵¹) 사이로 올라올 제, 아이고, 숨 가빠 나 죽겄소. 술 한 잔 더 주시오.”

“어따, 그래라.” 또 부어주니 먹더니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조금 쉬려허고 돌아서다,

어깨 외짝, 닳줄 툇 떨어져 깜짝 놀래 돌아보니,

인자¹⁶⁵²) 막¹⁶⁵³) 저 건너 술나무 밑에 따땃헌 데 조금 누웠더니,

잠이 슬그머니 들어 꿈을 그렇게 꾸었습니다.”

“Carrying the military rice, my back was hurting, and I was hungry and thirsty.

I can’t speak now because I am short of breath.

If I drink a little in such a situation, I could continue talking to you.”

Cao Cao(曹操) likes him deep in his mind. “Okay. Here comes wine. Drink this wine and continue talking.”

Cao Cao(曹操) offers wine to Ongdolsoe, and Ongdolsoe drinks it. “What happened after that?”

“I was carrying a lot of rice.

But Your Majesty went hungry for many days, fleeing with the defeated soldiers.

My conscience prevented me from eating the rice.”

“I see. You are a good man.” “Forget about being a good man. I can’t talk anymore because I am hungry.”

“Okay. Here comes another drink.” “If you intended to give me some, please be generous.”

“Okay.” Cao Cao(曹操) offers wine to Ongdolsoe, and Ongdolsoe drinks it. “What happened after that?”

[Jungmori] “I arrived at a certain place.

I turned my head upwards and saw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I turned down my head and saw white sand. I climbed up a cliff of rocks after rocks.

Gosh, I am out of breath. Please give me another drink.”

“Here you go.” Ongdolsoe drinks the wine offered by Cao Cao (曹操).

“I turned around to take a rest, feeling tired in my shoulder and legs. I was shocked because the rope suddenly broke.

A few minutes ago, I lay down on the warm place under the pine tree over there.

I slowly went to sleep and had a dream with that content.”

46. (새타령) 조조 군대가 화용도로 들어가니, 죽은 장졸의 원혼이 새가 되어 울음을 운다.

[아니리] 조조 듣고 허망하여,

“아, 저 목 벨 놈에게 돌려서¹⁶⁵⁴ 아까운 술만 짝¹⁶⁵⁵ 뺏겼구나.”

군사를 수습하니 다만 남은 게 수십 기¹⁶⁵⁶라.

화병 불러 밥 지어 군사들을 먹인 후에, 행군을 재촉할 제,

정욱이 여짜오되, “화용산상¹⁶⁵⁷에 연기 나고,

남군대로¹⁶⁵⁸에 동정¹⁶⁵⁹이 없사오니 어느 길로 가오리까?”

조조 이른 말이, “화용도로 들어가자.”

“높은 봉에 연기쳐¹⁶⁶⁰ 북병이 위태하오니 대로로 가사이다.”

“병법을 네 모른다. 허즉실이요, 실즉허라.¹⁶⁶¹”

피많은 제갈공명 대로에다 북병허고, 소로¹⁶⁶²에 연기쳐 날 속일 게
아니냐?

두 말 말고 화용도로 들어가자.” 좌우 군병 영을 듣고,

[중모리] 화용도로 행군할 제, 산천 경개¹⁶⁶³ 장히¹⁶⁶⁴ 좋네.

만학¹⁶⁶⁵에 눈 쌓이고, 천봉¹⁶⁶⁶에 바람 칠 제,¹⁶⁶⁷

화초목실¹⁶⁶⁸이 바이없고¹⁶⁶⁹ 앵무 원앙이 끊쳤는디,¹⁶⁷⁰

새가 어이 올라마는,

46. (Bird Song) Cao Cao's(曹操) soldiers enter Huarong
(華容) Road. The evil spirits of the dead soldiers
became birds and cry.

[Aniri] Cao Cao(曹操) is dismayed.

"I only lost my wine because I was fooled by that bastard to be beheaded."

Cao Cao(曹操) sets his soldiers in order. Only a few cavalry soldiers are left.

He orders a cook to cook, feeds his soldiers, and urges them to resume the journey.

Cheng Yu(程昱) asks, "Smoke rises up from the top of Huarong(華容) Mountain.

There is not a trace of soldiers on the wide road to Nanjun(南郡). Which way should we go?"

Cao Cao(曹操) answers, "Let's take Huarong(華容) Road."

"Smoke from the top of Huarong(華容) Mountain signifies an ambush and danger. Let's take the wide road."

"You are ignorant of a military strategy. Something is nothing; nothing is something.

Being smart, Kong Ming(孔明) would lay an ambush on the wide road and make smoke on a narrow road to deceive me. Don't argue with me. Let's take Huarong(華容) Road." Soldiers obey his order.

[Jungmori] They march to Huarong(華容) Road. The scenic view is great.

Snow is piled up on numerous valleys. Winds blow on numerous mountain tops.

There are no flowers, no grass, and no fruit. No parrot or mandarin duck flies.

There can't be a bird crying.

적벽 오림¹⁶⁷¹에 죽은 장졸¹⁶⁷² 원혼¹⁶⁷³이 한조¹⁶⁷⁴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며 지지않아서¹⁶⁷⁵ 울음을 운다.
 나무나무 가지마다 앓아 우는 각 새 소리.
 저 할미새 날아든다. 방정맞은 저 할미새.
 꿩¹⁶⁷⁶을 까불거리며¹⁶⁷⁷ 조승상을 비웃는다,
 “통일천하를 너를 주랴? 아냐,¹⁶⁷⁸ 옳다,¹⁶⁷⁹ 뻔뻔쑈.
 이교녀¹⁶⁸⁰를 너를 주랴? 아냐, 옳다, 뻔뻔쑈 뻔쑈 뻔뻔쑈 호르르 뻔
 쑈 팽당그르르르” 날아가고.
 저 쑈국새 울음 운다. “말 들어라, 조승상아. 백만 대병 다 죽이고,
 여간¹⁶⁸¹ 남아 가는 장졸 냉병¹⁶⁸²인들 아니 들며,
 뻔들 오직 고평쏘냐? 쑈국이나 먹고 가거라.”
 이리로 가며 쑈국, 저리로 가면서 쑈국 쑈쑈국 쑈국, 울며 날아가고.
 저 두견이 날아든다. “말 들어라, 위병¹⁶⁸³들아. 도탄에¹⁶⁸⁴ 쌓인 군
 사 고향 이별이 몇 해드냐?”
 이리로 가며 귀촉도,¹⁶⁸⁵ 저리로 가면서 귀촉도, 귀촉도, 울음을 울며
 날아가고.
 저 찔꼬리 울음 운다. “말 들어라, 조승상아. 나는 전초¹⁶⁸⁶ 화병 냇이
 로다.
 황금 갑옷 떨쳐 입고 우리 고향 날아가니 부모 처자 나를 모르더구나.”
 이리로 가며 찔꼬리 루리루, 저리로 가며 찔꼬리 루리루 찔꼬리 루리
 루, 울며 날아가고.
 저 바람맥이¹⁶⁸⁷ 울고 뜬다. “말 들어라, 조승상아.
 무죄헌 백만 대병 일시 함몰¹⁶⁸⁸ 다 죽이고,
 여간 남아 가는 장졸 출신들 오직허라.
 한의¹⁶⁸⁹ 바람을 내가 막아 주마.” 너울너울 날아가고.
 저 가마귀 울고 뜬다. “가소롭다, 조승상아.

The evil spirits of troops who died in the Chibi(赤壁) River and
 Wulin(烏林) Forest became resentful birds.
 They sit and cry, resenting Cao Cao(曹操).
 Various birds sit on branches and cry.
 A wagtail flies in. A wagtail acts flippantly.
 It ridicules Cao Cao(曹操), waving its tail.
 Who would give you the unified China? Here you are!
 Who would give you two Xiao(小) sisters? Here you are!" The
 wagtail flies away.
 A bird cries, "Look, Cao Cao(曹操). You had a million troops
 killed.
 Remaining soldiers have gotten cold.
 Wouldn't they be hungry? Here comes soup for them."
 The bird flies here and there, as it cries. It flies away in tears.
 A cuckoo flies in, "Look, soldiers of Wei(魏) Country. You are
 in pain. How long have you been away from home?"
 The cuckoo flies here and there, saying he cannot go back
 home. It flies away in tears.
 A nightingale cries, "Look, Cao Cao(曹操). I am the evil spirit
 of a cook on the front line.
 I took off the golden armor and flew to my home. My parents,
 wife, and child couldn't recognize me."
 The cuckoo flies here and there while crying. It flies away in
 tears.
 A bird cries and flies up with its wide wings. "Look, Cao Cao(曹操).
 You had a million innocent troops killed at one time.
 The fleeing soldiers must feel cold.
 Let me protect you from a wind." The bird flies away, flapping
 its wings.
 A crow cries and flies up. "How pitiful Cao Cao(曹操) is!

초평대로¹⁶⁹⁰)를 마다하고, 심산총림¹⁶⁹¹)이 어인 일고?¹⁶⁹²) 골기약 까
옥” 울고 가고.

저 기러기 울고 뜬다. “말 들어라, 위병들아. 나는 전장 객사 원혼
조¹⁶⁹³)라.

우리 고향 날어드니, 부모 처자 간 데 없고, 집도 터도 흔적이 없어
지향없이 떠 다니며 낄룩 낄룩 울었더니,

천리 전장에다 널 보낸 부모 처자 형제 권술¹⁶⁹⁴)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거나 기다리고 바래다가,¹⁶⁹⁵)
상사몽¹⁶⁹⁶)을 꾸라하고 계우¹⁶⁹⁷) 든 잠을 네 소리에 깨었다고 원망히
면서 울더구나.

너희들은 천행¹⁶⁹⁸)으로 살어 고향 돌아가면, 부모 처자를 보련마는,
나는 지향¹⁶⁹⁹) 없다, 낄룩 뚜루루루루 낄룩.”

오도 가도 아니허고 뱅뱅 돌면서 울음을 우니,

47. (정옥 탄식) 새타령을 듣고 정옥이 서러워한다.

[진양조] 군중 설움 솟아난다.

정옥이가 설움이 나서, “아이고, 어쩔거나?

평생소학¹⁷⁰⁰) 진심¹⁷⁰¹)허여 운주결승¹⁷⁰²)히했더니,
재불용시불리¹⁷⁰³)로구나.

애달프신 우리 승상 주색¹⁷⁰⁴) 보면 한사¹⁷⁰⁵)허고,
병서¹⁷⁰⁶) 보면 궤병터니마는,

삼부육사¹⁷⁰⁷) 간 데 없고, 백만 대병 몰사허니,

What made you choose a thick forest of a deep mountain over a wide road in a field covered with grass?" The crow goes away in tears.

A wild goose cries and flies up. "Look, soldiers of Wei(魏) Country. I am an evil spirit of a soldier who died on the battlefield.

I flew back to my home. I couldn't see my parents, wife, or child. There was not a trace of my house site.

I wandered around in sky, as I cried.

Your families said goodbye to you leaving for the distant battlefield.

They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about you.

They managed to go to sleep, hoping that they would see you in their dreams. They resented my cry because I woke up your families.

If you are lucky to go back home, you will see your families. But I don't have such a chance.

The wild goose circles above the soldiers, as it cries.

47. (Cheng Yu(程昱) Laments.) Cheng Yu(程昱) laments after hearing the bird song.

[Jinyangjo] Sad feelings well up from the soldiers' minds.

Cheng Yu(程昱) feels sad "Alas! What should we do?

We did our best, making use of our knowledge we gained in our life.

But the timing made us useless.

My poor premier really likes wine and women.

But he detested a military book.

His subjects are gone. He had a million troops killed.

모사¹⁷⁰⁸)도 허사¹⁷⁰⁹) 되고, 장수도 공수¹⁷¹⁰)로다.

전복병¹⁷¹¹)에 살어 오나, 후복병¹⁷¹²)이 일어나면, 어이 살어 가잔 말
이나?

떠서 우는 저 기력야. 너 무삼¹⁷¹³) 설움으로 저리 슬피 울고 뜨니,
짜을 잃고 네 우느냐. 군중 장졸이 불쌍하여 오도가도 못 허느냐?
떠서 우는 네 소리에 군중 설움이 절로 난다.”

[아니레] 조조 듣고 분을 내어,

“사생이 조석인데,¹⁷¹⁴) 요망한 곡성¹⁷¹⁵)이 웬 일이나?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허리라!”

48. (조조 웃음) 화용도 지경에 당도하여 조조가 또 공연한 웃음을 웃으며 헛장담을 한다.

[중모레] 이렇듯이 호령허니 일시에 조용헌디,

이곳은 화용도 지경¹⁷¹⁶)이라.

천리호풍¹⁷¹⁷) 모진 바람 살 쏜 듯 들이부니,¹⁷¹⁸)

연일¹⁷¹⁹) 굵은 주린 장졸 죽는 자가 태반¹⁷²⁰)이라.

반생반사 가는 길에 조조 사면 산천을 둘러보더니,

공연한 웃음을 또 내어 “히히 하하하하” 웃거늘,

중관¹⁷²¹)이 겁을 내어, “아이고, 일은 또 났구나.”

조조 앞으로 달려오며, “어따, 여보시오, 승상님. 제발 그 웃음 좀 참
으시오.

승상님만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 일어나는디, 어찌자고 웃음을 웃나이까.”

[아니레] “글쎄, 애들아, 웃음 아니 날까 보아라.

주유 제갈량을 뉘라 모사라 헐꼬?

His plan and warriors were of no use.
 How could we survive ambush attacks in the front or in the rear?
 A wild goose crying up there! What makes you cry so sadly in
 the sky?
 Are you crying because you lost your spouse? Are you staying
 there because you take pity on the officers and soldiers?
 Your cry up there gives rise to sad feeling to everyone here.”
[Aniri] Cao Cao(曹操) is exasperated.
 “We are in jeopardy. What is the wicked crying for?
 If you cry, you will be behead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48. (Cao Cao(曹操) Laughs.) Arriving at the entrance
 of Huarong(華容) Road, Cao Cao(曹操) laughs for
 no reason and makes an empty confident remark.**

[Jungmori] Cao Cao's(曹操) grim order silences everyone.
 This is the entrance of Huarong(華容) Road.
 A cold north wind blows hard and fast.
 Not having eaten for days, many soldiers die.
 While walking half-dead, Cao Cao(曹操) takes a look at the
 mountains and streams.
 He laughs for no reason. “Heehee! Hahaha!”
 A servant is frightened. “Gosh! We will fall in trouble!”
 He runs to Cao Cao(曹操). “Hello, premier. Please stop
 laughing.
 Your laughs brings an ambush without fail. Why do you laugh?”
[Aniri] “Listen, soldiers! I cannot but laughing.
 Who would call Zhu Yu(朱瑜) and Kong Ming(孔明) strategists?

나 같으면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비워 둘 곳이 아니다.
 여기다가 복병 열만 묻어 두었다라도, 우리들 생긴 모양이 발 빼버린
 문어 신세라, 어떻게 살어갈 것이냐?”
 헛장담¹⁷²²) 이 말 끝에 산상¹⁷²³)에서 뇌고소리¹⁷²⁴) ‘꿇’.
 정욱이 질색하여, “아이고, 이거 뭘 소리냐?”
 중관이 허는 말이, “승상님이 웃었는디, 복병이 없을 겐가?”
 조조 듣고 허는 말이, “너희들은 겁도 많다. 이 산중에 큰 절 있어
 사시공양¹⁷²⁵) 북소리로다.”

49. (관운장 출현) 관운장이 나타나자 조조가 겁을 먹고 죽 은 체하겠다고 한다.

[자진모레] 이 말이 지듯마듯¹⁷²⁶) 재차¹⁷²⁷) 뇌고 소리가 ‘꿇’.
 만학천봉¹⁷²⁸) 사이사이로 검극¹⁷²⁹)이 뽀죽뽀죽,
 대풍¹⁷³⁰)이 일어 깃발이 펄렁. 양사주석¹⁷³¹)이 정현허고,¹⁷³²)
 운장이 큰 소리로 군중에 하령허니 사명기¹⁷³³) 나오는디
 ‘한수정후¹⁷³⁴) 관공의 사명기라’ 뚜렷이 새졌는디,
 조조 황겁¹⁷³⁵)허여 기도¹⁷³⁶) 단도¹⁷³⁷) 날도¹⁷³⁸) 뛰도 못허고,
 “아이고, 정욱아! 저기 오는 장수 뉘냐¹⁷³⁹) 보아라!”
 “아무면 무엇허실라요?” “에지간허면 한번 해보자.”¹⁷⁴⁰)
 “호통 듣고 기치¹⁷⁴¹) 보니, 관공일시¹⁷⁴²) 분명허오.”
 “아이고, 그러면 인제 다 죽었다.”

If I were them, I would not leave such a place unutilized. We are powerless now, so an ambush attack of only ten soldiers in such a place would kill us all.”

The moment Cao Cao(曹操) finishes his overconfident remark, incessant drum sounds come from a mountain top.

Cheng Yu(程昱) is petrified. “God, what are these sounds?”

The servant says, “The premier laughed. Why wouldn’t there be an ambush?”

Cao Cao(曹操) responds, “You are cowards. There is a large buddhist temple on this mountain. The monks are offering food and hitting drums.”

49. (Guan Yu(關羽) Shows Up.) When Guan Yu(關羽) shows up, Cao Cao(曹操) is scared and says he will pretend to be dead.

[Jajinmori] The moment Cao Cao(曹操) finishes speaking, drum sounds come again from the mountains.

Swords and spears are seen on the numerous mountains.

A strong wind blows and flags flap. Sand and stones move around in the wind.

Guan Yu(關羽) issues an order in a loud voice to his soldiers. His flag is reveled.

It clearly reads, ‘Guan Yu’s(關羽) Standard.’

Cao Cao(曹操) is so scared that he can’t move even an inch.

“Gosh, Cheng Yu(程昱)! Check out the warrior coming at us!”

“Why do you want to know who he is?” “Let’s fight him if there is a chance to beat him.”

“The shouting and the flag indicate that he is Guan Yu(關羽).”

“Alas! Then we will all die.”

[아니래] 중관이 허는 말이, “승상님. 죽어도 원¹⁷⁴³)이나 없게 웃음이
나 마지막 실컷 웃으시오.”

“어따, 이놈들아. 그런 말 허지 말고, 내가 오목헌¹⁷⁴⁴) 데 누워 있을
테니, 흰 장막으로 덮어놓고,

내가 죽었다고, 너그덜¹⁷⁴⁵) 거그¹⁷⁴⁶) 머리 풀고 늘어앉아서 울어라.”

“누가 승상님 양아들이간디¹⁷⁴⁷) 머리 풀고 늘어앉아서 울어요?

승상님, 그런 께 내시지 말고, 운장이 본래 관후군자¹⁷⁴⁸)요,

또 전일 승상님께 은혜도 있사오니, 한번 빌어나 보사이다.”¹⁷⁴⁹)

“애들아.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후세에 그 더러운 이름을 어찌 전하
겠느냐?”

이렇듯 말을 할 제,

50. (조조 목숨 애걸) 조조가 도망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엇모래] 벽해창랑¹⁷⁵⁰) 물밀듯이 길을 끊어 막자른다.¹⁷⁵¹)

운장의 당당 위풍¹⁷⁵²) 적토마상에¹⁷⁵³) 앉았는데,

황금 갑옷 봉투구¹⁷⁵⁴) 삼각수¹⁷⁵⁵) 거사리고,¹⁷⁵⁶)

청룡도¹⁷⁵⁷) 빗겨 들고, 우레같은 큰 소리 벽력같이 뒤질러,¹⁷⁵⁸)

“네 이놈, 조조야! 단지 말고 칼 받아라!”

추상같이 나는 소래¹⁷⁵⁹) 조조가 황급하여 말 아래 뚝 떨어져,

하릴없이¹⁷⁶⁰) 빌기로 들어갈 제,

[Aniri] The servant says, “Premier, laugh a lot before you die so that you don’t regret your death.”

“You fool! Shut up. I’ll lie in this small depression. Cover me with a white tent.

Untie your hair, sit around me, and cry, acting as if I were dead.”

“We are not your adopted sons. Why would we untie our hair, sit around you, and cry?

Premier, your plan is bad. Guan Yu(關羽) is a virtuous man by nature.

You gave him a favor in the past. Why don’t you ask him to forgive you?”

“My soldiers, I would rather die. How can I pass my bad name onto the future generations?”

He says as said above.

50. (Cao Cao(曹操) Begs for His Life.) Cao Cao(曹操) falls from his horse while fleeing and begs for his life.

[Eonmori] Guan Yu(關羽) blocks the road like waves of a blue sea.

Guan Yu(關羽) looks stately on a red horse.

His armor is golden, and a couple of phoenixes are attached to his helmet. His triangled beard is bent up at the end.

He obliquely holds the Blue Dragon Sword. Guan Yu(關羽) shouts at Cao Cao(曹操) as loudly as lightning.

“Cao Cao(曹操), you rat! Don’t flee. Here goes my sword!”

His voice is so fearsome that Cao Cao(曹操) is petrified and falls from his horse.

He cannot help begging for his life.

[중모레] 투구 벗어 땅에 놓고, 장검 빼어 옆에다 놓고,
 갑옷 벗어 말깨¹⁷⁶¹ 얹고, 대머리 고초상투,¹⁷⁶²
 가는 목을 움츠리고, 두 손 합장 벌벌 떨며 허리 굽혀
 기어가서 운장 마하¹⁷⁶³에 얹드리며, 고개 들어 운장 보고
 간사헌 웃음으로, “히히히히 하하하하하.
 장군 본 지 오래옵더니 별래무양¹⁷⁶⁴ 허시니까?
 박명¹⁷⁶⁵하운 조맹덕은 적벽강 화전으로 오적¹⁷⁶⁶에게 환¹⁷⁶⁷을
 당해,
 만군병¹⁷⁶⁸을 다 죽이고, 초수¹⁷⁶⁹ 오산¹⁷⁷⁰ 험한 길로 계우계우¹⁷⁷¹
 가는 길에,
 남군대로로 가련만은, 화용산상¹⁷⁷²에 연기를 보니 장군이 계시
 을 듯,
 반간¹⁷⁷³ 마음 측량¹⁷⁷⁴ 없어 부러¹⁷⁷⁵ 이리 왔사온데,
 장군 노기¹⁷⁷⁶ 등등허여¹⁷⁷⁷ 원수같이 보옵시니,
 의장¹⁷⁷⁸이라 허온 말씀 그 아니 허언¹⁷⁷⁹이오?
 세궁력진¹⁷⁸⁰ 조조 신세를 한 번 살피 주옵소서.”

51. (관운장 호령) 조조가 과거사를 들먹이며 은혜 갚을 것
 을 요구하자, 관운장이 이미 다 갚았다며 칼을 받으라
 고 소리친다.

[자진모레] 운장 들고 분부허되, “간사헌 조맹덕은

[Jungmori] Cao Cao(曹操) takes his helmet off and places it on the ground. He takes out his long sword and puts it by the helmet.

He takes off his armor and hangs it on the horse. He is bald, and his topknot looks like a pepper.

He shrinks his slim neck. He trembles as he holds his hands together and bends his back.

He crawls and kneels down under Guan Yu's(關羽) horse. He turns his head upwards and looks at Guan Yu(關羽).

Cao Cao(曹操) laughs wickedly. "Heeheeheehee. Hahahahaha. Long time, no see, general! How have you been doing?

I was unlucky to be defeated by Sun Quan's(孫權) fire attack on the Chibi(赤壁) River.

I had numerous soldiers killed. I manage to flee across the streams of Chu(楚) Country and over the mountains of Wu(吳) Country.

I could take the wide road to Nanjun(南郡). But I saw smoke coming from the top of Huarong(華容) Mountain. I thought you would be there.

My joy was limitless, so I came to this road on purpose.

But you are very angry at me. You act as if I were your enemy. Isn't the rumor false that you are a virtuous general?

I am powerless now. Please have mercy on me."

51. (Guan Yu's(關羽) Yell) Cao Cao(曹操) mentions a past affair and asks Guan Yu(關羽) to return his favor. Guan Yu(關羽) tries to slash Cao Cao(曹操), saying that he already did.

[Jajinmori] Guan Yu(關羽) responds, "Cao Cao(曹操), you are wicked.

당초에¹⁷⁸¹) 네 조상이 한국¹⁷⁸²) 녹¹⁷⁸³)을 먹었거늘,
 그 은혜를 배반하고 범람한¹⁷⁸⁴) 뜻을 품어 제후를 호령하니, 그 아니
 흉적¹⁷⁸⁵)이냐?
 천하가 분분함¹⁷⁸⁶)도 널로 하여¹⁷⁸⁷) 난¹⁷⁸⁸) 일ियो,
 기린각 문헌 충신¹⁷⁸⁹) 널로¹⁷⁹⁰) 하여 반허였고,¹⁷⁹¹)
 역조창생¹⁷⁹²) 곡성¹⁷⁹³) 소리 처처에¹⁷⁹⁴) 낭자¹⁷⁹⁵)협도 모두 다 네
 죄로다.
 잔말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허허, 장군 들조시오. ¹⁷⁹⁶) 장군 허창¹⁷⁹⁷) 오셨을 때 별궁¹⁷⁹⁸) 지어
 드리웁고,
 두 부인¹⁷⁹⁹) 안녕함과 삼일 소연,¹⁸⁰⁰) 오일 대연,¹⁸⁰¹) 금은보화를 아
 끼지 않고 지성¹⁸⁰²) 극대¹⁸⁰³)허였으며,
 공문¹⁸⁰⁴) 없이 가시다 허다¹⁸⁰⁵) 장졸을 죽였으되,
 일본¹⁸⁰⁶) 혐의¹⁸⁰⁷) 두지 않고 십 리 밖에 나가 무사 호송¹⁸⁰⁸) 허을
 적에,
 장군이 허신 말씀 의인¹⁸⁰⁹)이라 이르웁고 후일 상봉허겠드니,¹⁸¹⁰)
 오늘날 내 신체가 패군장¹⁸¹¹)이 되었다고 이 지경이 웬 일ियो?”
 운장 듣고 화를 내어, “내 그때 불행하여 네 나라에 갓을 적에
 하북 대장¹⁸¹²) 안량¹⁸¹³) 문추¹⁸¹⁴) 네 나라를 짓쳐오매,¹⁸¹⁵)
 그 은혜를 생각하여 전장에 급히 나가 안량 문추 두 장수 머리를 베어
 주었고,
 벽산도¹⁸¹⁶) 오천 리를 일완에¹⁸¹⁷) 앗아¹⁸¹⁸) 주어 그 은혜를 갚았고,
 네 나라 금은보화 별궁에 다 던지고 빈 몸으로 나왔으니 네가 어찌
 유공¹⁸¹⁹)허며,

Your ancestors worked for Han(漢) Country.
 But you betrayed the country. You entertained a bad thought
 and ruled over feudal lords. Aren't you a wicked robber?
 You are responsible for the chaos in the world.
 Loyal subjects buried under Qilinge(麒麟閣) Shrine became
 traitors because of you.
 You are guilty of the cries of the people everywhere in China.
 Don't argue with me. Die by my sword!" Cao Cao(曹操) is
 stunned.
 "Listen to me, general. When you visited my capital city, I built
 a special house for you.
 I took good care of Liu Bei's(劉備) two wives, throwing many
 parties and giving you a lot of jewels.
 You left without an official document and killed many of my
 soldiers.
 But I didn't accuse you of anything. I escorted you a long
 distance out safely.
 You said I was a virtuous man. You promised to meet me again
 in the future.
 Today, I am merely a defeated general. But how can you treat
 me like this?
 Guan Yu(關羽) is infuriated. "When I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I visited your country.
 Yan Liang(顏良) and Wen Chou(文醜) from Hebei(河北) invaded
 your country.
 To return your favor, I went to the battlefield fast and killed the
 two generals.
 I secured a large area of land and gave it to you, returning your
 favor.
 I refused the jewels you offered to me and left your country
 with empty hands. You cannot say I owe you a favor.

내 또한 너를 놓으면 의율당참¹⁸²⁰)허을 줄로 군령¹⁸²¹) 다짐을 두고
왔으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52. (조조 애걸) 조조가 관운장에게 살려달라고 다시 애걸한다.

[아니리] 청룡도¹⁸²²)를 번쩍 드니, 조조 질색하여,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그 칼 좀 놓고 말씀하십시오.
칼 없이는 말 못 하시오?” 조조가 다시 엎드려져 비는디,
[중모리] “여보 장군, 듣조시오. 여보 장군님, 듣조시오.
유현주¹⁸²³)와 공명선생 장군을 믿는 마음 오른팔로 아웁는디,
소장같은 잔명¹⁸²⁴)이야 천 번 아니 잡어간들 설마 장군을 참¹⁸²⁵)허
오며,
타고 계신 적토마¹⁸²⁶)를 소장이 드린 바요,
입으신 전포,¹⁸²⁷) 가지신 용검¹⁸²⁸)을 소장이 드린 반디,¹⁸²⁹)
내 칼에 죽사오면 근들¹⁸³⁰) 아니 원통하오?
옛 일을 모르시오?
지백지신 예양¹⁸³¹)이도 조양자¹⁸³²)를 죽이랴고,
비수¹⁸³³)를 품에 품고 궁중도축¹⁸³⁴)허였으니,
조양자 어진 마음 의인¹⁸³⁵)이라 이르웁고¹⁸³⁶) 오근피지¹⁸³⁷)라 허였
으니,
인후¹⁸³⁸)허신 처분으로 제발 덕분에 살려 주오.”

Besides, I pledged to be kill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law, if I set you free.

Don't argue with me. Die by my sword!"

52. (Cao Cao(曹操) Begs.) Cao Cao(曹操) begs Guan Yu (關羽) again for his life.

[Aniri] As Guan Yu(關羽) pulls up his Blue Dragon Sword, Cao Cao(曹操) is frightened.

"Listen to me, general. Please put down that sword, and let's talk.

Can't we talk without the sword?" Cao Cao(曹操) kneels down again and begs for his life.

[Jungmori] "Listen to me, general. Please listen to me.

I know well Liu Bei(劉備) and Kong Ming(孔明) trust you.

But I am powerless now. Even if you don't take me to them, they won't kill you.

Moreover, I gave you the red horse you ride now.

Your clothes and dragon sword were presents from me.

If I die by my sword, wouldn't I feel sad?

Don't you know the old story?

Yu Rang(豫讓), Zhi Bo's(智伯) subject, tried to kill Xiang Zi(襄子) of Zhao(趙) Country.

But he hid a sharp knife on his chest and disguised himself as a painter.

Broad-minded, Xiang Zi(襄子) released Yu Rang(豫讓), saying that he is a virtuous man.

Since you are broad-minded, please have mercy on me."

53. (주창의 재촉)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지 않자, 주창이 죽일 것을 재촉한다.

[아니리] 장졸간에¹⁸³⁹⁾ 이렇듯 애걸¹⁸⁴⁰⁾을 하니,
운장의 인후허신 처분 조조를 살릴 마음은 가졌으나, 짐짓¹⁸⁴¹⁾ 한번
으르는데,¹⁸⁴²⁾

“그대를 놓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칼을 들어 땅을 콕 찌르는 바람에 칼등이 조조 목에 가 선뜩하니,¹⁸⁴³⁾
조조 대그르르르르 궁그러지며,¹⁸⁴⁴⁾ “아이구, 정육아! 내 모가지가
어디쯤 떨어졌는가 보아라!”

운장이 웃으시며, “그대 목이 없으면, 말은 어찌 하는고?”
“글쎄웁시다. 성대 좋아서 말은 해도 혼은 벌써 피난 갔소.”

[자진모리] 주창¹⁸⁴⁵⁾이 곁에 섰다 와락 뛰어 달려들어,
조조 떡살 움켜쥐고 운장을 바라보며,
“장군님, 어찌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를 여태 두고 보시니까?
홍문연¹⁸⁴⁶⁾ 큰 잔치에 항장¹⁸⁴⁷⁾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으니,¹⁸⁴⁸⁾
만일에 장군님도 이제 조조를 놓으시면 양호유환¹⁸⁴⁹⁾이 될 것이니,
어서 목을 베웁시다.”

조조가 질색하여 주창의 손을 잡고,
“아이고, 여보시오, 주창 나리. 제발 사람 좀 살려 주시오.”

53. (Zhou Cang's(周倉) Urging) Guan Yu(關羽) does not kill Cao Cao(曹操). Zhou Cang(周倉) urges Guan Yu(關羽) to kill Cao Cao(曹操).

[Aniri] Cao Cao(曹操) begs in front of his officers and soldiers. Broad-minded, Guan Yu(關羽) decides to release Cao Cao(曹操). But he threatens Cao Cao(曹操) as a joke.

"It is unfair that I set you free and I die. Don't argue with me. Die by my sword!"

He pulls up his sword and hits the ground hard. The back of his sword feels cold on Cao Cao's(曹操) neck.

Cao Cao(曹操) rolls over. "Hey Cheng Yu(程昱)! Tell me where my head is!"

Guan Yu(關羽) laughs. "If you were beheaded, how could you speak?"

"Well, my good throat enables me to speak, but my soul has already gone."

[Jajinmori] Zhou Cang(周倉) who was near them suddenly jumps in.

He grabs Cao Cao(曹操) by the throat.

"General, why haven't you killed Cao Cao(曹操) yet?"

Xiang Zhuang(項莊) tried to kill Liu Bang(劉邦) in vain at a party.

If you set Cao Cao(曹操) free, he will be a source of threat to you in the future.

Please cut his head off immediately."

Petrified, Cao Cao(曹操) holds Zhou Cang's(周倉) hands.

"General Zhou Cang(周倉)! Please have mercy on me."

54. (조조를 살려주고 죄를 청함) 관운장이 조조를 살려주고 돌아와 군령을 어긴 죄를 청한다.

[아니레] 운장이 그 거동을 보고 주창을 꾸짖으며, 말 머리를 돌렸것다.

조조는 패군졸¹⁸⁵⁰을 거느리고 위국으로 돌아가고,

운장은 하구로 돌아오니, 출전제장¹⁸⁵¹이 다 모였구나.

공명선생 일어서며, “장군이 이번에 큰 공을 세워 못내 하례¹⁸⁵²허나이다.”

운장은 묵묵부답¹⁸⁵³이어늘, 공명선생 이른 말씀, “양이 멀리 나가 맞지 못함을 노여¹⁸⁵⁴ 생각하시니까?”

좌우를 돌아보며, “너희들은 어찌 장군이 회군¹⁸⁵⁵하심을 진즉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고?”

운장이 고두¹⁸⁵⁶하며, “군령을 청하나이다.”

공명선생 놀랜 듯이, “군령이라니? 아니, 조조가 그리 가지 않았드란 말이오?”

“조조 그리 지냈사오나, 기세를 능히 당치 못하였나이다.”

공명선생 화를 내어, “한태조¹⁸⁵⁷도 웅치를 봉하시고¹⁸⁵⁸ 우공¹⁸⁵⁹을 베이심은 군령을 세움이어늘,

이제 관공이 군령을 어겼으니 그 어찌 용서허리오?”

군중을 돌아보며, “네 관공을 당장 잡어내어 효수¹⁸⁶⁰하라!”

[중모리] 이렇듯이 영이 나니, 장엄허구나, 군령이여. 군법을 어찌 허리?

운장의 거동 보소. 청룡도를 땅에 놓고, 투구 갑옷 벗어 놓고,

54. (After Releasing Cao Cao(曹操), Guan Yu(關羽) Asks to be Punished.) Guan Yu(關羽) comes back after setting Cao Cao(曹操) free. He asks to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military law.

[Aniri] Watching Zhou Cang(周倉), Guan Yu(關羽) scolds him and turns his horse around.

Cao Cao(曹操) returns to his country with his defeated soldiers. Guan Yu(關羽) returns to his country. All the generals gather in one place.

Kong Ming(孔明) steps forward. "General, let me salute you because you accomplished a feat."

Guan Yu(關羽) is silent. Kong Ming(孔明) says, "Are you angry because I didn't meet you far from here?"

Kong Ming(孔明) says to soldiers, "Why didn't you report to me earlier General Guan Yu(關羽) was coming back?"

Guan Yu(關羽) lowers his head. "Please punish me by the military law."

Kong Ming(孔明) is surprised. "Punish by the military law? Didn't Cao Cao(曹操) use the road?"

"Cao Cao(曹操) was there, but I couldn't defeat his force."

Kong Ming(孔明) is angry. "Liu Bang(劉邦) appointed Yong Chi(雍齒) as a feudal lord and killed Yu Gong(于公) to uphold a military law.

Guan Yu(關羽) violated a military law. How can I forgive him?" He speaks to soldiers. "Cut Guan Yu's(關羽) head off and hang his head on a high place!"

[Jungmori] The order is issued. A military law is merciless. What can we do about it?

Behold Guan Yu(關羽)! He puts his Blue Dragon Sword on the ground, and takes off his helmet and armor.

홍전포¹⁸⁶¹)도 벗은 후에 대하에¹⁸⁶²) 꿰어앉아 눈 반만 감으면서 이만
 허고¹⁸⁶³) 앉았으니,
 늙름허든 그 모습이 볼 수 없이 되었구나.
 장익덕은 곁에 섰다 형의 대신 목을 베어 달라 선생전에 얹드리고,
 현덕 또한 일어서며 공수장읍¹⁸⁶⁴)헌 연후에¹⁸⁶⁵) 선생전¹⁸⁶⁶) 여짜
 오되,
 “우리 형제 결의¹⁸⁶⁷)혈 제, 불구동년동월동일생¹⁸⁶⁸)이나 지원동년동
 월동일사¹⁸⁶⁹)라 하늘께 맹세했사온디,
 만일 운장이 죽거든 내 무삼¹⁸⁷⁰) 면목으로 세인¹⁸⁷¹)을 대허리까?
 전일 공도 있사오나,
 이번 죄를 두었다가 일후¹⁸⁷²)에 공을 세워 글로¹⁸⁷³) 속죄¹⁸⁷⁴)허옵심
 을 선생전에 비옵나니,
 그 처분이 어떠하시니까?”

55. (관운장 용서) 공명이 관운장을 용서한 후, 논공행상하 고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

[아니레 현주¹⁸⁷⁵)께서 눈물까지 지으시며 이렇듯 간곡히 청을 하시니,
 출전 제장 군졸들이 좌우에 늘어섰다가 일시에 합장¹⁸⁷⁶)허며,
 “처분을 바라나이다.”허며 일제히 복지¹⁸⁷⁷)허였구나.
 [여중모레 신출귀몰¹⁸⁷⁸) 제갈선생 조조 와석종신¹⁸⁷⁹)혈 줄 알며, 삼
 분천하¹⁸⁸⁰)될 줄 이미 아신 바라.
 군령을 어이 실행허리.
 선선히¹⁸⁸¹) 허락허고 논공행상¹⁸⁸²)허을 적에, 출전 제장 군졸들은 차
 례로 상을 내리신 후

He takes off his red coat, kneels down in front of a high place,
half closes his eyes, and remains silent.

His majestic look has disappeared.

Zhang Fei(張飛) kneels down and asks Kong Ming(孔明) to
behead him instead of Guan Yu(關羽).

Liu Bei(劉備) also steps forward, shows his respect to Kong
Ming(孔明), and speaks to him.

“Three of us made a pledge that we will die at the same time
although we were born in different times.

If Guan Yu(關羽) dies, how can I face the people in the world?
He accomplished a great feat in the past.

Let me ask you to bury his guilt and to have him atone for his
quilt by achieving another feat in the future.

What do you say?”

**55. (Guan Yu(關羽) is Forgiven.) Kong Ming(孔明)
forgives Guan Yu(關羽), gives awards to soldiers,
and holds a party.**

[Aniri] Liu Bei(劉備) asks Kong Ming(孔明) to forgive Guan Yu
(關羽) in tears.

All the officers and the soldiers hold their hands together.
They kneel down and say, “Please pardon him.”

[Eotjungmori] Having divine talent, Kong Ming(孔明) already
knows that Cao Cao(曹操) will live long, and that China would
be divided into three countries.

How could he enforce the military law?

He grants their wish without any condition and gives awards to
officers and soldiers who have been to the war.

대연¹⁸⁸³)을 배설¹⁸⁸⁴)하여 다 같이 즐기더라.
언재무궁¹⁸⁸⁵)이나 고수 팔도 아플 것이요,
소리꾼 목도 아플 지경이니, 어질더질.¹⁸⁸⁶)

They throw a big party and have fun together.
There are more things to say. But the drummer's arms must be
tired.
The singer's throat must be sore. This is the end.

-
- 1) 天下大勢. 온 세상의 큰 흐름.
 - 2) 周나라. 중국의 옛날 왕조. 섬서성에서 일어나 문왕(文王) 때 변형했다.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이 동방의 은나라를 쳐부수고 호경(鎬京)에 도읍했다. 기원 전 770년에 만족의 침입을 피하여 동방의 낙양으로 천도했는데, 천도 이전을 서주, 천도 이후를 동주 시대라고 한다. 동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데, 제후들의 세력에 눌려 주나라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무력한 작은 나라로 되어, 기원 전 256년에 진나라에게 망했다.
 - 3) 秦始皇. 진나라의 황제. 육국(六國)을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를 고쳐 천하를 군현으로 나누었으며 흉노 및 남월을 쳐서 강토를 확장한 다음 만리장성을 쌓았음.
 - 4) 사슴을 잃으니. 진나라의 승상 조고(趙高)가 황제와 신하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아보려고, 사슴을 말이라 하니, 황제가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느냐고 신하들에게 묻자,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한 신하들을 죽이고, 실권을 잡아 전횡을 일삼았는데, 이후 진나라 천하를 사슴에 비유하여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슴을 잃다'는 말은 '천하를 잃다'는 뜻이다.
 - 5) 劉邦. 한(漢)나라를 세운 사람.
 - 6) 仁義. 어짊과 의로움.
 - 7) 持保하더니. 지탱하여 보존하더니.
 - 8) 獻帝. 후한의 마지막 왕으로, 동탁(董卓)이 소제(少帝)를 폐한 뒤 세운 임금.
 - 9) 漢室. 한나라 왕실.
 - 10) 衰微. 쇠약하고 보잘 것 없음.
 - 11) 亂臣賊子.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와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 12) 東에. 동쪽에. 여기서는 양자강의 동쪽, 지금의 강소성 지방을 가리키는 말.
 - 13) 孫權. 자는 중모(仲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임금.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무찌른 뒤 다시 위나라와 손을 잡고 임금이 되었음.
 - 14) 山河. 산과 내.
 - 15) 險固. 험하고 튼튼함.
 - 16) 曹操. 자는 맹덕(孟德). 후한 헌제 때에 승상으로 실권을 쥐었는데, 뒤에 화북 지방을 거의 평정하여 위왕(魏王)이라고 일컬었다.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졌으나, 한나라를 대신하여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 17) 論之하면. 사리를 설명하면.
 - 18) 政事. 정치하는 일.
 - 19) 亂世. 어지러운 세상.
 - 20) 姦惡. 간사하고 악함.
 - 21) 諸侯. 봉건시대에 봉토를 받아 역내의 백성을 지배하던 작은 나라의 임금.
 - 22) 世業.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직업. 여기서는 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 곧, 왕조를 세우는 일.
 - 23) 當키. 당하기. 대항하여 감당하기.
 - 24)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친척.

- 25)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26) 桃園. 하북성 탁군에 있는 장비의 집 후원 복숭아 밭. 이곳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음.
- 27) 結義. 남남끼리 형제, 자매, 남매, 부자 따위 친족의 의리를 맺음.
- 28) 金石같은. 쇠와 돌과 같이 굳은.
- 29)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주는 사람.
- 30) 徐庶.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劉表)에게 있을 때 만난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자(字)는 원직(元直). 단번에 의기가 통하여 유비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 조조가 그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거짓 편지로 유인하는 통에 그에게로 갔으나, 어머니는 자식의 부모함을 꾸짖고 자살하였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한 가지의 꾀도 바치지 않고 아까운 재주를 썩혔다.
- 31) 許昌. 중국의 지명. 중국 하남성의 중앙에 있는 도시이다. 춘추시대에 허나라가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래한 허(許)로 불렸다. 허창은 삼국시대에 조조의 사실상의 수도 역할을 했다. 한나라의 수도 낙양이 전쟁에 의해 파괴된 후에 조조는 196년에 황궁과 황제를 현재의 허창으로 이동시키고 허도(許都)로 개명했다.
- 32) 筆跡. 손수 쓴 글씨의 모양.
- 33) 보냈기 때문에.
- 34) 落心하여.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져서.
- 35) 여쭙으니. 물어보니.
- 36) 事勢. 일이 되어가는 형편.
- 37) 子母之情.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정.
- 38) 大夫人.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39) 大事成功. 큰 일을 이루어냄.
- 40) 終身. 죽음.
- 41) 不說一謀. 한 가지의 꾀도 말하지 않음.
- 42)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43) 諸將. 여러 장수들.
- 44) 始終. 처음과 끝.
- 45) 靑史. 역사. 옛날 종이가 없던 시대에 푸른 대의 겹질을 불에 구워 푸른빛과 기름을 없애고 역사를 기록한 데서 온 말.
- 46) 劉嗣君. 유비가 선왕의 대를 이었다는 데서 부르는 말. '嗣君'은 선왕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 사군을 '師君'으로 쓰면, 스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임.
- 47) 軍卒. 군사.
- 48) 紛紛한.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운.
- 49) 天下事. 천하의 일. 온 세상의 일.
- 50) 누구에게.
- 51) 어찌할 수 없이.
- 52) 樹林. 나무 숲.
- 53) 반가와 하여.

- 54) 오십니까?
- 55) 襄陽城外. 양양성 밖. '양양'은 중국 호북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는데, 이곳 서쪽에 있는 복룡산(伏龍山)이 제갈공명의 은거지였음.
- 56) 二十里許. 이십 리쯤 되는 곳.
- 57) 萬古英雄.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이 빛날 뛰어난 영웅.
- 58) 字. 본 이름 이외에 부르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 59) 道號. 본래는 '불도에 들어간 뒤에 붙이는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호로 쓰였음.
- 60) 臥龍. 누워 있는 용. 와룡은 비구름을 만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므로,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함.
- 61) 하옵는데. 하시는데.
- 62) 上通天文. 위로는 하늘의 이치에 통달함.
- 63) 下達地理. 아래로는 땅의 이치에 달통함.
- 64) 六韜三略. 강태공이 지은 《육도》와 황석공이 지은 《삼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병법의 고전.
- 65) 九宮八卦. 아홉 가지 하늘의 이치와 여덟 가지의 괘.
- 66) 遁甲藏身法. 술법을 써서 제 몸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는 방법.
- 67) 胸中에. 가슴 속에.
- 68) 품었사옵고.
- 69) 決斷하는. 결정적인 판정이나 단정을 하는.
- 70) 親히. 직접. 몸소.
- 71) 千秋. 오래고 긴 세월. 먼 미래.
- 72) 金銀玉帛. 금, 은, 옥, 비단.
- 73) 禮物.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는 돈이나 물건.
- 74) 南陽城中. 남양 성 가운데. '남양'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성중'을 '융중(隆中)', 혹은 '강중(岡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융중'은 중국 호북성 양양 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이며, '강중'은 '구룡 속'이라는 뜻임.
- 75) 景概. 정치.
- 76) 無窮. 끝이 없음.
- 77) 山不高而秀麗. 산은 높지 않지만, 빼어나게 아름답음.
- 78) 水不深而澄清. 물은 깊지 않으나 맑고 깨끗함.
- 79) 地不廣而平坦. 땅은 넓지 않으나 평탄함.
- 80) 林不大而茂盛. 숲은 크지 않으나 무성함.
- 81) 猿鶴. 원숭이와 학.
- 82) 相親. 서로 친하게 지냄.
- 83)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 84) 交翠. 푸르름.
- 85) 柴扉. 사립문.
- 86) 童子. 어린 사내아이.
- 87) 潁州.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 88) 石廣元. 남양의 숨은 인재. 영천(潁川) 사람으로 최주평, 제갈량, 서서 등과 함께 공부한 사이.
- 89) 博陵.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북성 안평현에 있었음.
- 90) 崔州平. 남양의 숨은 인재. 박릉 사람으로 제갈량, 석광원, 서서 등과 함께 공부한 사이. 난세에 세상에 나오기를 꺼려 숨어 지냈다.
- 91) 汝南.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여남현임.
- 92) 孟公威. 공명의 벗인 듯하나, 불명.
- 93) 江湖. 강과 호수. 자연.
- 94) 林間. 숲 속.
- 95) 劉賢主. 유씨 성을 가진 어진 임금이란 뜻으로 유비를 가리키는 말.
- 96) 漢宗室. 한나라 임금의 친척.
- 97)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98)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99) 飄然.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가는 모양.
- 100) 臥床. 글을 읽을 때 책을 올려놓는 작은 상.
- 101) 臥龍. 제갈량의 호.
- 102) 군이었더라.
- 103) 紙筆. 종지와 붓.
- 104) 情札. 따뜻한 정으로 써주는 편지.
- 105) 언짢은 일을 당하여 벌컥 내는 성.
- 106) 愚夫. 어리석은 남자.
- 107) 三顧草廬. 오막살이집을 세 번 찾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일컫는 말.
- 108)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 109) 小弟. 아우가 형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10) 結縛. 두 손을 묶음.
- 111) 眼前. 눈 앞.
- 112) 待令.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 113) 賢弟. 어진 아우. 아우를 높여 일컫는 말.
- 114) 無道. 도리를 어겨 막됨.
- 115) 極寒. 매우 추움.
- 116) 事且不避거든. 일을 피할 수 없는데.
- 117) 風勢. 바람의 위세.
- 118) 臥龍岡. 공명이 은거하여 살던 골짜기로, 하남성 남양현 서남쪽에 있음. ‘강’은 ‘언덕’이라는 뜻임.
- 119) 堂堂한. 버젓하고 정대한.
- 120) 劉賢主. 유씨 성을 가진 어진 임금이란 뜻으로 유비를 가리키는 말.
- 121) 身長. 키

- 122) 七尺五寸. 일곱 자 다섯 치. 약 225cm 정도.
- 123) 面如冠玉. 얼굴이 관옥과 같음. ‘관옥’은 머리에 쓰는 관 앞을 꾸미는 옥. 남자의 잘 생긴 얼굴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124) 自顧其耳. 두 귀를 손수 돌아봄.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크다는 뜻.
- 125) 垂手過膝.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옴.
- 126) 烏帽紅袍.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
- 127) 雙股劍. 넓적다리 모양으로 생긴 칼.
- 128) 비스듬히.
- 129) 赤驄馬上. 적추마 위에. ‘적추마’는 온 몸이 붉고 갈기만 검은 좋은 말.
- 130) 太祖.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
- 131) 볼 것 같으면.
- 132) 朱顏. 혈색이 붉은 얼굴.
- 133) 鳳目. 봉의 눈.
- 134)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 135)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136) 雙鳳투구. 봉황 한 쌍을 조각한 투구.
- 137) 綠袍銀甲. 녹색의 도포에 은으로 만든 갑옷.
- 138) 青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 139) 赤兔馬上. 적토마 위. ‘적토마’는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 140) 舉動. 행동이나 태도.
- 141) 威風. 위엄 있는 풍채.
- 142) 凜凜하고. 위태롭고 두려우며. 여기서는 그 기세가 거세고 매서운 모양을 나타냄.
- 143) 먹처럼 검은 얼굴.
- 144) 눈동자의 둘레에 두 개의 흰 테가 있는 눈.
- 145) 밀이 두툼하고 넓은 턱.
- 146) 다박나룻.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억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짧은 수염. ‘다복술’은 가지가 탐스럽고 소복하게 많이 퍼진 어린 소나무.
- 147) 鸚鵡戰袍. 앵무새의 빛깔처럼 노랗고 아름다운 전포. ‘전포’는 장수가 입던 옷.
- 148) 綠巾. 녹색 비단으로 만든 모자.
- 149) 丈八. 일장 팔척. 일장은 10척임. 1척(자)은 약 30cm.
- 150)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된 긴 창.
- 151) 위에다 반듯이.
- 152) 黑驄馬上. 흑충마 위. ‘흑충마’는 몸은 청백색이고, 갈기만 검은 말.
- 153) 眞三國之猛將. 진짜 삼국 중에서도 용맹스런 장수.
- 154) 草廬. 오막살이.
- 155) 말에서.
- 156) 童子. 사내아이.

- 157) 계시냐?
- 158) 書冊. 책.
- 159) 草堂.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160) 몹시 피곤하여 잠이 깊이 들어.
- 161) 起寢하기.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 162) 告하지. 알리지.
- 163) 拱手. 두 손을 마주 잡아서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예.
- 164) 鞠躬. 몸을 굽힐.
- 165) 翼德. 장비(張飛)의 자(字). ‘益德’으로 쓰기도 한다.
- 166)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 167) 옷소매를 뒤집어 걷으며.
- 168) 高聲大叱曰. 큰 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함.
- 169) 金枝玉葉. 임금의 집안과 그 지손들을 일컫는 말.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 170) ‘꾸러미’의 사투리. ‘꾸러미’는 꾸리어 찢 물건. 여기서는 ‘짚이나 풀 따위를 길게 묶은 묶음’을 가리킨 듯.
- 171) 假睡. 거짓으로 자는 잠.
- 172) 非誠인즉 不成이라. 정성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
- 173) 湯임금. 은나라의 첫 번째 왕인 탕임금. 이름은 이(履). 하나의 걸왕이 폭정을 일삼았으므로 이를 치고 왕위에 올랐음.
- 174) 伊尹. 은나라 탕임금 때의 재상. 본래는 밭을 갈고 살다가, 탕임금이 세 번이나 찾아가 모시고자 하므로 벼슬길에 나서 탕임금을 도와 하나의 걸왕을 몰아내고 선정을 베풀었음.
- 175)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 176) 春秋 적. 중국 춘추시대. 주나라가 쇠약해져서 서울을 동쪽으로 옮긴 때부터 진(晉)나라가 한(韓)·위(魏)·조(趙)나라로 나뉘기까지를 말하는데, 같은 시대의 공자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은 역사책인 《춘추(春秋)》의 이름을 따서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 177) 齊桓公. 제나라의 제후. 이름은 소백(小白).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맞아들여 경제를 충실히 하고 천하를 제패했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근방에 있었으며, 강태공이 세운 나라이다.
- 178) 東郭野人. 성의 동쪽에 사는 선비. 제나라 환공이 성의 동쪽에 산다는 현명한 사람을 구하려고 다섯 번이나 찾아갔다가 겨우 만났다고 하는데, 성이 환공과 같은 강(姜)이라고 하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 179) 겨우.
- 180) 周文王. 주나라의 문왕. 주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아버지. 성은 희(熙), 이름은 창(昌). 은나라의 주(紂)왕 때 서백(西伯). 주왕이 문왕으로 하여금 은나라의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장으로 삼은 데서 일컫는 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으며,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제후들이 그를 좇아 주군으로 섬겼음.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고 주나라를 세운 뒤, 문왕으로 추존되었음.
- 181) 姜太公. 이름은 여상(呂尚). 무왕을 도와 재상이 되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웠으

- 며, 후에 제나라의 제후에 봉해졌다.
- 182) 臥龍先生. 제갈량을 따로 부르는 이름. 제갈량의 호. '와룡'은 누워 있는 용. 와룡은 비구름을 만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므로,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함.
- 183) 雲長. 관우(關羽)의 자(字).
- 184) 데리고.
- 185) 下回. 뒷사람의 회답.
- 186) 首.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
- 187) 草堂에 春睡足하니 窓外日遲遲요. 大夢을 誰先覺고? 平生을 我自知라. 제갈량이 읊은 원문은, '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 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임.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칠까. 평생을 내 스스로 아네. 초당에 봄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 창밖의 해가 점차 길어진다.
- 188) 前日. 전날.
- 189) 劉皇叔. 유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삼촌뻘이 된다 해서 부르는 이름.
- 190) 이미.
- 191) 半日. 반 나절.
- 192) 告하지. 알리지.
- 193) 後堂. 본채의 뒤에 있는 집.
- 194) 禮服. 예식 때나 예절을 특별히 차릴 때에 입는 옷.
- 195) 堂. 여러 사람이 집회하는 일정한 건물.
- 196) 禮畢. 인사를 마친.
- 197) 坐定. 자리를 잡고 앉음.
- 198) 脣若塗脂. 입술이 연지를 바른 것과 같이 붉음.
- 199) 烏帽紅袍.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
- 200) 中興. 쇠하던 것을 다시 일으킴.
- 201) 人君. 임금.
- 202) 綸巾. 비단으로 만든 두건.
- 203)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204)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205) 의젓하고 점잖게.
- 206) 기력이나 체질.
- 207) 眉間. 두 눈썹 사이.
- 208) 精氣. 사물의 순수한 기운.
- 209) 運籌帷幄之中하여 決勝千里之外할. 장막 안에서 산가지(점치는 도구)로 점을 쳐서, 천 리 밖에 나가 싸움에 이길 것을 판단할.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능히 승패를 가름할 지략을 짜낼 만한'의 뜻으로 쓰인다.
- 210) 至誠. 지극한 정성.
- 211) 들어주십시오.
- 212) 漢室. 한나라 왕실.
- 213) 國運. 나라의 운수.
- 214) 罔極. 한이 없음. 여기서는 '한없이 슬픈 지경에 이르렀음'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 215) 宗廟社稷. 종묘와 사직. '종묘'는 임금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따라서 '종묘사직'은 왕실과 나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16) 亡在朝夕. 하루 아침이나 저녁에 망할 판임.
- 217) 草野. '풀이 난 들'이라는 뜻으로 시골의 궁벽한 곳을 이름.
- 218) 無窮. 끝이 없음.
- 219) 壯士. 기개와 체질이 굳센 사람.
- 220) 威名. 위력을 떨치는 명성.
- 221) 듣고서.
- 222) 모시고자 하여.
- 223) 不顧廉恥.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함.
- 224) 經天緯地之才. 하늘을 주름잡고 땅을 누비는 재주. 곧, 천하를 잘 다스릴 재주.
- 225) 安邦輔國之心. 나라를 편안히 하고, 나라 일을 돕는 마음.
- 226) 어리석은.
- 227) 무식하여.
- 228)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229) 江湖. 강과 호수.
- 230) 天下圖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함.
- 231) 尊駕. 귀하신 분의 행차.
- 232) 虛行. 헛걸음.
- 233) 荊州. 지금의 호남, 호북, 광서 및 귀주를 아울러 가리키는 이름.
- 234) 益州. 형주의 서쪽 지방을 이르는 이름으로, 지금의 사천성.
- 235) 地籍圖.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한 지도.
- 236) 中原歷史. 중원의 역사. '중원'은 본래 중국 문화의 발원지인 황하강 중류의 남북 지방을 이르는 말 곧, 하남성, 산서성의 대부분과 하북성, 섬서성의 일부 지역을 포괄함. 이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후에는 '나라 안'이라는 뜻으로 쓰임.
- 237) 紛紛하여.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워서.
- 238) 亂臣賊子.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와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 239)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 240) 白雪. 흰 눈.
- 241) 紛紛한데. 어지럽게 훑날리는데.
- 242) 祝天. 하늘에 빌.
- 243) 누가.
- 244) 마치지.
- 245) 龍顏. 임금의 얼굴을 이르는 말.
- 246) 一片心. 한 조각의 마음. 오직 한 가지 마음.
- 247)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248) 賢主. 어진 임금.
- 249) 犬馬의 힘. 개와 말의 힘.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모든 충성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씀.
- 250)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251) 劉關張. 유비 · 관우 · 장비를 아울러 일컫는 말.
 252) 나와 같은.
 253) 賤士. 천한 선비. 보잘 것 없는 선비.
 254) 禮物.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는 돈이나 물건.
 255) 草廬. 초가집.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256) 함께.
 257) 新野. 중국의 지명. 지금의 하남성 남양현에 있음.
 258) 天下事. 온 세상의 일.
 259) 寢食. 잠자는 것과 식사하는 일. 곧, 일상의 모든 행동.
 260) 흰칠. 막힘없이 깨끗하고 시원스러움.
 261) 기꺼하지. 속마음에 은근히 기뻐하지.
 262) 兄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형님’이라는 뜻으로 썼음.
 263) 不可한가. 옳지 않은가.
 264)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265) 時時로. 때때로.
 266) 陣法. 싸움에서 군대를 배치하는 법.
 267) 教鍊. 가르쳐 훈련시킴.
 268) 報하되. 알리되.
 269) 夏侯惇. 위나라의 장수. 저는 원호(元護). 본래 조조와 한 족속인데, 조조가 그 아버지 대에 조씨에게 양자를 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조조가 죽은 후에 병으로 죽었다.
 270) 十萬大兵. 십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
 271) 함부로 몹시 공격해 옵니다.
 272) 軍令. 군대의 명령.
 273) 印. 관직의 표시로 차던 쇠붙이로 만든 조각물.
 274) 빌려주십시오.
 275) 빌려주시니.
 276) 將臺. 장수가 자리를 잡고 명령을 내리는 곳.
 277) 諸將. 여러 장수.
 278) 分撥. 나누어 펼침.
 279) 博望坡. 하남성 남양현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
 280) 산.
 281) 豫山. 산 이름.
 282) 安林. 박망파 왼쪽에 있는 숲.
 283) 一千軍. 일천 명의 군사.
 284) 埋伏.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285)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286) 南便. 남쪽 편.

- 287) 博望城. 박망파에 있는 성.
- 288) 前軍. 앞에 배치된 군대.
- 289) 先鋒. 맨 앞장 또는 앞장에 서는 사람.
- 290) 敵將. 적의 장수.
- 291) 中軍. 중앙에 배치하는 군대.
- 292) 掩殺. 에워싸서 죽임.
- 293) 接應. 맞아 싸움.
- 294) 하는가?
- 295) 여기.
- 296) 違令者. 명령을 어긴 사람.
- 297) 斬. 목을 뱌.
- 298) 霹靂. 벼락.
- 299) 秋霜. 가을의 찬 서리. 위엄이나 기세가 매우 당당하고 엄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300) 無顏. 수줍고 부끄러워 볼 낮이 없음.
- 301) 運籌帷幄之中하여 決勝千里之外. 장막 안에서 산가지(점치는 도구)로 점을 쳐서, 천 리 밖에 나가 싸움에 이길 것을 판단함.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능히 승패를 가름할 지략을 짜낼 만한’의 뜻으로 쓰인다.
- 302) 度略. 생각과 꾀.
- 303) 때문에.
- 304) 매우.
- 305)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총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저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격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306)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跋虜將軍)에 이르렀다.
- 307) 趙雲.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字)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교락을 같이 하였다.
- 308) (빨리 가게 하기 위하여) 힘을 더하여.
- 309) 急急히. 매우 급하게.
- 310) 十餘 畝. 열 차례 이상의 맞붙음. ‘합’은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서로 한 차례 맞붙는 것을 이룸.
- 311) 달려가는지라.
- 312) 엽신여기면.
- 313) 渴水石. 개울물이 말라 드러난 돌.

- 314) 叢雜. 나무나 풀이 우거져 뻘뻘함.
 315) 친다고 하면. 공격한다고 하면.
 316) 쉬려고 하더니. 멈추려고 하더니.
 317) 火光. 불빛.
 318)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319) 火聲. 불이 타는 소리.
 320) 左衝右突. 닥치는 대로 이리저리 찌르고 치고받고 함.
 321) 大驚. 크게 놀람.
 322) 달리지. 달아나지.
 323) 後鋒大將. 부대의 맨 뒤를 맡은 대장.
 324)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325) 英傑. 영웅과 호걸. 영특하고 기상이 뛰어난 사람.
 326) 掃蕩. 휩쓸 듯이 죄다 없애버림.
 327) 白河. 신야 가까이 있는 강 이름.
 328) 淹沒. 물에 빠뜨림. 조조의 군사가 백하에 다다랐을 때, 운장이 포대로 백하를 막았다
 가 터서 조조의 군사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을 가리킴.
 329) 壯汗.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한.
 330) 曹丞相. 승상 벼슬에 있는 조조.
 331) 布告文. 어떤 일을 널리 펴서 알리는 글.
 332) 然後에. 뒤에.
 333) 妙策. 매우 긴요한 꾀. 뽀족한 수.
 334) 魯肅. 손권의 부하 장수. 자는 자경(子敬). 임회군(臨淮郡) 동성현(東城縣) 사람. 주유
 의 천거로 손권의 부하가 되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유가 죽은 뒤에
 병권을 장악하였다.
 335) 東吳. 동쪽에 있는 오나라. 오나라가 양자강 동쪽에 있다 해서 부르는 이름.
 336) 西漢. 서쪽에 있는 한나라. 곧 유비가 세운 촉(蜀)을 가리킴.
 337) 已往. 이미.
 338)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이 의종게 지냄.
 339) 約條. 조건을 붙여서 약속함.
 340) 賢主. 어진 군주.
 341) 江夏. 지금의 호북성 운몽현의 동남쪽에 있는 지명.
 342) 同心合力. 한 가지 마음으로 힘을 합침.
 343) 치신다면. 공격하신다면.
 344) 可히. 능히. 넉넉히.
 345) 破할. 격파할. 무너뜨릴.
 346) 守門將. 문을 지키는 장수.
 347) 江東. 중국 양자강 동쪽의 땅. 상해·남경·무호 지방 일대. 오나라의 근거지임.
 348) 密使. 비밀리에 보낸 사신.
 349) 軍情. 군대의 사정.

- 350) 廉探. 남모르게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살펴 조사함.
- 351) 動靜. 어떤 현상이 움직이거나 벌어지는 김새.
- 352) 將卒. 장수와 병졸.
- 353) 人君. 임금.
- 354) 無道한. 도리를 어겨 막된.
- 355) 갑시다.
- 356) 孫將軍. 손권을 가리킴.
- 357) 聰明仁惠. 총명하고 어질고 자애로움.
- 358) 謙讓. 남에게 겸손한 태도로 사양함.
- 359) 六郡. 오나라 땅을 이루는 여섯 개의 군.
- 360) 雄據. 어떤 곳에 자리잡고 굳게 막아 지킴.
- 361) 將兵. 장수와 병졸.
- 362) 兵精糧足. 병사는 정예롭고 양식은 풍부함.
- 363) 具備. 함께 갖추.
- 364) 集來. 모여 들어옴.
- 365)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 366) 賢主前. 어진 임금께.
- 367) 大驚嘆曰. 크게 놀라 탄식하여 말함.
- 368) 天下得失. 세상을 얻고 잃음.
- 369) 激動시켜. 몹시 흥분하도록 충동하여.
- 370) 쉬. 빨리.
- 371) 甲子. 갑자일. 육십갑자의 맨 처음.
- 372) 南屏山下. 남병산 아래. '남병산'은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373) 吳江.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374) 信之信之. 틀림없이.
- 375) 良. 제갈량.
- 376) 幕下. 으뜸가는 장수가 되는 사람의 부하, 또는 그 지위.
- 377) 張昭. 손권의 모사(謀士).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는 자포(子布). 손책이 원술에게 돌아올 때 주유의 추천으로 그의 막하에 들어갔다. 본시 문신이라 사람됨이 소심하고 침착하여, 적벽대전을 앞두고는 항복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후(文侯).
- 378) 顧雍. 손권의 신하. 오군(吳郡) 사람으로 자는 원탄(元嘆). 중랑장 채웅(蔡邕)의 제자로, 말이 적고 술을 가까이 않으며, 엄숙 정대하였다. 승상으로 19년간 재직하였다.
- 379) 酬酌. 말을 주고받음.
- 380) 管仲樂毅之才. 관중과 악의에 비길 만한 재주.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으뜸가는 제후로 만들었고, '악의'는 연나라의 소왕을 도와 제나라의 여러 성을 항복받았다.
- 381) 胸中에. 가슴속에.
- 382) 劉賢主. 어진 임금인 유비. 유비를 높이 일컬은 말.

- 383)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방은 그의 자(字).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로서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음.
- 384) 鵬飛萬里. 상상 속의 큰 새인 봉새는 만 리를 날아감.
- 385) 群鳥. 못새.
- 386) 其志何知오? 그 뜻을 어찌 알겠는가?
- 387) 넓은.
- 388)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 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389) 大事. 큰 일.
- 390) 酬酌. '다른 사람의 언행'을 업신여겨 이르는 말.
- 391) 寬容. 너그럽게 용납하거나 용서함.
- 392) 主公.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 신하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393) 말하십시다.
- 394) 빌려주시어.
- 395) 敗하게. 지게. 무찌르게.
- 396) 화.
- 397) 聖君. 인덕(仁德)이 뛰어난 이주 훌륭한 임금.
- 398) 宗親. 왕의 일가친척.
- 399) 意氣. 의지와 용기.
- 400) 鄱陽. 강서성 양자강 중류 남쪽에 있는 큰 호수.
- 401) 朱瑜. 손권의 부하 장수요, 동지. 여강 서성 사람으로 자(字)는 공근(公瑾). 손권의 형인 손책과는 동서간으로 교공의 두 딸을 나눠 얻었다.
- 402) 使者. 어떤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
- 403) 禮로. 예의로. 예의를 갖추어.
- 404) 坐定. 자리를 잡고 앉음.
- 405) 말씀하시어.
- 406) 銅雀臺. 조조가 업(위나라의 수도)에 쌓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407) 喬公. 대교·소교의 아버지인 교국로(喬國老). 사람됨이 매우 진실하였다.
- 408) 大喬 小喬. 교공의 두 딸로 모두 미인이었음.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 409) 데려다가.
- 410)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 411) 동작대를 두고 지은 글. <동작대부(銅雀臺賦)>를 가리킴.
- 412) 들려주십시오.
- 413) 靜坐.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음.
- 414) 深重. 침착하고 경망하지 아니함.

- 415) 외우는데.
- 416) 從明后而嬉游兮 登層臺以娛情이요, 見太府之廣開兮 觀聖德之所營이며, 建高門之嵯峨兮 浮雙闕乎太清이요, 立中天地華觀兮 連飛閣乎西城이며, 臨漳水之長流兮 望園果之滋榮이요, 立雙臺於左右兮 有玉龍與金鳳이며.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이라. 현명한 임금을 따라가서 즐겁게 놀고, 누대를 올라가 즐거이 교분을 나누며, 넓은 서울을 바라보니, 어진 임금의 덕이 바라는 바를 알겠도다. 높은 문을 높이 세우니, 두 궁궐이 하늘에 뜬 듯이 솟았고, 누각은 하늘 높이 솟아서 아름답게 빛나며, 나는 듯이 서성에까지 이어졌도다. 길게 흐르는 장수의 물가에 서서 정원의 과일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노라. 양 옆에 누대를 둘 세웠으니, 옥룡각과 금봉각이라. 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 본래 원문에는 마지막 두 구절이 '연이교어동서혜(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蟬蛻)'(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으로 되어 있는데, 대교와 소교를 데려다 같이 즐기겠다는 내용으로 살짝 바꾸었다.
- 417) 淫骨. 음탕한 사람을 함부로 일컫는 말.
- 418) 無禮할꼬? 예의가 없을꼬?
- 419) 匈奴.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 민족.
- 420) 孫伯符. 오나라의 명장 손책(孫策). 손견의 아들이요, 손권의 형. '백부'는 그의 자(字).
- 421) 아내.
- 422) 失言. 말을 잘못 함.
- 423) 破하게. 깨뜨리게.
- 424) 夏口. 중국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지명.
- 425) 屯聚. 군대가 머물러 주둔함.
- 426) 老賊. 늙은 도적놈.
- 427) 放恣. 어러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건방짐.
- 428) 凌辱. 남을 업신여기어 욕보임.
- 429) 大喜. 크게 기뻐함.
- 430) 大都督.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
- 431) 大敵軍. 큰 적군. 많은 적의 군사.
- 432) 對戰. 맞아 싸움.
- 433) 幡然히. 뻗히. 모르던 것을 갑자기 깨달아 환하게.
- 434)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 435) 화살.
- 436) (어떤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시간.
- 437) 敵船. 적의 배.
- 438)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 439) 주십시오.
- 440) 軍令. 군사상의 명령.
- 441) 여기서는 '군령다짐.' '군령다짐'은 군령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벌을 받겠다는 다짐.

- 442) 自取之禍根. 스스로 얻은 화근.
 443) 子敬. 노숙의 자(字).
 444) 戰船. 전투를 할 때 쓰는 배.
 445) 장작이 아닌 잎이나 나뭇가지, 풀 따위의 땀감.
 446) 靑布帳. 푸른색 천으로 된 포장.
 447) 이치에 맞지 않는.
 448) ‘통’이 여럿이 한 속이 되어 이루는 무리나 모임이라는 뜻이므로, ‘통죽음’은 여럿이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쓴 듯함.
 449) 불에 타서 죽는 것이므로 ‘더운 죽음’이라고 함.
 450) 赤壁江. 중국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을 흐르는 양자강을 이름.
 451) 日落西山. 해가 서산에 떨어짐.
 452) 江上. 강물 위.
 453) 鐙. 썰과리.
 454) 광쇠. 중이 염불할 때 치는 쇠.
 455) 돛쇠와 무쇠의 합금으로 솔뚜껑 모양의 두 짝으로 된 타악기의 한 가지.
 456) 두드리며.
 457) 中江. 강 가운데.
 458) 毛玠. 조조 휘하의 모사.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는 효선(孝先). 적벽대전에서 우금과 함께 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음. 조정에서 근무에 매우 충실하였으나, 참소를 입어 쫓겨나 있다가 병으로 죽었음.
 459) 防備. (침입이나 손해 따위를) 미리 막아 지킴.
 460) 搖動. 흔들려 움직임.
 461) 陸陣. 육지에 있는 진.
 462)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성은 섭(聶), 자는 문원(文遠). 무예가 뛰어나서 조조와 함께 공을 많이 세웠음.
 463)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중강(仲康). 용맹이 뛰어나서 ‘호치(虎癡)’라고도 불렸음.
 464) 弓弩手. 활과 쇠뇌를 쏘는 군사. ‘쇠뇌’는 보통 활이 그냥 잡아당겨 쏘는 데 비해, 줄을 당겨서 꼭지에 걸어가지고 겨냥하여 쏘는 장치의 활을 말한다.
 465) 許多한. 수많은.
 466) 갈대 쉼. 갈대 잎과 줄기로 된 땀감.
 467) 丞相.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함.
 468)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만 남아도 잊지 못함. 절대 잊지 못함.
 469) 散炙. 쇠고기 따위를 길쭉하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치에 꿰어 구운 음식.
 470) 飛船. 나는 것처럼 빠르게 가는 배.
 471) 이미.
 472) 闕澤. 손권의 신하. 자는 덕윤(德潤). 일찍이 집이 가난하였으나, 경서에 밝아 태자대 부에까지 이르렀던 오나라 선비인데, 황개가 교육계를 써 조조에게 거짓 항복하는 체할 때, 황개가 항복하러 한다는 글을 지어 조조에게 갖다 주었다.
 473) 降書. 항복하는 글.

- 474)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러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475) 苦肉計.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 476) 龐統. 유비 막하의 모사. 본래 와룡(臥龍) 봉추(鳳雛) 중 하나만 얻어도 왕업을 이루리라던 말 속의 봉추가 바로 그 사람임. 양양 사람으로 자는 사원(士元), 적벽대전에서 연환계를 내어 성공시켰음. 낙성(洛城)을 치다가 삼십육세로 죽었음.
- 477) 連環計. 주유가 방통을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의 군대가 수전에 능하지 못하므로,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육지처럼 만들어 싸우면 된다고 한 뒤에, 불로 쳐서 크게 이긴 계책.
- 478) 測量. 생각하여 헤아림.
- 479) 戰船. 전투에 쓰는 배.
- 480) 만들어.
- 481) 江上陸地. 강 위의 육지. 여기서는 배를 쇠고리로 연결하여 마치 육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킴.
- 482) 留陣. 군대의 진영에 머물러 있음.
- 483) 총 쏘기며.
- 484) 十八技.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열여덟 가지 무예.
- 485) 私習. 스승 없이 스스로 훈련하고 익힘.
- 486) 萬軍中. 모든 군대 내.
- 487) 牛羊. 소와 양.
- 488) 滿陣將卒. 진에 가득한 모든 장수와 병졸.
- 489) 十五夜. 15일 밤. 보름날 밤.
- 490) 天氣. 날씨.
- 491) 清明. 맑고 밝음.
- 492) 風浪.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물결.
- 493) 月色. 달빛.
- 494) 如同白日. 밝은 대낮과 같음.
- 495) 長江. 양자강.
- 496) 如橫素練.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음.
- 497) 勇將. 사납고 날랜 장수.
- 498) 錦繡戰袍.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전투할 때 입는 도포.
- 499) 劍戟. 칼과 창.
- 500) 彩色. 여러 가지 고운 빛깔.
- 501) 그림으로 만든 병풍.
- 502) 柴桑口. 시상의 입구. '시상'은 강서성 구강현 서쪽에 있는 산성.
- 503) 夏口境. 하구성의 경계. '하구성'은 호북성 무창현에 있는 손권이 쌓은 성.

- 504) 樊城.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 있는 성.
- 505)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506) 廣闊. 흰하계 넓음.
- 507) 起兵. 군사를 일으킴.
- 508) 四海. 온 천하.
- 509) 平定. 평온하게 가라앉힘.
- 510) 精兵. 훈련이 잘된 날랜 군사.
- 511) 諸將. 여러 장수.
- 512) 勇將. 용감한 장수.
- 513) 天時.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
- 514) 불명. 문맥으로 보아 ‘능멸(凌蔑)’ 정도가 옳을 듯함. ‘능멸’은 업신여김.
- 515) 어리석도다.
- 516) 將兵. 장수와 병졸.
- 517) 令. 명령.
- 518) 大業. 큰 사업. 큰 일.
- 519) 魏吳漢. 위나라와 오나라, 한나라.
- 520) 死生. 죽고 살기.
- 521) 漢室. 한나라 왕실.
- 522) 盡. 다하게.
- 523) 得天下. 천하를 얻음, 곧 통일 왕조를 세움.
- 524) 然後에. 후에. 뒤에.
- 525) 함께. 똑같이.
- 526) 滿陣將卒. 진에 가득한 모든 장수와 병졸.
- 527) 남보다 낮기 위해 서로 다투어.
- 528) 여러 놈.
- 529) 각자의 방식대로.
- 530) 겨워. 감정이나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 누를 수 없어.
- 531) 소리를 내면서 슬피 우는 울음.
- 532) 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고 길이 다섯 치쯤 되게 만들어, 그림과 꽃수를 그려 넣은 노름 기구, 또는 그것을 갖고 하는 노름.
- 533) 고인. 권.
- 534) 疊疊滿恨. 첩첩이 한이 가득한.
- 535) 軍兵中. 병사들 가운데.
- 536) 兵淚不息. 병사들의 눈물이 그치지 아니함.
- 537) 帳下. 장막 아래.
- 538) 戰笠. 병거지.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 539) 보(漕)에 고인 물, 또는 보에서 흘러내린 물. ‘보’는 논에 물을 대려고 둑을 쌓아 물을 막아 두는 곳.

- 540) 서럽게.
- 541) 大成事. 크게 성공할 일.
- 542) 高堂上. 고당 위에. '고당'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543) 鶴髮 兩親. 학처럼 머리가 하얗게 늙으신 부모님.
- 544) 拜別. 이별의 인사를 올림.
- 545) 되는가?
- 546) 父兮여 生我하시고, 母兮여 育我하시니.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 547) 欲報之德澤인댄 昊天罔極이라. 그 덕택을 갚고자 하나, (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다.
- 548) 節內眷堂. 집안의 일가친척.
- 549) 閨中. 아녀자가 기거하는 곳.
- 550) 倚閭望. 어머니가 동네의 어귀에 세운 문에 기대어 아들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551) 依門望.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아들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552) 蘇中郎將의 鴻雁去來. 소중랑장이 기러기를 이용해 소식을 주고받은 일. '소중랑장'은 한나라 때의 소무(蘇武)로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음. 소무가 흉노에게 사신을 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 발에 매어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져서 19년 만에 돌아온 일을 가리킴.
- 553) 相思曲.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 554) 斷腸懷.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심정을 나타낸 말.
- 555) 晝夜 愁心. 밤낮으로 하는 근심스런 생각.
- 556) 鳥銃. 구식 총.
- 557) 環刀. 옛 군복에 갖추어 차는 긴 칼.
- 558) 둘러메고.
- 559) 陸戰. 육지에서 하는 전쟁.
- 560) 水戰. 물에서 하는 전쟁.
- 561) 生死가 朝夕이로구나. 죽고 사는 것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 562) 客死. 객지에서 죽는 죽음.
- 563) 掩土. 흙을 덮음.
- 564) 骨曝沙場.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 565) 흩어져서.
- 566) 烏鳶. 까마귀와 술개.
- 567) 두드리며.
- 568) 一日思親十二時로구나. 하루에 12시간을 어버이를 생각하는구나.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생각했으므로, 결국 온 종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임.
- 569) 孝誠之心. 참으로 효성스런 마음.
- 570) 남의 五代獨身. 자신이 (부모의) 오대독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임. '오대독신'은 5대째 독자로 내려온 집안의 외아들을 가리킴.
- 571) 將近토록. 곧 가깝도록. 거의 다 되도록.

- 572) 膝下. 아버지의 곁.
- 573)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574) 어떤 것을 대단하게 여기어 반갑게 내는 소리.
- 575) 功. 신이나 부처에게 음식이나 재물, 기도 등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 576) 大刹. 큰 절.
- 577)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578) 古廟. 오래 된 사당.
- 579)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580) 釋王寺. 절.
- 581) 石佛. 돌로 만들거나 새긴 부처님.
- 582) 菩薩. 부처의 다음 가는 성인. 고승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
- 583) 彌勒.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 584)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 585) 老軀맞이. ‘노구’는 ‘할멈’이라는 의미인데, 민속의 신(神)의 하나인 듯. 혹 노구메정성으로 볼 수도 있음. ‘노구메정성’은 노구메를 놓고 산천에 기도하는 정성인데, ‘노구메’는 노구술에 지은 밥. ‘노구술’은 낫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 586)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 587)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 588) 百日山祭. 백일 동안 산에 제사드리는 일.
- 589) 帝釋佛供. 부처님께 드리는 불공.
- 590) 다리 勸善. 다리를 놓는 데 비용을 대는 일.
- 591) 길을 만들어 착한 일을 함.
- 592) 성조(주)신(成造神). 민속에서 집을 지킨다는 신령.
- 593) 竈王神예. 조왕신과. ‘조왕신’은 민속에서 부엌의 아궁이를 담당한다는 신.
- 594) 堂山. 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곳.
- 595) 天龍. 민속에서 장독대를 담당한다는 신.
- 596) 中天群雄. 하늘에 있는 군웅신. ‘군웅신’은 무속의 신의 하나.
- 597) 地神祭. 땅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 598) 힘들여 심은 나무가.
- 599) 十朔. 열 달.
- 600) 胎育. 아이를 배서 기름.
- 601) 베풀할 때. ‘베풀하다’는 임신하다는 뜻.
- 602)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03)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04)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05)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은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606) 解腹幾微. 출산을 할 기미.
- 607) 順產. 순순히 출산함.
- 608) 갯목불알. 갯목처럼 진한 갈색의 어린 아이의 불알.
- 609) 고추자지. 고추처럼 생긴 어린 아이의 자지.
- 610) 가리어.
- 611) 三七日. 21일.
- 612) 五六朔. 5-6개월.
- 613) 壯版房. 바닥을 장판으로 바른 방. '장판'은 방바닥을 바르는 데 쓰는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
- 614) 터덕터덕거리면서. '터덕터덕'은 힘에 벅차서 애처롭게 겨우 움직이는 모양.
- 615)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피우는 재롱.
- 616) 어린아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우는 재롱.
- 617)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 618) 매달아.
- 619) 수염.
- 620) 거머쥐어 잡고.
- 621) 웅그리며 노는 모양. '웅그리다'는 얼굴을 험상궂게 찌푸리다.
- 622) 愛重. 사랑하여 중하게 여김.
- 623) 외치는.
- 624) 祠堂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의 문.
- 625) 痛哭 再拜. 슬피 울면서 두 번 절을 함.
- 626)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 627) 有情한. 정이 있는. 다정한.
- 628) 부디.
- 629) 後嗣. 대를 이을 자식.
- 630) 生離別. 살아 있는 부부끼리 하는 이별.
- 631) 그립던.
- 632)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 633) 욕으로 쓰는 말임.
- 634) 전혀 없어.
- 635) 四顧無親.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까운 친척이 없음.
- 636) 子孓單身.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운 홀몸.
- 637) 二姓之合. 두 성씨가 합치는 일. 두 성씨가 만나 혼인하는 일.
- 638) 깔끔하고 암전하여.
- 639)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제사를 지냄.

- 640) 接賓客. 손님을 접대하는 일.
 641) 家長. 집안의 어른.
 642) 治産. 살림살이를 잘 다스리는 일.
 643) 凡節.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644) 宗家. 한 집안에서 만이로만 내려온 집안.
 645) 託心獻情. 마음을 맡겨 정성을 다함.
 646) 화.
 647) 天鵝聲.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
 648) 나팔소리의 의성어.
 649) 日復日. 하루 또 하루 계속해서.
 650) 茫茫滄海. 넓고 넓은 푸른 바다.
 651) 끝.
 652)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653) 淡淡. (물이나 달빛 등이) 옅고 맑음.
 654) 그림딘.
 655) 萬端情懷. 온갖 마음과 회포.
 656) 서러운지고. 슬프구나.
 657) 戀妻之情. 아내를 그리워하는 정.
 658) 喪妻. 아내를 잃음.
 659) 四柱單子. 혼인할 것을 정한 뒤에 신랑될 사람의 집에서 신랑될 사람의 사주(태어난 해, 달, 일, 시)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
 660) 擇日. 날을 잡음.
 661) 寄別. 떠 댈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662) 新行.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
 663) 差備. 채비. 준비를 갖추어 차림.
 664) 張風憲네. 장씨 성을 가진 풍헌의. '풍헌'은 조선조 때 향소직의 하나로 면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 보았음.
 665) 비루먹은. 털이 빠지는 병인 비루에 걸린.
 666) 李座首宅. 이씨 성을 가진 좌수의 집. '좌수'는 조선조 때 지방에 두었던 향청의 우두머리.
 667) 쯤이 먹은.
 668) 쌍언청이.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두 군데가 찢어진 사람.
 669) 안판낙포. 앞 뒤 굵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불쑥 내민 사람.
 670) '중시(重侍)'의 잘못. 혼례를 치르려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갈 때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시배(侍陪)를 두 사람으로 세움.
 671) 鄭동장. 정씨 성을 가진 동장. '동장'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리던 종.
 672) 혼례를 올리기에 앞서 신랑 집에서 신부에게 주는 예물을 담은 함을 지고 가는 사람.
 673)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674) 절름발이.
 675) 찌수의 아버지. 찌수 혹은 찌쇠는 피가 많은 사람을 이름.

- 676) 陳驅從. 진씨 성을 가진 구종. ‘구종’은 벼슬아치나 양반들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던 하인.
- 677) 불명.
- 678) 上客. 혼례 때에 식구나 일가 가운데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 679) 뚜덕거리는 모양. ‘뚜덕거리다’는 크고 질긴 물건으로 잘 울리지 아니하는 물건을 조금 세게 연해 두들겨서 소리를 내다. 여기서는 소걸음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임.
- 680) 넌지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 681) 紗帽品帶. 혼례 때에 신랑이 쓰던 모자와 허리띠.
- 682) 綾羅豪奢. 비단으로 사치스럽게 꾸밈.
- 683) 醺禮廳. 전안청(奠雁廳)이라고도 하는데, 전안식을 올리는 식당을 말함. 보통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을 세우고, 명석을 깔고 상을 차린다.
- 684) 奠雁. 혼례의 첫 순서로, 신랑에 신부에게 기러기비를 시켜서 가지고 간 산 기러기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겉은 남색, 안은 홍색으로 된 보자기를 간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
- 685) 大禮廳. 혼인할 때 대례를 올리는 곳. 대개 초례를 위한 차림에서 전안상만 치우고는 그대로인데, 대례에서는 먼저 신부가 절 네 번을 하면 답으로 신랑이 두 번 절하고, 청실과 홍실을 켜 표주박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한다.
- 686) 茶啖床. 차와 다과 따위를 차린 상.
- 687) 日落咸池. 함지에 해가 떨어짐. ‘함지’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에 있는 큰 연못.
- 688) 들어오는데.
- 689) 和氣. 온화한 기색.
- 690) 眼光. 눈빛.
- 691) 花冠. 칠보로 꾸민 여자의 족두리.
- 692) 圓衫. 여자의 예복의 한 가지로,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아 짓는다.
- 693) 아내의 남자 형제간의 아내.
- 694) 擁衛. 좌우로 부축하여 지킴.
- 695) 겨드랑.
- 696) 연기, 혹은 냄새.
- 697) 空房數. 남편 없이 혼자 지낼 운수.
- 698) 放砲行軍. 포를 쏘면서 행군을 함. ‘행군’은 군대가 열을 지어 먼 길을 행진함.
- 699) 鼓角. 군대에서 쓰는 북과 나팔.
- 700) 喊聲. 여럿이 함께 높이 지르는 소리.
- 701) 떼어 내버리고.
- 702) 손바닥을 얹어서 때리는 뺨.
- 703) 욕의 일종.
- 704) 昏迷精神. 헛갈리고 흐리멍덩한 정신.
- 705)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 706) 誤死. 잘못된 죽음.
- 707) ‘오사’에 연이어서 만든 말.
- 708) 急煞.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액(災厄).

- 709) 天煞. 하늘이 내리는 재액(災厄).
- 710) 조그마하고.
- 711) 바다 속에 사는 붉은 말의 하나. 높이가 7-9cm이고, 가지가 갈라지며, 우무의 원료가 된다. 바다 속의 모래나 바위에 붙어 산다.
- 712) 콧구멍.
- 713) 着刀. 지휘봉으로 쓰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
- 714) '마음 씩씩이나 하는 행동이 보잘 것 없이 작은 사람'을 욕으로 일컫는 말.
- 715) 爲國者는 不顧家.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보지 않음.
- 716) 男兒何必戀妻子리오? 남자가 하필이면 아내와 자식만을 그리워 하겠는가?
- 717) 莫向江村에 老壯年하소.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고향은 생각 마소.
- 718) 功名. 공을 세워 드러난 이름.
- 719) 어찌 할 도리 없이.
- 720) 心中. 마음 속.
- 721) 腰下. 허리 아래.
- 722) 三尺. 석 자. 약 90cm.
- 723) 吳漢. 오나라와 한나라.
- 724) 兩陣. 양 진영.
- 725) 덩ج. 큰 물체가 단번에 잘려 나가거나 무겁게 떨어지는 모양.
- 726) 繁槍揮馬.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감.
- 727) 勝戰鼓. 싸움에 이겨 울리는 북.
- 728) 권속(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729) 遠近 親戚. 가깝고 먼 친척.
- 730) 아저씨.
- 731) 반가이. 반갑게.
- 732) 본다면.
- 733) 즐거우랴.
- 734) 간절히 베풀기를 바라건대.
- 735) 여러 가지 싸움을 묘사한 노래.
- 736) 月明深夜間에. 달 밝은 깊은 밤에.
- 737) 南天. 남쪽 하늘.
- 738) 緣由. 그러한 까닭.
- 739) 醉興.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 740) 月明星稀에 鳥鵲이 南飛하니, 繞樹三匝에 無枝可依로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도다.
- 741) 劉馥. 조조의 부하 장수. 패국(沛國) 상현(相縣) 사람으로 양주자사(揚州刺史)를 지냈음.
- 742) 臨戰時. 싸움에 임할 때.
- 743) 不吉兆. 불길한 징조. 좋지 못한 징조.
- 744)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낚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됨.

- 745) 妖說. 요사스런 말.
- 746) 執頗. 남의 잘못을 잡아내어 트집을 잡음.
- 747) 그 사람들.
- 748) 水軍都督. 수군의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
- 749) 毛玠. 조조 휘하의 모사. 진류(陳留) 평구(平丘) 사람으로, 자는 효선(孝先). 적벽대전에서 우금과 함께 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음. 조정에서 근무에 매우 충실하였으나, 참소를 입어 쫓겨나 있다가 병으로 죽었음.
- 750) 于禁. 조조의 부하 장수. 태산(泰山) 거평(鉅平) 사람으로, 조조가 산동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였을 때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다. 적벽대전 때 수군의 충지휘를 맡았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양양 싸움에서 관우에게 항복하여 옥에 갇혀 있다가, 관우가 싸움에 저 죽은 뒤 손권이 보내주어 돌아갔다. 후에 조조의 능 관리를 하였는데, 그가 항복하는 모습을 조조의 공적을 그린 벽화 속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 751) 連鎖戰船. 畢鎖하고, 전투할 배를 서로 이어놓기를 마치고.
- 752) 卽日. 그 날.
- 753) 進軍. 군대를 진격시킴.
- 754) 樓船. 망을 보기 위한 다락집이 있는 배.
- 755) 水陸諸將.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
- 756) 五色旗號. 다섯 색깔의 깃발 신호.
- 757) 分撥. 나누어 펼침.
- 758) 水陣. 수군의 진영.
- 759) 中挾摠. 대오의 한가운데서 황색 기를 들고 지휘하는 장수.
- 760) 前挾摠. 대오의 앞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61) 張郃. 조조의 부하 장수. 자(字)는 준문(雋文). 하간군 정현 사람. 본시 원소의 밑에 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중용되었음.
- 762) 左挾摠. 대오의 왼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63) 文聘. 조조의 부하 장수. 남양 완성(宛城) 사람으로 자(字)는 중업(仲業). 강야태수를 거쳐 신야후에 봉해짐.
- 764) 右挾摠. 대오의 오른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65) 呂通. 위나라 조조의 부하 장수.
- 766) 後挾摠. 대오의 뒤쪽에서 지휘하는 장수.
- 767) 呂虔. 조조의 부하 장수로 무성(武城) 사람. 자는 자각(子恪).
- 768) 水陣. 수군의 진영.
- 769) 前司把. 군대의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
- 770) 徐晃. 조조의 부하 장수. 하동(河東) 양군(楊郡) 사람으로, 자는 공명(公明). 양봉(楊奉)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용맹을 본 조조가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다.
- 771) 左司把. 군대의 왼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772) 樂進. 조조의 부하 장수. 양평(楊平) 위국(衛國) 사람으로 자는 문겸(文謙). 몸집은 작았으나 담력이 있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 773) 右司把. 군대의 오른편에서 지휘하는 장수.
- 774) 夏侯淵. 조조의 부하 장수. 자는 묘재(妙才). 정서장군을 지냈는데, 평양관에서 촉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다.
- 775) 後司把. 군대의 뒷편을 맡은 장수.
- 776) 李典. 조조의 부하 장수. 산양(山陽) 거록(鉅鹿) 사람으로 자는 만성(曼成).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참가하였으며, 뒤에 벼슬이 파로장군(跋虜將軍)에 이르렀다.
- 777) 水陸應接使. 수군과 육군의 연락을 맡은 장수인 듯.
- 778) 夏侯惇. 조조의 부하 장수. 조조와는 본디 같은 족속인데, 조조의 아버지가 조 씨에게 양자를 삼기 때문에 성이 달라졌다. 여러 차례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조조가 죽은 뒤 병사하였다.
- 779) 曹仁. 조조의 종제이며 부하 장수. 자(字)는 자효(子孝). 조조가 처음 동탁을 치려고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참여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다.
- 780) 護衛. 임금의 신변을 지키는 장수.
- 781) 許褚. 조조의 부하 장수. 용맹이 뛰어났으며, 조조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군을 거느렸다. 우직할 정도로 고지식하였으며, 조조가 죽자 피를 토하며 울었다.
- 782) 張遼. 조조의 부하 장수. 적벽대전에서 황개를 활로 쏘아 맞춰 물 속에 빠뜨리고 조조를 구출하여 달아났다.
- 783) 發令. 명령을 내림.
- 784) 各應聲畢. 각각 대답하는 소리를 마침.
- 785) 戰船. 전투하는 배.
- 786) ‘풍범(風帆)’의 잘못된 뜻. ‘풍범’은 돛단배.
- 787) 連船. 배를 연결함.
- 788) 將臺. 장수가 자리를 잡고 명령을 내리는 곳.
- 789)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790) 荀彧. 조조의 모사(謀士). 본시 원소의 밑에 있었으나, 조조가 황건적을 치고 위세를 떨칠 때 그의 막하에 들었다. 후에 조조의 노여움을 사 50세에 자살하였다. 조조는 그에게 경후(敬侯)라는 시호를 내렸다.
- 791) 처온다면. 공격해 온다면.
- 792) 친다면.
- 793) 勝捷. 전쟁에서 이김.
- 794) 朱都督. 도독의 지위에 있는 주유를 가리키는 말. ‘도독’은 군대를 통틀어 거느리고 감독하는 지위의 으뜸 벼슬.
- 795) 陣勢. 진의 형세.
- 796) 狂風.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
- 797) 忽起. 갑자기 일어남.
- 798) 노란색 깃발을 단 깃대.
- 799) 크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800) 風波江上. 바람으로 물결이 일어나는 강 위.
- 801) 面相. 얼굴.
- 802) 火攻. 불로 하는 공격.
- 803) 欲破無計. 쳐부수고자 하나 방법이 없음.
- 804) 吐血. 피를 토함.
- 805) 氣塞. 심한 흥분이나 타격 따위의 과격한 정신 작용으로 호흡이 잠시 멎음. 기절.
- 806) 일어나지.
- 807) 自請. 스스로 하기를 청함.
- 808) 欲破曹兵인댄 宜用火攻이요, 萬事具備하나 欠東南風이라.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고자 하면 반드시 불로 공격을 해야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동남풍이 흠이다.
- 809) 人力. 사람의 힘.
- 810)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을 성공 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 811) 天意. 하늘의 뜻.
- 812) 일찍.
- 813) 神人. 신과 같이神通력을 가진 사람.
- 814) 遁甲. 술법을 써서 마음대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 815) 術法. 음양과 점술에 관한 이치, 또는 그 실현 방법.
- 816)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는 산. 우뚝 솟은 괴암과 병풍처럼 생긴 절벽들로 이루어졌다고 함.
- 817) 七星壇. 민속에서 믿는 신인 칠원성군(북두칠성)을 모신 단.
- 818) 만들고, 쌓고.
- 819) 軍勢. 군대의 위력.
- 820) 精兵. 훈련이 잘 된 날랜 군사.
- 821) 刀斧手. 칼과 도끼를 든 군사.
- 822) 精軍人. 정예 군사. 날랜 군사.
- 823) 聽令俟侯. 명령을 기다려 들음.
- 824) 取해다가. 가져다가.
- 825) 三層壇. 삼 층으로 된 단.
- 826) 方圓. 밑바닥 둘레.
- 827) 二十四丈. 스물네 장. '장'은 길이의 단위로 약 3m.
- 828) 每一層 高. 각각 한 층의 높이.
- 829) 合高. 모두 합한 높이.
- 830) 下一層, 맨 아래 1층.
- 831) 二十八宿. 해, 달, 혹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天球)를 스물여덟으로 나눈 것.
- 832) 七面. 일곱 면.
- 833) 靑旗. 푸른색 기.
- 834) 角亢氐房心尾箕.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35) 蛟龍貉狐兔虎豹. 이십팔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도롱뇽, 용, 오소리, 여우, 토끼, 호랑이, 표범.
- 836) 按檢. 조사하여 살핌.
- 837) 黑旗. 검은색 기.
- 838) 斗牛女虛危室壁.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39) 獬豸蝠鼠燕猪獮. 이십팔수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해태,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이리.
- 840) 白旗. 흰색 기.
- 841) 奎婁胃昂畢觜參.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42) 狗狼雄雞烏猴猿. 이십팔수에서 서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개, 이리, 꿩, 닭, 까마귀, 원숭이, 긴팔원숭이.
- 843) 踞白虎之威. 백호의 위세로 세워놓음.
- 844) 紅旗. 붉은색 기.
- 845) 井鬼柳星張翼轸.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
- 846) 豺羊獐馬鹿蛇蚓. 이십팔수에서 남쪽을 나타내는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인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
- 847) 朱雀. 예로부터 남쪽 방위를 나타내는 신을 맡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붉은색의 봉황.
- 848) 黃神旗. 중오망기(中五方旗.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군데에 세우는 군기)의 하나로 중앙에 세우는 큰 기.
- 849) 六十四卦. 주역의 팔괘를 여덟 번 겹쳐서 얻은 괘.
- 850) 應하여. 맞추어서.
- 851) 八位. 여덟 방위.
- 852) 司命旗. 부대의 대장이 휘하의 군대를 지휘할 때 쓰던 기.
- 853) 黃金大字. 황금으로 된 큰 글씨.
- 854) 大漢室 忠武侯 諸葛良. 대 한나라 충무후 제갈량. ‘충무후’는 작위의 명칭.
- 855) 束髮冠. 머리를 묶고, 관을 씌.
- 856) 阜羅布. 검은색 비단.
- 857) 鳳衣. 품이 넉넉한 옷.
- 858) 博帶. 넓은 허리띠.
- 859) 朱履. 붉은 신.
- 860) 方裙. 옷자락이 네모난 옷.
- 861) 前左. 왼쪽 앞부분.
- 862) 七星湯罐. ‘칠성’은 복두칠성. ‘탕관’은 약을 달이는 그릇. 문자 그대로 하면, ‘복두칠성을 상징하는 약을 달이는 그릇’이란 의미.
- 863) 風信. 바람의 신호.
- 864) 前右, 앞부분의 오른쪽.
- 865) 七星. 복두칠성.
- 866) 表하게. 나타내게.
- 867) 後右, 뒷부분의 오른쪽.

- 868) 香爐. 향을 피우는 화로.
- 869) 後左. 뒷부분의 왼쪽.
- 870) 寶劍. 의식에 쓰는 칼의 한 가지.
- 871) 二十四人. 스물네 사람.
- 872) 寶蓋. 양산처럼 생겨서 햇빛 따위를 가리는 물건.
- 873) 旌旗. 깃발을 통틀어 이르는 말.
- 874) 朱旛. 붉은색 깃발.
- 875) 阜纛. 군대에서 쓰는 검은 깃발.
- 876) 龍旗雲纛. 용기가 구름 속에 우뚝 솟아 있음. ‘용기’는 교룡기(蛟龍旗)로 왕이 거동할 때 앞에 서는 큰 기.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화염을 상징하는 붉은 형국이 달렸음.
- 877) 輝煌.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임.
- 878) 차일(遮日). 주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879) 帳幕. 한데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둘러치는 막. 옆을 돌아가며 회장을 침.
- 880) 山水屏風. 산수화를 그린 병풍.
- 881) 榻床. 걸상이나 침대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882) 祭床. 제사 지낼 음식을 차려놓은 상.
- 883) 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84) 紅東白西.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85) 子敬. 노숙의 자(字).
- 886) 氣勢. 남이 보기에 두려워할 만큼 세차게 뻗치는 힘.
- 887) 下令. 명령을 내림.
- 888) 不許遷離方位. 제멋대로 자리를 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889) 不許交頭接耳.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890) 不許失口亂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891) 不許大驚所怪. 괴이한 것에 크게 놀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892) 違令者. 명령을 어기는 사람.
- 893) 斬. 목을 베어 죽임.
- 894)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895) 剪爪. 손톱을 자름.
- 896) 斷髮. 머리를 자름.
- 897) 身披道服. 몸에 도복을 입음.
- 898) 仰天暗祝, 하늘을 우러러 몰래 빙.
- 899) 維歲次 建安 十二年 十一月 乙巳 朔 十九日 癸亥 漢宗室 劉備 謹遣官 諸葛良 敢昭告于. 天地開定 日月星辰 火德眞君 山神后土 感此微誠 亂臣賊子 曹孟德 行權用私 篡逆圖謀 宜用火攻 一齊掃蕩 漢室回復 此際 東南風 三日間 許容之地 千萬伏祝 常事 尚饗. 해는 건안 12년, 11월 을사, 19일 계해일 한나라 종친 유비의 근견관(과건된 관리) 제갈량은

감히 고하나이다. 천지가 열려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졌습니다. 화덕진군과 산신 지신
 께서 이 보잘 것 없는 정성에 감응하셔서, 난신적자 조맹덕이 권세를 행함에 있어
 사사로이 사용하고, 반역을 피하고자 하오니, 마땅히 화공을 하여 일제히 소탕하고
 한나라 왕실을 회복코자 하옵니다. 이 즈음에 동남풍을 삼일간만 허용해 주시기를 천
 만 번 엿드려 비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900) 帳中. 장막 속.
- 901) 風勢. 바람의 기세.
- 902)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 천을 댄 선비의 옷.
- 903) 대강 건너서.
- 904) 江村. 강가의 마을.
- 905) 遙落. 멀리 떨어져 보임.
- 906)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을 가리킴.
- 907) 비스듬히 있는데.
- 908) 吳江邊. 오강의 강가. '오강'은 강소성 남쪽 지방을 흐르는 강.
- 909) 揖, 인사하는 예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 910) 危邦陣中. 위험한 적의 진영 속.
- 911) 반가와 하여.
- 912) (내밀 때에) 뻗은 손.
- 913) 賢主. 어진 임금. 신하가 임금을 높여서 일컫는 말.
- 914) 氣體. 옷어른에게 편지로 문안을 올릴 때 그를 높여 '정신과 건강 상태'를 이르는 말.
- 915) 諸將軍卒.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
- 916) 無故. 아무런 사고나 연고가 없음. 무사.
- 917) 一片風席. 한 조각 돛.
- 918) 滔滔滔滔. 넘실넘실.
- 919) 軍官. 장교.
- 920) 帳中. 장막 속.
- 921) 深夜. 깊은 밤.
- 922) 天氣. 날씨.
- 923) 左右더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 924) 隆冬. 한겨울.
- 925) 보십시오.
- 926) 재주.
- 927) 君子. 인품이 훌륭한 사람.
- 928) 마치지. 끝나지.
- 929) 三更時分. 삼경 시에. '삼경'은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 930) 忽風聲.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소리.
- 931) 旗脚. 깃대의 반대 쪽에 있는 깃폭의 귀에 붙인 긴 조각.
- 932) 몸의 일부를 움츠리거나 펴거나 하며 움직이는 모양.

- 933) 將臺.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을 내리는 대.
- 934) 靑龍. 상상의 동물인 푸른 용. '청룡기'는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문 왼편에 세움.
- 935) 朱雀. 남쪽 방위를 맡은 신으로 일컬어지는 상상의 새로서, 붉은색 봉황. '주작기'는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앞문에 세움.
- 936) 白虎. 서쪽 방위를 맡은 신으로, 흰 호랑이로 형상화됨. '백호기'는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움.
- 937) 玄武旗. '현무'는 북방을 맡은 신으로 거북으로 형상화됨. '현무기'는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후문에 세움.
- 938) 應하여. 마주 대하여.
- 939) 脫造化. 사람이 부릴 수 없는 조화.
- 940) 難測. 짐작하기 어려움.
- 941) 東吳, 동쪽에 있는 오나라.
- 942) 禍根. 재앙이나 화의 근원.
- 943) 後患. 훗날의 근심.
- 944) 徐盛. 손권의 부하 장수. 낭야 사람으로 지는 문향(文嚮). 용맹이 뛰어났고, 특히 수전에 능하였다.
- 945) 丁奉. 손권의 부하 장수. 여강 안풍 사람으로 지는 승연(承淵).
- 946) 長短. 옳고 그름.
- 947) 한 칼에.
- 948) 모두. 전부.
- 949) 廳令. 명령을 들음.
- 950) 刀斧手. 칼과 도끼를 든 군사.
- 951) 水路. 물길.
- 952) 弓弩手. 쇠뇌를 쏘는 군사. '쇠뇌'는 보통 활이 그냥 잡아당겨 쏘는 데 비해, 줄을 당겨서 꼭지에 걸어가지고 겨냥하여 쏘는 장치의 활을 말한다.
- 953) 旌旗蔽日. 깃발이 해를 가림.
- 954) 劍戟. 칼과 창.
- 955) 漲溢. 큰물이 저 넘침. 여기서는 '아주 많다'는 뜻으로 썼음.
- 956) 飛沙走石.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빨리 굴러가는 돌.
- 957) 불명.
- 958) 白日. 구름이 끼지 않고 쨍쨍하게 비치는 해.
- 959) 冷冷한데. 온도가 쌀쌀하고도 몹시 찬데.
- 960) 차일(遮日). 주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961) 帳幕. 한데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둘러치는 막. 옆을 돌아가며 휘장을 씌.
- 962) 碧空. 푸른 하늘.
- 963) 壇下로. 단의 아래로.
- 964) 遠近滄波上. 멀고 가까운 푸른 물결 위.
- 965) 洶湧. 물결이 아주 세차게 일어남.

- 966) 來去踪跡. 오고 간 발자취.
 967) 杳無其轍. 아득하여 그 자취가 없음.
 968) 水卒. 수군의 병사.
 969) 昨日. 어제
 970) 日暮時. 해질 때.
 971) 江岸. 강 언덕.
 972) 洋洋江水. 넓고넓은 강물.
 973) 桐江 七里灘.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울인데, 엄자룡이 낚시하던 곳으로 유명함.
 974) 嚴子陵. 이름은 광(光). '자룡'은 그의 자(字). 한나라의 광무제와 글공부를 같이 했으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다. 황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라는 벼슬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975)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장강(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976) 거룻배.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977) 五湖上 煙月夜에 范相公 가던 뱃가? 오호의 안개 자욱한 달밤에 범상공이 타고 가던 배인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호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 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서시를 데리고 도 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978)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979) 蒼黃奔走. 너무 급하여 수선스럽게 왔다갔다함.
 980) 一員. 한 사람.
 981) 몸을 힘차게 위로 솟구쳐어 높이 타고.
 982) 공명(孔明)이로다.
 983) 들이치면. 흠뻑 적시면.
 984) 白骨. 흰 뼈.
 985) 키따리. '키'는 배의 뒷부분에 장치하여 배의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기구인데, '키따리'는 키를 조종하도록 손으로 잡는 부분임.
 986) 아덧줄. 활대(돛대에서 가로로 댄 나무)마다 끝에 달려 있는 줄이 사시리줄이고, 그것을 당기는 줄이 아덧줄임. 아덧줄을 한 데 몰아 당기는 줄이 몰잇줄인데, 사공이 몰잇줄을 당기고 놓고 하여서 돛의 방향을 잡는다.
 987) 당기고.
 988) 키따리. 키를 조종하도록 손으로 잡는 부분.
 989) 노를 저으면서 내는 소리.
 990) 一帆 風船頭上. 한 척의 돛단배 뱃머리 위.
 991) 공명인 것이.
 992) 大笑. 큰 소리로 웃음.
 993) 好好用兵. 군사를 지휘하여 부리기를 잘함.
 994) 常山 趙子龍. 상산 사람인 조운(趙雲). 자룡(子龍)은 그의 자(字). 본디 원소(袁紹)의

-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995) 八公山에 草木같이. '팔공산'은 중국 안휘성 봉대현의 동남쪽에 있는 산. 서진(西晉)이 망한 뒤에 화북에서 일어난 오호십육국의 하나인 전진(前秦)의 임금 부견(苻堅)이 동진(東晉)을 칠 때, 이 산에 늘어서 있는 병사들을 동진의 병사인 줄로 잘못 알고 모두 베어버렸다고 함.
- 996) 一戰. 한 번 싸움.
- 997) 一葉船. 한 척의 작은 배.
- 998) 두려워 하랴? 두려워 하겠는가?
- 999) 奸巧. 간사하고 교활함.
- 1000) 무슨.
- 1001) 害하려고. 해롭게 하려고.
- 1002) 등지고.
- 1003) 百步. 백 걸음.
- 1004)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함.
- 1005) 鐵弓. 쇠뇌. 보통 활이 그냥 잡아당겨 쏘는 데 비해, 줄을 당겨서 꼭지에 걸어가지고 겨냥하여 쏘는 장치의 활을 말한다.
- 1006) 矮箭. 짧은 화살. 보통 화살의 1/3 크기임.
- 1007) 화살을 시위에 메어.
- 1008) 非丁非八. 丁 자도 아니고 八 자도 아닌 자세. 활을 쏘 때의 발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
- 1009) 胸虛腹實. 숨을 다 내쉬고 배에 힘을 줌.
- 1010) 줍통. 활의 한가운데 손으로 쥐는 부분.
- 1011) 下三脂. 손을 쥐었을 때, 집게 손가락 밑의 세 손가락.
- 1012) 머리 뒤. 뒤통수.
- 1013) 아쑥. 갑자기 찬 기운이 몸을 스쳐가는 느낌을 느끼는 모양.
- 1014) 弓弦. 활을 맨 줄.
- 1015) 깎지킨 손. '깎지'는 활줄을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
- 1016) 힘차게 떼어놓으니.
- 1017) '가로 자빠져'라는 뜻으로 쓴 듯함.
- 1018) 뒤틀려서 마구 우그러져.
- 1019) 물결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양.
- 1020) 大驚. 크게 놀람.
- 1021) 神技. 신기한 기술.
- 1022) 妙術. 교묘한 꾀.
- 1023) 萬不對敵. 만 명의 군사로도 대적할(이길) 수 없음.
- 1024) 누가.
- 1025) 어찌할 수 없이.
- 1026) 本陣. 지휘를 하는 본부가 있는 군영.
- 1027) 回報. 돌아와 알림.

- 1028) 智略. 슬기와 꾀.
 1029) 寢食. 잠자고 밥 먹는 일.
 1030) 破한. 깨뜨린. 격파한.
 1031) 漢. 한나라.
 1032) 圖謀하십시다. (한나라를 빼앗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십시다.
 1033) 差備. 채비. 준비를 갖추어 차림.
 1034) 火船. 화약과 장작, 짚 등을 싣고 불을 질러 바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배.
 1035) 갈대 숲. 갈대 잎과 줄기로 된 땀감.
 1036) 焰硝. 질산칼륨. 검은색 화약, 성냥, 비료 등의 원료로 씀.
 1037) 水前面. 물의 앞부분.
 1038) 甘寧. 오나라 장수. 손권에게 계책을 올려 황조(黃祖)를 처부수고, 주유와 함께 조조를 쳐서 큰 공을 세워 강표호신(江表虎臣)이라 불렸고, 벼슬은 정충장군이었다.
 1039)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1040) 取하여. 차지하여.
 1041) 糧草. 군대가 먹을 양식과 말을 먹일 풀.
 1042) 太史慈. 손권의 부하 장수. 손책과 싸우다가, 손책이 그의 용맹을 아껴 사로잡아 부하로 삼았음.
 1043)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1044) 掩殺. 에워싸서 죽임.
 1045) 呂蒙. 오나라 장수. 자는 자명(子明). 주유와 함께 조조 군사를 오림에서 크게 무찔렀다. 벼슬은 남군태수(南郡太守).
 1046) 接應. 맞이하여 대함.
 1047) 分撥. 나누어 펼침.
 1048) 埋伏. (적을) 불시에 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1049) 敗軍旗. 패한 군대의 군기. ‘군기’는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
 1050) 糜芳. 미축(糜竺)의 아우로 유비의 처남. 관우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형주가 함락되자 손권에게 항복하였다. 유비가 복수의 군대를 일으켜 연전연승해 오자, 관우를 잡은 왕충의 목을 베어 돌아왔으나,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1051) 糜竺. 미방의 형.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의 오빠이다. 동해 구현 사람으로 자는 자중(子仲).
 1052) 劉封. 유비의 부하 장수로, 유비의 양아들임. 본래 이름은 구봉(寇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부 유필(劉泌)을 의지하여 번성에 있다가, 유비의 눈에 띄어 유비의 양자가 되었다.
 1053) 三將. 세 장수.
 1054) 賢主前. 어진 임금께. ‘현주’는 자신의 임금을 어진 임금이라고 높여 이르는 말.
 1055) 樊口. 호북성 악성현의 서북쪽에 있는 변항강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입구.
 1056) 屯兵. 군사를 주둔시킴.
 1057) 三更夜. 밤 삼경. ‘삼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 1058) 周亂. 지극히 어지러움.
 1059) 終始. 끝내.
 1060) 怒氣. 성난 기운.
 1061)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한.
 1062) 폭 익어서 물렁하게 된.
 1063) 붉은 대추 색깔.
 1064) 누에처럼 생긴 눈썹.
 1065)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1066)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1067) 鳳투구. 봉황을 조각한 투구.
 1068) 靑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1069) 비스듬하게.
 1070) 뚜덕거리는 모양. ‘뚜덕거리다’는 크고 질긴 물건으로 잘 울리지 아니하는 물건을 조금 세게 연해 두들겨서 소리를 내다. 여기서는 뚜벅뚜벅 걷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임.
 1071) 高聲. 큰 소리.
 1072) 兄長. 형님.
 1073) 數三次. 여러 차례.
 1074) 落後. 뒤떨어짐.
 1075) 大戰時. 큰 싸움을 할 때.
 1076) 무슨.
 1077) 놓을 것이니. 놓아 보내줄 것이니.
 1078) 顏良. 원소의 부하 장수.
 1079) 文醜. 원소의 부하 장수.
 1080) 白馬. 후한 끝 무렵 원소와 조조가 싸울 때 원소가 조조의 군사를 포위한 곳.
 1081) 놓는다면.
 1082) 相考. 서로 비교하여 고증함.
 1083) 斬. 목을 베어 죽임.
 1084) 事. 일.
 1085)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1086)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1087) 虛虛實實. 거짓과 참의 계략.
 1088) 兵書. 병법에 관하여 쓴 책.
 1089) 聽令. 명령을 들음.
 1090) 威風. 위엄 있는 풍채.
 1091) 各船. 모든 배.
 1092) 調發. 군사를 불러 모음.
 1093) 第一隊. 첫 번째 부대.

- 1094) 韓當, 오나라 장수. 자(字)는 의공(義公)이며, 요서(遼西) 영지인(令支人)인.
- 1095) 第二隊, 두 번째 부대.
- 1096) 周泰,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하채(下蔡) 사람. 벼슬이 한중태수(漢中太守)에 이르렀으며, 병으로 죽었다.
- 1097) 第三隊, 세 번째 부대.
- 1098) 蔣欽, 오나라 장수.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공혁(公奕). 수군을 통솔하는 데 뛰어나 벼슬이 탕구장군(蕩寇將軍)에 이르렀음.
- 1099) 第四隊, 네 번째 부대.
- 1100) 陳武, 오나라 장수. 여강(廬江) 송자(松滋) 사람. 조조의 세 번째 남침을 맞아 싸우다 방덕(龐德)에게 칼을 맞아 전사했음.
- 1101) 先鋒, 맨 앞장, 또는 앞장에 서는 사람.
- 1102) 黃蓋, 손권의 부하 장수.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자(字)는 공복(公覆). 적벽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터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103) 後鋒, 맨 뒤, 또는 뒤에 서는 사람.
- 1104) 陸遜, 손권의 부하 장수.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백언(伯言). 뛰어난 지략을 지닌 장수로 뒤에 승상이 되었는데, 태자를 폐하는 데 반대하였다가 노염을 사고 몰려나 병들어 죽었다.
- 1105) 上船, 제일 큰 배.
- 1106) 左右翼, 좌우를 맡은 군대.
- 1107) 下令, 명령을 내림.
- 1108) 選一 以下 次將이 先招牌어든 該曹各席에 從前制하고, 各收拾 定位하라. 선일 이하 다음 장수가 먼저 기를 휘두르거든, 해당 부서의 모든 사람들은 적의 제도에 따르고, 각기 수습하여 위치를 정하라.
- 1109) 聽命은 看天色이 淸霽하고, 風浪이 不作하여 長一湖어든 酒飯食하고, 數十奉色 登高하여 周一面으로 鳴金減이어든 發哨船 雄據하여, 周四面으로 探敵將하라. 명령을 듣기는, 하늘빛이 맑고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호수와 같거든 술과 음식을 먹고, 수십 명의 군사가 높은 데 올라가 두루 살펴 정소리가 끝나거든 망불 배를 발진시켜, 두루 사면으로 적의 장수를 탐지하라.
- 1110) 草船, 마른 풀을 가득 실은 배.
- 1111) 淸道, 청도기(淸道旗). 행군할 때에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깃발.
- 1112) 豹尾,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깃발.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못 하게 하는 데 쓰였음.
- 1113) 청도(淸道), 홍문(紅門), 주작(朱雀), 홍초(紅招), 남문(藍門), 청룡(靑龍), 남초(藍招), 황문(黃門), 백호(白虎), 흑초(黑招), 현무(玄武), 홍신(紅神), 백신(白神), 황신(黃神), 청신(靑神), 흑신(黑神), 표미(豹尾), 금고(金鼓), 호초(號招) 등은 모두 군대에서 쓰던 깃발 이름인데, ‘청도’는 행군할 때 맨 앞에 세우던 선도 깃발이고, 주작·청룡·백호·현무는 진중의 동서남북을 나타내던 대오방기이며, 홍신·백신·황신·청신·흑신은 중오방기, 금고는 휘타수를 지휘하던 깃발임.

- 1114) 喇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1115) 笛, 대로 만든 관악기.
- 1116) 唢囉, 자바라. 낫쇠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 1117) 날라리, 호적(胡笛) 등으로도 불리는 관악기의 일종.
- 1118) 鼓, 북.
- 1119) 鐙, 정(鉦), 징.
- 1120) 小叭, 작은 바라.
- 1121) 三升, 석새 삼배. 올이 굵은 삼배.
- 1122) 帆布, 돛배. 돛을 만드는 배.
- 1123) 行船, 배가 감.
- 1124) 上船, 제일 큰 배.
- 1125) 南屏山色, 남병산의 색깔.
- 1126) 江波萬里, 끝없는 강물결.
- 1127) 風勢, 바람의 기세.
- 1128) 冬至 一陽이 復生하니. 동지에 양이 다시 일어나니. 곧 동지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고 봄기운이 돈다는 말.
- 1129) 一葉片舟, 한 조각 작은 배.
- 1130) 青龍牙旗, 청룡이 그려진 대장기.
- 1131) 大喜, 크게 기뻐함.
- 1132) 黃公覆, 황개. 손권의 부하 장수. '공복(公覆)'은 자(字). 영릉의 천릉 사람으로, 적벽 대전을 앞두고 스스로 주유를 찾아 고육계를 쓸 것을 제안하여, 일부터 주유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으며, 대전시에 선봉대장이 되어 조조의 혼란을 유도하여 크게 공을 세웠음.
- 1133) 軍器, 군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기.
- 1134) 불을 사용해서 하는 짓. 곧 불을 지르는 일.
- 1135) 떨어지자마자.
- 1136) 船中에서. 배 가운데서.
- 1137) 發榜, 방문을 발표함. '방문(榜文)'은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
- 1138) 각 삼관. 모든 삼관나리. '삼관나리'는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조그만 배.
- 1139) 上上에. 맨 위에.
- 1140) 鳴鼓一應, 북소리가 한 번 남.
- 1141) 先隊將, 앞선 부대의 장수. 곧, 선봉.
- 1142) 次, 그 다음.
- 1143) 旗擡, 조선 시대 군관직(軍官職)의 하나. 기(旗)를 지휘하는 군관으로서 잡직(雜職) 정8품에 해당함.
- 1144) 哨官, 각 군영(軍營)에 소속된 위관(尉官, 초급장교)의 하나. 군대 1초(哨, 108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9품 무관
- 1145) 把總, 무관 벼슬 이름.

- 1146) 整而起. 정돈하여 일어남.
 1147) 中軍. 대오의 중앙에 배치된 부대.
 1148) 圍傷潰하라. 포위하여 상하게 하여 무너뜨려라.
 1149) 草船. 마른 풀을 가득 실은 배.
 1150) 左右兵. 좌우에 있는 군사.
 1151) 大鼓. 큰 북.
 1152) 舉火炮. 화포를 설치함. 신기전이 화약을 장치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무기이기 때문에 화포를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음.
 1153) 神機箭. 조선시대의 로켓 병기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화살. 처음에는 한 개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후에 화차를 만든 후에는 신기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았음.
 1154) 結船. 묶어 놓은 배.
 1155) 數尺. 여러 척.
 1156) 물기가 아주 다 말라 버리거나 타 들어가는 모양.
 1157) 大海. 큰 바다.
 1158) 뒤집어 넘어지고.
 1159) 風助火勢. 바람이 불의 기세를 도움.
 1160) 火焰風聲. 화염과 풍성. 불꽃과 바람소리.
 1161) 上船. 제일 큰 배.
 1162) 船隊. 여러 척의 배로 조직된 편대.
 1163) 望船. 망을 보는 배.
 1164) 거북선과 고래선. ‘고래선’은 큰 배를 이름인 듯.
 1165) 팔대선과 사대선 모두 배의 종류인 듯하나 불명.
 1166) 배의 한 종류인 듯하나, 불명.
 1167) 거루. 나무터를 건너다니는 종류의 돛도 달지 않은 작은 배. 나머지는 모두 배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인 듯.
 1168) 키. 배의 뒷부분에 장치하여 배가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판대기.
 1169) 용충줄과 마룻줄. ‘용충줄’과 ‘마룻줄’은 같은 말임. 돛대 맨 꼭대기에 도르래로 연결하여 돛을 올리고 내리는 줄.
 1170) 끊어져.
 1171) 땀으로 지붕을 덮은 집처럼 생긴 곳. ‘땀’은 배에 실은 짐을 덮어서 빗물을 막는 거적.
 1172) 불명.
 1173) 배에서 뿔감으로 사용하는 긴 나뭇가지인 듯. 본래 ‘화라지’는 옆으로 길게 뻗어나간 나뭇가지를 뿔나무로 이를 때 쓰는 말임.
 1174) 배를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 널빤지.
 1175) 紅陽傘. 붉은색 양산.
 1176) 靑日傘. 푸른색 일산.
 1177) 司命旗. 부대의 대장이 휘하의 군대를 지휘할 때 쓰던 기.
 1178) 紅神旗・白神旗・黃神旗・靑神旗・黑神旗. 중오방기(中五方旗)임. ‘중오방기’는 군대

- 에서 사용하던 깃발로, 동서남북과 중앙에 하나씩 세웠는데,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탄 신장(神將)을 그렸음.
- 1179) 소소리바람. 이른 봄에 살 속으로 기어드는 듯이 맵고 찬 바람. 혹은 회오리바람.
- 1180) 狂風.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
- 1181) 등실등실.
- 1182) 還刀. 옛 군복에 갖추어 차는 긴 칼.
- 1183) 三枝槍.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
- 1184)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 칼날의 끝이 넓고 뒤로 젖혀져 초승달 모양임.
- 1185) 靑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 칼날이 끝이 넓고 뒤로 젖혀져 초승달 모양임.
- 1186) 鐵弓. 쇠뇌. 보통 활이 그냥 잡아당겨 쏘는 데 비해, 줄을 당겨서 꼭지에 걸어가지고 겨냥하여 쏘는 장치의 활을 말한다.
- 1187) 矮箭片. 짧은 화살. 보통 화살의 1/3 크기임.
- 1188) 불명.
- 1189) 살방패(防牌). 화살을 막는 방패.
- 1190) 불명.
- 1191) 쇠로 만든 도리깨. 무기의 일종.
- 1192) 肅靜牌. 사형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떠들지 못 하도록 ‘肅’ 자와 ‘靜’ 자를 적어서 세워놓는 나무 패.
- 1193) 節斧鉞. 조선조 때 지방의 관찰사, 유수, 병사, 수사, 대장, 통제사들이 부임할 때 임금에 주던 절과 부월. ‘절’은 수기(手旗)와 같고, ‘부월’은 도끼같이 만든 것으로 군령에 대한 생활권을 상징하였음.
- 1194) ‘긴 막대’인 듯.
- 1195) 불명.
- 1196) 불명.
- 1197) 鳥銃. 구식 장총.
- 1198) 화승총에 재는 화약을 담은 통.
- 1199) 불명.
- 1200)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무쇠로 만든 물건.
- 1201) 喇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 1202) 날라리 또는 호적(胡笛)이라고도 하는 국악 관악기의 일종.
- 1203) 鐙. 징.
- 1204) 哮囉. 발. 소라고동으로 만든 관악기.
- 1205) 風飛雷散, 사방으로 날아 확 흩어짐.
- 1206) (어떠한 물체가 일정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몹시 흔들림.
- 1207) 대낮처럼 밝은 빛.
- 1208) 無罪한. 죄 없는.
- 1209) 百萬 大兵. 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

- 1210) 一時陷沒. 한꺼번에 물이나 땅 속에 모조리 빠짐.
 1211) 실답지 않게. '실답다'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다.
 1212) 화를 내서.
 1213) 切痛히. 매우 원통하게.
 1214) 자꾸 기어 올라가는 모양.
 1215) 三代獨身. 삼 대를 외아들로 내려온 사람.
 1216) 砒霜. 극약의 일종.
 1217) 다섯 돈의 무게. '돈'은 무게의 단위로 약 3.75 그램.
 1218) 橫死. 사고로 갑자기 죽음.
 1219) 急死. 갑자기 죽음.
 1220) 卽死. 그 자리에서 죽음.
 1221)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음.
 1222) 惡死. 험악하게 죽음.
 1223) 縊死. 목 매어 죽음.
 1224) 合死.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죽음.
 1225) 大海. 큰 바다.
 1226) 喪亡. 잃어버림.
 1227) 謀士. 남을 위해 꾀를 내어주는 사람.
 1228) 無用. 소용이 없음.
 1229)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
 1230) 紅顏. 혈색이 좋은 얼굴.
 1231)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1232) 一隻船. 한 척의 배.
 1233) 船頭. 뱃머리. 배의 앞부분.
 1234) 長槍. 긴 창.
 1235) 寶劍. 아주 좋은 칼.
 1236) 함부로 크게 지르며.
 1237) 달리지. 달아나지.
 1238) 遑急. 정신없이 급함.
 1239) 紅袍. 붉은색 도포.
 1240) 戰笠. 병거지.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
 1241) 빼앗아.
 1242) 수염.
 1243) 길고.
 1244) 노란.
 1245) 甘寧. 오나라 장수. 손권에게 계책을 올려 황조(黃祖)를 처부수고, 주유와 함께 조조를 쳐서 큰 공을 세워 강표호신(江表虎臣)이라 불렸고, 벼슬은 정충장군이었다.
 1246) 左右翼. 군대의 대오에서 좌우에 벌이어 있는 부대.

- 1247)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힐.
- 1248) 進退難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없음.
- 1249) 敗軍. 싸움에서 진 군대.
- 1250) 삼강수전(三江水戰) 적벽오병(赤壁鏖兵). 삼강에서 수전을 벌여 적벽에서 병사를 모조리 죽임. '삼강'은 적벽대전이 벌어졌던, 현 호북성 가어현 동남쪽 양자강 남안에 위치한 지명.
- 1251) 魂飛魄散. 몹시 놀라 혼이 나고 넋을 잃음.
- 1252) 程昱. 조조의 모사(謀士). 동군(東郡) 동아(東阿) 사람으로, 자는 중덕(仲德). 순욱의 천거로 조조의 막하에 들었으며, 벼슬이 위위(衛尉)에 이르렀다.
- 1253) 敗軍卒. 싸움에서 패한 병졸.
- 1254) 領去. 함께 데리고 가거나 가지고 감.
- 1255) 天方地軸으로,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상태로.
- 1256) 烏林.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 1257) 山高谷深.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음.
- 1258) 세차게 불고.
- 1259) 氷板石渠. 얼음판과 돌로 독을 쌓은 수로(水路).
- 1260) 半生半死. 반은 살고, 반은 죽음. 거의 죽게 된 모양.
- 1261) 殆半. 거의 절반.
- 1262) 一時陷沒. 한꺼번에 물이나 땅 속에 모조리 빠짐.
- 1263) 웃습니까?
- 1264) 취새끼지.
- 1265) 헛된 장담(壯談).
- 1266) 山上에서. 산 위에서.
- 1267) 桴鼓소리. 쉴 사이 없이 마구 치는 북소리.
- 1268) 荊山.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산. 질 좋은 옥이 남.
- 1269)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
- 1270) 기린처럼 긴 허리.
- 1271) 白布鱗掩身甲. 흰 베로 미늘을 만든 몸을 가리는 갑옷.
- 1272) 蛇矛長槍. 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생긴 긴 창.
- 1273) 함부로 크게 질러.
- 1274) 常山. 상산 출신의.
- 1275) 아느냐.
- 1276) 모르느냐?
- 1277) 기겠는가?
- 1278) 날겠는가?
- 1279) 飛上天. 하늘로 날아 올라감.
- 1280) 두더지.

- 1281) 일구거나 팔까?
 1282) 올리.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도록 위협하여.
 1283) 여기 가서.
 1284) 저기 가서.
 1285) 매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는 36cm, 부리는 3.2cm 가량임.
 1286) 날째게 빼앗거나 움키어 가지듯.
 1287) 秋風落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1288) 僅僅圖生. 겨우 살기를 도모함.
 1289) 火焰. 불꽃. 불길.
 1290) 將卒. 장수와 병졸.
 1291) 화살.
 1292) 寸步. 조금 걷는 걸음. 몇 발자국 못 되는 걸음.
 1293) 十轉九倒. 열 번 구르고, 아홉 번 자빠짐. 곧 여러 번 구르고 자빠짐.
 1294) 겨우.
 1295)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1296) 어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1297) 그치지 않네.
 1298) 雨中에. 비오는 가운데.
 1299) 葫蘆谷. 호리병박처럼 갈수록 좁아지는 골짜기.
 1300) 漢水. 중국 섬서성 영강현에서 발원하여 호북성을 관류하는 양자강의 지류.
 1301) 강이나 바다의 물살이 세게 흐르는 얇은 곳.
 1302) 내린. 흘러내린.
 1303) 寂寂산골. 고요한 산골짜기.
 1304) 清溪上. 맑은 시냇물 위.
 1305) 紅蓼月色. 잎이 지고 빨간 대만 남은 물가의 여뀌풀에 비치는 달빛.
 1306) 곳이고?
 1307) 漁笛數聲. 어부들이 부는 피리 소리 몇 마디.
 1308)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떠서.
 1309) 期約. 때를 정하여 약속함.
 1310) 困하게.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1311) 千里 本國. 천 리나 멀리 떨어진 자기 나라.
 1312) 대낮의 햇볕.
 1313) 禦寒. 추위를 막음.
 1314) 火兵. 불을 때서 취사를 하는 병사.
 1315) 中官. 내시.
 1316) 火兵. 불을 때서 취사를 하는 병사.
 1317) 품질이 낮은 솜씨로 만든 노구술. ‘노구술’은 솜씨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1318) 짚으로 만든 수세미.

- 1319) 끓이거나 찢 물건을 솥에다가 넣고.
 1320) 부시.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키는 쇧조각
 1321) 조금. 잠깐.
 1322) 끓어 넘치오.
 1323) 陵遲處斬. 머리, 팔, 다리 몸뚱이를 토막내는 극형에 처함.
 1324) 들어 보십시오.
 1325) 깃. ‘부싯깃’의 준말. ‘부싯깃’은 부시를 쳐서 불뚱이 될 때 불이 붙도록 부싯돌에 대는 물건. 수리치, 쭉잎 등을 볶아 곱게 비벼서 사용하기도 하고, 흰 종이나 솜 따위에 잿물을 여러 번 묻혀서 사용하기도 한다.
 1326) 해산물이나 나물 종류에 참새풀이나 간장을 발라서 말린 것을, 굵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한 반찬.
 1327) 땡기니. 불이 옮겨 붙으니.
 1328) 中官. 내시.
 1329) 亡相. ‘망할 승상’이란 뜻으로 지어 붙인 말.
 1330) 伏兵. 갑작스레 적을 내치려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는 군사.
 1331) 擗鼓소리. 쉴 사이 없이 마구 치는 북소리.
 1332) 먹의 조각. 먹의 날개.
 1333)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1334) 다복술처럼 더부룩하고 역세며 곱슬곱슬하게 난 수염.
 1335) 함부로 크게 지르며.
 1336) 性情. 성질과 심정.
 1337) 左右翼. 좌우로 날개처럼 벌여 있는 군대.
 1338) 敗陣. 전쟁에서 패한 진영.
 1339) 如山. 산과 같음.
 1340) 길짐승. 기어 다니는 짐승.
 1341) 겁김이라. 겁이 나는 바람이라.
 1342)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
 1343) 馬下. 말 아래.
 1344) 둥그스름하게 넓적한.
 1345) 거머쥐어 잡고.
 1346) 蜀道之難. 촉 지방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 촉나라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했다고 함.
 1347) 험(險)하다고 한들.
 1348) 이보다.
 1349) 松林. 소나무숲.
 1350) 華容道.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1351) 地境. 땅의 경계.
 1352) 놀래고.
 1353)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나는 긴 털.
 1354) 모양.

- 1355) 일어나 앉아.
 1356) 어떤 것을 대단하게 여기어 반갑게 내는 소리.
 1357) 말의 발굽의 몸통을 일컫는 말.
 1358) 메추리.
 1359) 窒塞. (숨이 꼭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1360) 엎드러지며. 잘못하여 엎어지며.
 1361) 상수(上手). 높은 수나 솜씨, 또는 그런 사람.
 1362) 걸머지고 다니는 망태기처럼 엮어 만든 바랑.
 1363) 기회에.
 1364) 一員. 한 사람.
 1365) 身長. 키.
 1366) 威風. 위엄 있는 풍채.
 1367) 몽툭하고 모양이 없이 생긴 코.
 1368) 朱紅낮. 붉은 얼굴.
 1369)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1370)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1371) (지난날에) 이정표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네 어귀나 길가에 세운 사람 모양의 형상.
 1372) 數表. 수치를 찾기 쉽게 배열한 표. 여기서는 이정표의 수표를 말함.
 1373) 地境. 나라나 지역 따위의 구간을 가르는 경계.
 1374) 風雲.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사회 정치적 사변으로 어지러운 정세'를 비유한 말.
 1375) 左右軍兵. 좌우에 있는 군사들.
 1376) 令. 명령.
 1377) 휘감아 싸서 빼어.
 1378) 木神인데. 나무 신인데.
 1379) 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원을 일컫던 말.
 1380) 軍禮. 군대의 예절. 군대의 인사.
 1381) 樹林間. 나무 숲 사이.
 1382) 魏王. 위나라 왕.
 1383) 萬死無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음.
 1384) (목을) 벨.
 1385) 紛紛하면.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우면.
 1386) 人神. 사람과 귀신.
 1387) 雜糅. 뒤섞임.
 1388) 護山之木. 산을 수호하는 나무.
 1389) 可히. 어지간히. 넉넉히.
 1390) 人形. 사람의 모습.
 1391) 路上. 길 위.

- 1392) 長揖不拜.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아니함.
- 1393) 罪當萬死.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함.
- 1394) 冤痛之情. 원통한 마음.
- 1395) 天地之間. 하늘과 땅 사이. 곧, 온 세상.
- 1396) 萬物之中에. 모든 사물 가운데.
- 1397) 高臺廣室. 규모가 매우 크고 잘 지은 집.
- 1398) 上樑木. 마룻대로 쓰는 나무. '마룻대'는 집의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히는 나무.
- 1399) 龍像畫彩. 용의 모양을 그린 그림의 빛깔.
- 1400) 龍木. 나뭇결이 불규칙하고 고운 재목.
- 1401) 槐木. 회화나무. 콩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 정원수나 가구재로 쓰며, 꽃과 열매는 약용함.
- 1402) 人皆可折. 사람들이 모두 꺾을 수 있음.
- 1403) '가게스즈리'의 오기. 우리말로는 '왜궤(倭櫃)', '왜궤'는 남자가 사용하는 가재도구의 일종. 네모난 궤로, 앞에 두 개의 여단이문이 달려 있고, 안에 여러 개의 서랍이 있다.
- 1404) 粉壁紗窓. 하얗게 회를 칠한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 여자가 거처하는 아름답게 꾸민 방.
- 1405) 寥寂. 적적하고 고요함.
- 1406) '밤나무'의 '밤'이 지루하다고 한 것임.
- 1407) 大家. 대대로 내려오면서 세력 있고 번창한 집안. 대갓집.
- 1408) 影堂.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
- 1409) 神主. 죽은 조상의 벼슬과 이름을 써서 사당에 모시는 나무 패.
- 1410) 正朝. 설날 아침.
- 1411)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 1412) 端午. 음력 5월 5일.
- 1413) 滿盤珍羞. 상에 가득 찬 좋은 음식.
- 1414) 焚香. 향을 피움.
- 1415) 添酌. 제사를 드릴 때 셋째 번 술잔(종헌, 終獻)을 드린 잔에 다른 제관이 다시 술을 가득하게 채워 붓는 일. 여기서는 헌작(獻酌)이어야 옳음. '헌작'은 제사를 드릴 때에 술잔을 올리는 일.
- 1416) 讀祝. 축문을 읽음.
- 1417) 自別. 친분이 남보다 특별함.
- 1418) 尊重. 높고 귀함.
- 1419) 石上. 바위 위.
- 1420) 碧梧桐. 나무 껍질이 푸른 빛을 띠는 오동나무.
- 1421) 五絃琴. 순임금이 탔다는 다섯 개의 줄이 있는 비파.
- 1422) 腹板. 가야금이나 거문고, 또는 이와 비슷한 악기의 소리가 울리는 부분.
- 1423) 大舜. 위대한 순임금.
- 1424) 膝上. 무릎 위.
- 1425) 비스듬히.

- 1426) 악기 소리를 흉내낸 말.
 1427) 月宮. 달.
 1428) 桂樹나무. 달나라에 있다는 전설 속의 나무.
 1429) 姮娥. 달 속에 산다는 선녀.
 1430) 亭子. 경치가 좋은 곳에 한가히 놀려고 지은 집.
 1431) 瑤池宴.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인 요지에서 선녀 서왕모가 벌이는 잔치.
 1432) 碧桃. 신선들이 먹는다는 푸른 복숭아.
 1433) 西王母. 곤륜산에 산다는 전설 속의 선녀.
 1434) 魯나라. 춘추전국시대 산둥성 곡부에 세운 나라. 공자가 태어난 나라임.
 1435) 講壇. 강의나 강연 따위를 하는 사람이 서도록 좀 높게 만든 자리.
 1436) 吳나라. 춘추전국시대 양자강 하류 지역에 있던 나라.
 1437) 오자서(吳子胥).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장군. 이름은 원(原). ‘자서’는 자(字). 본래 초나라 사람이었으나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나라 평왕에게 복수하려고 오나라에 망명하여, 평왕에게 복수하였다. 월나라를 쳐서 월나라 왕 구천의 항복을 받았으나, 후에 간신들의 말을 믿은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하자, 식구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두 눈을 빼어 동쪽 성문에 걸어 두어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하라”고 하였다 한다.
 1438) 表하였고. 어떤 태도나 뜻 따위를 나타내었고.
 1439) 秦나라. 춘추전국시대 여러 나라 중 하나. 시황(始皇)이 기원 전 221년에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음.
 1440) 老松. 늙은 소나무.
 1441) 진시황이 태산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피한 소나무에게 오대부(五大夫)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함.
 1442) 天下에.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1443) 杗木. 두꺼운 널빤지.
 1444) 棟梁. 대들보.
 1445) 大廣板. 크고 넓은 나무 판.
 1446) 樵童. 땔나무를 하는 아이.
 1447) 方長不折. 한창 자라는 나무는 꺾지 않음.
 1448) 긴 물체의 위쪽 부분.
 1449) 잘라.
 1450) 防川말. 독의 흠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는 말뚝.
 1451) 馬板. 마굿간에 끼는 판자.
 1452) 개의 발을 담아주는 기구.
 1453) 번소에서 똥을 치내는 데 쓰는 가래. 가래는 삼처럼 생긴 농기구의 한 가지.
 1454) 덕대를 만드는 나무. ‘덕대’는 예전에 아이의 시체를 비바람이나 짐승 따위의 피해나 막을 정도로, 시렁이나 선반을 만들어 올려 놓고, 그 위에 벗짚으로 엮은 용마름을 올려놓은 것.

- 1455) 大門中枋. 대문의 중방. ‘중방’은 벽의 중간에 건너지른 나무. 따라서 이는 ‘인방’의 잘못. ‘인방’은 벽을 치거나 문을 달기 위하여 기둥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로, 문짝의 위아래 틀과 나란하게 놓는다.
- 1456) 작두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작두’는 짚, 콩깍지 따위의 마소의 먹이를 발로 디디어가며 썰는 연장.
- 1457) 地官.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밋자리 따위를 잘 보는 사람.
- 1458) 合力. 힘을 합침.
- 1459) 온.
- 1460) 朱紅漆. 붉은색 칠.
- 1461) 붉게.
- 1462) 八字없는. 팔자에 없는. 평생의 운수에 없는.
- 1463) 紗帽. 벼슬아치가 관복을 갖추어 쓸 때 쓰는 모자.
- 1464) 胸腹部. 가슴과 배 부분.
- 1465) 北去. 북쪽으로 감.
- 1466) 까마귀.
- 1467) 不避風雨. 비바람을 피하지 못 함.
- 1468) 半生半死. 반은 살고 반은 죽음. 곧, 거의 죽을 지경임.
- 1469) 그다지. 그런 정도로까지.
- 1470) 逆賊謀議. 제 나라나 제 임금에게 반역하려고 은밀히 의논하는 일.
- 1471) 至重. 매우 중함.
- 1472) 斬. 목을 베어 죽임.
- 1473) 洞燭. 깊이 헤아려 살핌.
- 1474) 千萬祝手. 수없이 두 손 모아 비는 일.
- 1475) 空山. 빈 산.
- 1476) 風落之木. 저절로 죽거나 바람에 꺾인 나무.
- 1477) 放送. 내어 보냄.
- 1478) 葫蘆酒. 호로병에 담은 술. ‘호로병’은 호리병박처럼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간 병으로, 흔히 술이나 약재를 담는 데 씀.
- 1479) 술이 어느 정도 취하여 정신이 어릿하게.
- 1480) 철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 1481) 거기.
- 1482) 敗. 싸움에서 짐.
- 1483) 吳漢陣. 오나라와 한나라의 진영.
- 1484)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 1485) 종실(宗室)이네. ‘종실’은 임금의 친족.
- 1486) 거만스러운 태도.
- 1487) 陽山 菜麻田. 양산의 채소나 삼을 가꾸는 밭. 유현덕은 탁군 누상춘 사람이므로 양산과는 관련이 없음.
- 1488) 사람이 앉거나 눕도록 하기 위하여 바닥에 끼는 물건. 긴 네모 모양이며, 왕골·부

들·갈대 같은 것으로 째.

1489) 끈이나 줄 따위로 꿰매거나 동이거나 하여 무엇을 만들고.

1490) 짚신.

31491) 生計. 살아나갈 방도나 형편.

1492) 손아랫사람을 좀 쉽게 이르는 말.

1493) 河東, 황하의 동쪽 지방. 오늘날 산서성(山西省) 안읍(安邑).

1494) 사기그릇을 파는 장사.

1495) 店漢, 토기나 철기 따위를 만드는 사람.

1496) 飛虎지. 나르는 호랑이와 같지.

1497) 모두. 전부.

1498) 둥글게 빙 둘러서 베어내고.

1499) ‘방정맞은 놈’과 같은 뜻의 욕으로 사용한 말임.

1500) 先代. 앞 세대. 조상.

1501) 常山의 돌구멍.

1502) 형제만 쏙 내밀거나 나타남.

1503) 눈동자의 둘레에 흰 테가 있는 눈.

1504) 크고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505) 猪肉장사. 돼지고기 장사.

1506) 되바라지고 얇게.

1507) 農土生. 농사꾼을 얹잡아 일컫는 말.

1508) 敦篤. 두텁고 후함. 여기서는 ‘세다’는 뜻으로 썼음.

1509) 힘.

1510) 어떤 집의 대대로 이어오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1511) 더 말할 나위도 없고.

1512) 實尊長. 실제로 나이가 많은 어른.

1513) 언뜻.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는 모양.

1514) 王侯將相이 따로 씨가 없다. 왕, 제후, 장수, 재상이 따로 씨가 없다. 곧,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

1515) 兵驕者는 敗라. 병사를 사용하는 데 교만한 자는 패배한다.

1516) 劉賢主. 유씨 성을 가진 어린 임금이란 뜻으로 유비를 가리키는 말.

1517) 一人. 제일가는 사람.

1518) 糜夫人. 유비의 부인. 유비에게는 감부인(甘夫人)과 함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미부인에게만 아들을 두어 아명(兒名)을 아두(阿斗), 이름을 선(禪)이라 하여,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라 흔히 후주(後主)라 부른다. 미부인은 당양과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조자룡에게 아두의 보호를 당부한 뒤 자신은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1519) 甘夫人. 유비의 두 부인 중 한 사람. 미부인이 죽은 뒤 혼자 유비를 받들다가, 유비가 형주(荊州)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1520) 體統. (사람의) 차리는 틀이나 체면.

1521) 壯하심.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하심.

- 1522) 忠烈之心.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
- 1523) '당양과 큰 싸움'의 잘못. 山陽水 큰 싸움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조 자룡이 아들을 구한 싸움은 당양과 싸움임.
- 1524) 阿斗. 미부인에게서 낳은 유비의 아들. 유비가 죽은 뒤에 황제의 지위에 올라 후주(後主)로 일컬어졌음.
- 1525) 八萬陣中. 팔만 명의 병사들 가운데.
- 1526) 橫行.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
- 1527) 함부로 크게 지르던.
- 1528) 八陣圖. 중군을 가운데 두고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陣)을 배치한 진법(陣法)의 그림.
- 1529) 縮地法. 도술에 의해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 1530) 任意로. 마음대로.
- 1531) 點考.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1532) 하십시오.
- 1533) (남의 언행을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않게 해석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 1534) 휘두르며.
- 1535) 鳴金二下 大吹打하라. 임금이 행차하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에 군악인 대취타곡을 연주하라고 선전관이 외치던 소리. '명금'은 팽과리와 징을 치는 군악(軍樂)이며, '대취타'는 '무녕자곡(武寧之曲)'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진할 때에 쓰던 음악.
- 1536) 令. 명령.
- 1537) 날라리, 호적이라고도 하는 전통 국악 관악기의 일종.
- 1538) 草琴. 풀잎피리.
- 1539) 흠어진.
- 1540) 諸將. 여러 장수.
- 1541) 半身不隨. 전신의 어느 한 쪽이 기능을 잃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사람.
- 1542) 白孔千瘡. 온갖 폐단으로 엉망진창이 됨을 비유한 말.
- 1543) 氣盡. 기운이 다 떨어짐.
- 1544) 冷病. 찬 기운을 얻어서 생기는 병. 배가 차서 일어나는 장카타르나, 여자의 아랫배가 차서 일어나는 자궁병을 통틀어 일컬음.
- 1545) 대면보느라고.
- 1546) 병거지. 옛날 주로 하인이나 병졸이 쓰던 툴로 만든 모자.
- 1547) 절뚝절뚝.
- 1548) 放聲痛哭으로.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 1549) 어떻게.
- 1550) 尊重. 높고 중함.
- 1551) 倚閭望. 어머니가 동네의 어귀에 세운 문에 기대어 아들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 1552) 化石之嘆. 돌이 되어버릴 때까지 우두커니 기다리면서 하는 탄식.
- 1553) 死生이 朝夕인데. 죽고 사는 것이 아침 저녁인데.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 1554) 妖妄한. 요사스럽고 망령된.
- 1555) 哭聲. 울음소리.
- 1556) 무던한 군중인 체하느라고. '무던한'은 정도가 어느 기준에 거의 가까운.
- 1557) 말간. 여기서는 '틀림없이' 정도의 의미.
- 1558) 휘두르며.
- 1559) 呼名. 이름을 부름.
- 1560) 一隊長. 첫 번째 부대의 장.
- 1561) 報. 알림. 보고함.
- 1562) 物故. '죽었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말.
- 1563) 그런.
- 1564) 도려낸단. '도리다'는 등글게 빙 돌려서 배어내거나 파다.
- 1565) '좌사파(左司把)'는 군대의 왼편에서 지휘하는 장수이고, '천총(千總)'은 조선시대에 훈련도감, 금위영 등에 속해 있던 정3품의 무관 벼슬. 여기서는 좌사파에 딸려 있는 천총 벼슬의 무관을 가리킨 말인 듯.
- 1566) 자꾸 절뚝거리는 모양.
- 1567) 困하게. 고달파서 힘이 없게.
- 1568) 一刻三秋. 한 시각이 가을 석 달처럼 길게 느껴짐.
- 1569) 軍禮. 군대의 예절. 군대의 인사.
- 1570) 그냥 두면. 그대로 두면.
- 1571)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 행할.
- 1572) 不顧死生.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함.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 1573) 들어주십시오.
- 1574) 一時陷沒. 한꺼번에 물이나 땅 속에 모조리 빠짐.
- 1575) 魂飛中天. 영혼이 하늘을 날아감.
- 1576) 魏國. 위나라.
- 1577) 그림던.
- 1578) 左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왼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579) 안판낙포.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볼썽 내민 사람.
- 1580) 눈의 가장자리의 속눈썹이 난 곳.
- 1581) 입마저.
- 1582) 콧대. 콧등의 우뚝한 줄기.
- 1583) 병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불거나 팔뚝이 없는 팔.
- 1584) 죽지 아니할 정도로 맞은 벼락.
- 1585) 씻어.
- 1586) 그릇.
- 1587) 생김생김.
- 1588) 人醬食. 사람을 잡아 장국을 끓여 먹음.

- 1589) 右旗兵. 임금이 거동할 때 오른쪽에 세우는 기를 맡은 군사.
- 1590) 蛇矛長槍. 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꼴로 생긴 긴 창.
- 1591) 온전하나?
- 1592)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 1593) 싸움.
- 1594) 대단한 권세를 부리면서.
- 1595) 萬無. 결코 없음.
- 1596) 어떤 것을 대단하게 여기어 반갑게 내는 소리.
- 1597) 늘어나는 근원이 될까.
- 1598) 馬兵. 말탄 군사.
- 1599) 어디에. 어디에다가.
- 1600) 말채찍.
- 1601) 허리가 달린 옷의 그 허리를 접어 여민 윗부분.
- 1602) 꽃고.
- 1603) 領去. 함께 데리고 가거나 가지고 감.
- 1604) 火戰. 불로 싸우는 싸움.
- 1605) 限死決斷. 죽기로써 결단함.
- 1606) 선길장수. 봇짐장수, 곧 봇짐을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 1607) 바늘 스물네 개를 단위로 세는 말.
- 1608) 換買. 돈을 주고받지 않고 직접 물건과 물건끼리 바꿈.
- 1609) 奸雄. 간사한 영웅.
- 1610) 弄. 실없는 장난.
- 1611) 天幸. 하늘이 내린 행운.
- 1612) 敗軍將. 전쟁에서 패한 군대의 장수.
- 1613) 환자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구의 하나. 네모난 거적이나 천 따위의 양변에 막대기를 달아 앞뒤에서 맞들게 되어 있다.
- 1614) 팔을 가볍게 저어 바람을 내면서 걷는 모양.
- 1615) 길을 가는 거리도 쉽게 늘어나고, ‘불다’는 수량이 많아지다는 뜻.
- 1616) 그냥. 그저.
- 1617) 아무렇지도.
- 1618) 火兵. 불을 때서 취사를 하는 병사.
- 1619) 전혀 없는.
- 1620) 겨우.
- 1621) 門前乞食. 남의 집 문앞에서 밥을 빌어 먹음.
- 1622) 餓死之境. 굶어 죽을 지경.
- 1623) 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노구술. ‘노구술’은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 1624) 哭聲. 울음소리.
- 1625) 주머니.

- 1626) 엽전 크기 만한.
 1627) 火戰, 불로 싸우는 싸움.
 1628) 山祭, 큰 산의 신령께 지내는 제사.
 1629) 火兵, 불을 때서 취사를 하는 병사.
 1630) 해야, 말해야.
 1631)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1632) 넓다, 몹시 세차게.
 1633) 片片破쇠, 조각조각 부서진 쇠.
 1634) 標的, 표시로 삼는 표.
 1635) 軍糧지기, 군대의 양식을 맡은 군사.
 1636) 纏帶, 무명이나 베 형견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놓고 중간은 막았는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고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하는 자루.
 1637) 局量, 도량이나 궁리.
 1638) 너머에다.
 1639) 내념(內念), 마음 속.
 1640) 上船, 제일 큰 배.
 1641) 짐을 짊어지는 데 쓰는 줄.
 1642) ‘힘’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1643) 彝陵, 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1644) ‘허리 부근의 등뼈’인 뜻.
 1645) 不食, 식사를 하지 않음.
 1646) 敗軍卒, 싸움에 진 병사.
 1647) 그냥.
 1648) 너머를.
 1649) 萬壑千峰, 수많은 깊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1650) 白沙之場, 흰 모래밭.
 1651) 層巖絕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절벽.
 1652) 이제.
 1653) 이제, 방금.
 1654) 속아서.
 1655) 모두, 전부.
 1656) 騎, 말 탄 사람의 수효를 세는 단위.
 1657) 華容山上, 화용도에 있는 산의 위. ‘화용도’는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1658) 南郡大路, 남군으로 가는 큰 길.
 1659) 사물의 현상이 움직이거나 벌어지는 낌새.
 1660) 연기를 피워.
 1661) 虛卽實이요, 實卽虛라. 비어 있는 것 같으면 있고, 있는 것 같으면 비어 있다.
 1662) 小路, 작은 길.

- 1663) 景概. 경치.
 1664) 壯히. 매우.
 1665) 萬壑. 수많은 골짜기.
 1666) 千峰. 수많은 산봉우리.
 1667) 바람 칠 때. 바람이 세차게 불 때.
 1668) 花草木實. 꽃과 풀과 나무 열매.
 1669) 전혀 없고.
 1670) 끊어졌는데. 날아다니지 않는데.
 1671) 赤壁 烏林. 적벽강과 오림. ‘오림’은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1672) 將卒. 장수와 졸병.
 1673) 冤魂. 원한에 사무친 영혼.
 1674) 恨鳥. 한스런 새.
 1675) 지저귀면서 앉아서.
 1676) 꼬리.
 1677) 자꾸 방정맞게 위 아래로 흔들며.
 1678)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1679) 여기 있다.
 1680) 교공(喬公)의 딸인 대교(大喬)와 소교(小喬)를 가리키는데, 둘 다 매우 미인이었다고 함.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교공은 교국로(喬國老)로, 사람됨이 매우 진실하였다고 함.
 1681) 如千. 보통의 어지간한. 약간.
 1682) 冷病. 하체를 차게 하여 생기는 병증.
 1683) 魏兵. 위나라 군사.
 1684) 塗炭에. (진흙 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 빠졌다는 뜻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1685) 歸蜀道. ‘촉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1686) 前哨. 적의 진지 가까이에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경계하기 위하여 전방에 배치하는 작은 부대, 또는 그 초소.
 1687) 바람막이. ‘바람막이는 전라도 무당춤에서, 두 손에 지전을 가지고 팔과 어깨를 활짝 벌린 사위를 이르는 말, 따라서 여기서는 바람막이 자세처럼 두 날개를 짝 벌리고 떠 있는 새를 가리킨 듯.
 1688) 陷沒. 물이나 땅 속에 모조리 빠짐.
 1689) 漢의. 한나라의.
 1690) 草坪大路. 풀이 우거진 넓은 들판의 큰 길.
 1691) 深山叢林. 깊은 산 속 우거진 수풀.
 1692) 일인고? 일인가?

- 1693) 冤魂鳥.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이 변하여 된 새.
 1694) 권속(眷屬). 딸린 식구.
 1695) 바라다가.
 1696) 相思夢.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꿈.
 1697) 겨우.
 1698) 天幸. 하늘이 내린 행운.
 1699) 指向. 일정한 방향을 지정하여 나아감.
 1700) 平生所學. 평생 동안 배운 바.
 1701) 盡心. 마음을 다함.
 1702) 運籌決勝. (주판을 놓듯이) 이리저리 궁리하고 계획하여 승패를 결정함.
 1703) 才不用時不利. 재주도 소용없고, 때도 불리함. 이는 ‘시불리재불용(때가 불리하니 재주도 소용없음)’으로 해야 옳을 듯함.
 1704) 酒色. 술과 여자.
 1705) 限死. 죽기를 각오함.
 1706) 兵書. 군사를 쓰는 방법에 관해 적은 책.
 1707) 三傳六師. 세 사람의 태부(太傅)와 여섯 사람의 태사(太師). ‘태사’, ‘태부’는 주나라 때의 삼정승의 하나임. 따라서 여기서는 천자의 스승이 될 만한 훌륭한 여러 명의 신하를 일컫는 말로, 삼정승 육판서와 비슷한 의미로 쓴 듯함.
 1708) 謀事. 일 꾸미기. 꾸민 일.
 1709) 虛事. 헛 일. 쓸데없는 일.
 1710) 空手. 빈 손.
 1711) 前伏兵. 앞에 있던 복병.
 1712) 後伏兵. 뒤에 일어나는 복병.
 1713) 무슨.
 1714) 死生이 朝夕인데. 죽고 사는 것이 아침 저녁인데. 곧, 그렇게 쉽게 죽을 처지에 있다는 말.
 1715) 哭聲. 크게 소리 내어 우는 소리.
 1716) 地境. 땅의 경계.
 1717) 千里胡風. 멀리서 불어오는 북풍.
 1718) 세차게 부니.
 1719) 連日. 여러 날 계속해서.
 1720) 殆半. 거의 절반.
 1721) 中官. 내시.
 1722)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확실하거나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런 말.
 1723) 山上. 산 위.
 1724) 播鼓소리. 썰 사이 없이 마구 치는 북소리.
 1725) 四時供養. 하루의 네 때 절에서 부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일.
 1726) 떨어지자마자.
 1727) 再次. 다시 한 번.

- 1728)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1729) 劍戟. 칼과 창.
 1730) 大風. 큰 바람. 세찬 바람.
 1731) 揚沙走石. '모래가 날리고 돌맹이가 굴러 달음질한다'는 뜻으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모습을 형용한 말.
 1732) 呈現. 드러나고.
 1733) 司命旗. 군대의 지휘권을 적어서 드리운 기.
 1734) 漢壽亭侯. 조조가 관우에게 내렸던 봉호.
 1735) 惶怯. 겁을 집어먹고 얼떨떨함.
 1736) 기지도. 기어가지도.
 1737) 달리지도. 달려가지도.
 1738) 날지도. 날아가지도.
 1739) 누구인가.
 1740) 여기서는 '싸워보자'는 뜻.
 1741) 旗幟. 군대에서 쓰던 온갖 기.
 1742) 關公일시. 관공인 것이.
 1743) 怨. 원한.
 1744) 가운데가 둥그스름하게 깊숙한.
 1745) 너희들.
 1746) 거기.
 1747) 양아들이기에.
 1748) 寬厚君子. 너그럽고 후한 군자. '군자'는 덕행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
 1749) 보십시오.
 1750) 碧海滄浪. 푸른 바다의 물결.
 1751) '막지른다'의 잘못. '막지르다'는 '못하게 앞길을 가로막다.
 1752) 威風. 위엄 있는 풍채.
 1753) 赤兔馬上에. 적토마 위에. '적토마'는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1754) 鳳투구. 봉황 한 쌍을 조각한 투구.
 1755) 三角鬚. 두 뺨과 턱에 난 수염이 삼각형을 이룬 수염.
 1756)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1757) 靑龍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1758) 함부로 크게 질러.
 1759) 소리.
 1760) 어쩔 도리 없이.
 1761) 말에게.
 1762) 고추처럼 생긴 볼품없는 상투.
 1763) 馬下. 말 아래.

- 1764) 別來無恙. 이래로 별 탈이 없음.
 1765) 薄命. 복이 없고 사나운 팔자.
 1766) 吳賊. 오나라 도적, 곧 손권을 가리킴.
 1767) 患. 근심과 재앙.
 1768) 萬軍兵. 수많은 군사들.
 1769) 楚水. 옛 초나라 땅(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의 강물.
 1770) 吳山. 옛 오나라 땅(지금의 강소성 일대)의 산들.
 1771) 겨우겨우.
 1772) 華容山上. 화용도에 있는 산의 위. ‘화용도’는 호북성 감리현 서북쪽의 화용현으로 통하는 길.
 1773) 반가운.
 1774) 測量. 생각하여 헤아림.
 1775) 일부러.
 1776) 怒氣. 성낸 기운.
 1777) 騰騰하여. 드러내는 어떤 기세가 무서우리만큼 드높아.
 1778) 義將. 의로운 장수.
 1779) 虛言. 빈말. 거짓말.
 1780) 勢窮力盡. 세력이 궁하고 힘이 다함.
 1781) 當初에. 맨처음부터 도무지.
 1782) 漢國. 한나라.
 1783) 祿. 녹봉. 벼슬아치에게 일 년 단위로나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곡식이나 돈 따위.
 1784) 氾濫한. 제 분수에 넘치는.
 1785) 凶賊. 흉한 도적.
 1786) 紛紛함. 뒤송송하고 수선스러움.
 1787) 인하여.
 1788) 생겨난.
 1789) 麒麟閣 문헌 忠臣. 기린각에 문헌 충성스러운 사람.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가 항복해 왔는데, 선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 신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해 기린각에 충신 열 사람의 초상과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이를 가리킴.
 1790) 너로.
 1791) 反하였고. 거슬러 반대되었고.
 1792)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1793) 哭聲. 크게 소리 내어 우는 소리.
 1794) 處處에. 곳곳에. 곳곳마다.
 1795) 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1796) 들어주십시오.
 1797) 許昌.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명. 위(魏)나라의 도읍지.
 1798)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1799) 두 婦人. 유비의 두 부인인 감부인(甘婦人)과 미부인(糜婦人)을 말함.

- 1800) 三日 小宴. 삼일마다 작은 잔치를 벌임.
 1801) 五日 大宴. 오일마다 큰 잔치를 벌임.
 1802) 至誠. 지극한 정성.
 1803) 極待. 극진히 대접함.
 1804) 公文. 공문서.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하는 서류.
 1805) 許多. 수많은.
 1806) 一分. 아주 적은 분량.
 1807) 嫌疑. 의심스럽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1808) 護送. 보호하여 보냄.
 1809) 義人. 의로운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1810) 相逢하겠더니. 상봉하자고 했더니. 서로 만나자고 했더니.
 1811) 敗軍將. 싸움에서 진 군대의 장수.
 1812) 河北大將. 하북지방에서 일어난 원소(元郡)의 부하 대장이란 뜻.
 1813) 顏良. 원소의 부하 장수.
 1814) 文醜. 원소의 부하 장수.
 1815) 함부로 쳐들어오므로.
 1816) 지명인 듯.
 1817) 一腕에. 한 팔에. 곧, 한 번에.
 1818) 빼앗아.
 1819) 有功. 공이 있음.
 1820) 依律當斬. 법에 따라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함.
 1821) 軍令. 군대의 명령.
 1822) 青龍刀. 청룡언월도. 긴 자루 끝에 초승달처럼 생긴 날을 단 칼.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룡도라고 하였음.
 1823) 劉賢主. 유씨 성을 가진 어진 임금이란 뜻으로 유비를 가리키는 말.
 1824) 殘命. 죽음이 가까운 쇠잔한 목숨.
 1825) 斬. 목을 베어 죽임.
 1826) 赤兔馬.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로, 온 몸이 붉은 빛이 나는 말. 관우가 죽자 굶어 죽었다고 함.
 1827) 戰袍. 장수가 입는 긴 옷.
 1828) 龍劍. 청룡도를 가리킴. 관우가 쓰는 칼은 칼날을 청룡이 물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임.
 1829) 바인데. 것인데.
 1830) 그것인들.
 1831) 智伯之臣 豫讓. 지백의 신하 예양. 예양은 전국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백이 그를 아꼈는데, 지백이 조(趙)나라를 치다가 죽자, 그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음.
 1832) 趙襄子. 조나라의 양자. ‘양자’는 전국시대 조나라의 경(卿).
 1833) 匕首. 작고 날카로운 칼.
 1834) 宮中塗廁. 궁중의 변소에 칠을 칠함. 예양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칠을 칠하는 사람으

로 위장하여 죽일 기회를 엿본 일을 가리킨. 예양은 조양자를 죽이지 못하고 잡혔으나, 의인이라고 하여 살려주었다. 예양은 다시 문둥이로 변장하여 다리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으나 또 잡히게 되자, 양자의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칼을 뽑아 세 번 찌른 후에, '지백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며 자살했다고 함.

- 1835) 義人. 의로운 사람.
- 1836) 말씀하시고.
- 1837) 吾謹避之. 내가 조심하여 피함.
- 1838) 仁厚. 마음씨가 어질고 너그러움.
- 1839) 將卒間에. 장수와 졸병이고 간에 모두.
- 1840) 哀乞.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뵈.
- 1841)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 1842) 으르는데.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써 겁을 먹도록 위협하는데.
- 1843)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있으니.
- 1844) 굴러 넘어지며.
- 1845) 周倉. 관우 수하의 천하장사. 본시 황건적 장보(張寶)의 부하 장수였다가 관우를 만나 그를 섬겼다. 관우와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하다가 죽었다.
- 1846) 鴻門宴.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섬서성(陝西省) 임동현(臨潼縣) 동쪽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연 잔치.
- 1847) 項莊. 항우의 사촌 동생. 홍문연에서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으나 항우의 숙부인 항백(項伯)의 방해로 죽이지 못하였음.
- 1848) 항장이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으나 항백의 방해로 죽이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말.
- 1849) 養虎遺患. '범을 길러 화근을 남긴다'는 뜻으로, '화근을 길러 걱정거리를 산다'는 말.
- 1850) 敗軍卒. 싸움에서 진 군사들.
- 1851) 出戰諸將. 전쟁에 나간 여러 장수.
- 1852) 賀禮. 축하하는 예식. 축하하는 인사.
- 1853) 默默不答. 아무 대답이 없음.
- 1854) 노여워. 노엽게.
- 1855) 回軍. 군사를 돌려 돌아옴.
- 1856) 叩頭. 머리를 조아림. '조아리다'는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뜻을 보이거나 애원하느라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자꾸 숙이다.
- 1857) 漢太祖. 한나라를 세운 고조(高祖) 유방(劉邦)을 가리킨 말.
- 1858) 한 고조 유방이 그가 미워하던 웅치(雍齒)를 제후에 봉하여, 다른 여러 장수들을 진무한 일을 가리킨.
- 1859) 于公. 항우의 부하 장수. 항우가 망한 뒤 유방에게 귀순하였으나 불충하다 하여 참형에 처했음.
- 1860) 梟首.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형벌.
- 1861) 紅戰袍. 붉은색 전포. '전포'는 장수가 입는 긴 옷옷.
- 1862) 臺下에. 흙이나 돌을 높이 쌓아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대의 아래.

- 1863)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 1864) 拱手長揖. 두 손을 마주 잡고 길게 읊을 함. ‘읍’은 인사하는 예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 1865) 然後에. 뒤에.
- 1866) 先生前. 선생 앞. 선생께.
- 1867) 結義. 의리로 관계를 맺음.
- 1868) 不俱同年同月同日生.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나지 못함.
- 1869) 只願同年同月同日死. 다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함.
- 1870) 무슨.
- 1871) 世人. 세상 사람들.
- 1872) 日後. 뒷날.
- 1873) 그것으로.
- 1874) 贖罪. 저지른 허물을 물질이나, 또는 이전의 공로로써 비기어서 없앴.
- 1875) 賢主. 어진 임금. 여기서는 유비를 가리키는 말.
- 1876) 合掌. 두 손을 모음.
- 1877) 伏地. 땅에 엎드림.
- 1878) 神出鬼沒. 귀신같이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 1879) 臥席終身. 제 명을 다 살고 자리에 누워 죽음.
- 1880) 三分天下.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짐.
- 1881) (대답이나 대하는 태도가) 까다롭지 않고 시원하게.
- 1882) 論功行賞. 공을 평가하여 상을 주거나 표창함.
- 1883) 大宴. 큰 잔치.
- 1884) 排設. 의식이나 연회에서 필요한 것을 벌이어 베풀.
- 1885) 言哉無窮. 할 말이 끝이 없음.
- 1886) 판소리의 끝에 사용하는 말로, 북소리를 흥내낸 말임.